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 연구
-<취교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진 씨 벽 봉
Tran Thi Bich Phuong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 연구
-〈취교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종 철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함.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진 씨 벽 봉

Tran Thi Bich Phuong

진씨벽봉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원장 _____(인)

부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해서 고전소설 <춘향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그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 문학의 교육은 여전히 지식 중심, 혹은 교사 중심의 방식이 주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문학의 교육은 과제 중심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과 베트남은 동일한 한문 문화권에 속했던 어문 공동체로, 문화·역사·사회의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이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학의 교육에 있어서 양국의 비슷한 문학 작품 비교를 통해 동질성과 이질성을 발견하고 그 까닭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한국 문학과 베트남 문학의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교육에서 비교문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고전소설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제재의 선정이다. 첫째, 한국고전소설 교육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문학 작품은 각각의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정전(canon)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베트남어로 번역된 작품이어야 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춘향전>을 한국 고전소설교육의 제재로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II장에서 베트남 학습자 대상의 한국 고전소설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또한 비교문학의 관점을 적용한 한국 고전소설 교육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다. 비교문학의 관점이란 서로 다른 나라의 문학 간 비교를 통해 공통성과 특수성을 찾아내고 그 문학 작품들이 창작된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공통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춘향전>과 <취교전>의 창작 배경과 서사구조, 작중 인물, 주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춘향전>의 교육 내용을 제시했다. 먼저 근대이행기의 한국과 베트남 사회의 특징을 논의하여 두 작품의 이해에 배경지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를 분석·비교해서 두 작품의 서사구조를 '만남-이별-수난-재회'의 대단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여성 주인공, 남성 주인공, 적대적 인물, 조력적 인물이 다 등장하는 것을 두 작품의 유사점으로 보았다. 또한 모든 인물들의 성격과 인품을 여성 주인공과의 관계 하에 조명하였다. 주제 면에서 보면 <춘향전>과 <취교전>은 신의에 기반을 두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인간해방의 주장, 선행선보(善行善報)라는 생활철학을 표현하고 여성의 사는 권리를 짓밟는 봉건 사회를 고발하는 데에 비슷한 점이 있다.

IV장에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앞선 장에서 도출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를 실험 수업을 통해 실현한 뒤, 수집한 수업 관찰의 자료, 심층 면담 자료, 소감문, 비평문을 분석하여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문제점을 점검·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인 <춘향전> 교육의 방안을 제시했다.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실제의 분석 결과로 학습자의 <취교전>에 대한 스키마가 <춘향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비교·토의 활동이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춘향전>의 의미 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취교전>과의 비교가 <춘향전>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료학습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두 작품의 이해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도록 했다. 작문과제의 분석 결과로 학습자가 자신의 생활관, 가치관, 실생활의 경험으로 작중인물과 주제를 읽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교수·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한편, 실제 수업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 교육제재의 재구성, 시청각 자료 활용, 작품 감독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제공, 스키마의 활성화를 통한 작품의 이해, 비교·토의를 통한 문학 능력 신장, 동영상 자료 시청과 교수 중심의 종합적 토의, 작문 과제 수행을 통한 내면화하기의 절차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수업을 설계했다.

본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 고전소설을 가까이하고 그들의 문학적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문학작품을 능동적으로 이해·해석함으로써 사고력 및 문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내용 및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방법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문학능력, 한국고전소설교육, <춘향전>, <취교전>, 비교문학, 베트남 학습자, 스키마, 비교·토의.

학 번 : 2005-31290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사	5
1) 한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소설교육 연구사	5
2) <춘향전>과 <취교전>의 연구사	9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2
II.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고전소설 교육의 이론	35
1. 한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소설 교육	35
2. 한국고전소설교육에서의 비교문학적 관점	37
3. 한국고전문학 교실에서 베트남 학습자의 특성	46
III.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내용	53
1. <춘향전>과 <취교전>의 창작 배경의 비교	53
1) 근대이행기의 한국 사회의 특징	53
2) 근대이행기의 베트남 사회의 특징	59
3) <춘향전>과 <취교전>의 창작배경 비교	62
2.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 비교	64
1) <춘향전>의 서사구조	65
2) <취교전>의 서사구조	69
3)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 비교	77
3. <춘향전>과 <취교전>의 작중인물 비교	81

1) 여성 주인공: 춘향과 취교	81
2) 남성 중심인물: 이몽룡과 김중, 속생, 서해	98
3) 적대적 인물	114
4) 조력 인물	127
4.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제 비교	136
1) 신의에 기반을 두는 남녀의 사랑	137
2) 인간 해방	141
3) 봉건사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발	156
4) 민중의 사상: 선행선보, 악행악보(善行善報, 惡行惡報)	160
 IV.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방안	 163
1.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목표와 방법	163
2.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설계	165
1)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자료의 제공	171
2) 스키마의 활성화를 통한 작품의 이해	172
3) 비교·토의를 통한 문학능력 신장	175
4) 동영상 자료 시청 및 교사 중심의 종합적 토의	183
5) 작문과제 수행을 통한 학습자의 내면화하기	184
3.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교육의 실제	186
1) 실제 수업	186
2) 효과 분석	192
3) 문제점과 보완 방안	233
 V. 결론	 242
참고문헌	247
Abstract	265

표 목 차

[표 1] 실험수업에서 수집된 연구자료	30
[표 2] <춘향전>의 실제 수업 내용	34
[표 3] <춘향전>의 서사구조	67
[표 4] 다오 주 아잉이 분석한 <취교전>의 이야기 구성	71
[표 5] 당 타잉 레가 분석한 <취교전>의 이야기 구성	71
[표 6] <취교전>의 서사구조	76
[표 7]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 비교	80
[표 8] <춘향전>의 예비 수업 개요	166
[표 9] 2014년에 실시한 <춘향전> 실험 수업 개요	168
[표10] T대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 수업	188
[표11] H대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수업	192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해 베트남 대학 고학년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십여 년 동안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언어사용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넘어서서 한국 문화 이해 능력 향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문화능력과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문학, 특히 고전소설은 효율적인 제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고전소설은 과거 전통시대 문화의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소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엿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역사·문화적 현상들을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고전소설에 있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현상들은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서 묘사되고 설명되기에 학습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상상력에 자극을 주어 당대의 사회·역사·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고전소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에게 유용한 점이 많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 한국문학 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가 교육 현장에서도 실천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론과 실천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이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과 같지 않고, 현장에서의 교육 대상(학습자)의 특성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 온전하게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베트남 대학 한국어학과나 한국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한국 문학

수업이 45시간부터 90시간까지 배정되어 있지만 한국 문학 교육의 목표는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전문적인 교수 인력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학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십여 년 전부터 한국어 교육 과정에 한국 문학 과목을 배정했는데 베트남인 한국어 교사 중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 한국인 강사나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베트남인 문학 전문가에게 강의를 맡긴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국문학 교육에서 활용하는 교재도 같은 상황이었다. 처음으로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교재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문학입문』¹⁾이 1997년에 출간되었는데 한국문학사 소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 소개와 대표작품에 대한 일부 발췌번역에만 그쳤다. 그이어서 2006년에 문학 전공과 동방학 전공, 특히 한국학 전공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교재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문학』²⁾이 나왔는데 역시 한국 문학사와 한국 대표 문학 작품의 소개에만 머무르고 말았다. 이 두 책은 다 베트남어로 서술된 교재라서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본교재로 쓸 만한 것이 아니다.

한편, 2017년에 한국 현대 문학 전공자와 비교문학 전문가에 의해 서술된 『한국문학강의』³⁾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 문학사의 전개에 따라 시대별 문학 특징, 문학 갈래, 대표작에 대해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작의 중요한 삽화도 함께 실어서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이 책도 역시 베트남어로 서술되어 있으며, 번역된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교재로 삼을 만한 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교사 문제와 교재 관련 문제로 인해서,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은 교육내용이 일정하지 않고 교사에 따라 바뀌는

1) Nguyễn Long Châu(1997), *Nhập môn văn học Hàn Quốc*(한국문학입문), Nxb Giáo dục.

2) Trần Thúc Việt(2006), *Văn học Korea (Triều Tiên - Hàn Quốc)*(한국문학),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3) Phan Thị Thu Hiền 외(2017), *Giáo trình Văn học Hàn Quốc*(한국문학강의), Nxb Tổng hợp Tp. HCM.

것이 일반적이었다. 작품을 선정할 때도 동일한 수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보다 교사의 선호, 역량에 따라 선정된 것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한국 문학 수업은 한국 문학사와 한국 대표 문학 작품에 대해 소개하거나 한국문학의 대표작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인 한국어 교사 중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교사가 배출되어 형편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한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문학 교육 연구 성과에 부응하여 베트남 대학 내(內) 한국문학 교육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서 교육 대상으로서 학습자에 대한 고려를 보다 확장해왔다. 그럼에도 한국 문학 교육은 여전히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 또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교사에 따라 학습자가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써서 발표하는 문학수업의 모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습자 개인이나 소그룹이 자신이 준비한 감상문을 발표하는 데에 그쳐, 온전한 학습자 중심의 문학수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문학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 전달받는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있다 하더라도 학습자 자신이 그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문학이 한국 문화 이해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제재라 하더라도 교육 현장과 학습자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적절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문학 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 또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탈피하여 과제 중심 수업 또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서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대화로 진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의 반응을 존중하고 그 반응을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한문문화권에 속했던 나라이기에 사회·역사·문화의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이 존재한다. 이에 학습자의 한국 문화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문학 작품만을 교수·학습하는 것보다 베트남 문학 중 비슷한 작품을 선정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두 작품을 비교·대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한국문학작품과 한국문화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동시에 베트남의 문화와 문학을 반추하고 재평가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본다.

한국과 베트남은 한문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며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과거의 문학에 유사점이 많이 보이지만 직접 영향을 주고받았던 현상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물론 『전기만록(傳奇漫錄)』과 『금오신화(金鰲新話)』처럼 중국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창작한 작품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비교 대상 작품을 선정할 때 대비 연구에서 문학적 주제(추상적 이념이나 인물), 문학 장르(문학의 양식), 문학 운동(시대나 문예사조), 문학 관계(문학 이외의 지적 활동), 문학적 환영(幻影) 등의 기준⁴⁾을 고려하여 대비할 대상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고전소설교육의 대상을 베트남인 학습자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고전소설 교육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문학 작품은 각각의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정전(canon)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자국 문학 작품은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어 초·중·고등학교의 문학교육에서 교수·학습되어야 하며, 한국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한국문학사에서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어 학습자가 자국 문학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문학 지식이나 문학 해석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목표 언어인 한국어로 표현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계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비 대상 작품은 베트남어로 번역된 작품이어야 된다. 왜

4) 김학동(1984), 『비교문학론』, 새문사, 55-56면.

나하면 번역된 작품 읽기를 통해서 그 작품의 내용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한국문학 작품의 언어적 표현이나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해 <춘향전> 교육의 내용을 도출하고 실제 수업을 실행함으로써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 나아가서 한국 고전소설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사

본 연구에서는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해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야의 연구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소설교육 연구사를 검토해서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온 한국고전소설교육 연구의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춘향전>과 <취교전> 관련 연구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춘향전>과 <취교전> 각각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연구사와, <춘향전>과 <취교전>을 비교한 연구물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논의 전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과제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1) 한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소설교육 연구사

5) 윤여탁(2009),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6-1, 한국언어문화학회, 63-64면.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고전소설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수·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측면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방향으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고전소설의 문화적 가치와 언어문화의 가치에 주목해서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에 속하는 양민정은 <춘향전>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교육방법을 제시했으며,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작품 선정 기준, 교수법, 영상 매체 활용, 교재 개발에 대해서 논의했다.⁶⁾ 이정원은 <심청전>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인 가사 노동, 장례문화, 공동체문화, 불교, 가족제도, 효, 세계관, 선악의 행실, 잔치 등을 문화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추출해서 한국어교육의 내용을 논의했다.⁷⁾

또한 이명현은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의 문화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정신문화, 생활문화, 제도문화의 문화교육 내용을 제시했다.⁸⁾ 증천부도 <심청전>을 분석함으로써 한국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했다.⁹⁾ 최지영은 <춘향전>을 분석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¹⁰⁾ 정선희도 국문 장편 고전소설인 <소현성록>을 분석해서 일상과 여가 생활, 예법, 가치관과 제도 등의 한국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안하였다.¹¹⁾

6) 양민정(2003), 「고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방법」, 『국제지역연구』 7,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7) 이정원(2013),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방안」, 『한국고전연구』 27, 한국고전연구학회.

8) 이명현(2014), 「외국인의 한국문화 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가치와 학습 방향 -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7,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9) 증천부(2014),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 <심청전>을 대상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27,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10) 최지영(2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방안 - <춘향전>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31, 한국중원언어학회.

11) 정선희(2018),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이 논문들의 공통점은 한국문화교육 내용 마련을 위해 직접 작품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문화교육의 내용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왕페이(2013)는 <춘향전>을 분석함으로써 한국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절차를 논의하고 교수·학습의 모형을 제시했다. 김혜진은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을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함으로써 한국문화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과 교육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교수·학습의 모형을 제시했다.¹²⁾

위의 연구자들과 달리, 옥청, 공위나, 변지윤, 축취영, 주운학 등은 고전소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교육의 제재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국고전소설 자체를 교육대상으로 삼고 한국고전소설교육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¹³⁾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옥청은 비교문학적 관점을 도입해서 조선근의 <홍루몽>과의 비교를 통해 <춘향전>의 교수·학습 내용을 도출했다. 변지윤은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흥부전>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공위나와 주운학은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관점을 도입해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고전소설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했다. 축취영은 비교문학의 대비연구의 관점과 구성주의 문학교육의 관점을 도입해서 연암소설과 <유림외사>의 비교를 통해

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12) 왕페이(2013),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방안 연구 - <춘향전>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김혜진(2017),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3) 옥청(2005), 「홍루몽」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연구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공위나(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심청전> 교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변지윤(2011),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활성화를 위한 <흥부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축취영(20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연구 : 연암소설과 <유림외사>의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주운학(2017), 「혼사장에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조선조 애정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과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연구들은 실행 연구로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수업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 이해 양상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성찰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한국고전소설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설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안성현, 권순정·송지연, 나은정의 기존 연구 또한 교육 제재 설정과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시사점을 준다.¹⁴⁾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안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법, 발문법 등의 교수·학습 방법과 시각자료 활용 방식 등은 학습자를 고려한 한국고전소설 교육을 기획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설계에 있어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고전소설교육 방안을 연구하는 논문이므로 베트남에서의 한국고전소설교육 연구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언어 기능 습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연구에 비해서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채현은 한국문학과 베트남문학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비교문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한국의 <구지가>, <공무도하가>, <황조가>와 베트남의 <락령꾼과 어우 꺼의 전설>을 언급함으로써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교육의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작품설정 기준이나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가 힘들다.¹⁵⁾

14) 안성현(2006), 「발문법을 통한 고전소설 교육방안 연구 - <춘향전>의 인물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나은정(2015), 「시각자료를 활용한 <춘향전>의 교육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권순정·송지연(2013), 「질문의 생성과 교류를 통한 <춘향전> 수업 연구」,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제92차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

15) 하채현(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교육의 한 방법 - 해외 한국 문학교육의 사례

쩐 티 빅 프엉(Trần Thị Bích Phương)은 <춘향전>의 춘향과 <취교전>의 취교와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실제 수업을 분석함으로써 <춘향전>교육에 있어서 교육 제재, 교수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으며¹⁶⁾, 찐 티 빅 프엉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를 세 집단으로 나눠서 <춘향전>에 대한 실제 수업을 진행한 뒤,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제재 설정 및 처리, 수업 절차 및 교수·학습 방법, 평가법의 측면에 있어서 한국고전소설교육의 방안을 제안했다.¹⁷⁾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성과들을 수용하는 한편, 한국문학교육의 측면에서, <춘향전>과 <취교전>의 비교를 통한 한국고전소설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구안의 문제를 핵심 논의 대상으로 삼아 전체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2) <춘향전>과 <취교전>의 연구사

(1) <춘향전>의 연구사

<춘향전>은 한국의 대표적 고전이라고 평가받기에 지금까지 <춘향전>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춘향전>의 연구사는 그 연구의 핵심 쟁점에 주목해 볼 때 크게 네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다.

를 중심으로 -」, 『언어와 문화』 6-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6) 찐 티 빅 프엉(2013), 「베트남 대학 고학년 한국언어문화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 연구 - <춘향전>의 춘향과 <취교전>(Truyện Kiều, 翠翹傳)의 취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과 교육』 2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17) Trần Thị Bích Phương(2016), Phương pháp giảng dạy văn học Hàn Quốc cho sinh viên ngành tiếng Hàn và Hàn Quốc học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của Việt Nam (từ việc dạy thực nghiệm Truyện Xuân Hương)(<춘향전>의 실험수업을 통한 베트남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공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교육 방법 연구), *Nghiên cứu nước ngoài* 32-3,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첫 번째 시기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인데 이 시기는 <춘향전>이 연구되기 시작한 때로서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대표적 연구자로는 김태준과 조윤제, 이명선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기까지로서, 실증적인 연구 경향이 우세하였다. 이 시기의 주된 연구 문제는 <춘향전>의 문체, 이본, 판소리 발생에 대한 연구였으며, 대표 연구물로서 김동욱의 『춘향전연구』를 들 수 있다.¹⁸⁾ 이 연구에서는 광대, 근원설화, 이본, 장면비교, 문체 등에 대해서 검토했다.

세 번째인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70년대까지는 본격적인 <춘향전> 연구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 시기에는 작품 해석 면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산출되었다. 이상택은 성격심리학을 도입해서 춘향의 행동 분석을 시도했다. 조동일은 <춘향전>의 주제를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누어 살핌으로써 <춘향전>의 주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오세영, 윤홍로는 서양의 비평이론을 도입해서 작품 분석을 시도했다.¹⁹⁾ 또한 이 시기에 이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대표 연구물로서 김동욱·김태준·설성경이 공저한 『춘향전비교연구』를 들 수 있다.²⁰⁾ 작품에 대한 주석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한문본과 창본의 주석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석과 교주 작업에 따라 드러난 대표 연구물로는 구자균 등을 들 수 있다.²¹⁾

네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시기로서 이본, 주제, 삽입가요 및 장르교섭, 수용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등장

18) 김동욱(1965), 『춘향전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 이상택(1981), 「춘향전 연구」,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조동일(1969),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계명논총』 7, 계명대학출판부; 오세영(1976), 「춘향전의 성격 변화」, 『국어국문학』 70, 국어국문학회; 윤홍로(1976), 「화해와 새 질서 - 춘향의 중간자적 기능 -」, 『창작과 비평』 42, 창작과비평사(김영희·이대형, 「춘향전 연구사」, 설성경 편(2004),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국학자료원, 34-35면에서 참조).

20) 김동욱·김태준·설성경 공저(1983), 『춘향전비교연구』, 삼영사.

21) 구자균 교주(1976), 『춘향전』, 민중서관.

했다. 또한 문학 작품을 역사 자료로 보고 학제적 연구 관점을 도입해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현상들을 조명하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 분야의 대표 논문으로서 박희병, 정출현, 오수창, 정궁식, 최혜진, 고시면, 김종철 등을 들 수 있다.²²⁾ 이상의 연구들은 춘향전의 시대상을 조명하고 사회문화적 성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학지리학적 관점이나 조경학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춘향전>의 문화적 성격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 논문으로서 정동호, 김석배, 이원호 외, 김종철 등을 들 수 있다. 정동호, 김석배, 이원호 외는 조경학적 관점에서 광한루원과 춘향의 집 주변 경관과 후원을 고찰했으며, 김종철은 문학교육과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춘향전>에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공간과 장소들을 고찰하였다.²³⁾

<춘향전> 교육에 관한 연구 역시 적지 않은데 특히 김종철은 정전(正典)으로서의 <춘향전>의 성격에 주목하고 교육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²⁴⁾ 이외에도 <춘향전>의 교육적 활용이나 현대적 수용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

22) 박희병(1986), 「판소리에 나타난 현실의식」,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정출현(1993), 「춘향전의 인물형상과 작중역할의 현실주의적 성격」, 『판소리 연구』 4, 판소리연구학회; 오수창(2012), 「춘향전에 담긴 일상의 역사현실과 비판의식」, 『진단학보』 114, 진단학회; 정궁식(2016), 「법의 시각에서 춘향전의 독해 시도」,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최혜진(2016), 「춘향전 인물군의 사회적 성격」, 『한국어와 문화』 20,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고시면(2017), 「21세기 노예해방과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바라본 ‘춘향전’(열녀춘향수절가; 완판 84장본)에 나타난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58, 사법행정학회; 김종철(2018), 「춘향전에서의 법과 사랑」,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3) 정동호(1996),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 춘향의 집 주변 경관과 후원에 관한 고찰」, 『호남문화연구』 2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김석배(2010), 「<춘향전>의 형성배경과 남원」,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이원호 외(2014), 「광한루원의 경관변화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2, 한국전통조경학회; 김종철(2017), 「<춘향전>과 지리 - 문학교육과 지리교육의 공동 영역의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3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4) 김종철(2005), 「정전(正典)으로서의 춘향전의 성격」, 『선정어문』 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김종철(1999) 「춘향전 교육의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1, 고전문학교육학회.

되고 있다.²⁵⁾ 한편, 외국문학과와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연구 역시 꾸준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²⁶⁾ 이는 춘향전의 고전(古典)으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취교전> 연구사

<춘향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의 <취교전>의 연구 또한 엄청난 연구사를 축적하고 있다. <취교전>이 나왔을 때부터 비평문적 소개문이 많이 나왔는데²⁷⁾ 20세기 초에 들어서부터 <취교전>의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다.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이 몇 분야로 나눠 볼 수 있다. <취교전>의 창작배경과 작가론, 창작 시점, 문체론, 서지적 연구, 시학적 연구, 인물론, 주제론, 철학적 가치, 베트남문학사상의 위상과 영향, 비교 문학적 연구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 중 <취교전>에 대한 대표 연구로는 다오 쥬 아잉(Đào Duy Anh), 당 타잉 레(Đặng Thanh Lê), 도 득 죽(Đỗ Đức Dục), 레 덩 끼(Lê Đình Kỳ), 판 응옥(Phan Ngọc) 등을 들 수 있

25) 황혜진(2007), 「춘향전 수용자의 즐거움」; 「춘향전 개작의 텍스트의 서사 변용」,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황혜진(2003), 「춘향전과 순정문화를 통해 본 낭만적 사랑의 형성과 변화」, 『국어교육학연구』 17, 국어교육학회; 서보영(2017), 「영화 <춘향전>의 <춘향전> 수용 양상과 이본으로서의 특징」, 『문학치료연구』 45, 문학치료학회; 서보영(2017), 「고전소설 재구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 서은선(2011), 「한중일 문학 작품에 나타난 애정구현의 양상과 의미: <춘향전>, <서상기>, <증근기심중>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결(2012), 「<춘향전>과 <서상기> 비교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민정(2017), 「춘향전과 쿤창과 쿤팬의 이야기의 애정담 및 여성 의식 비교 연구」, 『외국문학연구』 6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7) Tiên Phong Mộng Liên Đường chủ nhân, Bài tựa Truyện Kiều(<취교전>의 서문), Lê Xuân Li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200년간의 <취교전>의 비평·연구)*, Nxb Giáo dục, 392-396면; Phạm Quý Thích, Tổng vịnh Truyện Kiều(<취교전>의 종영(綜詠)), Lê Xuân Lit(2007), 위의 책, 397면; Đào Nguyên Phổ, Bài tựa Đoạn trường tân thanh(<단장신성>의 서문), Lê Xuân Lit(2007), 위의 책, 401-402면.

다.²⁸⁾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취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세 차례 일어났는 점이다. 첫 번째는 1920-30년대에 벌어진 <취교전>의 가치에 대한 민족혁명가들과 신학(新學) 지식인들 간의 논쟁이었다. 프랑스 식민 정권과 협력하던 팜 쩡(Phạm Quỳnh)은 1924년 8월 『남풍(Nam Phong)』에 실린 연설문²⁹⁾에서 <취교전(Truyện Kiều)>을 베트남 민족의 국화(國花), 국혼(國魂), 국수(國粹)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취교전>이 남아있으면 우리나라의 언어가 보존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언어는 보존되면 우리나라가 실존될 것이니 뭐가 걱정되고 두려운가? 뭐가 의심되는 것인가”³⁰⁾라고 <취교전>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취교전>에 대한 팜 쩡의 칭송이 젊은 이들의 울분을 잠재워서 <취교전>에 몰두하고 나라 잃은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 애국지사 응오 득 께(Ngô Đức Kế)는 1924년 9월 21일에 『호우 타잉(Hữu Thanh, 有聲)』 신문에 「정학(正學)과 사설(邪說)에 대한 논의(Luận về chánh học cùng thuyết)」라는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해서 호되게 반박했다.

그에 의하면 <취교전>은 문장은 좋지만 내용은 남녀의 연애 이야기이니까 애(哀), 음(姪), 수(愁), 원(怨), 도욕증비(道慾增悲)밖에 되지 못한 것이라서 소일거리로 삼을 수 있지만 세상을 가르치는

28) Đào Duy Anh(1943), *Khảo luận về Kim Vân Kiều(<금운교전>에 대한 논고)*, Quan Hải Tùng Thư (Trịnh Bá Đĩnh(2003), *Nguyễn Du - Tác gia và tác phẩm(완유 - 작가와 작품)*, Nxb Giáo dục 재수록); Đào Duy Anh(1974), *Từ điển Truyện Kiều(<취교전>의 사전)*, Nxb Khoa học Xã hội; Đặng Thanh Lê(1979), *Truyện Kiều và thể loại truyện Nôm(<취교전>과 주옌 노)*, Nxb Khoa học Xã hội; Đỗ Đức Dục(1989), *Về chủ nghĩa hiện thực thời đại Nguyễn Du(완유 시대의 현실주의)*, Nxb Văn học; Lê Đình Kỵ(1970), *Truyện Kiều và chủ nghĩa hiện thực của Nguyễn Du(<취교전>과 완유의 현실주의)*, Nxb Khoa học Xã hội; Phan Ngọc(1989), *Tìm hiểu phong cách Nguyễn Du trong Truyện Kiều(<취교전>을 통한 완유의 스타일 연구)*, Nxb Khoa học Xã hội.

29) Phạm Quỳnh, Bài diễn thuyết bằng quốc văn(국문연설문), (Phạm Đan Quế(2003), *Truyện Kiều trên báo chương thế kỷ XX(20세기 신문에 게재된 <취교전>에 대한 논문들)*, Nxb Thanh Niên, 155-159면 참조.)

30) “Truyện Kiều còn, tiếng ta còn, tiếng ta còn, nước ta còn, có gì mà lo, có gì mà sợ, có điều chi nữa mà ngờ.” (Phạm Đan Quế(2003), 위의 책, 155-156면 참조)

정학의 문장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취교전>이 베트남을 통치하면 베트남 사회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명할 것이라고 한다.³¹⁾ 팜 쩡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남풍』에서 한동안 <취교전>을 과잉 칭송하는 기사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후 1930년에 이르러서 판 코이(Phan Khôi)는 쩌 쩡 킴(Trần Trọng Kim)에게 유교에 대해서 답변하는 기사에서 응오 득 께의 지적에 답변하지 않은 팜 쩡을 가리켜서 별학(閼學)이라고 지적하였다.³²⁾ 이에 팜 쩡은 반응했지만 응오 득 께의 지적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응오 득 께가 자기를 비난한 것은 자기를 시기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³³⁾

이에 애국지사 후원 푹 카양(Huỳnh Thúc Kháng)은 1930년 9월 17일에 『띠엥 전(Tiếng Dân, 民音)』에 「정학과 사설은 공통된 관계가 아닌가?」라는 기사를 실어서 팜 쩡의 그러한 논설을 반박했으며 <취교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는 “<취교전>은 소일거리지 공부할 책이 아니다. <취교전>은 바로 음서(淫書)라 해로운 것이지 이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취교전>을 칭송하고 그 작품을 배우도록 격려하는 이가 생겼을 때부터 애정에 몰입해서 사회질서와 자신들의 가풍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젊은이들이 계속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독한 창녀 취교가 사람의 생각에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비롯된 것이다.”³⁴⁾라고 하였다.

31) Ngô Đức Kế, Luận về chánh học cùng tà thuyết(정학(正學)과 사설(邪說)에 대한 논의),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708-1712면.

32) Phan Khôi, Sau khi đọc bài trả lời của Trần Trọng Kim tiên sinh, cảnh cáo các nhà học phiệt(쩌 쩡 킴 선생의 답문을 읽은 후 학벌자에게의 경고), Lê Xuân Lít(2007), 위의 책, 1713-1719면.

33) Phạm Quỳnh(1930), Trả lời bài "cảnh cáo các nhà học phiệt" của Phan Khôi tiên sinh(판 코이 선생의 「학벌자에게의 경고」에 대한 답문), Lê Xuân Lít(2007), 위의 책, 1720-1724면.

34) “Truyện Kiều chẳng qua là một lối văn chương mua vui mà thôi, chứ không phải là thứ sách học; mà nói cho đúng, Truyện Kiều là một thứ dâm thư, rõ không có ích mà có hại. Ở xã hội ta từ có kẻ tán dương Truyện Kiều, truyền bá học Kiều đến nay đã biết bao lớp thanh niên say mê sóng sắc, chìm nổi biển tình, dứt cả nền nếp gia đình, trật tự xã hội mà theo mối ham mê của mình. Hiện xã hội ta ngày nay mà diễn ra những tưởng thưởng phong bại tục kia, cái giống độc con đĩ

결국 팜 쩡이 말한 바³⁵⁾와 같이, 응오 득 께와 후윙 툽 카앙과 팜 쩡 간의 논쟁은 순수한 문학적 논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팜 쩡이 주장하고 있던 <취교전>의 향유 수용 고취를 타파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편, 애국지사의 입장에서 응오 득 께와 후윙 툽 카앙은 문학과 정치, 문학 향유와 국운의 흥망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취교전>의 내용과 문장을 분리시켜서 엄격하게 평가하였다. 후윙 툽 카앙의 기사를 계기로 <취교전>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르우 쯡 르(Lưu Trọng Lư)는 취교가 더러운 곳에 빠져있는데도 청결한 마음을 지켜냈으니 그녀를 엄격하게 평가하면 불공평하다고 취교를 변호해주면서 <취교전>은 있는 그대로 예술적 가치가 존재하니까 젊은이에게 <취교전>을 가르치는 것도 상관없다고 보았다. 그는 문예가 풍부하지 않은 나라에서 <취교전> 읽기를 금지하면 그 국민들의 정서가 무척 가난해질 것이라고 한다.³⁶⁾

두 번째의 논쟁은 1990년대와 2000년대 간에 벌어진 <취교전>의 서지학적 연구에 대한 국내 학자들 간의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황 쑤원 한(Hoàng Xuân Hãn)학자의 <취교전> 연구에 대한 응웬 쩡 뚜원(Nguyễn Quảng Tuân)의 지적으로 시작했다. 1996년에 황 쑤원이라는 학자의 <취교전> 연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문학잡지에 실렸다. 인터뷰에서 그는 50년 동안 <취교전>을 연구해왔는데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취교전>의 원본과 가장 가까운 이본을 추적하기 위해서 여러 고본들을 고증하였고, 특히 기휘(忌諱)문제를 주

Kiều gieo vào trong cõi tư tưởng không phải là ít.” (Huỳnh Thúc Kháng, Chánh học cùng tà thuyết có phải là vấn đề quan hệ chung không(정학과 사설이 공적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가?), Lê Xuân Lít(2007), 위의 책, 1725-1728면 참조.)

35) “Ai cũng biết họ Ngô không phải vì Truyện Kiều mà bình luận Truyện Kiều (응오 씨가 <취교전>을 위한 <취교전>을 비평한 것이 아닌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겠다)”. (Phạm Quỳnh, 앞의 논문, Lê Xuân Lít(2007), 위의 책, 1722면.)

36) Lưu Trọng Lư, Mấy lời chiêu tuyết cho Vương Thúy Kiều(왕취교를 위한 설치 몇 마디) (Góp vào cuộc tranh luận về Truyện Kiều(<취교전>에 대한 논쟁에의 기여)), Trịnh Bá Đình 외(2003), *Nguyễn Du - Tác giả và tác phẩm*(완유 - 작가와 작품), Nxb Giáo dục, 269-273면.

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 룡(Gia Long, 嘉隆) 왕조 시대의 기회를 발견했으며 작품 서두에 있는 “한바탕 상해(桑海) 속에서,/여러 일들 보노라니 마음 아파 오네”라는 시구를 근거로 해서 <취교전>은 자룡 왕조 시대 이전, 심지어 떼이 썸(Tây Sơn, 西山) 시대에 창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⁷⁾

이에 응웬 팡 뚜원은 황 쑤원 한의 <취교전>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³⁸⁾ 다오 타이 툰(Đào Thái Tôn)은 그러한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응웬 팡 뚜원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이 논쟁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³⁹⁾ 이 논쟁은 황 쑤원 한의 <취교전>의 연구 방법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했지만 <취교전>의 창작 시점, 고본들의 가치 평가와 활용방법, ‘반 킵’(bản kinh)⁴⁰⁾과 ‘반 프엉’(bản phường)⁴¹⁾의 여부문제, 쯔놈(쯔놈)의 해독문제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확장되고 <취교전>의 서지학적 연구, 특히 <취교전> 원본의 복원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⁴²⁾ 이 논

37) Thụy Khuê, Học giả Hoàng Xuân Hãn nói về Truyện Kiều(황 쑤원 한 학자의 <취교전> 연구 이야기), Đào Thái Tôn(2001), *Văn bản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취교전>의 서지학적 연구와 토론), Nxb Hội nhà văn, 243-274면 참조.

38) Nguyễn Quảng Tuân, Một vài nhận xét về việc nghiên cứu Truyện Kiều của cố học giả Hoàng Xuân Hãn, Nguyễn Quảng Tuân(2004),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취교전>의 연구와 토론), Nxb Văn học, 233-254면 참조.

39) Đào Thái Tôn, Nhân một bài nhận xét về việc nghiên cứu Truyện Kiều, Đào Thái Tôn(2001), 위의 책, 305-320면.

40) Bản kinh이란 ㅌ ㄷ(ㅌ ㅌ, 嗣德)황제와 신하들이 운색하고 후에(Huế)경성에서 판각한 <취교전>의 판각본을 말한다.

41) ‘Bản phường’이란 하노이에 있는 항 가이(Hàng Gai)거리에서 판각된 <취교전>의 판각본을 말한다.

42) 이 논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문들로는 다음이 있다.

Đào Thái Tôn, 앞의 논문, Đào Thái Tôn(2001), 앞의 책, 305-320면; Nguyễn Quảng Tuân, Trả lời ông Đào Thái Tôn về bài "Nhân một bài nhận xét về việc nghiên cứu Truyện Kiều"(다오 타이 툰의 「<취교전> 연구에 대한 비평에 대하여」에 대한 답문), Nguyễn Quảng Tuân(2004), 앞의 책, 255-264면 참조; Đào Thái Tôn, Trả lời bài “Trả lời ...” của Nguyễn Quảng Tuân(응웬 팡 뚜원의 「답문」에 대한 답문), Đào Thái Tôn(2001), 위의 책, 335-351면 참조; Vũ Đức Phúc, Hoàng Xuân Hãn và việc khôi phục nguyên tác Truyện Kiều(황 쑤원 한의 <취교전>의 복원연구), Đào Thái Tôn(2001), 위의 책, 373-388면 참조; Vũ Đức Phúc, Phương pháp văn bản học chân chính và lỗi làm việc không có phương pháp (Trả lời ông Nguyễn Quảng Tuân)(진정한 서지학적 연구방법 및 방법론이 없는 연구(응웬 팡 뚜원에 대한 답문)),

쟁을 통해서 <취교전>의 서지학적 연구에 있어서 한 새로운 연구 방향⁴³⁾이 형성되었는데 황 쑤원 한의 방법을 따르는 <취교전>의 서지학적 연구⁴⁴⁾라고 불린다. 이 연구 방향의 대표 연구자로서 응웬 타이 겐(Nguyễn Tài Căn)⁴⁵⁾, 다오 타이 톤(Đào Thái Tôn)⁴⁶⁾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의 논쟁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중국 연구자인 동문성(Đống Văn Thành, 董文成)의 논문을 계기로 벌어진 <취교전>의 번역문제와 비교연구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논쟁이었다. 동문성은 <김운교전>과 <취교전(Truyện Kiều)>을 비교 연구한 논문을 명칭 『소설논총(明清小說論叢)』 4, 5에서 발표하였다.⁴⁷⁾ 이 논문에서 그는 황일구(Hoàng Dật Cầu, 黃軼球)가 중국어로 번역한 <취교전

Đào Thái Tôn(2001), 위의 책, 402-427면 참조; Nguyễn Quảng Tuân, Phương pháp văn bản học thế nào là chân chính (Trả lời ông Vũ Đức Phúc)(진정한 서지학적 연구방법은 어떤 연구방법인가?(부 득 폭에게의 답문)), Nguyễn Quảng Tuân(2004), 위의 책, 290-298면 참조; An Chi(2004), Thuyết “intinctivement” của học giả Hoàng Xuân Hãn sẽ làm hồng việc nghiên cứu Truyện Kiều(<취교전> 연구를 망하게 하는 황 쑤원 한의 intinctivement), Nguyễn Quảng Tuân(2004), 위의 책, 299-308면 참조; Nguyễn Quảng Tuân(2004), Kiều Oánh Mậu có phải là kẻ đã làm loạn Truyện Kiều không?(끼에우 와잉 머우가 <취교전>의 혼란을 일으켰을까?), Nguyễn Quảng Tuân(2004), 위의 책, 342-350면 참조.

43) “phương hướng nghiên cứu mới” - 레 타잉 린(Lê Thành Lân)이 사용하는 말 (Lê Thành Lân, Lời nói đầu, Hoàng Xuân Hãn 외(2016), *Nghiên cứu văn bản Truyện Kiều theo phương pháp Hoàng Xuân Hãn*(황 쑤원 한의 방법론에 따르는 <취교전>의 서지학적 연구),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44) 레 타잉 린은 이 연구 방향에 따른 연구물을 선정해서 한 책을 만들었는데 *Nghiên cứu văn bản Truyện Kiều theo phương pháp Hoàng Xuân Hãn*(황 쑤원 한의 방법론에 따르는 <취교전>의 서지학적 연구)이라는 제목을 지었다. (Hoàng Xuân Hãn 외(2016), 위의 책,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참조.)

45) Nguyễn Tài Căn(2002), *Tư liệu Truyện Kiều: Bản Duy Minh Thị 1872*(<취교전>의 자료 연구: 1872년 주 명 티본을 중심으로), Nxb Đại học Quốc gia; Nguyễn Tài Căn(2004), *Tư liệu Truyện Kiều: Từ bản Duy Minh Thị đến bản Kiều Oánh Mậu*(주 명 티본에서 끼에우 와잉 머우본까지의 <취교전>의 자료 연구), Trung tâm Nghiên cứu Quốc học. Nxb Văn học.

46) Đào Thái Tôn(2006), *Nghiên cứu văn bản Truyện Kiều: bản Liều Văn đường 1871*(<취교전>의 서지학적 연구: 1871년 리에우 반 드영본을 중심으로), Nxb Khoa học Xã hội.

47) 동문성(1986), 『명청소설논총』 5-6, Phạm Tú Châu 역, *So sánh Kim Vân Kiều truyện Trung Quốc và Việt Nam*(중국의 <김운교전>과 베트남의 <취교전>의 비교),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542-1574면 참조.)

(Truyện Kiều)>을 연구대본으로 <취교전>과 <김운교전>을 비교해서 “개괄적으로 보면 완유의 <취교전>은 내용 측면이든 예술 측면이든 어느 면에서 봐도 그 작품이 모방한 <김운교전>인 원작과 비견하지 못한다”⁴⁸⁾며, “완유가 원작과 다르게 전개한 디테일이 많지 않지만 대부분 원작의 사상적 예술적 수준만 못하다”⁴⁹⁾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팜 뚜 쩌우(Phạm Tú Châu)는 동문성이 완유의 <취교전>을 이렇게 평가한 것은 황일구의 번역본이 온전하지 못한 점들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어 황일구의 번역본을 검토해서 온전하지 못한 점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취교전>과 <김운교전>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원작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⁵⁰⁾ 진익원(Trần Ích Nguyên, 陳益源)도 황일구의 번역본의 온전하지 못한 점이 <취교전>에 대한 동문성의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팜 뚜 쩌우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취교전>과 <김운교전>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온전한 번역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⁵¹⁾

응웬 카악 프이(Nguyễn Khắc Phi), 황 반 러우(Hoàng Văn Lâu), 응웬 후에 찌(Nguyễn Huệ Chi)는 <취교전>의 번역본을 가지고 <김운교전>과 비교해서 <취교전>에 대한 동문성의 평가가 타

48) “Nhìn tổng thể, tôi thấy Truyện Kiều của Nguyễn Du bất luận về nội dung hay về nghệ thuật (Phần II sẽ nói) đều không vượt được trình độ của bản gốc – Truyện Kiều của Trung Quốc – mà nó mô phỏng.” 동문성(1986), Phạm Tú Châu 역, 위의 논문, Lê Xuân Lit(2007), 위의 책, 1552면.

49) “tuy những chi tiết Nguyễn Du đối khác so với nguyên tác không nhiều song tuyệt đại đa số đều không được như mức độ tư tưởng và mức độ nghệ thuật của nguyên tác.” 동문성(1986), Phạm Tú Châu 역, 위의 논문, Lê Xuân Lit(2007), 위의 책, 1567면.

50) Phạm Tú Châu(1997), Sóng gió bất kỳ từ một bản dịch(번역본으로부터 일으킨 풍파), *Văn học Nước ngoài* 5, Viện Văn học.

51) 진익원(Trần Ích Nguyên), Nghiên cứu so sánh Kim Vân Kiều truyện của Trung Quốc, Việt Nam và tranh luận(중국과 베트남의 <김운교전> 비교 연구와 논의), 진익원(陳益源), 『王翠翹古事研究』, Phạm Tú Châu 역(2004), *Nghiên cứu câu chuyện Vương Thúy Kiều(왕취교의 이야기 연구)*, Nxb Lao động, 135-147면; 진익원, Truyện Kiều của Nguyễn Du cần một bản dịch lí tưởng(완유의 <김운교전>의 이상적인 한문 번역본이 필요하다), 진익원(陳益源), Phạm Tú Châu 역(2004), 위의 책, 148-157면.

당하지 않다면서 동문성의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⁵²⁾ 이 학자들이 <취교전>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김운교전>과 자세히 대조 비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취교전>은 <김운교전>의 플롯을 빌려서 창작되어서 <김운교전>과의 대조 비교연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20세기 초부터 다오 쥬 아잉(Đào Duy Anh)은 <취교전>에 대해서 논의할 때 <김운교전>과 대조 비교하여 <취교전> 문장의 절묘함을 밝혀냈다.⁵³⁾ 레 덩 끼(Lê Đình Kỳ)도 <취교전>의 현실주의에 대해서 논의할 때 <김운교전>과 대조 비교해서 완유가 창조한 점들을 밝혀냈다.⁵⁴⁾ 판 응옥(Phan Ngọc)은 <취교전>을 <김운교전>과 대조 비교해서 완유의 수사법을 밝혀냈다.⁵⁵⁾ 그렇지만 이 학자들은 <취교전>과 <김운교전>을 체계적으로 대조 비교하는 것보다 자신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살펴보았다.

이 학자들과 달리, 팜 단 궤(Phạm Đan Quế)는 <취교전>과 <김운교전>을 체계적으로 대조 비교해서 완유가 완전히 따라한 부분, 생략한 부분, 추가한 부분을 제시하였다.⁵⁶⁾ 동문성의 논문 발표 이후 대조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취교전>과 <김운교전>과의 대조 비교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국의 문화와 문학의 영향 수용까지 확장되었다.

52) Nguyễn Khắc Phi(2001), Nhân đọc bài “Kim Vân Kiều truyện” của Đồng Văn Thành(동문성의 「김운교전의 비교」에 대하여), *Mối quan hệ giữa văn học Việt Nam và văn học Trung Quốc qua cái nhìn so sánh(비교를 통해 본 베트남문학과 중국문학의 관계)*, Nxb Giáo dục, 178-189면; Hoàng Văn Lâu(1998), Cũng là một kiểu "so sánh văn học"(비교문학의 일례), *Hán Nôm* 3,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594-1599면; Nguyễn Huệ Chi(2013), Trở lại câu chuyện so sánh Kim Vân Kiều truyện với Truyện Kiều của ông Đồng Văn Thành(동문성의 김운교전과 취교전의 비교에 대하여), *Văn học Cổ cận đại Việt Nam - Từ góc nhìn văn hóa đến các mã nghệ thuật(문화적 각도에서 예술 코드까지 본 베트남중세문학)*, Nxb Giáo dục.

53) Đào Duy Anh, 앞의 논문, Trịnh Bá Đình(2003), 앞의 책, 321-409면에서 참조.

54) Lê Đình Kỳ(1970), 앞의 책.

55) Phan Ngọc(1985), 앞의 책.

56) Phạm Đan Quế(1991), *Truyện Kiều đối chiếu(<김운교전>과 <취교전>의 대조비교)*, Nxb Hà Nội.

(3) 〈춘향전〉과 〈취교전〉의 비교 연구사

살펴본 바와 같이, 〈춘향전〉과 〈취교전〉 각각에 대한 연구가 오래된 역사를 지니며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엄청난 연구들이 축적되었으며, 그 중에는 뛰어난 성과도 적지 않다. 그에 비해 〈춘향전〉과 〈취교전〉에 대한 비교를 시도한 연구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고 연구물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춘향전〉과 〈취교전〉을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에 앞장선 사람으로는 바렌틴 리(Valentin Ly)를 들 수 있다. 「조선의 춘향전 그리고 완유의 취교전」에서 두 작품의 플롯과 주인공과 주제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비교적 간단한 분석이지만 〈춘향전〉과 〈취교전〉의 비교연구사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⁵⁷⁾ 이로부터 〈춘향전〉과 〈취교전〉의 비교 연구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춘향전〉의 베트남어 번역을 계기로 당 타잉 레가 비교문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두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베트남과 한국 양 민족의 생활 문화적 사건에 미치는 두 작품의 영향을 강조하였다.⁵⁸⁾

그렇지만 〈춘향전〉과 〈취교전〉의 비교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배양수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에 배양수가 〈춘향전〉을 베트남어로 번역함으로써 베트남문학 연구자가 〈춘향전〉과 〈취교전〉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같은 해 「〈취교전〉과 〈춘향전〉 비교연구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석사 학위 논문을 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

57) Valentin Lý, Ngân Xuyên 역(1992), “Truyện Chunhan của Triều Tiên và Truyện Kiều của Nguyễn Du(조선의 춘향전 그리고 완유의 취교전)”, *Văn học* 2, Viện Văn học 참조.

58) Đặng Thanh Lê(1995), “Truyện Kiều và Truyện Xuân Hương từ kiết tác văn học đến sự kiện văn hóa đời sống 2 dân tộc Việt Nam - Hàn Quốc(문학 결작으로부터 베트남과 한국 양 민족의 생활 문화적 현상으로까지 이어온 〈취교전〉과 〈춘향전〉)”, *Văn học* 278-286, Viện Văn học 참조.

로 「〈취교전〉과 〈춘향전〉 비교」라는 박사 논문에서 전면적으로 두 작품을 비교 연구했다. 〈취교전〉과 〈춘향전〉 시대의 문화·사회적 배경, 〈취교전〉과 〈춘향전〉의 플롯과 제재와 장르의 원천 그리고 두 작품의 생활 반영 방식, 그리고 〈취교전〉과 〈춘향전〉의 창작 감흥의 원천과 서사 예술을 통한 인물 형상 세계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두 작품에 영향을 준 문화·사회적 현상들을 강조한다.⁵⁹⁾ 이외에도 배양수가 〈춘향전〉과 〈취교전〉을 비교·연구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여⁶⁰⁾ 〈춘향전〉과 〈취교전〉 비교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응웬 응옥 궤(Nguyễn Ngọc Quế)⁶¹⁾도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춘향전〉과 〈취교전〉을 연구하지만 두 작품의 구성과 여성 수난을 주목했다. 응웬 응옥 궤는 나름대로 〈취교전〉의 연구사, 특히 〈취교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물을 검토·정리했지만 두 작품의 구성과 여성 수난의 비교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많다. 배양수와 응웬 응옥 궤와 달리, 김유리⁶²⁾는 〈취교전〉과 〈춘향전〉의 비교 자체에 연구 목적을 두지 않고 두 작품의

59) Bae Yang Soo(2001), *Nghiên cứu Truyện Kiều và Truyện Xuân Hương*(〈취교전〉과 〈춘향전〉의 비교 연구), *Luận văn tiến sỹ Đại học Sư phạm Hà Nội* 참조.

60) Bae Yang Soo(1997), *So sánh hệ thống nhân vật trong Truyện Kiều và Xuân Hương truyện*(〈취교전〉과 〈춘향전〉의 인물 비교), 『외대논총』 16; Bae Yang Soo(2001), *So sánh bối cảnh xã hội và văn hóa thời đại Truyện Kiều và Truyện Xuân Hương*(〈취교전〉과 〈춘향전〉의 시대의 문화·사회적 배경 비교), 『아시아지역연구』 4,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Bae Yang Soo(2002), *Nguồn gốc đề tài cốt truyện, thể loại và phương thức phản ánh cuộc sống của Truyện Kiều và Truyện Xuân Hương*(〈취교전〉과 〈춘향전〉의 제재근원, 플롯, 장르와 현실의 반영방식), 『외대논총』 25; Bae Yang Soo(2006), *Khuynh hướng dân tộc và khuynh hướng bác học trong ngôn ngữ Truyện Kiều và Truyện Xuân Hương*(〈취교전〉과 〈춘향전〉의 문장의 민족성과 귀족성 연구), 『동남아연구』 15-2,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61) 응웬 응옥 궤(2008), 「베트남 〈쭈엔 끼에우(翹傳)〉와 한국 〈춘향전〉의 여성수난 서사 비교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62) Kim Yu Ri(2016), *Vẻ đẹp người phụ nữ Việt Nam qua nhân vật Thúy Kiều (Truyện Kiều của Nguyễn Du) và vẻ đẹp người phụ nữ Triều Tiên qua nhân vật Sungchunhyang (Truyện Xuân Hương)*(완유의 〈취교전〉의 취교와 〈춘향전〉의 춘향을 통해 본 베트남여성과 한국여성의 미), *Luận văn thạc sỹ Viện Hàn lâm Khoa học Việt Nam - Học viện Khoa học Xã hội*.

여자 주인공의 비교를 통해서 베트남과 한국의 정신적 문화 측면에 있어서 공통점과 특수성을 밝혀냈다. 한편 <취교전> 과 <춘향전> 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 스스로 밝힌 머리말⁶³⁾과 같이 최귀묵은<취교전>을 한국사회에 소개함으로써 베트남 문학과 한국 문학의 비교 연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문학 작품을 비교한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상의 연구 성과들과 맥락을 함께 하며 이들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교육의 내용을 마련한다는 목적에 있어서 선행 연구들과 다소 차이점을 보인다. 이를 위해 단순히 두 작품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인 학습자의 특성에 주목하여 <춘향전>와 <취교전>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해서 베트남 대학 고학년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 방안, 더 나아가서 한국고전소설 교육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춘향전> 과 <취교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이

63) “우리 학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취교전』의 전반적인 면모를 소략하게나마 한 차례 검토함으로써 베트남 소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바탕이 되고, 아울러 우리 문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최귀묵, 「『취교전상주』를 통해서 본 『취교전』의 면모」, Nguyễn Du, *Truyện Kiều*, 최귀묵 역(2004), 『취교전』, 소명 참조.)

다.

먼저, <춘향전>과 <취교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춘향전>은 판소리 <춘향가>의 사설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다. 판소리 <춘향가>의 경우 17세기부터 연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설본의 경우 100종이 넘는 이본을 갖고 있다. <춘향전>은 연극,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재생산되며 현재에도 한국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이하 완판 84장본으로 약칭)로 <춘향전>의 이본 중 가장 풍부한 판소리 사설을 간직하고 문학적 향취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⁶⁴⁾ 이 작품은 한국의 문학 교과서에서도 줄곧 실리는 선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춘향전>의 경우 베트남인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자균이 역주한 『춘향전』에 수록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택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이본들도 참고하였다. <춘향전>은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서 성인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된다. 또한 분량이 많지만 베트남어 번역본이 있어서 작품 내용의 이해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론적 논의와 내용 도출 논의를 기반으로 설계한 <춘향전> 수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학습자의 이해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영화 <춘향전>(1961)을 수업의 보조자료로서 활용하여 감상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춘향전>(1961)은 홍성기 감독의 영화로서, 영화사적으로는 새로운 해석이 없고 동일한 시기에 나온 <성춘향>보다 흥미 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춘향전>을 영화화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전체적인 작품의 줄거리와 서사 전개를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설로 접한 <춘향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수업의 자료로는 이처럼 작품의 전체 서사내용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 적합하다고

64) 김종철(2005), 「정전(正典)으로서의 『춘향전(春香傳)』의 성격」, 『선청어문』 33, 서울대학교어교육과 참조.

보아 이 작품을 수업의 보조재재로서 활용하였다.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취교전>은 베트남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베트남 고전의 걸작이다. <취교전>은 재자가인(才子佳人)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쇠퇴하는 봉건사회의 여러 문제들 또한 담겨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사이에 살았던 완유(응웬 주, Nguyen Du)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베트남 고전문학의 최고라 일컬어진다. 명말청초(明末清初)의 인물로 추정된 청심재인(淸心才人)의 <김운교전(金雲翹傳)>의 플롯을 바탕으로 해서 6·8구체 형식의 율문으로 창작된 율문소설로서 파란만장한 여자 주인공 취교(翠翹, Thuý Kiêu)의 일생 이야기이다. <취교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취교(翠翹, Thuý Kiêu)는 재·색(才色)을 겸한 여자이며 왕원의(王員外)의 딸이다. 그 밑에 여동생 취운(翠雲, Thuý Vân)과 남동생 왕관(王觀, Vương Quan)이 있다. 청명절 동생들과 같이 봄나들이 나가는데 요절한 명기(名妓) 담선(淡仙, Đạm Tiên)의 무덤을 지나가게 된다. 취교는 남동생 왕관에게 담선의 비극적인 사연을 듣게 되자 감상에 빠져 울면서 “애달프구나, 여인의 운명이여!/ 예로부터 홍안박명이라고 하더니만.”라고 탄식한다.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왕관의 동문인 김중(金重, Kim Trọng)을 만나게 된다.

집에 돌아온 취교는 박명한 담선과 찬란한 모습의 김중의 생각에 잠겨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담선으로부터 장차 닥칠 일을 듣게 된다. 한편, 취교에게 첫눈으로 반한 김중은 취교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취교의 옆집을 찾아가서 자취하게 된다. 취교가 떨어뜨린 비녀를 주운 것을 기회로 삼아 취교와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백년가약을 맹세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중이 갑작스러운 숙부의 상을 당해 취교에게 몸을 잘 관리하도록 당부하며 먼 요양 땅으로 떠난다. 한편, 취교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아들 왕관과 같이 옥에 갇힌다. 취교가 아버지와 남동생을 구하기 위해 몸을 팔아 마감생(馬監生, Mã

Giám Sinh)의 첩이 되고 여동생 취운(翠雲, Thúy Vân)에게 김중과 혼약을 대신하도록 부탁한다.

취교는 마감생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청루(靑樓)에 팔리자 자살하려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꿈속에 담선이 나타나서 인과를 다하지 않았으니 죽고 싶어도 하늘이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고 전당강(錢塘江, Tiền Đường)에서 만나자고 기약한다. 한편, 수파(秀婆, Tú Bà)도 손님 대접을 강제하지 않으며 됴됨이 좋은 사람을 가려서 시집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취교는 응벽루(凝碧樓, Ngưng Bích)에서 속량의 기회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수파가 초경(楚卿, Sở Khanh)과 짜낸 계략에 걸려 “허리 숙이니 살이 으스스러지는 것 같고 머리를 조아리니 피가 흐르네.”라는 가혹한 매를 맞고 “뱀장어가 머리에 진흙 묻는 것을 개의치 않듯이/ 이후로는 순결한 마음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며 할 수 없이 기생 노릇을 하게 된다. 그때로부터 취교가 “아아! 유락한 신세여,/ 어쨌건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있으니 어찌하리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밀려드는 손님을 앞이 바람을 보내듯 가지가 새를 맞이하듯 응대하는데,/ 아침에는 송옥(宋玉)을 전송하고 밤에는 장경(長卿)을 찾네.”라는 식으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부유한 상인인 속생(束生, Thúc Sinh)을 만나서 그의 첩이 되고 청루에서 빠져 나온다. 그런데 속생의 아버지인 속옹(束翁, Thúc Ông)이 속생의 본처인 환저(宦姐, Hoạn Thư)네 집의 위세를 두려워해서 취교를 청루로 돌려보내느라고 관청에 신고하기에 취교가 관청에 끌려간다. 관청에서 취교의 죄를 논해서 하나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청루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고 분부한다. “이미 한쪽으로 정했습니다./ 거미가 또다시 거미줄에 걸려들어야 한단 말입니까!”라고 청루로 돌아가지 않느라고 가혹한 매를 맞고 만다. 그런데 관장(官長)으로부터 덕행과 시재(詩才)를 인정받고 청루로 돌려보냄을 면하고 또한 속옹으로부터 덕행과 재능을 인정받고 속생의 첩으로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러다가 속생의 본처인 환저의 질투심으로 인해 하녀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인간 세상 지옥의 생활을 살아간다. 환저에 의해 그

어머니 환파(宦婆, Hoạn Bà)네 집의 하녀가 되었다가 드디어 환저네 집의 하녀가 된다. 환저네 집에서 속생을 다시 만나지만 주인과 노비의 사이로 감히 알아보지 못한다. 속생과의 인연을 더 이상 이어갈 길이 없다고 짐작해서 환저네 집에 있는 관음각(觀音閣, Quan Âm các)에서 불경 베끼는 일을 맡고 지내는데 그곳에서 속생과 안타까운 사정을 한탄하다가 환저로부터 발각되자 “이곳이 바로 호랑이 아가리, 독사 굴이니!/ 만약 날개를 달고 높이 날지 않으면,/ 나무[둘레]에 올라타기를 쳐놓았지만 또한 꽃을 꺾을 날이 있을 거야.”라고 두려워해서 불전에 갖춰져 있는 금은기물들을 훔쳐 도망쳐서 초은암(招隱庵, Chiêu Ân am)에서 그 절의 주지(住持)인 비구니 각연(覺緣, Giác Duyên)에게 의탁해서 살게 된다. 그런데 각연이 취교가 환저네 집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두려워해서 운암(雲庵)에 향유(香油)를 가지고 자주 오가는 박씨(薄氏)네 집으로 잠시 거처를 옮겨 몸을 피하도록 취교를 권한다. 그러나 박파(薄婆, Bạc Bà)와 그녀의 손자 박행(薄倖, Bạc Hanh)의 계략에 걸려 또 다시 청루에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만다.

청루에서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서해(徐海, Tù Hải)를 만나고 청루를 빠져나가서 그의 부인이 되고 마음대로 보은보원(報恩報怨)할 수 있다. 그런데 진압군의 우두머리인 호종헌(胡宗憲, Hồ Tôn Hiến)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부귀부영(夫貴婦榮)’라는 꿈을 꾸고 조정(朝廷)에 귀순하도록 서해를 설득한다. 그러나 호종헌의 배신으로 서해가 죽게 된다. 게다가 호종헌은 취교를 소첩으로 취하려다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서 취교를 지방 추장(酋長)과 혼인시킨다. 이에 마음이 애달프며 울분한 취교는 지방 추장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가 전당강으로 들어온다고 듣자 담선의 말이 생각나서 전당강에 몸을 던져 자결한다. 때마침 삼합(三合, Tam Hợp) 비구니의 예언을 따라서 전당강에서 기다리고 있던 각연에게 구조되고 각연과 함께 수행의 생활을 즐겨 살게 된다.

한편, 김중은 취교가 부탁한 대로 취운과 결혼했으며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취교를 찾아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취교가 전당강으로 투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당강가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지나간 각연 덕분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 가족들과의 재회 자리에서 취운은 김중과 결혼하기를 청하고 김중도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며 가족들도 취교가 김중과 옛 인연을 잇도록 독촉하지만 취교는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 정신적 동반자로 지내기로 한다.

위의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듯, <취교전>은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취교와 김중이라는 두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붕괴해나가는 봉건사회에서 살았던 <취교>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다루며, 18, 19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⁶⁵⁾.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취교전>은 출간 때부터 여러 계층에게 애독되어 널리 전파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수용되어 베트남 문학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학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생활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취교전>은 민중의 정신을 모아 문헌적 플롯(<김운교전>의 플롯)을 바탕으로 작자의 체험과 결합해서 만들어졌는데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서 민중의 정신적 영양소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초·중·고의 국어교육과정에서 <취교전>을 빼놓으면 안 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65) <취교전>의 창작 시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설이 존재하는데 완유(Nguyễn Du)가 중국에 정사로서 갔다 온 후(1813년 이후) 창작했다는 설, 응웬 왕조에 참여한 초기(1802~1809)에 창작했다는 설, 홍령(Hồng Lĩnh)산에 은거했을 때(1796~1801)에 창작했다는 설이다. 이 중 홍령산에 은거했을 때(1796~1801)에 창작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Lê Văn Hào, Vấn đề thời điểm sáng tác Truyện Kiều(<취교전> 창작 시점에 대하여), Lê Xuân Lit(2007), 앞의 책, 199-205면; Phạm Thế Ngũ, Trước hay sau khi đi sứ Tàu(중국으로 정사로 가기 전인가? 아니면 간 후인가?), 위의 책, 206-207면; Đào Thái Tôn, Thời điểm sáng tác Truyện Kiều và chữ húy trong bản in của Duy Minh Thị 1872(1872 주밍 티본의 기휘와 <취교전> 창작 시점), 위의 책, 212-220면; Trương Chính(1963), Nguyễn Du viết Truyện Kiều vào lúc nào?(완유가 언제 <취교전>을 지었을까?), Văn học 6, Viện Văn học; Nguyễn Khắc Bảo(2000), Nguyễn Du viết Truyện Kiều khi nào?(완유가 언제 <취교전>을 지었을까?), Ngôn ngữ và đời sống 6; Nguyễn Tài Căn(2005), Có khả năng Truyện Kiều được sáng tác trước đời Gia Long(<취교전>은 자롱 왕조 전에 창작된 가능성이 있다), Kiến thức ngày nay 529; Nguyễn Quảng Tuân(2005), Những chữ ký húy trong bản Liễu Văn Đường đã giúp tìm ra thời điểm Nguyễn Du viết Truyện Kiều vào năm 1814(리에우 반 드윙본의 기휘를 통해 완유가 1814년에 <취교전>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 Hồn Việt 4, Nxb Văn học; Lê Thành Lân(2006), Về thời điểm viết Truyện Kiều(<취교전> 창작 시점에 대하여), Hán Nôm, Viện Hán Nôm에서 참조.)

제재의 측면에서 볼 때 <춘향전>과 <취교전>은 봉건사회에 살던 여성의 수난을 다루었다. <춘향전>의 경우 춘향이 사랑하는 사람인 이몽룡과의 사랑을 위해 정절을 지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하며,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게 된 지경에 빠져있게 된다. <취교전>의 경우 왕원외집의 장녀인 취교가 누명을 쓴 아버지와 남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판 것을 계기로 해서 15년 동안의 파란만장한 생활을 체험해야 한다. 춘향과 취교가 왜 수난을 겪어야 하는지, 수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는 <만남-이별-수난-재회>의 서사구조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춘향전>의 경우 춘향의 수난 이야기는 춘향과 이몽룡, 변학도의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그 중에 춘향과 이몽룡 간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이며 비구원자와 구원자 간의 관계인 반면 춘향과 변학도 간의 관계는 적대자, 즉 피수탈자와 수탈자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변학도가 춘향이 속한 남원부의 사또의 권력을 이용해서 춘향에게 수청을 강제한다. <취교전>의 경우 취교의 수난 이야기는 취교와 김중·속생·서해 간의 관계와 취교와 마감생·수파·초경·환저·박파 박행·호종헌 간의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그 중에 취교와 김중·속생·서해 간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이며 비구원자와 구원자 간의 관계인 반면 취교와 마감생·수파·초경·환저·박파 박행·호종헌 간의 관계는 적대자, 즉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마감생과 수파, 초경, 박파 박행은 돈 때문에 취교의 인격을 짓밟아 청루에 빠져 들어있게 하는가 하면 환저와 호종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위권(僞券)을 이용해서 취교의 평온한 삶에 대한 희망을 짓밟아 그녀가 절망에 빠져있게 한다.

이를 근거로 보면 <춘향전>과 <취교전>은 청춘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봉건사회를 고발하고 여성의 사는 권리를 옹호하는 주장을 표현하는 데에 비슷한 점이 보인다. 따라서 <취교전>은 <춘향전>과 비교할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과 주제적 측면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본 연

구에서 <취교전>을 <춘향전>의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작품의 분석·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취교전>도 이본이 많이 있는데, 내용 전체의 차이보다는 글자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본 중엔 응웬 타익 장(Nguyễn Thạch Giang)이 역주한 『취교전 (Truyện Kiều)』은 선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이본은 초·중·고국 어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학습자들은 물론, 일반 베트남 독자들에게도 많이 익숙해진 이본이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 이 이본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하되 본 연구에서 인용한 작품 내용은 최귀목이 옮긴 『취교전』을 따르기로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해 베트남 대학 고학년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수·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T 대학교와 H 대학교 한국어 전공 3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T 대학교와 H 대학교 한국어 전공 3학년 학생은 한국어 능력 수준이 TOPIK 4급 이상이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다. 실험 시 학습자들이 한국어 과정을 마치고 한국문화문명, 한국경제, 한국사회, 한국어통번역 등과 같은 전공과목을 공부하고 있었다. 한국어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외국어, 문학, 역사 등과 같은 인문사회분야에 관련된 지식이 다른 분야의 학습자에 비해 많이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실제 수업을 진행해서 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연구했다. 학습자의 반응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수업관찰 자료, 수업 후 학습자와의 심층면담 자료, 학습자의 소감문과 비평문을 수집해서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 자료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수업 날짜	장소	기호	교수자
2018년 12월 17일~21일	하노이, T대학교 A빌딩 교실	T	진씨벽봉
2019년 1월 12일 ~ 2월 16일	하노이, H대학교 B2빌딩 교실	H	진씨벽봉
자료		기호	수량
실험수업 관찰 자료		A-일련번호	2회
문학수업 경험, 한국고전문학 경험, 실험수업의 절차,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심층면담1		B-일련번호	6명
학습자의 비평문		E-일련번호	58편 ⁶⁶⁾
학습자의 비평문에서 기술된 내용에 대한 심층면담 2		C-일련번호	6명
수업에 대한 소감문		D-일련번호	10편

표1: 실험수업에서 수집된 연구자료⁶⁷⁾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해 베트남 대학 고학년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험 연구의 방법을 택했다. 2장에서 한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 고전소설 교육, 한국 고전소설 교육에서의 비교문학적 관점, 한국고전문학 교실의 베트남 학습자의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한국 고전소설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했다. 3장에서 <춘향전> 교육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춘향전>과 <취교전>을 비교했다. <춘향전>과 <취교전>은 여러 측면에 비슷한 점이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비교문학에서의 대비 연구

66) 연구 참여자가 모두 30명인데 그 중에 두 명이 비평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67) 학습자 기호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하였다. 소속 대학: 대학의 첫 영문 이니셜, 마지막 끝자리의 숫자는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름 대신(실험 수업 관찰 자료의 경우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그룹 번호)이다.

의 방법을 적용해서 창작배경, 서사구조, 등장인물, 주제의 측면에서 두 작품을 비교했다. 4장에서는 <춘향전>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2장에서 논의한 바와 3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춘향전> 교육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을 진행해서 수집한 수업관찰 자료, 심층 면담 자료, 학습자의 소감문과 비평문을 분석함으로써 그 수업의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T 대학교와 H 대학교 한국어 전공 3학년 학생들 60명을 대상으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실제 수업을 진행해서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⁶⁸⁾ 수업 관찰 자료의 경우 본 연구자가 수업할 때 학습자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충실히 기록하기 위해서 수업을 녹음, 녹화 했다. 소집단 비교·토의 활동에 있어서는 한 집단에 5명을 편성해서 비교·토의하도록 했다. 비교·토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집단구성원을 편성할 때 학습자들의 첫 번째 수업의 참여도를 참조해서 한 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를 균형 있게 배정했다.

수업 관찰 자료 수집의 목적은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교수·학습이 효율적이고 흥미로웠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춘향전>의 이해 및 문학적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별로 토의 시와 교사 중심 토의 시의 상황과 내용을 녹음, 녹화 했다. 비평문의 경우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수업을 마치고 전에 학습자에게 작문과제를 제시하고 2주 내에 완성해서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춘향전>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업을 마친 직후 한 반에 3명을 선발해서⁶⁹⁾ 심층 면담(이하

68)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학습자들의 자료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IRB)의 승인을 받아 수집된 것이다(승인 번호: IRB No.1811/003-012). 학습자의 소속 학교 등의 일련 번호는 실명 명칭 대신 기호로 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69) 심층면담1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 ① 심층면담1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습자; ② <춘향전>의 교수·학습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심층 면담1’이라고 함)을 했다. 그리고 수집한 비평문을 정리·분석하는 과정에서 비평문에 나타난 <춘향전>에 대한 이해도와 이 작품을 매개로 서술한 학습자의 가치관, 생활관 등과 그의 실생활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 학습자와 심층 면담(이하 ‘심층 면담2’라고 함)을 가졌다. 실험 수업과 심층면담 시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트남어 사용을 허용했다.

이상에서 수집한 자료는 수업 관찰 자료, 심층 면담 자료, 소감문 및 비평문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비평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평문을 분석·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질적 자료 분석 방식 중의 하나인 내용 분석 방식을 사용했다.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 대상들이 산출한 일정한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며 방대한 텍스트를 유사한 의미들을 나타내는 보다 적은 수의 범주로 분류할 목적으로 할 때 사용된다. 내용 분석은 현상의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적 방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는 귀납적 방법에 속하며 본질적으로 텍스트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 속에 숨어 있는 암묵적이고 잠재적인 내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연구의 대상인 학습자의 비평문은 학습자들의 지식과 가치, 경험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완결된 구성체이다. 본 연구자는 이 복합적인 구성체를 분석할 때 표면적인 내용만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직접 관찰하면서 기록한 수업 관찰 자료 및 학습자의 지식과 가치, 경험 등을 잘 표출하는 심층 면담 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해석했다. T대학교와 H대학교에서 실행한 실험수업 관련 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③ 4번 수업을 모두 성실하고 흥미롭게 들은 학습자.

목적	활동	수행 시기	작품	교육 대상
학습자의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수·학습 수행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판 84장본>의 중요한 대목 강독, 베트남어로 번역 -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창작배경, 서사구조, 등장인물, 주제의 이해, 소그룹 토의, 교사중심 토의 - 수업에 대한 소감 기술 - 비평문 쓰기 	2018년 12월 (총 4번, 12시간)	<춘향전> (취교전 과의 비교)	T대 학교 3학년 30명
학습자의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수·학습 효과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창작배경, 서사구조, 등장인물, 주제의 이해 및 소그룹 토의 - <춘향전>영화(홍성기 감독, 1961) 관람 및 토의 - 교사중심 종합적 토의 - 수업에 대한 소감 기술 - 비평문 쓰기 	2019년 1월 ~ 2월 (총 4번, 12시간)	<춘향전> (취교전 과의 비교)	H대 학교 3학년 30명
수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문제점 발견	T대학교 학습자와의 심층면담	2018년 12월 21일 (총 30분)		각 대학 3명씩
	H대학교 학습자와의 심층면담	2019년 2월 16일 (총 30분)		
학습자의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이해평가	학습자의 비평문 수집, 분석	2018년 12월 30일까지		T대 학교 학습 자
		2019년 2월 23일까지		H대 학교 학습 자
	비평문에 대한 궁금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 학습자와의 심층면담	2019년 1월 9일 (총 60분)		T대 학교 학습 자

		2019년 2월 28일 (총 60분)		H대 학교 학습 자
--	--	----------------------------	--	---------------------

표2: <춘향전>의 실제 수업 내용

II.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고전소설 교육의 이론

1. 한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소설 교육

한국어교육은 기본적인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넘어서서, 한국문화 이해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한국문화는 크게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현대문화는 현재 살아있는 문화로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과거의 전통문화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역사서나 문화 관련 글, 또는 도서를 통해서 한국 전통문화를 알아볼 수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서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너무 딱딱하고 생동감이 없어 쉽게 흥미를 갖기 어렵다. 설령 읽을 수 있더라도 기술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고전소설은 과거 전통사회의 역사·문화·사회를 반영한 문학 적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등장인물들이 활동하는 환경, 교섭하는 사람, 겪는 사건 등을 통해서 학습자가 당시의 사회 제도·생활 관습·사고방식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일방적인 설명이 아닌 ‘이야기’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므로 보다 흥미롭고 효과적으로 학습자가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사회·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학습하려면 허균의 <홍길동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양반 사대부인 홍 판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노비 출신의 어머니로 인해 호부호형하지 못하고 출세할 길도 막히자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홍길동의 일생을 통해서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당대의 적서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실

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홍길동전>이 당시 현실에 실존했던 사회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홍길동전>을 읽으면 조선 후기의 사회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기생신분이 무엇인지, 기생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교수·학습하려면 역사서보다는 <춘향전>과 같은 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완판 84장본>의 주인공 춘향은 성 참판의 서녀로 태어났지만 판기 출신의 어머니 때문에 기생으로 취급받는다. 또한 기생이라는 이유로 신관 사또로부터 수청을 강요받고, 그를 거절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힌다. 다행히 이몽룡이 과거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오면서 옥중에 있는 춘향을 구출하여, 춘향은 정렬부인에 봉해지고 이몽룡과 백년해로한다. 이러한 춘향의 일생을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신분적 불평등, 탐관오리의 직권 남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 사고방식 등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 고전소설은 한국 전통 사회의 문화·제도·관습 등에 대한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고전소설을 접할 때 학습자는 작품 자체를 탐색할 뿐만 아니라 작품에 등장한 장면, 작중인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한국 전통 의식주 문화, 사고방식, 관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경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명함으로써 자신의 문학능력 및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이해능력과 자국문화 이해능력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함양 못지않게 한국 문화이해능력 신장도 중요한 목표이고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한국 고전소설을 통한 교수·학습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고등 수준의 한국어교육으로서 한국고전소설교육을 설

계해 보고자 한다.

2. 한국고전소설교육에서의 비교문학적 관점

이 연구는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한국고전소설교육에 접근하고자 하므로, 한국고전소설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비교문학적 관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브 슈브렐(Yves Chevrel)에서는 비교문학의 기원과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비교문학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문화를 주도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문화를 상호 교류하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작했다.”⁷⁰⁾ “비교문학은 국제적인 시야에서 국가 간의 문학적 관계의 역사를 쓰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한다. 이는 그 어떤 문학도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게 성공한 작품은 항상 그 나라 밖에서 얻어진 것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비교문학자의 임무는 <다른 곳에서 온, 다른 곳으로 가는, 다른 곳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⁷¹⁾ 이브 슈브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의 비교문학은 문학사의 한 분야로서 영향과 수용 연구에 한정되었다.

비교문학을 문학사의 한 분야로 간주하는 비교문학자인 반 티겔, 카레, 귀야르를 중심으로 프랑스 학파의 비교문학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간의 문학 교류사를 전제로 한다. 둘째, 영향과 수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셋째, 문학작품 자체의 비교를 강조한다. 넷째, 영향관계가 없는 문학 간의 비교는 <비교>가 아니라 <대비>이다.⁷²⁾ 반

70) Yves Chevrel(1989), *La Littérature comparée*, 박성창 역(2002),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71) Yves Chevrel(1989), 박성창 역(2002), 위의 책, 15면.

72) 윤호병(2005), 『비교문학』, 민음사, 47면.

티겔은 실증적 영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유사성이나 공통성이 비교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문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발전과정에서 비교문학은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에만 한정되지 않고 연구 영역이 확대되어 비교연구 외에 대비연구도 가능하게 되어 비교문학과 일반문학이 합류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김학동은 다음과 같이 대비연구를 정의하고 있다. “작품과 작품 간의 비교에서 어떤 유기적인 영향 관계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그 유사현상을 선택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로 대비연구가 되는 셈이다.”⁷³⁾ 여기서 언급한 유사현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대비연구는 결국 세계 각국의 유사한 문학적 소재, 모티프, 이데아 등과 같은 것이 그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그는 또한 “대비연구에서 영향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유사현상의 판단이나 선택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런 유사현상의 발생원인을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및 그 밖의 시대상황과 환경과 관련지어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연구자는 대비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유사현상을 해명해야만 한다. 단순히 그 유사현상의 병치로서 끝나서는 그 연구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작품이나 작가 및 그 밖의 지적 활동과의 대비에서 표출되는 유사현상과 비(非)유사현상을 고찰하여 그 이동성(異同性)이 해명되어야만 된다.”⁷⁴⁾고 강조한다.

한편, 알드릿지(Aldridge)는 문학작품에서의 유사현상을 표현형식의 유사성과 사과의 유사성과 인간관계의 유사성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인간관계의 유사성은 소설이나 연극 같은 데 나타나 있는 인간행동의 복잡성으로, 그 플롯이나 성격묘사나 주제에 의해서 표현된다고 한다.⁷⁵⁾

73) 김학동(1984), 앞의 책, 56면.

74) 김학동(1984), 위의 책, 57면.

75) Alfred Owen Aldridge(1979), 『比較文學 - 日本と西洋』, 南雲堂, 49~52면, 김학동(1984), 위의 책, 57면 재인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문학의 목적은 문학과 문학 간의 비교를 통해서 공통성과 특수성을 찾아내고 그 문학작품들이 창작된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및 그 밖의 시대상황과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그 공통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한문문화권에 속했던 나라이므로, 중국으로부터 문화, 제도 사상 그리고 문학 등의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한자를 널리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두나 향찰을 만들어서 한자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중국으로부터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율령제를 비롯한 정치제도를 수용해서 지배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태학이나 국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경전과 역사를 가르쳤다. 958년에 과거제도를 시행해서 과거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뽑기 시작했으며, 998년에 국자감을 설립함으로써 교육제도의 터전을 마련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를 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천여 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10세기부터 바익당(Bách Đằng)강에서의 승리로 중국의 지배를 벗어나서 국가건설을 시작했는데 지배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치제도를 수용했다. 1070년에 국자감을 설립함으로써 교육제도의 터전을 마련하고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베트남 민족의 문화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자를 바탕으로 쯔놈(chữ Nôm, 𣪠喃)이라는 베트남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⁷⁶⁾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사회적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탄생한 한국문학과 베트

76) 쯔놈(chữ Nôm, 𣪠喃)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기원 초에 한나라 사람이 자오 찌(Giao Chi) 땅을 침략함과 동시에 형성되었다는 설, 2세기에 형성되었다는 설(Nguyễn Văn San의 설), 풍 흥(Phùng Hưng) 시대인 8세기에 형성되었다는 설(응웬 반 또(Nguyễn Văn Tồ)의 설), 덩 띠엔 황(Đinh Tiên Hoàng) 시대인 10세기에 형성되었다는 설이다. 그 중에 중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10세기 이후 형성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Nguyễn Quang Hồng(2008), Khái luận văn tự học chữ Nôm(쯔놈(字喃)의 문자학 개론), Nxb Giáo dục 참조.)

남문학은 영향 관계와 상관없이 표현 형식이나 사고나 인간 관계 등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국 고전소설 교육에 있어서 비교문학의 대비연구의 관점을 적용하면 한국과 베트남 소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이때 작품 간 드러나는 인간 관계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알드릿지의 견해를 다시 참고할 수 있다. 알드릿지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유사성이란 소설이나 연극 같은 데 나타나 있는 인간행동의 복잡성으로서, 그 플롯이나 성격묘사나 주제에 의해서 표현된다.⁷⁷⁾ 그래서 유사해 보이는 한국 고전소설과 베트남 고전소설을 비교할 때는 서사적 측면, 즉, 플롯이나 주제 또는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서사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유사점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두 작품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목표 작품인 한국 고전소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인 베트남 고전작품을 재이해·재평가함으로써 베트남 작품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감상할 기회를 마련해준다. 나아가, 유사점과 비유사점을 해명하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한국 문화 이해 능력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국문화인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사고력까지 신장시킬 수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취교전>과 <춘향전>을 대비 중심의 비교를 할 때 우선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대비해 볼 수 있다. 서사구조는 플롯의 개념과 상통하는데, 구인환은 플롯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플롯은 스토리의 전개가 아니요,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의 전개를 말한다. 플롯은 주제의 구현을 위한 짜임새요, 소설의 예술미를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제재를 적절하게 배열하는 설계도이기도 한다. 그래서 ‘플롯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

77) Alfred Owen Aldridge(1979), 앞의 책, 김학동(1984), 앞의 책, 57면 재인용.

의 배열'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⁷⁸⁾ 즉, 플롯이란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에 의하여 짜여있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사건들이 어떻게 짜여있는지는 작가의 역량과 문제의식에 달려있지만 그 구성에 있어 자국의 문학 전통과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품의 플롯 또는 서사구조를 이해하면 작가의 역량과 문제의식을 탐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 반영된 문학의 전통과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춘향전>과 <취교전>은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라고 볼 수 있다. <춘향전>의 경우 재색을 겸비한 춘향과, 학문과 풍채가 뛰어난 이몽룡이 봄날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반해서 백년가약을 맺게 되는데, 이몽룡 아버지의 승진으로 인해 이별하게 된다. 이몽룡이 한양에 간 사이, 신관 사또 변학도가 도입해서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데,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수절을 이유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여 가혹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때 이몽룡이 과거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와서 변학도를 응징하고 춘향을 구출한다. 이후 춘향은 임금으로부터 정렬부인에 봉해지고 이몽룡과 부부로 결합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취교전>의 경우 재색을 겸비하는 취교와 학문과 풍채가 뛰어난 김중이 봄날에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반해서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김중의 숙부상으로 인해 이별하게 된다. 그 이후에 취교는 가난으로 인해 아버지와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팔아 마감생의 첩이 되었는데 악당들의 속임수를 당해서 청루에 팔리게 된다. 청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취교는 기생의 노릇과 노비의 노릇을 각각 두 번이나 경험하게 된다. 봉기군의 우두머리인 서해와 함께 행복한 삶을 맛보았지만 호종헌의 속임수에 걸려서 서해가 죽게 되고 자기 자신도 파란만장한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전당강으로 몸을 던져 자결한다. 그러나 다행히 각연 스님에게 구출되어 각연과 함께 수행생활을 하게 된다. 한

78) 구인환, 「소설교육의 방법」, 우한용 외(1993), 『小説教育論』, 평민사, 86-87면.

편, 김중은 취운과 결혼을 했으며 과거급제해서 벼슬을 한다. 그러면서도 취교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찾기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한다. 결국 각연 덕분에 서로를 만나서 끊어졌던 옛 인연을 잇게 된다.

이렇게 보면 <춘향전>과 <취교전>은 <만남-이별-수난-재회>의 유사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두 작품의 사건 전개가 각각 다르다. 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이 취교와 김중의 만남과 다르게 전개되고, 춘향과 이몽룡의 이별의 원인과 취교와 김중의 이별의 원인이 같지 않고, 춘향의 수난의 원인과 수난과정이 취교의 것과 다르다. 그래서 결말에 춘향과 이몽룡, 취교와 김중이 다시 만나지만 그들의 재회는 다를 수밖에 없다.

왕향원은 “플롯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 민족과 국가들의 사유방식, 심미취미, 풍속습관, 도덕윤리에 대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낼 수도 있다”⁷⁹⁾고 보고 있다. <취교전>은 재자가인소설인 <김운교전>을 번역·개작해서 사건들의 전개가 <김운교전>을 따라 할 수밖에 없지만 <김운교전>을 저본으로 한 선택 자체는 완유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며 서사적 장면⁸⁰⁾의 첨가와 삭제도 역시 완유의 문제의식과 문학적 재능과 관련 있으며, 베트남 문화와 문학의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춘향전>의 경우, 당시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문학 작품들이 널리 읽히는 상황에서 서사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상기> 등을 비롯한 중국의 설화와 소설이 <춘향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⁸¹⁾ 그렇지만 <춘향전>이 국내 근원설화를 바

79) 왕향원(1962), 『比較文學學科新論』, 문대일 역(2011), 『비교문학의 열쇠』, 한국학술정보.

80) <취교전>에서 완유가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장면이나 인물의 심정(속마음)을 돈우기 위해서 경치를 묘사하는 장면을 많이 첨가하기도 하고 원작 <김운교전>의 행동이나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는 장면을 삭제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들을 서사적 장면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81) 이재수(1956), 「한국 소설 발달 단계에 있어서 중국소설의 영향」, 『논문집』 1, 경북대학교; 정래동(1964), 「춘향전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작품들: 서상기, 옥당춘 등」, 『대동문화연구』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병혁(1974), 「춘향전에 끼친 중국

탕으로 형성되어 그 당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임은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춘향전>의 수용 과정에서 서사장면이 첨가·삭제되고 축소·확장됨으로써 계속 재창조되면서 한국인의 정신적 세계와 민중(작가층)의 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춘향전>과 <취요전>의 서사구조의 분석·비교를 통해 한문 문화권에 속했던 나라로서의 문학적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의 사유방식, 심미취미, 풍속습관, 도덕윤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소설 연구에서는 주제 연구와 인물 연구가 중요하다. 비교문학에서는 주제 연구와 인물 연구가 모두 주제학(thematology)의 범주에 속한다. 주제학은 광범위한 용어로서 주제, 모티프, 신화, 전설, 상황, 유형, 성격, 인물, 이미지, 토포스 등을 포함시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비교문학에서의 주제학은 영향과 수용 관계가 설정된 각국의 문학이 같은 제재, 인물, 모티프, 주제 등을 어떻게 차용·수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영향 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민족의 문학들에서 같은 제재, 인물, 모티프, 주제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고찰해서 그 민족들의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내기도 한다.

주제는 작품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제재를 통해서 작가의 삶에 대한 체험과 사상을 표현한다.⁸²⁾ 제재를 선택하는 관점과 그 범위에 따라 사회적 주제, 심리적 주제, 종교적 주제, 철학적 주제와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 사회적 주제로는 사회 개혁 주제, 사회 비판 주제, 사회 풍자 주제, 개인이 사회에 반항하는 주제, 계급 모순과 계급 투쟁의 주제, 관료 부패를 비판하는 주제, 가정 비극에 관한 주제, 애정 비극의 주제, 미인박명의 주제, 연인이 결국

설화의 영향」, 『논문집』 14, 부산공학대학; 류함람(2010), 「춘향전과 서상기의 관계성 연구」, 『인문학연구』 3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82) Lưu Văn Bổng, Chủ đề - Mô típ - Huyền thoại(주제-모티프-신화), Lưu Văn Bổng 외(2001), Văn học so sánh: lý luận và ứng dụng(비교문학의 이론과 응용), Nxb Khoa học Xã hội, 48면.

가족이 되는 주제, 인생을 즐기는 주제, 개인 투쟁의 주제, 반도덕의 주제, 회고의 주제 등이 있다.⁸³⁾ 이러한 주제의 비교를 통해서 두 나라 문학의 공통성과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특수성을 알아낼 수 있고 작가의 문제의식과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 대비 연구의 차원에서 <춘향전>과 <취교전>의 대비 연구에 있어서는 주로 사회적 주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두 작품의 주제를 탐구해 볼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표면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주제를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춘향전>의 경우에는 춘향이라는 여성이 이도령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또인 변학도에게 저항하는 것을 <취교전>의 경우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고, 주변 인물들의 횡포에 의해 고난에 빠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에 대한 주제적 측면의 대비연구에 있어서는 유사해 보이는 <춘향전>과 <취교전>의 갈등 상황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각각을 밝혀냄으로써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유사한 이야기가 드러내는 주제의 차이를 통해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제 연구와 더불어 전형적 인물의 대비 연구는 주제학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문학 작품에서의 전형적 인물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대 신화나 민간 전설의 인물로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지역들의 작가들에 의해 널리 창작되어 왔기 때문에 원형(原型)의 성격을 갖게 된 인물이다. 둘째, 시대와 긴밀히 관련되고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전형적 인물이 되는 인물 유형이다. 셋째,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 유형이다.⁸⁴⁾ 서로 다른 나라 문

83) 왕향원(1962), 문대일 역(2011), 앞의 책, 165면.

84) 축취영(20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연구 : 연암소설과 <유

학작품들의 전형적 인물의 분석·비교를 통해서 주제에 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의 보편성, 특정 나라의 민족성, 시대성 등을 알아낼 수 있다.

특히, 인물의 대비 연구는 작품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작가의 사상과 문화 사회 배경, 민족의 문화적 문학적 전통을 통해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 대상 인물이 시대의 전형적 인물의 경우 작품의 창작 배경을 필수적으로 고찰해야만 한다.

이러한 <춘향전>과 <취교전>은 각각 조선과 베트남의 근대이행기의 전형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춘향이 겪는 고통은 조선 후기 신분제 사회의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취교전>의 취교가 겪는 삶 또한 베트남의 봉건사회가 타락해가는 시대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각각의 두 인물들은 조선과 베트남의 근대 이행기라는 시대의 인물 전형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춘향전>과 <취교전>을 대상으로 한 인물 대비 연구의 과제는 이처럼 특정한 시기를 대표하는 두 작품의 인물 대비 연구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각 나라의 시대와 문화에 대한 파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춘향과 취교라는 중심인물이자 두 시대적 인물에 대한 인물비교와 더불어 이도령, 김중을 비롯한 여타의 인물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두 문화의 차이점을 보다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비교연구 대상으로 삼은 <춘향전>과 <취교전>은 모두 중세 시대의 유교사회에 살던 여성의 수난을 다룬다.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인공은 춘향과 취교지만 그들의 수난에 관련된 인물이 여럿이 있는데 원조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적대적 역할을 하는 인물도 있다. 이들이 여주인공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비교분석하면 인물 형상과 주제 구현에 있어 한국문학과 베트남문학의 공통성과 연관성을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민족의 특수성 또한 탐색할 수 있을

림외사>의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9면.

것이다.

3. 한국고전문학 교실에서 베트남 학습자의 특성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전면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한국문화와 문학에 관심도 증가해서 한국과 관련되는 연구기관이 많이 증설 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도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만을 잘 키워서 한국 회사에 취직한다는 초기 한국어 학습자와는 달리, 한국어를 잘 해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진학하거나 연구기관에 취직하려는 학습자가 더욱 많아졌다. 단순한 회화 수준의 언어습득을 넘어서서, 한국을 잘 알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개인의 성장과 관심 분야의 확장을 도모하려는 학습자가 증가한 것이다. 베트남 학습자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는 이처럼 보다 높은 수준의 것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일회성의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지속적인 교류를 지향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국 사람과 교류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용적 목적을 넘어서 이러한 문화 이해의 측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증가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문화란 과거로부터 형성되어 지속되어 온 것이라 현재의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전통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고전문학은 전통문화를 풍부하게 보존하는 보고(寶庫)이다. 역사 자료와 달리 고전문학에 반영된 전통문화가 문학적 형상들을 통해서 제시되어서 생동감 넘치게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한국고전문학 교육이 필요하며 효율적일 수 있다.

베트남 학습자가 중국이나 태국, 인도 등의 한국어 학습자와 다른 결정적인 지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베트남 문학에 대한 지식

에 있을 것이다. 인간이 새로운 대상을 접할 때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새로운 대상을 이해하도록 시도하는 것처럼,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도 한국고전소설을 접할 때 이미 배웠던 문학적 지식이나 관련된 경험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학적 지식은 대부분 베트남 문학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과 베트남은 한문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며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 역사·사회적 현상이라고 여겨지는 문학에 있어 여러 유사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한국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비교문학적 관점을 적용하는 한편,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베트남 문학 지식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 학습자는 교육과정 속에서 여러 문학 작품들을 배운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문학을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어(베트남어)와 함께 배운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문학은 주로 국어의 기능(듣기·읽기·말하기·쓰기) 습득에 활용하는 자료로서 사용되는데, 초등학교의 문학 교육의 목표는 문학작품의 내용 자체를 배우는 것보다 문학작품의 발췌문을 통해서 어휘습득, 문법 지식, 문단 구성의 원리 습득을 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국어(베트남어, Tiếng Việt)교과에 민요나 시작품이나 문학작품의 짧은 발췌가 수록된다.⁸⁵⁾

중학교부터 국어 교과과정 대신 어문(베트남어와 문학) 교과과정이 있어, 여기서 학습자가 문학을 따로 배우지 않고 국어(베트남어)와 함께 배운다. 중고등학교의 문학교육의 목표는 문학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문학작품의 내용과 예술적 특징을 이해하고 사고력과 문학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둔다.

85)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Tiếng Việt 1(국어 1)*, tập 1,2, Nxb Giáo dục;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Tiếng Việt 2(국어 2)*, tập 1,2, Nxb Giáo dục;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Tiếng Việt 3(국어 3)*, tập 1,2, Nxb Giáo dục;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Tiếng Việt 4(국어 4)*, tập 1,2, Nxb Giáo dục;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Tiếng Việt 5(국어 5)*, tập 1,2, Nxb Giáo dục, 참조.

안내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지식을 동원해서 작품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교 저학년 학습에 주로 <용선(龍仙)의 후예(Con rồng cháu tiên)>, <산신과 수신(Sơn Tinh Thủy Tinh)>, <타익 싸잉(Thạch Sanh)> 등과 같은 베트남 옛 이야기들을 배우는데 이들 작품이 모두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로 재생되어 대부분의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많이 익숙한 작품이다. 학급이 올라감에 따라 고전문학 작품이 많이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 2 학년에 집중적으로 고전문학 작품을 배우게 된다. 교육대상 작품은 주로 <전기만록(傳奇漫錄)>, <우중수필(雨中隨筆)>, <황려일통지(皇黎一統志)>, <취교전>등이다.⁸⁶⁾

대부분의 작품이 한 학급의 어문(국어와 문학)에만 수록되는데 <취교전>의 경우는 여러 학급의 어문(국어와 문학)교과서에 수록되고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4학년의 어문(국어와 문학)에 수록되는 <취교전>의 교수·학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6차주에 ‘취교와 취운 자매’, ‘봄날의 경치’를 통해서 자연 묘사와 인물 묘사의 수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7차주에 수록되는 ‘응벽루에 있는 취교’를 통해서 취교의 부모에 대한 효도심, 김중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마감생이 취교를 사다’를 통해서 사람을 경영하는 자를 증오하는 작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반동인물을 형상화하는 완유 작자의 재능을 이해할 수 있다. 8차주에 ‘취교의 보은보원’을 통해서 취교의 의롭고 고상한 마음, 완유가 살던 시대의 공리의 꿈,

86)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6(어문 6)*, tập 1,2, Nxb Giáo dục;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7(어문 7)*, tập 1,2, Nxb Giáo dục;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8(어문 8)*, tập 1,2, Nxb Giáo dục;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9(어문 9)*, tập 1,2, Nxb Giáo dục;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10(어문 10)*, tập 1,2, Nxb Giáo dục;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11(어문 11)*, tập 1,2, Nxb Giáo dục;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12(어문 12)*, tập 1,2, Nxb Giáo dục 참조.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수법을 이해할 수 있다.⁸⁷⁾

이후 고등학교 1학년의 어문(국어와 문학)에 수록되는 <취교전>의 교수·학습의 목표는 중학교 학습의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28차주에 <취교전>의 언어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고, 29차주에 ‘취운에게 언약 부탁하다’를 통해서 취교의 깊은 사랑과 애달픈 비극, 그리고 심정(내심)을 묘사하는 수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취교가 자기를 안타까워하다’를 통해서 취교가 자기의 품격을 깊이 인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30차주에 ‘영웅의 지향’을 통해서 영웅 인물을 묘사하는 수법과 완유 작자가 바라는 영웅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취교와 김중이 가약을 맺다’를 통해서 취교의 사랑에 대한 생각(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받는다.⁸⁸⁾

이렇게 보면 <취교전>은 베트남 학습자의 문학교육 과정에 매우 큰 비중(각각 중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문학 교육과정 전체 35주의 3주)을 차지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교육의 영역이 아닌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도 <취교전>은 지속적으로 향유되어 왔다. <취교전>은 베트남 전통 창극(唱劇)인 쟈오(chèo)나 까이 르엉(cải lương), 뚜윙(tuồng)으로 거듭 재생되어 왔다. 특히 <취교전>은 자장가로 부르는 데에 적합한 베트남 전통 시형식인 육팔체로 창작되어 자장가로 사용되기도 한다. 베트남 학습자에게 <취교전>은 매우 익숙한 작품인 것이다.

또한 2018년에 응웬 바익 장(Nguyễn Bạch Giang) 감독에 의해 교외전(Kiều ngoại truyện, 翹外傳) 드라마 40회로 재생되어서 학습자에게 울문소설 <취교전>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베트남 학습자들의 교육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취교전>은 정교 교육의 영역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의 영역과 매

87)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9(어문 9)*, tập 1, Nxb Giáo dục, 77-108면 참조

88)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10(어문 10)*, tập 2, Nxb Giáo dục, 92-115면 참조.

체 영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향유되는 문학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대부분의 베트남 학습자들도 <취교전>이라는 작품에 대한 지식을 기본 지식으로서 갖고 있다.

한국의 <춘향전> 교육에서 베트남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본 지식을 일종의 스키마로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고전의 백미라는 <취교전>의 경우 학습자가 매우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배웠던 <취교전>의 접근법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춘향전>을 이해하면 <춘향전>의 이해가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활용하는 교육의 효율성은 스키마 이론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Rumelhart(1980)⁸⁹⁾에 따르면, 스키마란, 사건이나 개념에 대한 독자의 인지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 표현(internal representation) 혹은 인지 구조내의 배경 지식(background knowledge)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독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식은 독자의 인지 구조 속에 축적된 사실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사실과 경험이 추상적 구조 안으로 동화되어 재구조화된 추상적 지식 구조이다. 스키마 이론은 ‘읽기’를 글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하여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본다.⁹⁰⁾ 이와 더불어 스키마 이론에서는 독해의 과정을 글과 독자의 상호 작용이라고 본다. 특히, 글의 내용과 대응되는 독자의 배경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스키마 이론에서는 글의 의미가 글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89) Rumelhart, D. E.(1980),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Hillsdale: Lawrence. 김성아, 「EFL 학습자의 문어 담화 이해에 있어 글 내용 스키마와 글 구조 스키마의 사용에 관한 연구」, 『영어교과교육』 창간호,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182~183면 재인용.

90) 이삼형(1995), 「스키마 이론과 읽기 지도」, 『한국언어문화』 13, 한국언어문화학회, 1040면.

보지 않는다. 글은 독자의 독해 과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자극체이며 독해 결과로 나타나는 글의 의미는 독자가 구성해 내는 것으로 본다.⁹¹⁾ 스키마 이론에 의하면 독자는 텍스트를 접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스키마를 활성화해야 다양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스키마가 활성화되면 기억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의 기억이 새로운 지식과 효율적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스키마는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자극을 주어야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장기 기억에 잠자는 스키마를 깨우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자극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극을 줄 수 있을까? 박정진·윤준채는 “가치 있는 질문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촉진시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유도하고 발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교수·학습의 중요한 요소”⁹²⁾라고 한다. 적절한 질문으로 자극을 주면 학습자의 잠자는 스키마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이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배웠던 베트남 고전문학에 관한 지식을 상기시켜 배우는 한국고전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동원하게 할 질문이다. 교사는 배우는 작품에 따라 재생적 질문뿐만 아니라 추론적 질문이나 적용적 질문 등과 같이 문학장르나 작품의 제목, 창작배경, 서사구조, 등장인물, 주제 등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교사가 만든 질문들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자극을 주어 스키마를 활성화해서 작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활동은 교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교사가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의 내용을 조절해야 하고 피드백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키마를 충분히 활성화해서 교육대상인 작품을 이해시킨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두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으로서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편성해서 비교·토의를

91) 이삼형(1995), 위의 논문, 1045면.

92) 박정진·윤준채(2004), 「읽기 수업에서의 질문 들여다보기 - 비판적·창의적 질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2, 한국독서학회, 120면.

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 토의의 목적은 학습자가 자기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동료학습자들에게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신이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기도 하고 동료학습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창의적인 견해)를 창출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비교·토의의 문제를 잘 설정해야 한다. 교사가 대비된 작품을 잘 고려해서 비교·토의의 문제를 설정해야 하지만 학습자의 관심사와 흥미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가능한 한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작품 이해’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관심사와 흥미를 파악해서 비교·토의의 문제 설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비교·토의의 문제가 학습자의 관심사와 흥미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학습자가 비교·토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집단 비교·토의에서 개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소집단의 구성원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소집단의 구성원을 편성할 때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들을 한 소집단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한 소집단에 잘하는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를 고루 편성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는 상위 수준의 학습자가 다른 동료학습자들을 이끌어 활발하고 효율적인 비교·토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의 소집단 토의에 있어서 개별 학습자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하여 조별 편성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 목적, 베트남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취교전>에 대한 스키마, 개별 학습자의 수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교전>에 대한 기존의 스키마를 활용하여 비교하는 <춘향전> 교육을 설계하고 실시해보고자 한다.

III.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내용

이 장에서 창작 배경, 서사구조, 등장인물, 주제의 측면에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춘향전>과 <취교전>의 창작 배경의 비교

1) 근대이행기의 한국 사회의 특징

조선 시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 극심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 <춘향전>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최혜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춘향전>은 신분적 예속과 피해,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던 당대 삶의 진실들을 여러 인물 형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군상을 통해 당대 사회가 불합리하였다는 점을 드러내었다”⁹³⁾. <춘향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남녀 주인공인 춘향과 이몽룡과 관련된 신분제도와 기생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는 양천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반, 중인, 평민, 천민의 네 가지의 계층으로 구분된다. 조선 사회는 양반을 지배계층으로 하고 나머지의 계층을 피지배계층으로 하여 신분 차별이 자못 극심했다. 지배계층으로서의 양반은 사회적 특권을 용이하게 누릴 수 있는 반면, 최하급의 피지배계층으로서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예속되어 생활의

93) 최혜진(2016), 「<춘향전> 인물군의 사회적 성격」, 『한국어와 문화』 20,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177면.

자유를 영위할 수 없었다. 또한 천인은 신분이 세습되어 평생 천한 신분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물려주어야만 한다. 천인에 해당되는 계층으로서 노비, 광대, 무당, 기생, 백정 등이 있었는데, <춘향전>의 춘향이 재색을 겸비하고도 온갖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비천한 기생 신분에서 속하는 까닭이다.

여기서 기생 신분과 기생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생이라는 신분은 고려 시대부터 존재했고 조선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⁹⁴⁾ “조선시대 기녀는 국가나 지방관청에 소속된 천민으로서 양반들의 풍류와 향락의 수단으로 각종 행사나 연회에 동원되었”⁹⁵⁾던 관비의 신분이다. 따라서 기생이란 관리나 양반들의 유흥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아무리 양반의 부녀자들과 같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노리개를 찰 수 있으며 사대부들과 자유로이 연애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천민이었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이 없었다. 사랑을 받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대체로 고난에 찬 삶을 보내야 했다. 고을 원이 임기가 차서 돌아가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을 염려하여 촛불로 불을 지켰다는 <과환집>의 일화⁹⁶⁾는 이러한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생이란 무릇 재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미색이 사라지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 폐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사는 신세가 되고 만다.

또한 기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만 순종할 권리가 없다. 만약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만 순종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죽음뿐이다.⁹⁷⁾ 그런데 개인이 기생으로서의 삶을 원하는 것과 별개로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따라 기생의 딸로 태어나면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절개를 지켜 귀신이 된 기생(전불관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전불관은 첨사 전모와 기생

94) 조광국(2000), 『기녀담 기녀 등장 소설 연구』, 월인 참조.

95) 조광국(2000), 위의 책, 15면.

96) 조광국(2004), 위의 책, 23면 참조.

97) 이해순, 김경미(2002), 『한국의 열녀전』, 월인, 429-437면 참조.

사이에 태어났기에 기생이 되어야 했고, 첩사 구모 덕분에 기생 명부에서 이름이 빠지게 된다. 하지만 새로 온 첩사가 여전히 불관을 기생으로 취급하고 수청 들라고 강요한다. 불관이 그 말을 따르지 않자 화를 내며 “네 비록 전관(前官)이 사랑한 여자지만 한낱 진(鎭)의 기생일 뿐이다. 어찌 감히 관령을 거역하느냐?”하고 그녀를 감옥에 가둔다. 결국 불관은 “기생의 팔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도 원통합니다.” 하고 죽음을 택하고 만다.⁹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전통사회의 기생은 남성들의 유흥 수단으로 취급당하며 뜻대로 살 수 없고 천한 신분을 대대로 이어 받아 벗어날 길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기생이 자신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무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 초에는 고려 정종 때 제정된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따라 일반관료와 기녀 사이에 태어난 딸은 관기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태종 14년에는 양반 관료의 딸을 기녀로 삼는 것이 지나치게 몰인정하다고 생각되어 사대부의 기첩의 소생을 양인으로 삼게 했다.⁹⁹⁾ 물론 이 규정은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야 했으나 기생은 양반 관료의 첩이 되면 자기가 면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녀만은 면천 받을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개국공신인 화산군(花山君) 장사길(張思吉)이 함주(陝州)의 관기 복덕(福德)을 기첩으로 삼아 그 사이에 딸을 두었는데 전 첨절제사 정복주(鄭復周)가 본처와 이혼하고 복덕의 딸과 혼례를 치러 계실(繼室)로 삼았다. 하지만 사헌부에서 이를 문제삼아 정복주가 본처를 내쫓고 기첩의 딸과 혼인하여 정처를 삼았으니 풍속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태종은 아주 특이한 판결을 내렸다.

98) 이해순, 김경미(2002). 앞의 책, 434-437면 참조.

99) 정연식(2004), 「춘향전 - 가공의 현실에 투영된 꿈」, 『역사비평』 67, 역사비평사, 290면.

정복주는 나와 동년으로 지금 이미 늙었다. 그런데 조강지처를 버리고 천인을 얻어 스스로 배필로 삼았으니 또한 가증스럽지 아니한가? 만약 폐하여 백성을 삼으면 복덕과 신분이 서로 맞게 되고 그러면 복덕의 사위가 되어도 괜찮을 것이다.¹⁰⁰⁾

이 일화를 통해서 규정과 실제의 일치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생이 면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구속신(代口贖身)이었다. 『세종실록』 권113, 28년 7월 을미 조에 의하면 “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경외(京外)의 여기(女妓)가 유품(流品)과 조관(朝官)과 관계하여 낳은 자식은 그 자식과 나이가 비슷한 중을 대신 바치고 속신하여 면천하게 하도록 했다.”¹⁰¹⁾ 하지만 이 제도도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야만 했다. 숙종 25년(1699)에 외방(外方) 관노비의 면천(免賤)을 일절 금하는 수교(受敎)가 있었다. 그러다가 『속대전(續大典)』(1746년)에 이르러 비로소 공천(公賤)의 대구속신(代口贖身)이 법령으로 제정되었으나 이 속신(贖身)의 제도가 기생에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¹⁰²⁾ 이를 보면 기생이 양민으로 속량되는 길이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속신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청에 안면도 있어야 가능했다. 게다가 속실했더라도 완전한 면천이 아니었다. 관청에 소속된 기생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수령은 대구(代口)로 근무하는 관비에게 문제가 있으면 원래의 관비를 복귀시키거나 원기(原妓)의 자식이란 근거로 기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⁰³⁾

한편, 관청에 소속된 기생은 관리의 수청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관리숙창(官吏宿娼)」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00) 정연식(2004), 위의 논문, 292면 재인용.

101) 정연식(2004), 위의 논문, 290면 재인용.

102) 김종철(2018), 「〈춘향전〉에서의 법과 사랑」,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185면.

103) 김종철(2018), 위의 논문, 186-187면 참조.

“무릇, 관리(官吏)가 창녀(娼女)의 집에서 유숙(留宿)하면 장 육십(杖六十)의 형(刑)에 처하고, 매개인(媒介人)은 범인(犯人)의 죄(罪)보다 일등(一等)을 감경(減輕)한다. 관원(官員)의 자손(子孫)이 창녀(娼女)의 집에서 유숙(留宿)한 자도 또한 같으며, 명부(名簿)에 죄과명(罪過名)을 부기(附記)하여 두었다가, 음관승습(蔭官承襲)의 날을 기다려 관등(官等)을 1등(等) 강등(降等)하여 먼 변방(邊方)에 임용(任用)한다.”¹⁰⁴⁾

그렇지만 실제로는 관청의 기생들이 수령이 요구하는 대로 수청을 들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법률이 먼 곳에 있는 대신 지방수령의 권한은 막강했기 때문에¹⁰⁵⁾ 수청 요구를 거역하면 춘향이나 전불관의 신세가 되기 마련이었다.

조선후기에 수령제 운영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수령의 권한이 막강했다. 수령은 한 고을의 작은 왕이나 마찬가지였다. 고을 백성들의 생활의 안위가 수령에게 달려 있었다. 그러한 권한을 이용해서 국법을 무시하고 범람한 짓을 하는 자가 많았다.¹⁰⁶⁾ 이에 대해서 철종 2년(1851) 좌의정 김홍근(金弘根)이 탐묵(貪墨)의 폐를 말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후(前後)의 수계를 보니 열 가운데 일곱, 여덟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개 탐관오리가 부정을 일삼는 방법은 한둘이 아니어서, 결세(結稅)를 빼돌리기도 하고, 향임(鄉任)을 팔기도 하며, 뇌물을 받고 송사(訟事)를 처결하기도 하고, 백성을 위협하여 그 재물을 빼앗기도 하며, 창곡(倉穀)으로써 장난질을 해 고리대를 일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씹씹이가 해피 관가의 빚이 점점 많아지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적에 적당히 꾸며 놓는바

104) 한국고전번역원(1964), 「관리숙창(官吏宿娼)」,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법제처, 479면

105) 정연식(2004), 앞의 논문, 301면.

106) 김태준(1930), 박희병 교수(1990),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4-196면.

약탈과 다를 게 없으니, 필경 그 화(禍)를 받는 자는 오직 영세한 백성일 따름입니다.¹⁰⁷⁾

이에 백성들의 불만은 엄청나게 고조되어 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런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암행어사제도가 강화되었다. 백상기·김세에 의하면 암행어사가 중종대에 발견되고 인조 이후부터 자주 파견되었다. 암행어사가 과거에 급제해야 한 자이어야 하며, 시종관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었다. 암행어사는 왕의 밀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행정을 염찰했다. 암행어사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왕으로부터 친수 받은 봉서와 추생에 적어 있는 사항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실행하는데 직무 수행에 필요할 때 출두해서 일을 처리한다. 경우에 따라 민중의 원한과 억울을 풀어주거나 지방 활리와 토호의 불법과 침학을 적발하고, 특히 수령의 탐오와 흑형을 규찰하였다.¹⁰⁸⁾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가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 춘향을 구출하고 포악한 변학도를 봉고파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암행어사제도와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민중의 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에 들어서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법제에 입각한 유교적 가부장제가 완벽하게 정립되었다. 유교적 가부장제의 성립은 곧 친족 제도 내에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 권력의 일방적 강화, 아내에 대한 남편 권력의 강화, 딸에 대한 아들의 권력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⁰⁹⁾ 강명관은 유교적 가부장제가 여성을 남성에 대한 성적 종속성의 실천자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머릿속에 ‘열녀불경이부’의 사상을 심어주어 여성 개인의 의식과 행위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조선 전기에 비

107) 김태준(1930), 박희병 교주(1990), 앞의 책, 194-195면 재인용.

108) 백상기·김세(1991), 「조선조 암행어사제도 연구(2)」, 『사회과학연구』 11-1,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7면 참조.

109) 강명관(2009), 『열녀의 탄생』, 돌베개, 14면.

해 열녀가 속속 탄생했다.¹¹⁰⁾ <춘향전>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탄생했다. 춘향의 ‘열녀불경이부’라는 지향은 그 당시 사회에서 권장했던 ‘열녀불경이부’에 대한 통념과 내용이 다르지만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춘향의 형상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부정하지 않을 없다.

2) 근대이행기의 베트남 사회의 특징

앞서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기생제도를 중심으로 <춘향전>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취교전>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베트남 봉건사회의 신분제도를 살펴보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 봉건사회의 신분제도는 사(士), 농(農), 공(工), 상(商)의 네 가지의 계층으로 구분된다. 그중에 사대부(사)가 성현경전을 배우고 도리를 잘 아는 자로서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가장 존경을 받았던 계층인 반면 장사(상)는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는 최하급의 계층이었다. 그런데 기생이란 사회로부터 가장 멸시를 당했던 사람으로서 창가(唱歌)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창가무류(唱歌無類)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아무 계층에도 편정되지 않아서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 창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란 께오(chèo), 뚜윙(tuồng), 까주(ca trù) 등과 같은 베트남 전통예술을 하는 사람이었다. 다오느엉(đào nương, 佻娘)¹¹¹⁾이 이러한 무리에 속

110) 강명관(2009), 앞의 책, 239-350면 참조.

111) 베트남의 đào nương(다오느엉이란 베트남전통예술인 까주(ca trù)의 예술가로 á đào(아다오, 佻佻) 또는 cô đầu(꼬두어, 姑姚)라는 명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한국의 기생과 비슷한 신분이다. 팜 쩡(Phạm Quỳnh)은 아다오가 기생이지만 창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응웬 돈 폭(Nguyễn Đôn Phục)도 아다오(佻佻)가 기생이지만 일정한 규율을 지키고 가족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생과 다르다고 한다. (Phạm Quỳnh, Văn chương trong lối hát á đào(아다오(佻佻)창가유형의 문장); Nguyễn Đôn Phục, Khảo luận về lối hát á đào(아다오창가유형에 대한 논고), Đoàn Thị Anh Đào(2008), Nhân vật á đào: từ cuộc sống đến thơ văn(실생활과 시문학에 나타난 아다오(佻佻)), Luận văn thạc sỹ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 Đại học Quốc gia Hà

해 있는 신분이었다.

기생(다오느엉)은 남의 유흥을 돋우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사회로부터 멸시를 당하며 법적으로도 여러 차별을 받았다. 국조형률(國朝刑律)에서 관리가 금가(琴歌)를 업으로 하는 여자(기생)를 처(妻)나 첩(妾)으로 맞아들이는 경우 형장을 70대 맞고 유배를 가게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자식이 기생과 혼인하는 경우 형장 60대를 맞고 이혼해야 된다¹¹²⁾며 창가의 자식들이 일체 과거 시험에 참가하지 못한다고¹¹³⁾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을 어기고 기생을 첩으로 맞아들인 자도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 기생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가(民家)에서도 기생과의 혼인은 물론, 교제까지 꺼리었으며, 집안에 기생과 혼인한 자가 있다면 가문의 모욕으로 여긴 것이 사회의 통념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기생은 대대로 천한 신분을 이어받고 벗어날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들 대부분은 남성들의 유흥 수단이 되어 사고파는 물건으로 취급당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였다.¹¹⁴⁾ 물론 직업의 특징으로부터 인해 문인재자(文人才子)들과 자유로이 연애했 수는 있었으나 대부분 혼인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별을 당하거나, 혼인을 이룩하더라도 천첩이 될 수밖에 없는 등 안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¹¹⁵⁾ 18세기부터 심

Nội에서 재인용). 다오느엉은 한국 조선시대 기생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 편의상 기생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112) Phan Huy Chú, 『歷朝憲章類誌』, Viện Sử học 역(2014), *Lịch triều hiến chương loại chí*, tập 4, Nxb Trẻ, 333면. (국조형률은 레 타잉 퉁(梨聖宗) 시대 홍 득(洪德) 연간에 만들어진 법전이다.)

113) Phan Huy Chú, Viện Sử học 역(2014), 위의 책, 413면.

114) 『우중수필(雨中隨筆)』에서 판 덩 호(Phạm Đình Hổ, 范廷琥)가 웬 칸(Nguyễn Khanh)네 집안에서 몇 명의 기생을 두고 자기의 풍류를 만족시킨다며 상을 당한 기생이라도 돈을 주고 창가(唱歌)를 시킨다고 한다.(Nhà họ Nguyễn ở Tiên Điền (띠엔띠엔의 완씨 가문), Phạm Đình Hổ, 『雨中隨筆』, Đông Châu Nguyễn Hữu Tiên 역(2012), *Vũ trung tùy bút*, Nxb Trẻ - Nxb Hồng Bàng 참조.)

115) 그 집의 천첩이 되었는데도 처의 질투 때문에 죽임당하거나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나가야 한 경우가 있다. 판 다(Tân Đà) 시인의 어머니의 경우가 한 예이다. 그녀는 원래 재색을 겸비한 기생이었는데 판 다의 아버지인 안찰사(按察使)가 첩으로 맞아들였다. 그렇지만 안찰사가 죽은 후 시집에서 살지 못하고 세 살짜리 아들 판 다를 남겨둔 채 어린

각한 사회 분화와 활발한 상업 발전이 봉건 도시를 발생시키고 자기의 음악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오느엥을 사들이는 상인 계층이 형성되었다. 심지어 기생을 첩으로 맞아들이는 일도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베트남 문화생활에서 기생이 날로 많이 등장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¹¹⁶⁾

그들의 불행한 삶은 많은 문학 작품의 제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완유(Nguyễn Du)의 <용성금자가(龍城琴者歌)>의 ‘금’이라는 가기(歌妓)나 <조라성가자(吊羅城歌者)>의 가기를 들 수 있다.¹¹⁷⁾ 쩌너틴(Trần Nho Thìn)이 지적한 바와 같이 “18세기 말로부터 19세기에 이르러서까지 베트남 문학의 여성 인물 형상이 전이 과정을 경과했는데 정부(征婦), 궁녀(宮女)와 같은 귀족 계층에 속한 여성과 <화전(Hoa Tiên)>의 자오 띠엔(Dao Tiên), <소경신장(Sơ kính tân trang)>의 쩡 트(Quỳnh Thu), <판진(Phan Trần)>의 쩌끼에우 리엔(Trần Kiều Liên)과 같은 재자가인소설의 여성인물로부터 기생으로 전이되었다.”¹¹⁸⁾ 완유의 <취교전>도 이러한 문학의 흐름 속에 탄생했다.

한편, 레-막(Lê-Mạc, 黎-莫) 내전(1533-1592)과 쩡-응웬(Trịnh-Nguyễn, 鄭-阮) 내전(1627-1672)을 걸쳐 베트남 봉건제도는 쇠퇴하는 길로 들어섰다. 황상-왕상(皇上-王上)¹¹⁹⁾이 국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향락에 빠져서 국가기강이 혼란하고 세상의 풍속이 무너지고 인심과 세도가 붕괴되었으며 탐관오리가 전횡해서 백성의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또다시 기생이 되었다. 이후 딸도 자라서 기생이 되었다.(Hoàng Thị Ngọc Thanh, “Người á đào qua các tư liệu từ thế kỉ XVIII đến giữa thế kỉ XIX(18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문학자료를 통해서 본 아다오(阿佻))”, *Luân văn thạc sĩ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Nhân văn,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80면 참조.)

116) Trần Nho Thìn(2003), *Văn học trung đại Việt Nam dưới dướng góc nhìn văn hóa* (문화를 통해 본 베트남중세문학), Nxb Giáo dục, 144-147면.

117) Đào Duy Anh 외(1988), *Thơ chữ Hán Nguyễn Du(완유의 한문시문)*, Nxb Văn học, 189-195면 참조.

118) Trần Nho Thìn, 앞의 책, 150면.

119) 이 시기에 황상(임금) 옆에 왕상(chúa, 主)이 존재했다. 명목적으로 임금을 보좌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실권을 장악하였다.

생활이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¹²⁰⁾ <황려일통지(皇黎一統志)>에서 당 티 후에(Đặng Thị Huệ, 鄧氏惠) 선비(宣妃)의 남동생인 당 머우 린(Đặng Mậu Lân, 鄧茂麟)이 누나의 권력에 기대어 전횡했다. 예쁜 여자가 그의 눈에 들면 즉시 그 여자를 겁탈하였으며 반항하면 잔혹한 벌을 가했다. 쩡 썸(Trịnh Sâm, 鄭森) 정도왕(靖都王)의 응옥 란(Ngọc Lan, 玉蘭) 공주도 예외가 아니었다.¹²¹⁾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모순이 궁극적으로 첨예해져서 전국 곳곳에 대대적인 봉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떼이 썸(Tây Sơn, 西山)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떼이 썸 운동은 레-쩡 봉건정권을 타도해서 혁신적인 정권을 설립하였다. 그렇지만 떼이 썸 운동의 영혼인 궤쑹(Quang Trung, 光中) 황제가 죽음에 따라 이 정권도 무너졌다. 그 대신에 보수적인 봉건정권인 응웬(Nguyễn) 왕조가 새로 건립되었다.

<취교전> 작자인 완유는 이러한 분위기에 살았다. 레 왕조의 유신으로서의 완유는 떼이 썸 왕조에 반항하려 했었지만 이 시기의 봉기운동의 지도자들, 특히 궤 쑹의 삶이 <취교전>의 서해의 형상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

3) <춘향전>과 <취교전>의 창작배경 비교

위에서 서술한 바를 통해서 18, 19세기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배경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존재한다. 신분제도를 보면 네 가지의 계층으로 구성된 것은 비슷한 점이 보이지만 한국에는 기생이 천민에 속하는데 베트남에는 아예 네 가지의 계층에도 속하

120) Nguyễn Lộc(1994), *Văn học Việt Nam nửa cuối thế kỷ 18 - hết thế kỷ 19*(18세기 후반에게 19세기 말까지의 베트남문학), Nxb Giáo dục, 40-47면.

121) Ngô văn gia phái, 『皇黎一統志』, Ngô Tất Tố 역(2017), *Hoàng Lê nhất thống chí*, Nxb Văn học, 11-13면.

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인다. 기생이 최하급의 무리로 취급받고 법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는다. 그들은 천한 신분이 세습되어 신분제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막막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기생제도가 유사하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기생들이 공노비의 신분으로 대구 속량이나 납전 속량을 통해서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베트남의 경우 기생이 공노비가 아니라서 관청에 예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구 속량이나 납전 속량을 통해 비천한 신분을 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창가무류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민간에서도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기생제도와 베트남의 기생제도가 차이점이 보인다.

한편, 탐관오리의 전횡으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고통스러워지고 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이 시기의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암행어사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베트남에서는 그 대신에 감찰어사가 지방에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군사와 민사를 관장하였다.¹²²⁾ 또한 조선 후기에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녀 장려 정책이 실시되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17-18세기에 열녀 장려 정책이 그리 중요시되지 않다가 19세기 중엽에 들어서야 실시되었다.¹²³⁾

<춘향전>과 <취교전>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했다. <춘향전>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신분적 갈등과 인간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춘향과 변학도와의 대결을 통해서 반영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도 치열하지만 어사 출도를 통해서 해결된 바에 주목한다면, 그 사회 질서를 바르게 유지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명군현신(明君賢臣)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122) Quốc sử quán triều Nguyễn(1881), 『欽定越史通鑑綱目』, Viện Sử học 역(1998), *Khâm định Việt sử thông giám cương mục*, Nxb Giáo dục 참조.

123) Phạm Văn Hùng(2016), *Tự sự của trình tiết nhân vật liệt nữ trong văn học Việt Nam trung đại thế kỷ X-XIX(10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베트남 중세문학에 등장한 열녀 인물 연구)*,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39-62면 참조.

있다.

<취교전>의 작가는 상류층에 속한 유가였던 완유이다. 그렇지만 완유는 격변의 시기를 경과했으며 15여 년 동안 촌야(村野)에 묻혀서 살았다. 이 시기 동안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교제하였고 상전벽해(桑田碧海)를 경험하고 목격하였다. 레-쯩(Lê-Trịnh)시대의 혼란스러웠던 사회는 특히 완유에게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봉기 운동들, 그 가운데 떼이썬(Tây Sơn) 운동이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도덕의 타락과 기생의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자료와 완유의 시문(詩文)을 통해 재색이 뛰어나지만 인생이 불행한 기생 신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라성가자(吊羅城歌者)>의 가기(歌妓)나 <우가제구가희(遇家弟舊歌姬)>의 가기, <용성금자가(龍城琴者歌)>의 ‘금’이 라는 가기, <독소청기(讀小青記)>의 ‘소청’ 등이 그 예이다. 그중에 소청을 제외하면 모두 완유가 실생활에서 만났던 불행한 삶을 살았던 기생이었다. 그들의 능력과 삶의 불일치는 시인의 마음에 깊은 감상을 남겼다. 썬 녀 틴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완유가 <김운교전>을 선택한 이유가 그 작품이 시인의 시대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플롯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¹²⁴⁾

2.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 비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사구조(플롯)는 작품 주제의 구현을 위한 행동과 사건의 짜임새라고 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를 분석·비교함으로써 <춘향전>의 서사구조에

124) Trần Nho Thìn(2003), 앞의 책, 153면.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춘향전>의 서사구조

<춘향전>은 다른 판소리계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판소리 <춘향가> 사설이 소설화된 것이다. <광한루악부>의 평자로 등장하는 옥전산인은 일찍부터 <춘향가>를 세 가지의 기이한 사건으로 인식했다. 이도령과 춘향의 기이한 만남과 중간에 춘향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내 정절을 지킨 것, 그리고 이도령이 어사가 되어 내려와서 춘향을 구하고 두 사람이 다시 결합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¹²⁵⁾ 이러한 분석에는 이별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서사의 기이한 사건에만 주목한 까닭이다. 구자균은 <완판 84장본>을 현대역하면서 그 서사구조를 만남, 이별, 수난, 재회로 파악하였는데¹²⁶⁾, 이러한 인식은 후대 연구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보영은 <춘향전>의 서사구조를 만남담과 이별담, 고난담, 재회담의 4개의 단위담으로 나누고 <완판 84장본>을 대상으로 춘향전의 서사를 아래와 같은 28개의 삽화들로 분석하였다.¹²⁷⁾

- ① 춘향이 태어나다.(출생)
- ② 이도령이 광한루로 나들이를 가다.(나들이)
- ③ 이도령이 춘향을 보고 반하다.(일견경심)
- ④ 이도령이 춘향을 초래하다.(도령초래)
- ⑤ 이도령과 춘향이 처음으로 만나다.(첫만남)
- ⑥ 이도령이 서책을 읽다.(책방독서)
- ⑦ 이도령이 춘향집으로 가다.(춘향집 방문)
- ⑧ 이도령과 춘향이 가약을 맺다.(가약)

125)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561면.

126)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21면.

127) 서보영(2017), 「고전소설 삽화 재구성 교육 연구 - <춘향전> 이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9면 참조.

- ⑨ 이도령관 춘향이 첫날밤을 보내다.(초야)
- ⑩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하다.(이별통보)
- ⑪ 춘향이 이도령을 그리워하다.(공방망부)
- ⑫ 신관이 부임하다.(신연맞이)
- ⑬ 신관이 기생점고하다.(기생점고)
- ⑭ 신관이 춘향을 부르다.(신관초래)
- ⑮ 신관이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다.(수청요구)
- ⑯ 춘향이 형벌을 받다.(형벌)
- ⑰ 춘향이 구완을 받다.(춘향구완)
- ⑱ 춘향이 옥 갇히다.(옥중망부)
- ⑲ 춘향이 황릉묘를 몽유하다.(황릉묘 몽유)
- ⑳ 춘향이 꿈 해몽을 하다.(봉사해몽)
- ㉑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다.(과거급제)
- ㉒ 어사가 남원으로 오다.(어사염문)
- ㉓ 어사가 춘향의 편지를 받다.(춘향편지)
- ㉔ 어사가 춘향집을 찾다.(장서상봉)
- ㉕ 어사와 춘향이 옥중에서 재회하다.(옥중상봉)
- ㉖ 어사가 신관의 생일연에 참석하다.(신관생일연)
- ㉗ 어사가 출도하다.(어사출도)
- ㉘ 어사와 춘향이 동헌에서 상봉하다.(동헌상봉)

이상의 삽화 분석은 <완판 84장본>의 서사 전개를 잘 나타낼 뿐 아니라 ①과 ⑲를 제외하면 <춘향전>의 공통적인 서사 구조를 잘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춘향전의 서사 구조를 분석할 때 서보영이 분석한 삽화 분석을 참조하되, <취교전>의 서사 구조와의 비교에 용이하도록 삽화 분석을 조정하였다.

대단위	소단위
1. 만남	㉑ 춘향이 태어나다. ① 이도령이 광한루로 나들이를 가다. ② 이도령이 춘향을 보고 반하다. ③ 이도령이 춘향을 초래하다.

	④ 월매가 간밤의 꿈을 들려준다. ⑤ 이도령과 춘향이 처음으로 만나다. ⑥ 이도령이 서책을 읽다. ⑦ 이도령이 춘향집으로 가다. ⑧ 이도령과 춘향이 가약을 맺다. ⑨ 이도령과 춘향이 첫날밤을 보내다.
이별	⑩ 춘향이 이별소식을 듣다. ⑪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하다. ⑫ 춘향이 이도령을 그리워하다.
수난	⑬ 신관이 부임하다. ⑭ 신관이 기생점고하다. ⑮ 신관이 춘향을 부르다. ⑯ 춘향이 이몽룡을 그리워하며 자탄하다. ⑰ 신관이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다. ⑱ 춘향이 수청요구를 거절하다. ⑲ 춘향이 형벌을 받다. ⑳ 춘향이 구완을 받다. ㉑ 춘향이 옥에 갇히다. ㉒ 춘향이 옥중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다. ㉓ 춘향이 황룡묘를 몽유하다 ㉔ 춘향이 꿈 해몽을 하다.
재회	㉕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다. ㉖ 어사가 남원으로 오다. ㉗ 어사가 춘향의 편지를 받다. ㉘ 어사가 춘향집을 찾다. ㉙ 어사와 춘향이 옥중에서 재회하다. ㉚ 춘향이 어머니에게 이몽룡을 부탁하다. ㉛ 춘향이 이몽룡에게 자기의 후사를 부탁하다. ㉜ 어사가 신관의 생일연에 참석하다. ㉝ 어사가 출도하다. ㉞ 어사가 춘향의 정절을 시험하다. ㉟ 어사와 춘향이 동헌에서 상봉하다. ㊱ 춘향이 정렬부인에 봉해지고 이몽룡의 정실부인이 되다.

표3: <춘향전>의 서사구조

④,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는 연구자가 추가한 삽화이다. ④의 경우 월매가 간밤의 꿈을 들려주는 사건은 규모가 작긴 하지만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⑤ 앞에 이 삽화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⑩의 경우 이별 소식을 듣는 순간에 춘향의 심리적 갈등이 일어남으로써 춘향의 성격이 부각된다. 그런 이유로 이별 소식을 듣는다는 항목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관이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기 직전에 춘향이 이몽룡을 그리워하며 자탄하는 화소가 있어야 춘향의 반항 동기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보면 ⑭ 앞에 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옥중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몽룡을 위한 수절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랬을 때에 ‘황릉묘 몽유’의 삽화가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므로 ⑮ 앞에 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옥중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온 이몽룡을 만날 때 춘향이 어머니에게 이몽룡을 부탁하는 것은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고상한 사랑을 보여주고, 이몽룡에게 자기의 후사를 부탁하는 것¹²⁸⁾도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㉔ 뒤에 ㉔, ㉔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어사가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는 것은 춘향의 정절을 한층 더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 삽화를 통해서 춘향의 성격적 일관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어서 ㉔ 뒤에 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춘향이 정렬부인에 봉해지고 이몽룡의 정실부인이 되는 것은 목숨을 건 저항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기에 ㉔가 있어야 한다.

한편, ‘춘향의 탄생’, ‘춘향의 황릉묘 몽유’, ‘어사 정절 시험’과 같은 삽화가 <완판 84장본>에만 해당되지만 춘향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에 <춘향전>의 서사구조에 포함하고자 하되 다른 이본에 나타

128) 이에 대해서 춘향이 죽더라도 양반집의 귀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이는 춘향이 끝까지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고 죽더라도 이몽룡만의 아내가 되겠다는 결심을 나타낸다고 봐야 타당하다.

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 ㉢, ㉣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춘향전>을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고전소설교육의 제재로 설정했지만 <춘향전>은 분량이 많아서 학습자에게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위의 분석한 서사구조를 제시하면 학습자가 <춘향전>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의 연관 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 자신의 문학적 스키마를 활용하여 <춘향전>의 서사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서사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취교전>의 서사구조

주지하시다시피, <취교전>은 쭈웬놈(Truyện Nôm, 傳喃)의 갈래에 해당된다. 쭈웬놈이란 한자를 빌려서 만들어진 베트남민족의 고유문자인 쭈웬놈으로 창작된 읍문소설이다.¹²⁹⁾ 대부분의 쭈웬놈은 ‘만남 - 고난 - 재회’의 서사구조로 구성된다. 완유는 쭈웬놈의 서사적 전통을 계승해서 <취교전>을 창작함으로써 쭈웬놈 갈래를 승화시킨다.¹³⁰⁾

129) 쭈웬놈은 베트남민족의 특수한 시가형식인 육팔구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쭈웬터(Truyện thơ, 詩傳)이나 쭈웬지엔까(Truyện diễn ca, 演歌傳)이라는 다른 명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학계에서 쭈웬놈을 평민적 쭈웬놈(truyện Nôm bình dân)과 귀족적 쭈웬놈(truyện Nôm bác học)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민적 쭈웬놈은 설화들로부터 형성된 작품으로서 대부분 작자가 미상이다. 이 분류의 대표작으로서 <팜공궁화(Phạm Công Cúc Hoa)>, <관음티경(Quan Âm Thị Kính, 觀音氏經)>, <르우빙즈영레(Lưu Bình Dương Lễ)>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귀족적 쭈웬놈은 <응옥끼에우레(Ngọc Kiều Lê, 玉嬌梨)>, <화띠엔(Hoa tiên, 花箋)>, <취교전(Truyện Kiều, 翠翹傳)> 등과 같이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의 플롯을 차용해서 창작하거나 <써깅떤짱(Sơ kinh tân trang, 梳鏡新妝)>, <록번띠엔(Lục Vân Tiên, 蓼雲仙)> 등과 같이 작자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모델로 해서 창작한 작품이다.

130) Đặng Thanh Lê(1979), *Truyện Kiều và thể loại truyện nôm(취교전과 쭈웬놈)*, Nxb Khoa học - Xã hội, 270면; Kiều Thu Hoạch(2007), *Truyện Nôm Lịch sử phát triển và thi pháp thể loại(쭈웬놈의 발전 역사와 시학)*, Nxb Giáo dục, 232면 참조.

쭈웬 뇨의 서사구조에 대해서 당 타잉 레(Đặng Thanh Lê)는 쭈웬 뇨이 민담의 전통적 이야기 구성을 계승하여 ‘만남-재변’ 재회 ‘의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¹³¹⁾고 보았다. 응웬 록(Nguyễn Lộc)도 평민적 쭈웬 뇨의 특징을 이야기의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로 전개되며 중심인물의 출생담을 자세히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¹³²⁾고 분석하였다. 끼에우 투 후웬(Kiều Thu Hoạch)도 역시 당 타잉 레와 견해를 함께 하며 쭈웬 뇨의 서사 구조를 만남-재변-재회와 해피엔딩으로 보고 사건 전개가 극적이고 복잡해지더라도 이와 같은 핵심 구조 틀을 벗어날 수 없다¹³³⁾고 본다. 이상의 연구들을 참고할 때 쭈웬 뇨의 대표작인 <취교전> 또한 ‘출생/중심인물 소개-만남·결연-변고/이별-수난-재회’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오 쥬 아잉 (Đào Duy Anh)은 청심재인의 <김운교전(金雲翹傳)>과의 비교를 통해 <취교전>의 서사 전개를 대단위 3개의 대단위와 13개의 소단위로 나눈다.¹³⁴⁾

대단위	소단위
만남	(1) 발단 (2) 취교와 김중이 만나다. (3) 취교와 김중이 연애하다.
타향 살이 (유락)	(4) 취교가 가변을 당하다. (5) 취교가 첫 번째 청루에 팔려가다. (6) 취교가 속생의 첩이 되다. (7) 취교가 환저의 음모로 인해 환저네 집의 하녀가 되다. (8) 취교가 두 번째 청루에 팔려가다. (9) 취교가 서해의 부인이 되다. 취교가 기구한 운명을 완전히 청산하다.

131) Đặng Thanh Lê(1979), 위의 책, 94-95면.

132) Nguyễn Lộc(1994), *Văn học Việt Nam nửa cuối thế kỷ XVIII - hết thế kỷ XIX(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말까지의 베트남문학)*, Nxb Giáo dục, 449면.

133) Kiêu Thu Hoạch(2007), 앞의 책, 167-168면.

134) Đào Duy Anh, Khảo luận về Truyện Thuý Kiều(<취교전>의 논고), Trịnh Bá Đình(2003), 앞의 책, 341-343면에서 참조.

대단원	(10) 김중이 취원(翠園)에 돌아가다.
	(11) 김중이 취교를 찾아가다.
	(12) 취교가 가족들과 재회하다.
	(13) 결말

표4: 다오 주 아잉이 분석한 <취교전>의 이야기 구성

당 타잉 레도 <취교전>의 이야기 구성을 대단위 3개와 소단위 11개로 나누고 있다.¹³⁵⁾

대단위	소단위
만남과 혼약	(1) 취교의 가세와 재색
	(2) 취교가 김중을 만나다.
	(3) 취교와 김중이 혼약을 맺고 맹세하다.
가변과 타향살이(유락)	(4) 취교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몸을 팔다.
	(5) 취교가 마감생의 숙임수에 걸리다.
	(6) 취교가 소경의 숙임수에 넘어가서 첫 번째 청루에 팔려가다.
	(7) 취교가 환저의 꺾박을 받다.
	(8) 취교가 두 번째 청루에 팔려가다.
	취교가 지기(知己)를 만나다.
	(9) 취교가 호종헌의 숙임수에 넘어가다.
가족들과 옛사람과의 재회	(10) 취교가 불문에 몸을 위탁하다.
	(11) 취교가 가족들과 옛사람과 재회하다.

표5: 당 타잉 레가 분석한 <취교전>의 이야기 구성

대단위에서는 당 타잉 레의 분석과 다오 주 아잉과 유사하지만 소단위 분석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소단위(1)에 다오 주 아잉은 ‘재색상충’이라는 작자의 논평도 포함시킨다. 소단위(3)에 당 타잉 레가 ‘취교가 집에 돌아와서 김중을 생각하다가 잠들어 꿈속에서 담

135) Đặng Thanh Lê(1972), *Nguyễn Du Truyện Kiều*(완유, <취교전>), Nxb Giáo dục, Hà Nội, 26-27면 참조.

선을 만나 앞의 일을 알게 되다.’는 삽화를 포함시키는데 다오 주 아잉은 이 삽화를 ‘취교와 김중이 만나다’는 소단위(2)에 포함시킨다. 그렇지만 이 삽화를 김중과의 만남의 결과라고 봐야 타당하기에 다오 주 아잉의 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오 주 아잉과 당 타잉 레가 모두 ‘취교와 김중이 이별하다.’의 삽화를 ‘(가변과) 타향살이’라는 대단위 중 ‘가변’이라는 소단위(4)에 포함시킨다. 그렇지만 이 갑작스러운 이별은 김중에 대한 취교의 사랑 및 그녀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소단위(4)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하나의 대단위로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오 주 아잉은 ‘취교가 마감생의 속임을 당해서 청루에 팔려가다.’와 ‘취교가 초경의 속임을 당해서 손님 대접을 해야 하다.’는 삽화를 모두 소단위(5)에 포함시키는 반면, 당 타잉 레는 ‘취교가 마감생의 속임을 당해서 청루에 팔려가다.’를 소단위(5)로, ‘취교가 초경의 속임을 당해서 손님 대접을 해야 하다.’는 소단위(6)으로 분리시킨다. 이 삽화들이 취교의 수난의 시작이지만 의미와 층위가 다른 까닭에 하나로 묶는 것보다 분리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오 주 아잉은 ‘취교가 속생의 첩이 되다.’와 ‘취교가 환저의 핍박을 받다.’의 삽화를 두 개의 소단위로 나누는 반면, 당 타잉 레는 이 두 개의 삽화를 ‘환저의 핍박’이라는 소단위(7)에 포함시킨다. ‘취교가 속생의 첩이 되다.’의 삽화에는 취교의 수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데, 반면 ‘취교가 환저의 핍박을 받다.’의 삽화에는 취교의 수난이 더욱더 심각해진다. 이 두 삽화의 성격이 달라서 한 소단위로 포함시키는 것보다 두 개로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당 타잉 레가 ‘취교가 두 번째 청루에 팔려가다.’와 ‘취교가 지기를 만나다.’는 삽화를 소단위(8)에 포함시키는데, 다오 주 아잉이 ‘취교가 두 번째 청루에 팔려가다.’와 ‘취교가 서해의 아내가 되다.’의 소단위 두 개로 분리시킨다. ‘취교가 서해를 만나는 것’이 ‘취교가 두 번째 청루에 팔리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삽화가 역시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닌다. ‘취교가 두 번째 청루에 팔리다.’는 삽화가 취교의 수난에 속하지만 취교가 서해를 만나다는 것은 청루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그녀의 수난의 극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삽화를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두 개의 소단위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다오 주 아잉은 ‘취교가 서해의 아내가 되다.’라는 삽화를 ‘취교가 호종헌의 속임수에 넘어가다.’와 ‘취교가 기구한 운명을 완전히 청산하다.’라는 삽화와 함께 묶어서 ‘서해의 아내가 되다 - 기구한 운명을 청산하다.’라는 소단위(9)에 포함시킨다. 반면, 당 타잉 레은 이 두 삽화를 ‘취교가 호종헌의 속임수에 넘어가다.’와 ‘취교가 불문에 의탁하다.’라는 두 개의 소단위로 나눈다. 다오 주 아잉은 이 두 개의 삽화를 ‘서해의 아내가 되다 - 기구한 운명을 완전히 청산하다.’라는 소단위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겠으나, ‘서해의 아내가 되다.’와 ‘기구한 운명을 완전히 청산하다.’의 성격과 층위가 다르다. ‘기구한 운명을 완전히 청산하다.’라는 삽화는 ‘서해의 아내가 되다.’라는 삽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살펴본 삽화들과 인과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삽화에 대해서는 당 타잉 레의 분석이 적절하다.

마지막 대단위 경우 다오 주 아잉이 ‘김중이 취교를 찾아가다.’와 ‘취교가 가족들과 재회하다.’라는 삽화와 ‘재명의 관계’와 ‘선심이 운명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결말을 포함시키는데 당 타잉 레는 그 결말을 제외시킨다. ‘재색상충’과 ‘재명의 관계’, ‘선심이 운명을 고칠 수 있다’라는 작자의 논평은 작자의 문제의식을 나타내지만 서사적 사건이 없어서 당 타잉 레의 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쩐 딩 쓰(Trần Đình Sử)는 <취교전>의 이야기 구성에 대해서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취교전>이 장회소설의 구성과 같이 일련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³⁶⁾

136) 장회소설의 일반적 이야기 구성과 같이 <취교전>의 이야기 구성은 장회로 나뉘지 않

- ① 취교가 봄나들이를 가다가 담선의 무덤을 지나가서 담선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귀가하는 도중에 김중을 만나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생각한다는 이야기
- ② 취교와 김중이 만나 백년가약을 맺는다는 이야기
- ③ 취교가 아버지와 남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판다는 이야기
- ④ 취교가 손님 대접을 강요받는다는 이야기
- ⑤ 취교가 속생을 만나서 그의 첩이 된다는 이야기
- ⑥ 환저가 사람을 시켜 취교를 납치해서 하녀로 삼는다는 이야기
- ⑦ 환저의 질투에 대한 이야기
- ⑧ 취교가 환저네 집에서 도망치고 박행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이야기
- ⑨ 취교가 서해의 처가 되고 서해의 도움으로 은혜와 원수를 갚고 서해를 따라 자결한다는 이야기
- ⑩ 취교가 다칠 일을 미리 알게 된 각연이 기다리다가 전당강물로 몸을 던져 죽은 취교를 구조한다는 이야기
- ⑪ 김중이 숙부상을 치른 뒤 돌아와서 취운과 결혼한다는 이야기
- ⑫ 김중이 취교를 찾아내고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 ⑬ 취교와 김중이 함께 옛인연을 잇는다는 이야기”

썬 덩 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취교전>은 ‘소개 - 매듭 묶기(갈등) - 발전 - 위기 - 매듭 풀기(갈등 해소) - 결말’이라는 요소들이 포함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취교전>을 13개의 이야기로 나누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가 분석한 일련의 이야기에는 취교와 김중이 이별하라는 삽화가 없다. 이야기 ⑥과 ⑦은 환저가 취교를 질투한다는 이야기로 두 개의 이야기로 분리시키는 것보다 ‘환저가 취교를 질투하다.’는 이야기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또는 ⑧에 ‘취교가 환저네 집에서 도망치다.’와 ‘박행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두 번째 청루에 팔려가다.’는 삽화가 함

지만 일련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 각 이야기마다 ‘소개 - 매듭 묶기(갈등) - 발전 - 위기 - 매듭 풀기(갈등 해소) - 결말’의 이야기 구성의 요소들이 거의 다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취교전>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이야기들이 포함된다. Trần Đình Sử(2007), *Thi pháp Truyện Kiều*(<취교전>의 시학), Nxb Giáo dục, 200-201면.

게 포함된다. 그렇지만 ‘취교가 환저네 집에서 도망치다.’라는 것은 환저의 질투의 결과라고 봐야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삽화는 ⑥, ⑦과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⑨도 영웅(英雄)과 선연(嬋娟)의 사랑이야기인 ‘취교가 서해의 아내가 되다.’와 패전자의 처자의 이야기인 ‘취교가 호종현의 속임을 당하다.’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취교전>의 서사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단위	소단위
만남	① 취교의 가세와 재색 ② 취교가 동생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가다가 명기 담선의 무덤을 지나가다. ③ 취교와 김중이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반하다. ④ 취교가 꿈속에서 담선을 만나서 자신의 전정을 알게 되다. ⑤ 김중이 취교의 옆집으로 이사 오다. ⑥ 김중이 취교를 사모하다. ⑦ 취교와 김중이 언약을 맺으며 신물을 교환하다. ⑧ 취교가 김중의 집으로 가다. ⑨ 취교와 김중이 백년동심(百年同心)을 맹세하다. ⑩ 취교가 비파를 연주하다.
이별	⑪ 김중이 숙부상 때문에 요양땅으로 떠나게 되다. ⑫ 취교와 김중이 이별하다.
수난	⑬ 취교가 가변을 당하다. ⑭ 취교가 아버지와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팔다. ⑮ 취교가 김중을 생각하다. ⑯ 취교가 취운에게 김중과의 혼약을 부탁하다. ⑰ 취교가 마감생의 속임수에 걸려서 청루에 팔려가다. ⑱ 취교가 자살을 시도하다. ⑲ 취교가 꿈속에서 담선을 만나다. ⑳ 취교가 응벽루에서 김중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다. ㉑ 취교가 초경의 속임수에 넘어가다. ㉒ 취교가 손님대접을 해야 하다. ㉓ 취교가 속생의 첩이 되다. ㉔ 취교가 속옹의 신고로 인해 관아에 끌려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㉕ 취교가 형벌을 받다. ㉖ 취교가 환파네 집의 노비가 되다. ㉗ 취교가 관가 아주머니의 돌봄을 받다. ㉘ 취교가 환저의 꺾박을 받다. ㉙ 취교가 관음각에서 불경을 베끼다. ㉚ 취교가 환저네 집에서 도망치다. ㉛ 취교가 초은암에 의탁하다. ㉜ 취교가 박파의 집으로 피신하다. ㉝ 취교가 박행의 숙임수에 넘어가서 청루에 팔려가다. ㉞ 취교가 서해의 처가 되다. ㉟ 취교가 보은보원하다. ㊱ 취교가 호종현의 숙임수에 넘어가다. ㊲ 서해가 호종현의 배신으로 인해 죽임당하다. ㊳ 취교가 전당강으로 몸을 던져 죽다. ㊴ 각연이 취교를 구조하다. ㊵ 취교가 꿈속에서 답선을 만나다. ㊶ 취교가 불문에 의탁하다.
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㊷ 김중이 취원에 돌아가다. ㊸ 김중이 취운과 혼인하다. ㊹ 김중이 과거급제해서 임지땅으로 도입하다. ㊺ 김중이 취교의 소식을 알아내다. ㊻ 김중이 전당강가에서 취교에게 제사를 지내다. ㊼ 취교와 김중이 초암에서 상봉하다. ㊽ 김중이 취교의 정절을 칭찬하다. ㊾ 취교가 김중과 육체적 관계를 거절하다.

표6: <취교전>의 서사구조

표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필자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만남-이별-고난-재회>로 <취교전>의 서사구조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조로 분석한 이유는 학습자가 <춘향전>과 비교하여 <취교전>의 서사구조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서사적 사건의 연관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학습자의 <취교전>에 대한 기존의 스키마를 활용해서 <춘향전>을 더 깊

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춘향전>과 비슷한 서사구조로 분석하면 학습자가 이를 기반으로 <춘향전>의 서사구조를 탐구할 수 있으며 두 작품의 서사구조를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3)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 비교

앞에서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 비교가 가능해진다.

	<춘향전>	<취교전>
만남	㉠ 춘향이 태어나다. ① 이도령이 광한루로 나들이를 가다. ② 이도령이 춘향을 보고 반하다. ③ 이도령이 춘향을 초래하다. ④ 월매가 간밤의 꿈을 들려주다. ⑤ 이도령과 춘향이 처음으로 만나다. ⑥ 이도령이 서책을 읽다. ⑦ 이도령이 춘향집으로 가다. ⑧ 이도령과 춘향이 가약을 맺다. ⑨ 이도령과 춘향이 첫날밤을 보내다.	① 취교의 가세와 재색 ② 취교가 동생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가다가 명기 담선의 무덤을 지나가다. ③ 취교와 김중이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반하다. ④ 취교가 꿈속에서 담선을 만나서 자신의 전정을 알게 되다. ⑤ 김중이 취교의 옆집으로 이사오다. ⑥ 김중이 취교를 사모하다. ⑦ 취교와 김중이 언약을 맺으며 신물을 교환하다. ⑧ 취교가 김중의 집으로 가다. ⑨ 취교와 김중이 백년동심(百年同心)을 맹세하다. ⑩ 취교가 호금을 연주하다.
이별	⑩ 이몽룡이 아버지의 승진 때문에 상경하게 되다. ⑪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하	⑪ 김중이 숙부상 때문에 요양정으로 떠나게 되다. ⑫ 취교와 김중이 이별하다.

	다. ⑫ 춘향이 이도령을 그리워 하다.	
수난	⑬ 신관이 부임하다. ⑭ 신관이 기생점고하다. ⑮ 신관이 춘향을 부르다. ⑯ 춘향이 이몽룡을 그리워 하며 자탄하다. ⑰ 신관이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다. ⑱ 춘향이 수청요구를 거절 하다. ⑲ 춘향이 형벌을 받다. ⑳ 춘향이 구완을 받다. ㉑ 춘향이 옥에 갇히다. ㉒ 춘향이 옥중에서 이몽룡 을 그리워하다. ㉓ 춘향이 황룡묘를 봉유하 다 ㉔ 춘향이 꿈 해몽을 하다.	⑬ 취교가 가변을 당하다. ⑭ 취교가 아버지와 동생을 구하 기 위해서 몸을 팔다. ⑮ 취교가 김중을 생각하다. ⑯ 취교가 취운에게 김중과의 혼 약을 부탁하다. ⑰ 취교가 마감생의 속임수에 걸 려서 청루에 팔려가다. ⑱ 취교가 자살을 시도하다. ㉑ 취교가 꿈속에서 담선을 만나 다. ㉒ 취교가 응벽루에서 김중과 부 모님을 그리워하다. ㉓ 취교가 초경의 속임수에 넘어 가다. ㉔ 취교가 손님대접을 해야 하다. ㉕ 취교가 속생의 첩이 되다. ㉖ 취교가 속옹의 신고로 인해 관 아에 끌려가다. ㉗ 취교가 형벌을 받다. ㉘ 취교가 환파네 집의 노비가 되 다. ㉙ 취교가 관가 아주머니의 돌봄 을 받다. ㉚ 취교가 환저의 핍박을 받다. ㉛ 취교가 관음각에서 불경을 베 끼다. ㉜ 취교가 환저네 집에서 도망치 다. ㉝ 취교가 초은암에 의탁하다.

		<p>㉔ 취교가 박파의 집으로 피신하다.</p> <p>㉕ 취교가 박행의 숙임수에 넘어가서 청루에 팔려가다.</p> <p>㉖ 취교가 서해의 처가 되다.</p> <p>㉗ 취교가 보은보원하다.</p> <p>㉘ 취교가 호종현의 숙임수에 넘어가다.</p> <p>㉙ 서해가 호종현의 배신으로 인해 죽임당하다.</p> <p>㉚ 취교가 전당강으로 몸을 던져 죽다.</p> <p>㉛ 각연이 취교를 구조하다.</p> <p>㉜ 취교가 꿈속에서 담선을 만나다.</p> <p>㉝ 취교가 불문에 의탁하다.</p>
재회	<p>㉞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다.</p> <p>㉟ 어사가 남원으로 오다.</p> <p>㊱ 어사가 춘향의 편지를 받다.</p> <p>㊲ 어사가 춘향집을 찾다.</p> <p>㊳ 어사와 춘향이 옥중에서 재회하다.</p> <p>㊴ 춘향이 어머니에게 이몽룡을 부탁하다.</p> <p>㊵ 춘향이 이몽룡에게 자기의 후사를 부탁하다.</p> <p>㊶ 어사가 신관의 생일연에 참석하다.</p> <p>㊷ 어사가 출도하다.</p> <p>㊸ 어사가 춘향의 정절을 시험하다.</p>	<p>㊹ 김중이 취원에 돌아가다.</p> <p>㊺ 김중이 취운과 혼인하다.</p> <p>㊻ 김중이 과거급제해서 임지땅으로 도입하다.</p> <p>㊼ 김중이 취교의 소식을 알아내다.</p> <p>㊽ 김중이 전당강가에서 취교에게 제사를 지내다.</p> <p>㊾ 취교와 김중이 초암에서 상봉하다.</p> <p>㊿ 김중이 취교의 정절을 칭찬하다.</p> <p>㊽ 취교가 김중과의 육체적 관계를 거절하다.</p>

	<p>㉓ 어사와 춘향이 동헌에서 상봉하다.</p> <p>㉔ 춘향이 정렬부인에 봉해지고 이몽룡의 정실부인이 되다.</p>	
--	--	--

표7: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 비교

<표7>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춘향전>과 <취교전>은 ‘만남-이별-수난-재회’의 동일한 서사구조를 지닌다. ‘이별’이 다른 단위에 비해 전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점이다. 그렇지만 <춘향전>의 경우 ‘춘향이 이도령을 그리다’는 삽화가 있는 반면 <취교전>의 경우 비슷한 삽화가 없다. <춘향전>의 경우 ‘이별’에서 ‘수난’까지 오랜 시간의 경과가 존재하는 반면 <취교전>의 경우 이별 직후 갑작스러운 가정의 불화로 인해 수난의 길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만남’을 보면 두 작품은 비슷한 점이 보인다. 모두 전체 서사구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작품이 여자 주인공의 소개로부터 시작한다.¹³⁷⁾ 그런데 <춘향전>의 경우 이몽룡을 중심으로 서사적 사건을 전개하는 반면 <취교전>의 경우 취교를 중심으로 서사적 사건을 전개한다. ‘만남’에서 꿈이 등장하고 그 꿈은 여자 주인공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두 작품의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난’은 전체 서사구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두 작품의 비슷한 점이지만 <춘향전>에 비하면 <취교전>의 ‘수난’의 서사적 사건은 복잡하게 전개된다. <춘향전>의 경우 춘향과 변학도의 대결에 서사적 사건이 집중되어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사랑과 인간다운 삶의 지향을 효과적으로 그려낸다. 반면 <취교전>의 경우 연적이 등장하지 않지만 취교의 수난은 이 고난을 넘어가면 다른 고

137) <완판 84장본>의 경우 춘향의 탄생이 부가된 이본으로 대개의 <춘향전>의 이본에서는 이몽룡에 관한 소개로 서사가 시작된다.

난을 겪게 되는 식으로 거듭 반복된다. <춘향전>의 경우 춘향의 수난은 남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반면 <취교전>의 경우 취교의 수난은 다양한 공간 및 환경에서 벌어진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15년간이나 이어진 타향살이의 고달픈 삶이 생생하고 여실하게 그려진다. 또한 <취교전>에서 속임수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춘향전>과 차이점인데 이와 같은 속임수들은 취교의 삶을 날로 비참해지게 만든다.

‘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성 주인공이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다. 그런데 <춘향전>의 경우 이 어사가 춘향의 정절을 시험하는 반면 <취교전>의 경우 김중이 취교의 정절을 칭찬한다. 그렇지만 서사적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삽화는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어사의 춘향 정절 시험은 춘향의 굳은 절개를 강조함으로써 춘향의 정절의 가치를 한 층 더 높인다. 취교의 정절에 대한 김중의 칭찬은 비참한 환경에 살면서도 끝내 정결한 마음을 지켜내는 취교의 품행을 격상시킨다.

3. <춘향전>과 <취교전>의 작중인물 비교

1) 여성 주인공: 춘향과 취교

<완판 84장본>에서 춘향은 과거 남원 부사로 재직했던 성 참판과 퇴기 월매의 사이에서 태어난다. 그녀는 평생토록 ‘일부종사’를 목표로 두고 여염집 규수처럼 수신(修身)하면서 자란다. 이 도령이 광한루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을 보고 방자를 시켜 춘향을 불러오라고 할 때 춘향은 자신이 기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도령의 부름을 거절한다.

“네 말이 당연(當然)하나 오늘이 단오일(端午日)이라, 비단(非但) 나뿐이라. 다른 집 처자(處子)들도 예 와 함께 추천(鞭撻)하였으되 그럴 뿐 아니라, 設或(설혹) 내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시사(時仕)가 아니어든 여염(閭閻) 사람을 호래(呼來) 척거(斥去)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대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배라.”¹³⁸⁾

처음에 춘향이 이도령의 부름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가 춘향을 기생으로 보고 만나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여염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그간 춘향을 보자고 청한 온갖 권문세족 양반들과 일등재사 한량들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춘향은 스스로 기생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녀의 지향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춘향을 불러오라는 이 도령의 분부에 방자는 춘향이 기생이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존중하는 태도까지 보인다.¹³⁹⁾ 통인 역시 춘향을 ‘기생(妓生) 월매(月梅) 딸’¹⁴⁰⁾로 소개할 뿐 춘향을 기생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노 역시 기생 점고 시, 춘향이 나타나지 않자 퇴기냐는 변학도의 물음에 “춘향(春香) 모(母)는 기생(妓生)이되 춘향(春香)은 기생(妓生)이 아닙니다.”¹⁴¹⁾라고 대답하고 기생이 아니면 왜 이름이 높이 났느냐는 변학도의 반문에 춘향의 덕색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38)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25-27면.

139) “설부화용(雪膚花容)이 남방(南方)에 유명(有名)키로 방(方)·첨사(僉使), 병부사 군수(郡守), 현감(縣監), 관장(官長)님네 엄지발가락이 두 뼘 가웃씩 되는 양반(兩班) 외입장(外入匠) 이들도 무수(無數)히 보려 하되, 장강(莊姜)의 색(色)과 임사(任姒)의 덕행(德行)이며, 이두(李杜)의 문장(文章)이며, 태사(太姒)의 화순심(和順心)과 이비(二妃)의 정절(貞節)을 품었으니 금천하지절색(金天下之絶色)이요 만고여중군자(萬古女中君子)오니, 황공(惶恐)하온 말씀으로 초래(招來)하기 어렵네다.”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22면.

140)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21면.

141)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27면.

“근본(根本) 기생(妓生)의 딸이읍고 덕색(德色)이 장(壯)한 고(故)로, 권문세족(權門勢族) 양반(兩班)네와 일등재사(一等才士) 한량(閑良)들과 내려오신 등내(等內)마다 구경(求景)코자 간청(懇請)하되 춘향(春香) 모녀(母女) 불청(不聽)키로 양반(兩班) 상하(上下) 물론(勿論)하고, 액내지간(額內之間) 소인(小人) 등(等)도 십년(十年) 일득(一得) 대면(對面)하되 언어(言語) 수작(酬酌) 없삼더니 천정(天定)하신 연분(緣分)인지 구관(舊官) 사또 자제(子弟) 이도령(李道令)님과 백년(百年)기약(期約) 맺사읍고 도련님 가실 때에 입장(入丈)후(後) 데려가마 당부(當付)하고 춘향(春香)이도 그리 알고 수절(守節)하여 있삼내다.”¹⁴²⁾

수노의 말은 춘향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근본은 기생의 딸임에도 그 행실과 태도로 인해 수절하더니 인연인 이도령을 만나 혼인을 맺고 이도령이 데려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수노의 말에는 춘향의 덕행을 인정하고 그녀를 존중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처럼 춘향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춘향의 인품과 절행을 인정하고 춘향이 기생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생의 딸’이란 사회적 편견은 여전한 것으로 이는 이 도령과 변학도가 나타나면서 표면화된다. 춘향은 기생 노릇을 한 적이 없고 늘 여염집 처녀로서 행실하지만 퇴기의 딸인 신분의 뿌리를 완전히 지워내지 못한다. 춘향이 대비속신하든 양반의 서녀로 태어나든 천자수모법에 따라 기생의 딸이면 기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 어미는 기생(妓生)이오나 춘향(春香)이는 도도하여 기생(妓生)구실마다 하고 백화초엽(白花草葉)에 글자도 생각하고 여공(女工) 재질(才質)이며 문장(文章)을 겸전(兼全)하여 여염처자(閭閻處子)와 다름 없나이다”¹⁴³⁾라는 통인의 소개에도 이도령

142)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27-129면.

143)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22면.

은 “들은 즉 기생(妓生)의 딸이라니 급(急)히 가 불러오라”라고 방자에게 명령한다. 이도령 역시도 처음에는 춘향을 기생의 딸이라는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그는 춘향과 혼약을 한 후 부친의 상경으로 이별하게 되었을 때에도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

“사정(事情)이 그렇기로 네 말을 사또께는 못 여쭙고 대부인(大夫人) 전(前) 여짜오니 꾸중이 대단하시며 양반(兩班)의 자식이 부형(父兄) 따라 하향(遐鄉) 왔다 화방(花房) 작첩(作妾)하여 데려간단 말이 전정(前程)에도 괴이(怪異)하고 조정(朝廷)에 들어 벼슬도 못 한다 하더구나. 불가불(不可不) 이별(離別)이 될 밖에 없다.”¹⁴⁴⁾

이도령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이도령의 모친은 물론이고 이도령 자신도 춘향의 신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신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일부종사’에 대한 춘향의 지향이 좌절할 위기가 닥쳐오게 된다. 그럼에도 춘향은 결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춘향(春香)이 이 말 듣더니 고닥기 발연변색(勃然變色)이 되며, 요두전목(搖頭轉目)에 붉으락푸르락 눈을 간간지런하게 뜨고, 눈썹이 꽃꽃하여지면서 코가 발심발심하며, 이를 뽀드득뽀드득 갈며, 온몸을 수숫입 틀 듯하며, 매 꿩 차는 듯하고 앉더니 “허허 이게 웬말이오.” 왈각 뛰어 달려들며, 치맛자락도 와드득 좌드득 찢어 버리며,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어 싹싹 비벼 도련님 앞에다 던지면서 “무엇이 어찌고 어째요. 이것도 쓸데없다.” 명경(明鏡), 체경(體鏡), 산호(珊瑚)죽절(竹節)을 두루쳐 방문(房門) 밖에 탕탕 부딪히며 발도 동동 굴러 손뼉을 치고 돌아앉아 자탄가로 우는 말이 “서방 없는 춘향(春香)이가 세간살이 무엇하며, 단정하여 뉘 눈에 괴일꼬. 몹쓸 년의 팔자(八字)로다. 이팔청춘(二八青春) 젊은 것이 이별(離

144)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95면.

別)될 줄 어찌 알라. 부질없는 이내 몸을 허망(虛妄)하신 말씀으로,
전정(前程) 신세 버렸구나. 애고 애고 내 신세야.”¹⁴⁵⁾

이도령의 태도에 춘향은 격렬히 항의한다. 이러한 태도가 요조숙녀인 춘향답지 않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춘향의 상황을 따져보면 그녀의 이같은 태도는 오히려 당연하다. 춘향이 이도령과 결연한 것은 신분 상승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도령의 됃됨이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¹⁴⁶⁾ 이도령이 춘향을 불러올 때 “내가 너를 기생(妓生)으로 얹어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 한다기로 청(請)하노라.”¹⁴⁷⁾라고 말했으며, 처음에 춘향 집에 왔을 때 “우연(偶然)히 광한루(廣寒樓)에서 춘향(春香)을 잠깐 보고 연연(戀戀)히 보내기로 탐화봉접(探花蜂蝶) 취(醉)한 마음 오늘 밤에 오는 뜻은 춘향(春香)이 모(母) 보러 왔거니와 자네 딸 춘향(春香)과 백년언약(百年言約)을 맺고자”¹⁴⁸⁾한다고 춘향 모에게 말했으며, “내 저를 초취(初娶)같이 여길테니 시하(侍下)라고 염려(念慮) 말고 미장전(未丈前)도 염려(念慮)마소. 대장부(大丈夫) 먹는 마음 박대(薄待) 행실(行實) 있을손가.”¹⁴⁹⁾라고 굳게 약속한다. 이러한 이도령의 태도에 비추어 춘향은 몸을 허락하고 이도령과 미래를 함께 하기로 한다. 그래서 춘향은 자신이 양반인 이도령의 앞길에 방해가 되며 자신과의 혼인이 누추한 소문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별하자는 이도령의 말에 격렬하게 화를 낼 수밖에 없다.¹⁵⁰⁾

145) 구자균 교주(1976), 위의 책, 95-97면.

146) 박희병은 춘향이 자신의 지인지감에 따라 이도령이라는 인간에 첫눈에 반했지만 이도령의 사회적 신분이 일부종사하려던 자신의 평소 뜻을 성취하기에 장애물이 될까봐 그의 구애를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 - 봉건사회 해체기적 특징을 중심으로」, 김병국 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82-83면.)

147)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27면.

148) 구자균 교주(1976), 위의 책, 57면.

149) 구자균 교주(1976), 위의 책, 61면.

150) 신동훈은 이도령이 이별을 선언할 때의 발악에 가까운 춘향의 행동이 절개 있는 요조숙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실제 형상화된 양상과 서술자의 의도에 불일치가 생겨서 현실성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신동훈(1997), 「<춘향전> 주제의식의 역사적

“여보, 도련님 인제 막 하신 말씀 참말이요 농(弄)말이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백년언약(百年言約) 맺을 적에 대부인(大夫人), 사또께옵서 시키시던 일오니까.(중략)....춘향(春香) 몸이 천(賤)타고 함부로 버리셔도 그만인 줄 알지 마오.(중략)....사람의 대접(待接)을 그리 마오. 인물(人物)거천(舉薦)하는 법(法)이 그런 법(法) 왜 있을꼬.”¹⁵¹⁾

위 인용문은 춘향의 사랑관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별의 이유가 부모님의 반대 때문이라면 ‘탐화봉접 취한 마음’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춘향은 이도령의 사회적 신분을 보고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의 천한 신분 때문에 이도령과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장애물을 넘어가야만 한다. 그것이 춘향이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 갖는 도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도령은 “내가 이제 올라가서 장원(壯元) 급제(及第) 출신(出身)하여 너를 데려갈 것이”라는 약속을 한 후 춘향은 별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약속의 이면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자리하고 있다. 이도령은 처음의 약속을 저버린 이도령을 또다시 믿어야 하는 것이다.

춘향은 대비속신하여 기적에 이름이 없음에도 기생의 딸은 기생이라는 ‘종모법’의 인습을 완전히 타파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춘향이 기생 취급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춘향이 처신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 역시 춘향에 대한 애정을 가졌기 때문이었다.¹⁵²⁾ 그런데 변학도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기생의 딸이라면 기생이 된다는

변모양상 - 완판 계열 이본을 중심으로, 『관소리연구』 8, 관소리학회, 241-242면 참조.)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춘향의 성격이 고정되지 않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151)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97-99면.

152) 이현주는 “춘향이 다른 양반들과 갈등이 없는 것은 그들이 춘향의 현실적인 처신이나 신분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이현주(2007),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의 신분적 특징과 구조적 기능’,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304면.)

인습에 물든 인물이다. 이에 수노가 춘향이 이도령을 위해 수절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화를 내어 “이놈, 무식(無識)한 상놈인들 그게 어떠한 양반(兩班)이라고 엄부시하(嚴父侍下)요 미장전(未丈前) 도련님이 화방(花房)에 작첩(作妾)하여 살자 할꼬.”¹⁵³⁾라고 한다. 변학도는 춘향의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고수하며 그녀를 기생으로 취급한다. 그에게는 춘향과 이도령의 혼약은 철없는 어린 아이 이도령과 기생이었던 춘향의 한낱 불장난에 지나지 않기에 이도령을 위한 춘향의 수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수재(李秀才)는 경성(京城) 사대부(士大夫)의 자제(子弟)로서 명문귀족(名門貴族) 사위가 되었으니, 일시(一時) 사랑으로 감간 노류장화(路柳牆花)하던 너를 일분(一分) 생각하겠느냐.(중략)....네 아무리 수절(守節)한들 열녀(烈女)포양(褒揚) 누가 하랴.”¹⁵⁴⁾

위 인용문은 ‘일부중사’의 지향을 밝히면서 변학도의 수절 요구를 거절한 춘향에게 변학도가 한 말이다. ‘일부중사’란 남권 중심사회에 살던 여성의 일반적 도리였다. 이는 춘향이 자신이 일반 여성, 즉 여염집의 여성과 다름이 없고 기생이 아닌 여염집의 여성처럼 평범한 삶을 살기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변학도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춘향을 노류장화(路柳牆花)로 여기고 계속 수절 들기를 강요한다. ‘노류장화’라는 변학도의 발언은 춘향이 자신의 지향을 실현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춘향은 일반적 논리로 변학도에게 이겨내지 못함을 알고 굳은 자세를 취한다.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요 열불경이부절(烈不更二夫節)을 본받고자 하옵는데, 수차(數次) 분부(分付) 이러하니 생불여사(生不如死)이옵고, 열불경이부(烈不更二夫)오니 처분(處分)대로 하옵소서.”¹⁵⁵⁾

153)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29면.

154)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5면.

춘향이 ‘생불여사’를 각오하고 ‘열녀불경이부’라는 이유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한다. ‘열녀불경이부’는 유교사회에서 여성을 요구했던 보수적인 덕목이었지만 이몽룡을 위해 수절하고 있는 춘향의 상황에 걸맞고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이다. 춘향은 ‘열녀 표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생으로 규정하는 사회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절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천한 기생에게 충렬(忠烈) 두 글자가 없다는 회계나리의 말에 열렬히 반박하는 모습을 보인다.

“충효열녀(忠孝烈女) 상하(上下) 있소. 자상(仔詳)히 듣조시오. 기생(妓生)으로 말합시다. 충효열녀(忠孝烈女) 없다하니 날날이 아뢰리다. 해서(海西) 기생(妓生) 농선(弄仙)이는 동선령(洞仙嶺)에 죽어 있고, 선천(宣川) 기생(妓生) 아이로되 칠거(七去) 학문(學問) 들어 있고, 진주(晉州) 기생(妓生) 논개(論介)는 우리 나라 충렬(忠烈)로서 충렬문(忠烈門)에 모셔 놓고 천추(千秋) 향사(享祀)하여 있고, 청주(淸州) 기생(妓生) 화월(花月)이는 삼층각(三層閣)에 올라 있고, 평양(平壤) 기생(妓生) 월선(月仙)이도 충렬문(忠烈門)에 들어 있고, 안동(安東) 기생(妓生) 일지홍(一枝紅)은 생열녀문(生烈女門) 지은 후(後) 정경(貞敬) 가자(加資) 있사오니 기생(妓生) 해폐(害弊) 마옵소서.”¹⁵⁵⁾

“충효열녀 상하 있소”라는 말은 춘향의 사회 질서에 대한 반항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신분제도가 엄격한 조선 시대에 살던 천한 기생 신분의 춘향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일부종사’란 상층 여성에게 요구했던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기생에게는 과분하고도 사치스러운 덕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춘향은 사람을 상하로 분류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항의한다. 더 나아가서 춘

155)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7면.

156)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7면.

향이 변학도의 고집불통을 비판하고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다.

“당초(當初)에 이수재(李秀才) 만날 때에 태산(泰山), 서해(西海) 굳은 마음 소첩(少妾)의 일심정절(一心貞節) 맹분(孟賁) 같은 용맹(勇猛)인들 빼어내지 못할 터요, 소진(蘇秦), 장의(張儀) 구변(口辯)인들 첩(妾)의 마음 옮겨 가지 못할 터요, 공명선생(孔明先生) 높은 재조(才操) 동남풍(東南風)은 빌었으되, 일편단심(一片丹心) 소녀(小女) 마음 굴복(屈服)치 못하리라. 기산(箕山)의 허유(許由)는 부족수요거천(不足受堯舉薦)하고, 서산(西山)의 백(伯), 숙(叔) 양인(兩人)은 불식주숙(不食周粟)하였으니, 만일(萬一) 허유(許由) 없었으면 고도지사(高蹈之士) 누가 하며, 만일 백이(伯夷), 숙제(叔齊) 없었으면 난신적자(亂臣賊子) 많으리다. 첩신(妾身)이 비록 천(賤)한 계집인들 허유(許由), 백(伯)을 모르리까. 사람의 첩(妾)이 되어 배부기가(背夫棄家)하는 법(法)이 베풀하는 관장(官長)님네 망국부주(忘國負主) 같사 오니 처분(處分)대로 하옵소서.”¹⁵⁷⁾

“첩신이 비록 천한 계집인들 허유와 백이 숙제를 모르리까”라는 춘향의 말은 그녀의 뜻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학도가 사리에 밝지 못한다고 비판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천한 기생으로서의 춘향도 절개를 알고 있는데 목민관으로서의 변학도가 그러한 도리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춘향에게는 ‘배부기가’하는 일은 베풀하는 관장이 ‘망국부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기서 수절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민중의 부패한 관리에 대한 반항으로 승격된다. “사람의 첩(妾)이 되어 배부기가(背夫棄家)하는 법(法)이 베풀하는 관장(官長)님네 망국부주(亡國負主) 같사오니”¹⁵⁸⁾라는 춘향의 말에 변학도가 대노하여 춘향을 조롱관장하고 거역관장하는 죄로 몰아 넣는다. 그러자 춘향이 “유부(有夫) 겁탈(劫奪)하는 것은 죄(罪) 아니고 무엇이요.”¹⁵⁹⁾라고 강렬하게 반

157)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9면.

158)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9면.

159)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9면.

향한다. 이렇게 춘향의 향거는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억압당한 민중의 부정부패한 관리에 대한 향거로 발전하는 것이다.

“사대부(士大夫) 사또님은 사민(四民)공사 살피참고 위력(威力) 공사(公事) 힘을 쓰니 사십(四十)팔방(八方) 남원(南原) 백성(百姓) 원망(怨望)함을 모르시오.”¹⁶⁰⁾

“팔자(八字) 좋은 춘향(春香) 몸이 팔도(八道) 방백(方伯) 수령(守令) 중에 제일(第一) 명관(名官) 만났구나. 팔도(八道) 방백(方伯) 수령(守令)님네 치민(治民)하러 내려왔지 악형(惡刑)하러 내려왔소.”¹⁶¹⁾

이렇듯 춘향은 죄인으로부터 부정부패한 수령을 탄핵하는 민중들의 대표자로 탈바꿈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향거는 인간다운 삶을 깊이 인식하는 춘향에게 느닷없는 행동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이다.

춘향이 이몽룡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그녀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춘향이 이몽룡의 청혼을 허락한 이유는 신분의 상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대접받고 싶었던 까닭이다.¹⁶²⁾

춘향은 평생토록 ‘일부종사’의 지향을 품고 산다. ‘일부종사’의 지향 자체가 신분제도에 대한 저항이다.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구관은 전송하고 신관 사또 영접함이 법도에 당연하고 사리에도 당연커든’라는 회계 나리의 말처럼 춘향은 ‘일부종사’를 수행할 권리가 없

160)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45면.

161)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45면.

162) 춘향이 자기 신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밀한 전략을 세웠다는 견해가 있다(권우행, 「신분상승의 전략적 측면에서 본 춘향」, 설성경 편(2003),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법』, 국학자료원 참조). 하지만 전략이라기보다는 춘향이 진심으로 그러한 길을 걷고 싶어 하고 그러한 지향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봐야 타당하다. 물론 기생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을 제외하지 않지만 계획까지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도령과 만났을 때이든 인연을 맺었을 때이든 전략을 세우고 수행한 것이 아니다.

다. 기생 신분으로서의 그녀는 양반 남성들의 노리개일 뿐이기에 한 남자만을 섬기는 것은 신분적으로 존중받기 어려운 소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춘향은 한 남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알맞은 남자만을 선택하여 섬기고자 한다. 이 도령과 변학도가 다 같은 양반임에도 이 도령과의 인연 기약은 승낙하지만 변학도의 수청 요구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춘향이 광한루에 가서 이 도령을 만난 것은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¹⁶³⁾라는 춘향 어머니의 말처럼 상전이 부르면 하인이 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도령이 그녀를 인간답게 대접 해주었기 때문이다. 춘향이 이도령의 첫 번째 부름을 거절하고 두 번째 부름에 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 번째 부름에는 이도령이 춘향이 기생인 줄 알고 사또의 자제로서 불렀으니 춘향의 지향을 위협하였지만 두 번째 부름에는 사또의 자제로서 기생인 춘향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가(閼家)에 있는 처자(處子)’로서의 춘향이 “글을 잘 한다기로 청(請)하”¹⁶⁴⁾였기 때문에 춘향의 지향에 부합한다. 이에 춘향은 이도령을 진지한 상대로 여기게 된다.

“이때 춘향(春香)이 추파(秋波)를 잠깐 들어 이도령(李道令)을 살펴 보니, 금세(今世)의 호걸(豪傑)이요, 진세간(眞世間) 기남자(奇男子)라, 천정(天庭)이 높았으니 소년공명(少年功名)할 것이요, 오악(五嶽)이 조귀(朝歸)하니 보국(輔國) 충신(忠臣) 될 것이매, 마음에 흠모(欽慕)하여 아미(蛾眉)를 숙이고 엄슬단좌(斂膝端坐)뿐이로다.”¹⁶⁵⁾

자신을 인간답게 대접한 이도령은 춘향이 원했던 남자라 할 수 있다. 이도령이 “오늘밤 퇴령(退令) 후(後)에 너의 집에 갈 것이니 괘시(愜視)나 부디 마라.”¹⁶⁶⁾라고 했을 때 춘향이 “나는 몰라요.”라

163)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27-28면.

164)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27면.

165)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30면.

고 대답했으나 이것은 이미 이도령에 대한 호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춘향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어려운 처지를 만나더라도 서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것이다. 춘향은 끝내 이러한 사랑관을 관철한다. 거지의 모습으로 온 이도령을 냉대하지 않고 더욱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춘향에게는 이도령의 성공보다는 이도령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까닭이다. 이는 이도령이 춘향을 사랑하고 춘향과의 약속을 잊지 않은 것을 증명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춘향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이도령이 자신을 인간답게 여겨주었다는 인식은 춘향으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춘향과 마찬가지로 취교 또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식을 저버린 적이 없다.¹⁶⁷⁾ 그녀는 남권중심사회에 살던 여성신분을 깊이 인식한다. 담선의 사연을 들은 취교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탄식한다.

“애달프구나, 여인의 운명이여!
예로부터 홍안박명이라고 하더니만”¹⁶⁸⁾

그녀는 담선의 인생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남권중심사회에 살던 모든 여성의 대표적 인생이고 자신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가능성을 제외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공연히 옛 사람 때문에 눈물을 허비”한다는 취운의 말에 취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홍안(紅顔)이 예로부터,

166)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35면.

167) 응웬 록(Nguyễn Lộc)이 베트남 고전문학에 취교처럼 인간다운 삶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하는 인물이 드물다고 한다.(Nguyễn Lộc, 앞의 책, Nxb Giáo dục, 348면)

168)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3-24면.

그 누군들 박명(薄命)함을 면할 수 있었더냐.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저기 묻혀 있는 이를 보렴,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떨지 어찌 일겠
니”¹⁶⁹⁾

이는 취교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담선과의 만남은 취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그
녀를 대담하게 행동하게 한다. 여자임에도 첫 연애에 가벼운 연보로
곧장 김중의 집으로 건너간다. 김중의 집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부모님이 외가(外家)의 생일연에 참석하느라고 집에 들어오지 못한
다는 소식을 듣자, 한밤중에도 곧장 김중에게 간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 소식 전해오길,
양친은 아직 화연이 끝나지 않아 돌아오지 못한다 하네.
서둘러 바깥문에 비단 발을 드리우고,
한밤중에 종종걸음으로 곧장 뜰로 나가네.¹⁷⁰⁾

이러한 취교의 모습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수동적으로 기다
리던 전통사회의 여성상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¹⁷¹⁾ 취교는 유교
적 가치관과 대립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한밤중에 다시 김중의 집으로 온 행동에 대해 취교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아무도 없는 긴긴 밤,
꽃을 아끼기에 꽃을 찾아 길을 나섰죠.

169)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5면.

170) 완유,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50-51면.

171) 전 덩 호어우(Trần Đình Huợu)가 베트남 근대로의 이행기에 살던 여자들 중 취교처
럼 행동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Trần Đình Huợu(1995), Nho giáo và văn
học Việt Nam trung đại(유교와 베트남의 중세문학), Nxb Văn hóa Thông tin 참조.

지금 우리 둘이 분명히 얼굴을 보고 있지만,
후에 이것이 꿈이 아닌 줄 어찌 알겠어요?”¹⁷²⁾

이와 같은 대목을 보면 취교가 운명과 맞서 행복을 쟁취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취교는 자신의 운명이 척박하여 김중과 부부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재의 행복을 갈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취교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취교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녀에게 인격을 저버리고 오탁한 삶을 사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래서 청루에 팔려온 것을 알게 되자 죽음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답선의 인생을 되풀이하는 것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대한 효도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희생하였지만 인격을 저버리고 연명할 수 없다.

숙옹의 신고로 인해 관아에 끌려온 그녀가 청루로 돌아가지 않고 가혹한 형벌을 감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장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과 청루에 돌려보내는 것 중 하나 선택하라고 분부할 때 취교가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이미 한 쪽으로 정했습니다.
거미가 또다시 거미줄에 걸려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탁하든 맑든 몸은 또한 몸이니,
약하고 어린 저지만 관정에서 뇌정을 받겠사옵니다.”¹⁷³⁾

이 말은 취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불가피한 상황에 닥쳐 몸을 팔아 오탁한 생활을 해야 했지만 순결한 마음까지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취교가 ‘초옹이 화갱보다 두세 배나 괴로

172)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앞의 책, 51-52면.

173)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앞의 책, 136면.

을 거'라고 짐작했는데도 속생의 첩이 되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속생의 첩이 되면 오락한 청루 생활을 벗어나서 정결한 마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저의 꺾박을 받은 취교가 보복할 기회를 얻게 될 때 환저에 대한 원한을 갚고 싶었지만 결국 방송하고 말았다. 환저를 용서한 까닭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¹⁷⁴⁾, 취교가 남권중심사회에 살던 여성이라는 점을 환기하면 그녀가 환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환저를 용서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¹⁷⁵⁾ 그리고 취교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소망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취교는 속임과 꺾박을 되풀이하며 당해왔으나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녀는 처음 청루에 팔려왔을 때 자살에 실패한 후 더 이상 자살을 시도할 생각이 없다. 겉으로 보면 취교가 답선이 예언한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미 있게 살아남는 것이 무의미하게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¹⁷⁶⁾ 초경의 속임을 당해서 수파의 가혹한 매를 맞았음에도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 대접에 승낙한다. 누명을 쓴 채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그렇지만 호종헌의 배신으로 인해 서해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토관과 혼인해야 하게 되자 목숨을 끊기로 한다. 취교가 서해를 따

174) 동문성(Đồng Văn Thành)은 완유가 취교가 환저를 용서하게 한 것은 자기와 같은 귀족계층에 속한 인물을 동정하는 마음에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응웬 록(Nguyễn Lộc)도 취교가 환저를 용서한 것은 작자 완유의 환저를 관대하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동문성(1986), 앞의 논문,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563면; Nguyễn Lộc(1994), 앞의 책, 410-411면 참조.)

175) 부 하잉(Vũ Hạnh)은 청심재인의 <김운교전>의 취교와 완유의 <취교전>의 취교를 비교함으로써 취교가 환저를 용서한 것은 환저가 처해있었던 처지를 깊이 헤아리고 환저를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취교의 이러한 태도가 베트남민족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Vũ Hạnh, Hai nàng Thúy Kiều(취교의 두 인물),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072면.)

176) 다오 쥬 아이은 취교가 운명의 장난감이지만 맹목적으로 운명에 순종하지 않고 늘 자기가 처해있는 처지를 깊이 인식하고 책임 있게 행동한다.(Đào Duy Anh, 앞의 논문, 402면.) 쩌 딩 호어우(Trần Đình Hượu)도 취교가 자기의 재색과 인격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운명에 맞서 싸운다.(Trần Đình Hượu(1999), 앞의 책, 458-459면.)

라 죽지 않고 굴욕을 참고 호종헌에게 비파를 연주한 이유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그 희망이 사라지자 더 이상 살아남을 이유가 없다. 이야기의 문맥에 의하면 취교가 담선의 인도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모든 일이 취교가 견뎌낼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났다. 지금까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망과 의지가 취교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살아남게 했지만, 그것을 이뤄내기 어렵게 되자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다.

각연으로 인해 구함을 받은 후부터 취교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지독한 고난을 체험한 후 취교는 더 이상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녀가 아직 김중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옛날과 많이 달라지게 된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온 취교는 김중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기로 한다. 이에 취교가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지 않는다¹⁷⁷⁾는 논의가 있으나, 이와 같은 취교의 결정은 김중과의 사랑만은 정결하게 간직하고, 자기의 인격과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 복잡하고 섬세한 속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⁷⁸⁾

앞서 분석한 바를 통해서 춘향과 취교는 모두 인간다운 삶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춘향은 평생토록 ‘일부종사’의 지향을 빈틈없이 관철하고 끝내 이도령에 대한 일편단심을 지켜낸다. 반면 취교는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해서 “향기로운 꽃은 꽃술을 봉하고 보름달은 동글어야”¹⁷⁹⁾하는 부부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지만 “이미 동심(同心) 두 글자 맹세를 했으니, / 맹세코 평생토록 비파(琵琶)를 안고 다른

177) Bùi Giáng, Bản ngã cô Kiều(취교의 자아의식),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692-1701면, 참조

178) 취교가 김중과의 육체적 관계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Lê Trí Viễn은 김중을 존중하고 고결한 김중과의 사랑을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Lê Trí Viễn(1978), Lịch sử văn học Việt Nam(베트남문학사), tập 3, Nxb Giáo dục, 168-177면, 참조)

179) Nguyễn Du,崔귀목 역(2004), 앞의 책, 261면.

사람 배에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¹⁸⁰⁾라는 김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남자들의 처와 첩이 되었다. 이걸로 보면 춘향과 취교가 다른 점이 보이지만 자기의 마음에 충실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능동적으로 나누는 자세를 취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세력 앞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데에 비슷한 점이 보인다.

춘향의 ‘일부종사’의 지향 자체가 봉건사회의 질서에 반항하는 것이다. ‘일부종사’란 남권 중심사회에 살던 여성의 일반적 도리이지만 기생은 일부종사를 할 권리가 없다. 춘향이 기생하지 않고 여염집 여자로서 수신하고 자랐는데 기생의 딸이라면 기생이라는 인습이 깊이 자리잡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도령에 대한 수절을 하고 있는 춘향은 변학도의 수청 강요를 당한다. 결국 ‘일부종사’의 지향을 지키기 위해서 가혹한 형벌을 맞고 옥에 갇힌다.

이렇게 보면 춘향과 취교가 수난을 겪는 원인에 있어서 다른 점이 보인다. 취교의 경우 가변을 당해서 아버지와 남동생을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을 팔아 마감생의 첩이 되기로 했는데 마감생을 비롯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불량배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기생이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오탁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되돌아가곤 하는데 매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곤 하였다.

춘향의 경우 신분제도에 대한 보수적인 인습으로 인한 것이고 취교의 경우 관료의 부패상이며,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병든 사회의 폐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춘향과 취교의 엄청난 고난은 여성의 살 권리를 짓밟던 봉건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춘향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일부종사’의 지향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집불통의 변학도에게 완강하게 저항한다. 취교도 청루에 팔려온 것을 알게 되자 망설이지 않고 자살하기로

180) Nguyễn Du, *취귀록* 역(2004), 앞의 책, 61면.

하고 청루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가혹한 형벌을 감내한다. 이렇게 보면 춘향과 취교가 인간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데에 있어서 올바른 가치관과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처해있는 처지가 달라서 그들의 수난 극복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춘향은 ‘생불여사’를 각오하고 ‘열녀불경이부’라는 논리로 변학도에게 완강하게 저항한다. 취교는 어쩔 수 없이 기생 노릇을 하게 되지만 순결한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결국 춘향은 천한 기생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서 정렬부인이 되고 취교도 오탁한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옛애인인 김중과 가족들로부터 열녀라는 칭송을 받고 자기가 간직했던 정절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춘향과 취교는 불합리한 사회 제도 때문에 엄청난 수난을 겪게 되지만 올바른 가치관과 강인한 의지를 소유하는 여자이다. 그들이 사랑에 충실하고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어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그렇지만 춘향은 끝내 '일부종사'의 지향을 지켜내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수절을 하는 반면 취교는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대신에 오탁한 생활을 이겨내고 순결한 마음을 지켜낸다. 사랑과 정절,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향에 있어서 춘향이 취교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춘향과 취교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의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과 베트남 양 민족의 특수성도 탐구할 수 있다.¹⁸¹⁾

2) 남성 중심인물: 이몽룡과 김중, 속생, 서해

181) 취교는 중국 <금운교전>의 취교를 토대로 형상화되었지만 완유가 자기의 재능과 생활 체험으로 취교에게 베트남 민족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취교가 베트남 전통사회에 살던 여성의 대표자라고 생각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취교의 비극적인 삶이 베트남의 현대사회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다.

앞서 여성 주인공인 춘향과 취교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남성 중심인물인 이몽룡과 김중, 속생, 서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몽룡은 춘향의 사랑하는 사람이자 구원자이다. 춘향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향은 이몽룡과의 관계 하에 구체화된다. 김중은 취교의 첫사랑이지만 취교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까닭에 김중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남자와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그 중에 속생과 서해가 취교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획기적인 지표를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이몽룡과 김중, 속생, 서해가 각각 춘향과 취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몽룡을 살펴보자. <춘향전>에서 이몽룡은 사또 자제로서 풍채와 재능이 뛰어난 소년으로 소개된다. 광한루에서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자마자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춘향이 되기 월매의 딸임을 알고서 바로 불러오라고 한다. 방자가 춘향이 도도해서 초래하기 어렵다고 하자 ‘물각유주(物各有主)’라며 불러오라고 재촉한다. 춘향이 거절하자 다시 방자를 보내서 어른다.

“내가 너를 기생(妓生)으로 얹어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 한다
기로 청(請)하노라. 여가(閨家)에 있는 처자(處子) 불러 보기 청문에
괴이(怪異)하나 혐의(嫌疑)로 알지 말고 잠깐 다녀가라.”¹⁸²⁾

이몽룡이 춘향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생이 아니라는 그녀의 주장을 쉽게 인정했다. 이를 볼 때 이몽룡은 가볍게 행동하는 철없는 귀공자라고 할 수 있다. 이몽룡은 자기와 춘향의 현격한 신분 차이에 대한 춘향 어머니의 걱정과 관련하여 춘향의 미혼(未婚)과 자기의 미혼, 그리고 양반의 자식은 일구이언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설득하고 굳게 약속한다.

182)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27면.

“춘향(春香)도 미혼전(未婚前)이요, 나도 미장전(未丈前)이라. 피차(彼此) 언약(言約)이 이러하고 육례(六禮)는 못할망정 양반(兩班)의 자식이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할 리(理) 있나.”¹⁸³⁾

“내 마음 헤아리니 특별(特別) 간절(懇切) 굳은 마음이 흉중(胸中)에 가득하니, 분의(分義)는 다름망정 제와 내와 평생(平生) 기약(期約) 맺을 제, 전안(奠雁) 납폐(納幣) 아니 한들 창파(滄波)같이 깊은 마음 춘향(春香) 사정(事情) 모를쏜가.”¹⁸⁴⁾

“내 저를 초취(初娶)같이 여길 테니 시하(侍下)라고 염려(念慮) 말고 미장전(未丈前)도 염려(念慮) 마소. 대장부(大丈夫) 먹은 마음 박대(薄待) 행실(行實) 있을손가.”¹⁸⁵⁾(61면)

이도령의 이러한 약속은 춘향의 어머니를 설득하기에 충분했으며 춘향의 마음을 얻기에도 적합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승진으로 인해 상경하게 되었을 때 이도령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에 이도령과 춘향은 헤어짐이라는 좌절을 겪게 되었다.

“사정(事情)이 그렇기로 네 말을 사또께는 못 여쭙고 대부인(大夫人) 전(前) 여짜오니 꾸중이 대단하시며 양반(兩班)의 자식이 부형(父兄) 따라 하향(遐鄉) 왔다 화방(花房) 작첩(作妾)하여 데려간단 말이 전정(前程)에도 괴이(怪異)하고 조정(朝廷)에 들어 벼슬도 못한다 하더구나. 불가불(不可不) 이별(離別)이 될 밖에 없다.”¹⁸⁶⁾

『대명률직해』의 「관리숙창」에 따르면 관장이나 그 자식이 기생의 수청을 받으면 처벌받아서 벼슬하여도 먼 변방에 임용된다. 유교 사회에서 살았던 이몽룡은 가문과 가족을 위한 의무적 책임이 무겁다. 그는 춘향을 사랑하지만 가문의 흥망과 그녀와의 사랑 간

183)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59면.

184)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61면.

185)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61면.

186)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95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가문의 명예 보존을 선택한다. 유교경전을 공부하는 그이기에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불효자가 되지는 못한다.¹⁸⁷⁾ 여기까지 이도령이 양반가의 도련님의 대표적 모습을 잘 반영한다. 풍류를 좋아하지만 유교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도령이 처음에 “탕자로서의 유희적 감정으로 춘향을 대했”¹⁸⁸⁾으며 춘향과 사랑을 나누면서는 어느 정도 유희적 기분을 청산했지만 유교적 사회질서를 벗어날 의지가 부족하다.

이몽룡의 이러한 좌절은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는 춘향의 지향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면 춘향이 굳게 수절을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행하게도 춘향 어미의 항의와 춘향의 굳은 마음으로 인해 이몽룡이 정신을 차려 마음을 고쳤다.

“내가 이제 올라가서 장원(壯元) 급제(及第) 출신(出身)하여 너를 데려갈 것이니, 울지 말고 잘 있거라.”¹⁸⁹⁾

이몽룡의 이런 약속은 또 다시 어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¹⁹⁰⁾ 춘향에게는 의미 있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약속이 있어야 춘향의 수절이 정당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약속은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 약속이야말로 이몽룡의 철없는 도련님으로서의 성격을 청

187) 정출현은 이도령을 중세적 신분 모순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춘향과 사랑을 나누고, 나아가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려는 이몽룡의 행위는 탈질서적 행위로 여겨졌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도령은 춘향을 이별해야만 했다”. 춘향과의 이별을 선택하면서 이몽룡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중세봉건사회의 신분적 질곡이 자신에게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비로소 절감하게 된다. (정출현, 「『춘향전』의 인물형상과 작중역할의 현실주의적 성격」, 『관소리 연구』 4, 관소리학회, 99면 참조.)

188) 박희병, 앞의 논문, 김병국 외(1996), 앞의 책, 104면.

189)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11면.

190) 성현경은 “비록 이도령의 철석같은 다짐은 있었지만, 실상 이번 이별은 기억 없는 이별과 진배 없다”며 “약속 이행의 여부는 오로지 이몽룡의 신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성현경, 「『남원고사』 본 춘향전의 구조와 의미」, 김병국 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368-370면.)

산하고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몽룡이 이 약속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도록 한다고 단단한 마음을 먹는다.

이때 도련님은 올라갈 제 숙소(宿所)마다 잠 못 이뤘 보고지고 나의 사랑. 보고지고 주야(晝夜)불망(不忘) 우리 사랑. 날 보내고 그리는 마음 속(速)히 만나 풀으리라. 일구월심(日久月深) 굳게 먹고 등과(登科) 외방(外方) 바라더라.¹⁹¹⁾(119면)

춘향에 대한 사랑에 의해 이몽룡은 적극적으로 변해 간다. 철없는 도련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할 줄 알게 된 사람으로 된다. 암행어사로서의 이몽룡이 남원으로 내려와서 옥중에 있는 춘향을 구출해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사랑의 증거가 되며 그의 자격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씻어낸다. 춘향에게는 이러한 행동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몽룡에 대한 그녀의 수절의 정당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이로 보면 이몽룡은 춘향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평생의 꿈인 ‘일부종사’의 지향을 실현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원조자가 된다. 아울러 춘향의 항거가 일반 민중들의 항거를 대변하는 성격으로 강화됨¹⁹²⁾에 따라 암행어사로서의 이몽룡은 억압당한 일반민중의 영웅이 된다.

이몽룡과 마찬가지로, 김중은 취교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취교전>에서 김중을 풍자와 재모가 절륜한 풍아스럽고 호화로운 재자(才子)로 소개한다. 이러한 김중은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기우는 배경에서 취교를 만나서 첫눈에 반했다. <취교전>에서 김중은 유교경전에 전념하는 유생보다 다정한 재자의 대표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191)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19면.

192) 김종철(1996),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66면.

김생(金生)은 서창(書窓)에 돌아오면서부터,
 그녀를 향한 그리움이 마음에 자리 잡아 가라앉힐 길이 없네.
 근심은 덜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 늘어만 가니,
 삼추(三秋)를 하루에 몰아놓은 듯 길기도 하구나!
 진운(秦雲)에는 사창(紗窓)을 굳게 잠그고 있어,
 홍진(紅塵)에는 길이 없으니 꿈에서나 다녀올 밖에,
 한 달 내내 등잔 기름 다 써가며,
 그리나니 얼굴 또 얼굴, 우울하나니 마음 또 마음
 서재는 공기가 차갑기가 동(銅)과 같고
 붓대에 붓털은 마르고 (비파의) 기러기발에 줄은 느슨해지네.
 상렴(湘簾)은 바람에 흔들려 비파 소리를 내는데,
 향을 피우면 그녀의 향기가 생각나고, 사모하는 마음에 차를 마셔도 맛
 을 모르겠네.¹⁹³⁾

취교를 만난 후 김중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취교
 집의 옆집으로 이사 와서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든다. 결국 떨어뜨린
 비녀를 돌려주는 계기로 취교를 다시 만나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
 고 언약을 간청했다.

김생이 말하네, “오늘은 바람 불고 내일은 비가 오는 법이니,
 봄날의 해후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만일 [나의] 눈먼 사랑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이쪽에 상처를 주는 것이니 그쪽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작드라도 한두 마디 다짐을 해서,
 안심하게 하시면 차후에 중매인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만일 성심을 저버린다면,
 유감없이 이 한 청춘 버리겠습니다.
 만일 그대의 도량이 좁다면
 줄곧 애쓴 공이 허사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¹⁹⁴⁾

193)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37-38면.

“작드라도 한두 마디 다짐을 해서,/ 안심하게 하시면 차후에 중매인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김중이 자유연애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랑에 있어서 당사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당사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른 일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중에게 있어 사랑과 혼인의 문제는 두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중매자 세우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는 끝내 이러한 생각을 관철한다. 숙부 상을 치르고 온 후 취교가 몸을 팔아 간 것을 알게 된 김중은 궁극적인 아픔 끝에 굳은 다짐을 한다.

서로가 여러 번 맹세했지요,
금석(金石)같이 굳은 말들이 어찌 빈말이었겠습니까?
금침(衾枕)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부니,
어찌 차마 마음을 끊어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먼 길이라고 하여도,
꼭 한번 따님을 만나 보아야만 되겠습니다.¹⁹⁵⁾

15년간 그는 마음 속에 늘 취교의 모습을 간직했다. “만일 인연의 끈이 풀어지게 된다면,/ 금석(金石)으로 목숨을 끊어버릴 거라오”¹⁹⁶⁾라는 그녀와의 약속을 실천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김중도 과거급제하고 벼슬을 하였지만 취교 찾기가 공명현달보다 중요하다고 다짐한다.

[차라리] 패인사관(掛印辭官)하고,
천수라도 건너고 만산이라도 넘고자 하네.
간과 밀집한 속에 몸을 던지려네,

194)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43-44면.

195)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39면.

196)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50면.

생사를 무릅쓰더라도 행여 서로 만날 수만 있다면.¹⁹⁷⁾

이렇게 보면 김중이 출세를 바라며 국가에 헌신하는 전통 유가보다 정의(情義)를 중요시하고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재자로서의 유가로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김중의 이러한 성격은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

취교에게는 김중이 사랑하는 사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다. 가변을 당한 후 쇠퇴한 그녀의 가문을 돌봐주고 일으켜 준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김중이 취교의 마음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다. 김중에 대한 고결한 첫사랑이 취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파란만장한 15년간에 김중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은 달래지는 듯하였고 그녀가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 김중은 취교의 이상적인 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기(知己)이다.

혼례식의 밤에 취교가 김중의 마음 덕분에 살아나갈 가치가 있다고 감격하여 말한다.

시들어 버린 이 몸이 격탁양청(激濁揚淸)하게 된 것은,
남들과는 다른 군자(君子)의 마음 덕분입니다.
심복(心腹)에 있는 말을 나누었으니,
이러한 상지(相知)야 말로 진정 상지라 하겠지요.
감싸고 보호하는 [그대의 마음] 무슨 모자람이 있겠어요?
백년의 명절(名節)이 오늘밤에 있다 할 것입니다.¹⁹⁸⁾

전통적인 유가와 달리 김중은 육체적 정절보다 마음가짐을 중요시한다. 그는 지기의 마음으로 취교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러한 김중 덕분에 벌과 나비를 맞아들여야 했던 취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7) 완유 저,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48면.

198) 완유 저,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40-241면.

김중 외에 취교를 자기의 지기(知己)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서해이다. 파란만장한 생활을 경험한 취교의 서해에 대한 사랑은 김중에 대한 사랑에 비해 열렬하지 않지만 그 깊이가 자못 심중하다 할 수 있다. 취교와 서해 사이는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입는 자의 관계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논의¹⁹⁹⁾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음 만날 때부터 취교와 서해가 “둘은 함께 결눈으로 보고 서로 좋아하게”²⁰⁰⁾ 된다. 서해와 취교의 만남은 기이한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속생과 달리 서해가 청루에 찾아간 것은 잠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기(知己)를 찾기 위한 것이다.

서해(徐海, 또 하이)가 말하네, “복심상조(腹心相助)함이지,
어찌 미덥지 않은 풍월객(風月客)이겠소?
오랫동안 홍안(紅顔)의 명성을 듣기를,
누구도 청안(淸眼)으로 맞이하지 않았다는데, 과연 그러한가?”²⁰¹⁾

서해가 취교에게 한 첫말이 역시 영웅의 구기(口氣)답다. 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취교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찬양하고 인생을 부탁했을 때 서해는 즉시 약속한다.

사람을 보는 그대의 안목을 기리노라,
진애(塵埃) 속의 영웅(英雄)을 용케도 감별해 내다니!

199) 르네 크레이썩(Roné Crayxác)은 서해가 고통스러운 청루에서 취교를 구출해서 그녀가 보은보원하게 했기 때문에 서해와 정이 붙었는데 이러한 정은 고마운 마음으로부터 생긴 것이지 김중에 대한 사랑처럼 굳은 언약을 맺는 사랑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르우쥙 르(Lưu Trọng Lữ)도 취교가 속생과 서해에게 부부의 정이 있지만 그 정은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입는 자 간의 정일 뿐 남녀의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편, 부 하잉(Vũ Hạnh)은 사랑이란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기준에 기대어 취교와 서해의 관계가 사랑 사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Roné Crayxác, *Truyện Kiều và xã hội Á Đông(<취교전>과 동아시아 사회)*, Lê Xuân Lit(2007), 앞의 책, 1827면; Lưu Trọng Lữ, 앞의 논문, Lê Xuân Lit(2007), 앞의 책, 271면; Vũ Hạnh, *Đọc lại Truyện Kiều(<취교전>의 다시 읽기)*, Trịnh Bá Đình(2003), 앞의 책, 580-583면.)

200)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앞의 책, 194면.

201)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앞의 책, 194면.

한마디 말로 나를 알았(음을 보였)으니,
천사만종(千駟萬種)을 얻어 또한 함께 누리리라.²⁰²⁾

<취교전>에 약속의 행위가 빈번히 등장하나, 두 가지의 약속만 지켜진다. 그것은 바로 김중의 약속과 서해의 약속이다. 이 두 가지 약속들은 오탁한 곳에서 취교를 구출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은혜와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하고 그녀의 인격과 재능을 중요하게 여김을 보여준다. “하늘 일각(一角)에 별도의 조정(朝廷)을 세운” 후에 서해는 취교가 “군중(軍中) 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서해가 취교를 지기²⁰³⁾며 영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취교가 은혜와 원수를 갚은 후 토로한 것처럼 서해는 그녀에게 구원자이면서 지기이다.

취교는 은원(恩怨)을 명백히 처리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넘쳐흐르던] 원해(怨海)가 가라앉은 것 같았네.
서공(徐公) 앞에 엎드려 사은(謝恩)하며 말하네,
“한날 포류(蒲柳)의 몸이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을 거라 기대했겠어요?
몰래 천둥벼락 [같은 위세]에 힘입어 일을 처결하니,
제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각골명심(刻骨銘心) 한 대도 어찌 끝이 있겠어요?
간뇌도지(肝腦塗地)해도 하늘처럼 구름처럼 높은 의(義)를 갚기는 어려울 거예요!”²⁰⁴⁾

위에서 논의한 김중과 서해 외에 취교의 인생에 깊은 인상을 남긴 남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이는 바로 속생이다. 물론 속생은 김중이나 서해에게 비견하지 못한다. 그도 역시 취교와 굳은 약속을 한

202) Nguyễn Du, *취귀록* 역(2004), 앞의 책, 196면.

203) 취교가 자신의 삶을 의탁하겠다고 할 때 서해는 웃으면서 “고금(古今)에 지기(知己)가 몇 사람이런가?”라고 답하고 성공한 후 취교를 맞아들일 때 “영웅(英雄)이어야 영웅을 알아보는 법”이라고 한다.

204) Nguyễn Du, *취귀록* 역(2004), 앞의 책, 211면.

다.

속생이 말하네, “아마도 추측해서 말하는 모양인데,
그대에 대한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소?
오뢰(吳牢)같이 먼 길을 생각할 것 없네,
모든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도록 하거나.
이미 가까워졌는데 어찌 멀어지는 일이 있겠나?
금석(金石)같은 마음 이미 정해졌으니 풍파(風波)를 만난대도 맞설 것이
오.”²⁰⁵⁾

그렇지만 “아직 종당(宗堂)의 일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로 취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권유한다.

속생이 말하네, “속으로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음험(陰險)한 사람의 마음 헤아릴 수 없었소.
이러다가 잔혹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그쪽에는 해가 되고 또한 이쪽에는 크다큰 고통이 될 거요!
멀리 달리고 높이 날아갈 것을 도모하시게,
우리의 은애(恩愛)는 이 정도뿐인가 보어!”²⁰⁶⁾

이러한 이유로 속생이 비겁해서 취교에게 아무런 연정이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²⁰⁷⁾ 그러나 공평한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그가 취교의 인생에 미미한 역할을 했으며 취교의 마음에 아무런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 취교와 속생의 사이에는 김중과의 관계처럼 재자에 대한 가인의 사랑이나 서해와의 관계처럼 영웅에 대

205)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32면.

206)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76면.

207) 응웬 록(Nguyễn Lộc)은 환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속생이 의지가 박약하고 환저를 대하는 유일할 대책이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Nguyễn Lộc(1994), 앞의 책, 407면에서 참조. 팜 테 응우(Phạm Thế Ngũ)도 속생이 의지가 박약하고 비겁해서 취교를 첩으로 사들였는데 취교를 보호하지 못하고 우는 것밖에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Phạm Thế Ngũ, *Các nhân vật*(인물들), Lê Xuân Lít(2007), 1050면 참조.)

한 선연의 사랑이 없지만, 깊은 은의(恩誼)가 있다.²⁰⁸⁾ 속생은 청루에서부터 그녀를 구출해서 진실한 사랑을 건네주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다.

[속생이] 말하네, “제가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뇌정(雷霆) 부월(斧鉞)이라도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을 남색물감에 담가 버렸으니,
어리석었지요, 그래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욱이 함께 단 하루라도 부부로 살았으니,
비파를 품고서 누가 차마 비파 줄을 끊으려 들겠습니까?
윗분의 도량으로 동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²⁰⁹⁾

속생은 취교에게 가정 -아무리 그 가정에는 그녀가 미천한 소첩밖에 안 되지만- 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다. 취교가 기생 노릇을 시작할 때부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탁한 곳에서 구출해줄 마음이 있는 남자는 속생밖에 없다. 청루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래전부터 취교가 바랐던 것이지만 초경의 속임에 의해 처참하게 실패하였다. 그렇기에 속생의 의로운 행동이 취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아무리 환저의 질투에 의해 지독한 수난을 경험했을 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속생에게 깊은 고마움을 보인다.

취교가 말하네, “의중천산(義重千山)이라 하는데,
임치(臨淄)의 옛 사람을 그대는 기억하시나요?
삼상(參商)같이 떨어져 있어 종부(從夫)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지만,
당신 탓이 아니니 어찌 감히 고인(古人)의 마음을 저버리겠습니까?”²¹⁰⁾

208) 부이 장(Bùi Giáng)은 오랫동안 오탁하고 고통스러운 청루 생활을 살아온 취교가 속생으로 의해 청루에서 벗어나게 되어 속생에 대한 취교의 사랑이 두텁다고 보고 있다.(Bùi Giáng, *Kim - Kiều tái hợp*(취교와 김중의 재결합), Lê Xuân Lit(2007), 앞의 책, 983면.)

209) Nguyễn Du, *취귀록* 역(2004), 앞의 책, 134-135면.

210) Nguyễn Du, *취귀록* 역(2004), 앞의 책, 205면.

속생의 구원이 취교에게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그녀에게 속생이 은인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앞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이몽룡과 김중과 속생, 서해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춘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한결같은 마음은 김중과 비슷하다. 김동욱은 “이몽룡을 통하여는 반항하는 사랑의 새 논리를 제시한다. 버려도 될 기생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이몽룡은 양반과 기녀사이의 연애문화라는 점에 있어 획기적 진전을 보여준다”²¹¹⁾라고 한다. 레 쩌 비엔(Lê Trĩ Viẽn)은 봉건사회에 남편이 자기의 아내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교에 대한 김중의 한결같은 마음이 이상적인 사랑이라²¹²⁾고 보고 있다. 이몽룡은 바로 춘향의 정신이 의탁할 곳이 되어주며 변학도와 대결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준다. 이몽룡과 마찬가지로, 김중도 취교가 오락한 생활에 빠져있을 때 그녀의 정신이 의탁할 곳이 되어주며 살아갈 의미를 되찾는 이유가 된다.

한편, 이몽룡도 속생처럼 봉건사회의 질서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다. 속생은 “아직 종당(宗堂)의 일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취교를 보호하지 못하는가 하면 이몽룡은 “양반 자식이 부형(父兄) 따라 지방에 왔다가 기생집에서 첩을 만나 데려가면 앞날에도 좋지 않고 조정에 들어 벼슬도 못한다.”라는 이유로 춘향과 영영 이별하려고 한 적이 있다. 물론 이몽룡은 이 장애를 이겨내고 옥중에 있는 춘향을 구출해서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준다. 이 점에서 이몽룡은 서해와 비슷한 점이 보인다. 이몽룡과 서해는 모두 구난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구난영웅의 성격을 보면 이몽룡과 서해가 다른 점이 보인다. 이몽룡은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하는 정통적 길을 걷는

211) 김동욱·김태준·성설경(1983), 앞의 책, 17면.

212) Lê Trĩ Viẽn, *Một mối tình đầy ý nghĩa lãng mạn*(낭만적인 사랑),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023-1024면.

구난영웅으로서 엄명한 국법을 사용해서 사회의 공평을 가져온다. 반면 서해는 난리의 시대의 구난영웅으로서 국법이 아닌 대의(大義)의 법으로 사회의 불평함을 없앤다. 영웅의 성격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은 작자의 문제의식과 사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춘향전>의 작자는 이 어사를 통해서 명군현신(明君賢臣)과 엄명한 국법으로 인한 사회의 불공평 해결을 통해서 공평한 사회를 재설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낸다. 이는 많은 암행어사가 자기들의 사명을 잘 실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암행어사 제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었던 그 당시의 조선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취교전>의 작자는 그렇게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 서해가 <김운교전>의 인물 형상이지만 완유는 자신만의 고유한 영웅 형상을 재창조해낸다.²¹³⁾ 완유는 <김운교전>의 서해의 자랑할 만하지 않은 내력을 생략한다. 원작인 <김운교전>에서 서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전에 과거공부를 하였지만 몇 번 합격하지 못해서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상업하게 되어 재물이 넉넉하고 강호협객들과 널리 교제한다.²¹⁴⁾

그런데 <취교전>에서 완유는 다음과 같이 서해를 소개한다.

차차 가을이 되어 바람은 서늘하고 달은 밝은데,
 돌연 변정(邊庭) 손님이 놀러 오네.
 범 수염에 제비턱, 그리고 잠자는 누에 눈썹,
 오촌(五寸) 넓은 어깨 십척(十斥) 장신의 몸.
 당당(堂堂) 일위(一位) 영호(英豪),
 곤권(棍拳)은 출중하고 도략(度略)의 재능을 검비했네.

213) 이 때문에 동문성은 완유가 <김운교전>의 서해 형상의 일치성을 파괴시켰다고 비판한다.(동문성(1986), 앞의 논문,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553-1558면 참조.)

214) Phạm Đan Quế(1991), 앞의 책, 351-352면.

대천리지(戴天履地)하여 한 세상 살아가는,
성은 서(徐)요, 이름은 해(海)로 본디 월동(越東) 사람이네.
천정(天性)이 강호(江湖)를 자유로이 누비는 것을 즐겨하여,
칼과 비파를 어깨로 매고 노 하나로 산하(山河)를 누비네.²¹⁵⁾

완유는 또한 서해가 군대의 양민을 해치고 약탈하는 일을 생략하고
그 군대의 위명(威名)과 그의 지기(志氣)와 이상(理想)만을 드러낸
다.

파죽(破竹) 와열(瓦裂)의 승세(勝勢)를 타니,
그로부터 병위(兵威)가 내외(內外)에 진동하네.
하늘 일각(一角)에 별도의 조정(朝廷)을 세우고,
문무(文武) 양반을 갖추고 산하(山河)를 양분하네.
바람이 [먼지를] 쓸어버리듯 비가 쏟아지듯 하기를 여러 번,
남부의 다섯 현성(縣城)을 거꾸러뜨리네.
풍진(風塵) 속에서 [대업(大業)을 이루려고] 칼을 가는데,
의가반낭(衣架飯囊) 따위야 안중(眼中)에 들 게 무언가.
변수(邊陲)의 한 곳에서 제 뜻대로 하니,
고과(孤寡)에 미치지 못할 게 뉘며 패왕(霸王)에 미치지 못할 게 뉘가.
깃발 앞에서 누가 감히 힘을 겨루겠는가,
한쪽 해변(海濱)에서 오년을 웅거(雄據)하네.²¹⁶⁾

하늘을 찌르든 강물을 휘젓든 내 마음이니,
종횡(縱橫)할 뿐 머리 위에 누가 있는지 알 게 무언가?²¹⁷⁾

영웅이라고 칭해진 사람이,
노상(路上)에서 불평(不平)[한 일]을 보고도 내버려두겠는가?²¹⁸⁾

215)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94면.

216)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12-213면.

217)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14-215면.

218)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11면.

완유가 그려낸 서해는 의협(義俠)으로 사회의 불공평을 없애려는 반란의 영웅이다. 서해의 이와 같은 형상은 어느 정도 완유가 살았던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당 태종 때도 서해의 형상화에 있어서 디테일의 추가나 삭제가 작자 완유의 감정과 문제의식으로 인해 이루어진 바라고 논의하였다. 그는 또한 궁극적으로 추적하면 그 문제의식은 사회역사적 조건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²¹⁹⁾ 이를 통해서 시국(時局)에 대한 완유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완유는 명군현신의 엄명한 국법 실현이 사회의 공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이러한 태도를 그의 <반초혼(反招魂)>을 통해서 알 수 있다.

魂兮魂兮胡不歸,
東西南北無所依.
上天下地皆不可,
鄴郢城中來何爲.
城郭猶是人民非,
塵埃滾滾汗人衣.
山者驅車入踞坐,
坐談立議皆舉嬰.
不露瓜牙與角毒,
咬嚼人肉甘如飴.
君不見湖南數百州,
只有瘦瘠無充肥.
魂兮魂兮率此道,
三皇之後非其時.
早斂精神返太極,
慎勿再返令人嗤.
後世人人皆上官,
大地處處皆汨羅.
魚龍不食豺虎食,
魂兮魂兮奈魂何.

혼이여, 혼이여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
동서남북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천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지상에 내려갈 수도 없으니,
언성 영성에 돌아갈 이유도 역시 없습니다.
성관은 옛날과 똑같지만 인심은 그렇지 않아,
먼지바람이 휘날려 사람의 옷을 더럽힙니다.
나갈 때 차를 타고 돌아갈 때 거좌하며,
고공 기공처럼 서서 의논하며 앉아서 담론합니다.
발톱과 독액을 노출시키지 않지만,
엿처럼 사람의 고기를 달게 찢어먹습니다.
그대는 보지 못합니까? 호남 몇 백 개의 주에서
살찐 사람이 없고 마른 사람만 있는 것을,
혼이여, 혼이여 그러한 길로 걸어가려면
삼황의 시대 후 시기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고 태허에 정신을 수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후세에 누구라도 모두 상관이며,
지상에 어디서나 떡라수입니다.
용이 먹지 않으며 호랑(虎狼)도 먹을 것이니
혼이여, 혼이여 어떻게 하실까요?²²⁰⁾

219) Đặng Thanh Lê, Nguyễn Du với nhân vật Từ Hải(완유와 서해),
<http://www.nguyendu.vn/m/vi/nguyen-du-voi-nhan-vat-tu-hai-D0841A24970958CD91731CB00F4958F3.html>(검색 일자: 2019년 5월 1일)

220) Đặng Thanh Lê(1972), 앞의 책, 181-182면.

완유가 서해를 “노상에서 불평한 일을 보고도 내버려두”지 않는 영웅으로 형상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난리의 시대에 공리는 평균현신의 출현이나 엄명한 국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초야의 영웅에 의해 이루어지기 마련인 까닭이다.

위에서 이몽룡과 김중, 속생, 서해를 분석·비교했다. 여자 주인공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한결같은 마음을 끝내 지켜내는 면에서 보면 이몽룡은 김중과 유사한 점이 보인다. 그들은 남녀의 사랑, 즉 자신의 감정을 중요시하던 근대이행기의 선비의 이상형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몽룡이 유교사회의 질서로 인해 좌절한 적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몽룡은 속생과 비슷한 점이 보인다. 그런데 속생은 끝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취교와 영영 이별하게 된다. 반면 이몽룡은 자기 자신의 제한을 극복해서 춘향과 재결합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몽룡은 춘향 이별 후 점차 철없는 도련님의 성격을 청산하고 구난영웅으로 탈바꿈된다. 옥중에 있는 춘향을 구출해서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면에서 보면 이몽룡은 청루에서 취교를 구출해서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보은보원할 수 있게 해주는 서해와 비슷한 점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의 구난영웅의 성격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의 형상을 통해서 명군명신과 엄명한 국법으로 의한 사회의 불공평의 해결을 통해 공평한 사회를 재설립할 수 있다는 조선후기 민중의 낙관적인 꿈을 반영한다. 반면 <취교전>에서 의협으로 사회의 불공평을 없애는 서해의 형상을 통해서 완유가 살았던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서해는 완유가 바랐던 영웅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적대적 인물

춘향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물로는 변학도와 회계 나리, 행수 기생을 들 수 있다. 먼저 변학도를 살펴보자. 장순희는 변학도를 춘향의 적대자로 파악하고 그가 춘향을 단지 관노로 취급하며 성적 소유물이자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²²¹⁾ <완판 84장본>에서는 변학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때 수삭(數朔) 만에 신관(新官) 사또 났으되 자하(紫霞)골 변학도(卞學道)라 하는 양반(兩班)이 오는데, 문필(文筆)도 유여(有餘)하고 인물(人物) 풍채(風采) 활달(豁達)하고 풍류(風流)속에 달통(達通)하여 외입(外入) 속이 넉넉하되, 한갓 흠이 성정(性情) 괴팍(乖僻)한 중에 사증(邪症)을 겸(兼)하여 혹시(或時) 실덕(失德)도 하고 오결(誤決)하는 일이 간다(間多) 고(故)로 세상(世上)에 아는 사람은 다 고집불통(固執不通)이라 하였다.”²²²⁾

“이미 내가 저 하나를 보려는데 못 보고 그냥 두랴”라는 그의 말처럼 서울에 있을 때부터 춘향을 흠모하고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미인에 대한 풍류재자의 낭만적인 마음이 없다. 처음에는 그는 달콤한 말로 춘향을 유혹한다.

“이수재(李秀才)는 경성(京城) 사대부(士大夫)의 자제(子弟)로서 명문귀족(名門貴族) 사위가 되었으니, 일시(一時) 사랑으로 잠깐 노류장화(路柳牆花)하던 너를 일분(一分) 생각하겠느냐. 너는 근본(根本) 절행(節行) 있어 전수(專守) 일절(一節)하였다가 홍안(紅顔)이 낙조(落照)되고 백발(白髮)이 난수(亂垂)하면 무정세월약류파(無情歲月若流波)를 탄식(嘆息)할 제, 불쌍코 가련(可憐)한 게 너 아니면 뉘가 기(其)랴. 네 아무리 수절(守節)한들 열녀(烈女) 포양(褒揚) 누가 하랴. 그는 다 버려두고 네 골 관장(官長)에게 매임이 옳으냐,

221) 장순희(2010),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완판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5, 한국문화회, 208-209면.

222)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19면.

동자(童子)놈에게 매인 게 옳으냐, 네가 말을 좀 하여라.”²²³⁾

그렇지만 인용문을 통해서 그가 신분차별의 선입견에 물든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춘향을 여러 사람의 노리개로서의 기생이라고 여긴다. 이는 춘향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기생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꿈을 짓밟는 바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행동은 이몽룡과 완전히 다르다. 그도 사람을 시켜 춘향을 불러오지만 이몽룡처럼 “내가 너를 기생(妓生)으로 얹어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請)하노라. 여가(閭家)에 있는 처자(處子) 불러 보기 청문(聽聞)에 괴이(怪異)하나 혐의(嫌疑)로 알지 말고 잠깐 다녀가라”²²⁴⁾라는 존중의 표현이 아니고 “만일(萬一) 춘향(春香)을 시각(時刻) 지체(遲滯) 하다가는 공형(公兄) 이하(以下) 각청(各廳) 두목(頭目)을 병태거(並汰去) 할 것이니 빨리 대령(待令) 못 시킬까”²²⁵⁾라는 협박과 위협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듯 변학도는 위권을 이용해서 춘향을 호출한다. 이몽룡처럼 “춘향(春香)도 미혼전(未婚前)이요 나도 미장전(未丈前)이라. 피차(彼此) 언약(言約)이 이러하고 육례(六禮)는 못 할망정 양반(兩班)의 자식이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할 리(理) 있나”²²⁶⁾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몸단장 바르게 하고 수청을 거행하라.”²²⁷⁾라고 명령한다. 이윽고 춘향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춘향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

“네 이년, 관정(官庭)에 발악(發惡)하고 맞으니 좋은 게 무엇이나. 일후(日後)에 또 그런 거역(拒逆) 관장(官長)할까.”²²⁸⁾

223)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5-137면.

224)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27면.

225)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29면.

226)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59면.

227)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09면.

228)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49면.

변학도는 가혹한 때로 춘향을 굴복시킨다면 자신에게 수청을 들게 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 변학도의 이와 같은 강압적 행동은 이몽룡과 그를 대별되게 하고, 춘향으로 하여금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지켜낼 의지를 강화시킨다. 회계 나리도 마찬가지다.

“사또께옵서 너를 추앙(推仰)하여 하시는 말씀 이제 너 같은 창기배(娼妓輩)게 수절(守節)이 무엇이며, 정절(貞節)이 무엇이다. 구관(舊官)은 전송(餞送)하고 신관(新官) 사또 연접(延接)함이 법전(法典)에 당연(當然)하고 사례(事例)에도堂堂(堂堂)커든 고이한 말 내지 마라. 너희 같은 천기배(賤妓輩)게 충렬(忠烈)이자(二字) 왜 있으리.”²²⁹⁾

이와 같이 회계 나리는 신분제에 충실한 신도(信徒)이다. 그에게는 기생이란 노리개에 지나지 않는다. 기생은 관아의 소유물로서 정절권이 포함된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의 이러한 말이 춘향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만 동시에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력하게 일으키게 하며, 자신에 대한 이몽룡의 사랑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도록 하며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지켜낼 의지를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행수 기생의 경우 기생의 신분이지만 삶의 이상(理想)이 그녀와 전혀 다르다.

“여봐라, 춘향(春香)아 말듣거라. 너만한 정절(貞節)은 나도 있고, 너만한 수절(守節)은 나도 있다. 네라는 정절(貞節)이 왜 있으며, 네라는 수절(守節)이 왜 있느냐. 정절부인(貞節夫人) 아기씨, 수절부인(守節夫人) 아기씨, 조그마한 너 하나로 망연(茫然)하여 육방(六房)이 소동(騷動), 각청(各廳) 두목(頭目)이 다 죽어난다. 어서 가자 바빠 가자.”²³⁰⁾

229)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7면.

행수 기생은 비천한 신분을 인정하고 신분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한다. 바로 행수 기생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그녀가 현재의 삶과 다른 삶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도록 투쟁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인권에 대한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춘향에게는 이러한 생각과 태도로 인해 그녀의 적대자가 된다.

이어서, 취교와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이 끼(Bùi Kỳ)와 쩐 쯡 킴(Trần Trọng Kim)은 일련의 논의를 통해 취교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실장사치’와 ‘공차들’을 짚어낸다.²³¹⁾

돌연 사방에서 공차(公差)들이 소란스럽게 몰려오네.
 옆구리에 방망이를 낀 자, 손에 칼을 든 자,
 우두마면(牛頭馬面)들로 물 끓듯 시끌시끌하네.
 노인과 아들에게 칼을 찌우고,
 비정(非情)한 밋줄로 두 부자(父子)를 묶었네.
 온 집안에 창승(蒼蠅) 소리 가득하며,
 직기(織機)는 박살나고 바느질 꾸러미는 산산이 흩어지네.
 세연(細緣)이며 집안 물품들을,
 깨끗이 쓸어 담아 탐낭(貪囊)을 채우네.²³²⁾

법률을 실시하는 자들이 한낱의 강도²³³⁾처럼 묘사된다. 그들은 완유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 없는 공차들 습성,/ 이런 가혹한 짓 일삼는 것은 분명 돈 때문일 것”²³⁴⁾이라고 한탄할 정도로 탐욕하고

230)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3면.

231) Bùi Kỳ-Trần Trọng Kim, *Nhân vật Truyện Kiều*(<취교전>의 인물들),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029면.

232) 완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67-68면.

233) 호아이 타잉(Hoài Thanh)은 공차들이 국법의 보호 하에 공연히 활동하는 강도떼라고 보고 있다.(Hoài Thanh, *Xã hội phong kiến trong Truyện Kiều*(<취교전>에 나타난 봉건사회), Lê Xuân Lít(2007), 위의 책, 1007-1007면.)

포악하다. 그들의 탐욕과 포악은 바로 취교의 15년간 타향살이의 원인이 된다. 그들에게 줄 300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교는 마감생의 속임수에 넘어간다. 이로써 마감생은 취교의 고통스런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인물이 된다. 그러한 짓을 한 이유는 공차들과 다르지 않다.

속으로 좋아하네, ‘깃발이 수중에 있지,
옥 같은 자태를 보면 불수록 마음이 취하는 것.
국색천향(國色天香)이니,
일소천금(一笑千金)이란 말 그릇되지 않군.
일단 데려다 놓으면 먼저 꽃을 꺾겠다고,
왕손귀객(王孫貴客)들이 틀림없이 서로 다투겠지.
적어도 삼백 냥 이상일 것은 틀림없으니,
일단 자본금을 뽑은 후로는 이익이렷다.’²³⁵⁾

마감생은 돈 때문에 양가의 딸을 속여서 청루에 몰아 넣는다.²³⁶⁾ 그의 속임수 때문에 취교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취교가 말하네, “하늘이여, 땅이여,
이 몸은 오래 전 떠나 올 때부터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다 끝난 마당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준비한 칼을 즉시 소매에서 꺼내 드네.²³⁷⁾

그렇지만 담선이 나타나서 그녀가 절개를 지키는 것을 방해한다.

234)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69면.

235)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90-91면.

236) 응 웬 록(Nguyễn Lộc)은 마감생이 국자감의 감생이었지만 말이 없는 대신에 계산을 철저히 하는 노련한 장사치라고 보고 있다.(Nguyễn Lộc(1994), 앞의 책, 404면.)

237)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01-102면.

꿈속에 한 낭자(娘子)가 옆에 서 있는 듯했네.
 속삭이네, “인과(因果)가 다하지 않았으니,
 단장(斷腸)의 빛을 벗어나려 한들 어찌 될 수 있겠어요!
 홍안(紅顏)의 운명이 아직 업(業)이 무거우니,
 비록 자결(自決)을 하려 한들 하늘이 어찌 허락하겠어요!
 우선은 부디 포류(蒲柳)의 삶을 다 살고,
 훗날 전당강(錢塘江)에서 만날 것을 기약해요.”²³⁸⁾

취교의 인생에 답선은 세 번 등장한다. 첫 번째는 그녀가 김중을 만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 직후 그녀의 앞으로의 단장(斷腸) 생활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답선의 등장은 취교가 스스로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용기를 내어 김중에게 온 마음을 바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기도 한다.

취교가 말하네, “아무도 없는 긴긴 밤,
 꽃을 아끼기에 꽃을 찾아 길을 나섰죠.
 지금 우리 둘이 분명히 얼굴을 보고 있지만,
 후에 이것이 꿈이 아닌 줄 어찌 알겠어요?”²³⁹⁾

그런데 답선의 두 번째 등장은 부정적인 의미로 점철되어 있다. 답선의 예언이 취교의 총명을 가려서 그녀가 현실과 타협해서 투쟁할 의지를 잃게 한다. 수파와 초경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파는 취교와 맹세한다.

훗날 일이 말과 같지 않게 된다면,
 머리 위로 하늘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²⁴⁰⁾

초경도 그녀와 약속한다.

238)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02-103면.

239)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51-52면.

240)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04면.

아가씨가 나라는 사람을 아직 모르지만,
침륜(沈淪)의 바다가 [지면과] 나란하도록 메워버리리다.²⁴¹⁾

비록 바람이 불어 닳치고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내가 여기 있는 한 아무 상관없을 것이오!²⁴²⁾

그렇지만 이는 양가의 딸을 몰아 넣으려는 무당과 박수의 약속
이다.²⁴³⁾ 바로 이 두 불량한 존재들에 의해 취교는 순결한 마음을
애달프고 비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저버리게 된다.

뱀장어가 머리에 진흙 묻는 것을 개의치 않듯이
이후로는 순결한 마음도 버리겠습니다.²⁴⁴⁾

이들과 같은 종류의 인물로서 박파와 박행이 있다. 그들이 취교의
약점을 잡아서 벗어나도록 애썼으며 환저 모녀의 꾀박인 값진 대가
를 치러야 했던 청루에서의 오락한 생활을 또다시 견뎌야만 했다.

어찌 알았으리오, 이곳 또한 노련한 사기꾼의 소굴이고,
박파는 수파와 함께 배운 동문(同門)이라는 것을!
취교가 연지분 바르지 않았어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얻었다고 속으로 좋아하네.
난데없이 말을 날조해 내니,
취교는 참으로 두려워 여러 번 부들부들 떨었네.
박파는 더욱더 시끄럽게 몰아치면서,
흉험(凶險)한 말로 주진(朱陳)의 인연을 강요하네.²⁴⁵⁾

241)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10면.

242)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11면.

243) 응웬 록(Nguyễn Lộc)은 초경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수파는 돈의 힘으로 인해 견인된다고 보고 있다.(Nguyễn Lộc(1994), 앞의 책, 401-403 면.)

244)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13면.

245)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86면.

박행 역시도 취교의 자기와의 혼인을 승낙받기 위해서 그녀와 약속한다. 그런데 그의 약속은 참으로 수상하다.

박생(薄生)은 서둘러 무릎을 꿇고,
성황(城隍)이며 토공(土公) 앞에 과장해서 맹세하네.²⁴⁶⁾

그가 한 약속의 목적은 수파와 초경의 약속과 똑같이 청루로 취교를 몰아넣으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얼굴을 보이자 값이 순조롭게 결정되어,
상품이 열 배의 이익을 내게 되자 넘겨 버리네.
사람을 고용하고 가마를 빌려서 취교를 [행원에] 맞이하고,
박생은 돈을 챙겨서 멀리 도망가 버리네.²⁴⁷⁾

이외에도 <취교전>에서는 취교와의 한 약속이 더 등장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취교는 절망스러운 궁지에 몰려 목숨을 끊게 된다. 이 약속의 주인은 호종현이다.

...“삼생(三生)의 향화(香火)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누군가와 난현을 이어서 비파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²⁴⁸⁾

호종현의 약속은 취교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홍군(紅裙)을 가엾게 여기셔서,

246)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앞의 책, 188면.

247)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앞의 책, 189면.

248)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앞의 책, 222면.

잔천(殘喘)이 고향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²⁴⁹⁾

서해가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고 취교 자신도 승전자의 전리품이 되었지만, 이 약속이야말로 타향살이의 세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언제나 존재했던²⁵⁰⁾,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을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호종헌이 약속 어기면서 취교의 소망은 거품처럼 사라진다.

축하 잔치 술에 만취했다가,
호공은 새벽녘에 [지난 일을] 기억해 내네.
생각하네, ‘나는 국가(國家)의 방면(方面)으로서,
상관(上官)이 내려다보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몸이지,
[내자] 풍월객(風月客)처럼 굴었던 말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단 말인가?’
공아(公衙)에 아침 밝아 올 즈음에,
뜻을 정한 호공은 바로 한 가지 방법을 결단(決斷)하네.
관령(官令)을 누가 감히 거역하겠는가!
강제로 토관(土官)과 짝지어 주네.²⁵¹⁾

비록 취교가 ‘신몽 속의 말’이 기억나서 전당강에 몸을 던져 죽기로 결정하지만 살아남을 이유가 없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이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대로라면] 앞으로 얼마를 살더라도 또한 의미가 없는 나날일 뿐.²⁵²⁾

한편, 취교의 단장(斷腸)을 이야기함에 있어 환저에 관해 논의할

249)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22면.

250) <취교전>에서 취교가 부모님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다섯 번이나 묘사한다.

251)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22-223면.

252)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24면.

필요가 있다. 환저는 답력이 있는 여자로 소개된다.

본래 명가(名家)인 환씨(宦氏) 가문 출신으로,
이부상서(吏部尙書)의 딸로서 환저(宦姐)라 부르네.
매맞춰 붙여준 순풍을 타고 등왕각(滕王閣)에 당도하듯,
속생과 결발(結髮)하고 부부가 된 시 오래되었다네.
일상생활에서는 행실이 바르지만,
몰아세울라 치면 거침이 없네.²⁵³⁾

남편이 첩을 맞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때, 그녀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위력을 가하여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한다.

소저(小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하네],
“거짓을 날조해 내는 구역질나는 놈들, 사람을 농락하려 들다니!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나?
이건 분명 호사가들이 입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급히 위엄 있게 명령을 내리기를,
한 놈은 주둥이를 짓이겨 버리고 한 놈은 이빨을 부러뜨리라 하네.
[이후로] 안팎이 비밀로 덮어놓고서,
누구 한사람도 감히 한 마디 하지 못하네!
규방(閨房)은 아침저녁으로 한가롭고,
출입함에 절도가 있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담소를 나누네.²⁵⁴⁾

환저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다음과 같은 계략을 미리 꾸몄기 때문이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얼굴 보이지 않고 소리 들리지 않겠거니 하고,
내게 숨긴다면 나 또한 방도를 강구할 걸!²⁵⁵⁾

253)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44-145면.

254)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44-145면.

255)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45면.

서로를 볼 수 없게 만들고,
깃뺏아서 머리를 들 수 없게 만들리라!
안전(眼前)에서 보게 만들 것이며,
판자를 산다고 배를 팔아버린 인간에게 내 수완을 알게 하리라!²⁵⁶⁾

취교의 인생은 환저의 질투가 없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환저와 환파는 취교가 불행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꿈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환파는 환저의 가법을 알려주기 위해 취교에게 곤장 30대 때리고 노비로 만든다. 그리고 그의 딸인 환저는 취교를 척박한 환경에 놓이게 한다. 취교와 속생의 관계를 부부로부터 상전과 노비로 바뀌게 한 것이다.²⁵⁷⁾

앞서 분석한 것을 통해서 <춘향전>과 <취교전>의 적대적 인물들 간의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춘향과 취교의 수난 과정이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변학도가 위권을 악용해서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것은 환저 모녀가 취교를 핍박하는 것과 호종헌이 취교에게 토관과의 혼인을 강제하는 것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이를 통해서 봉건사회에서 미천한 신분이나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강한 권력으로부터 억압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그 사회가 폐쇄적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학도는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 목민관에서 약탈자로 변모한다. 환저는 자신의 질투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문의 위세에 힘입어 양민을 노비로 만든다. 호종헌은 “경륜과 재능을 겸비한” 총독(總督)이라고 평가받지만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취교와의 약속

256) Nguyễn Du, *최귀목 역*(2004), 앞의 책, 146면.

257) 베트남 사람들은 환저의 질투가 여성의 전형적 질투라고 봐서 질투가 심한 여자를 가리켜 환저라고 한다. 그렇지만 환저는 질투가 심하면서도 남편의 체면을 깎지 않도록 내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응 웬 록(Nguyễn Lộc)은 환저의 질투가 일반 여성의 질투가 아닌 귀족 여성의 대표적인 질투라고 보고 있다.(Nguyễn Lộc(1994), 앞의 책, 411면.)

을 어기고 취교의 인격을 짓밟는다. 이러한 점에서 <춘향전>과 <취교전>의 적대적 인물들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적대적 인물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춘향전>과 <취교전> 간의 다른 점 또한 찾아 볼 수 있다. 춘향이 수난을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녀의 신분이다. 기생 신분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이 춘향을 비참하게 한다. 변학도와 회계 나리, 행수 기생 모두가 그러한 사회적 선입견을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변학도는 춘향을 기생으로 보고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한다. 회계 나리 역시 춘향을 기생으로 여기고 춘향의 인격을 짓밟는다. 행수 기생도 춘향이 기생이라 생각하기에 춘향의 수절이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한다. 즉, 춘향의 기생이 아니하고자 하는 지향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봉건사회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런데 <취교전>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취교의 수난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국법의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고 돈의 힘 때문이다. 공차들을 비롯한 마감생과 수과, 초경, 박과 박행 모두가 돈 때문에 악한 일을 망설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장사치의 고발을 악용해서 재물을 약탈한 공차들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수과와 꾀를 내어 취교를 속인 초경을 제외하면 나머지 적대적 인물들 모두가 취교의 미색(美色) 때문에 그녀를 상품화한다.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것도 춘향의 미색에 반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성 중심사회에서 살았던 여자에게 미색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삶과 소망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두 작품에서 적대적인 인물의 형상이 차이를 빚는 것은 작자들의 문제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춘향전>의 작자는 민중의 입장에서 사회적 문제들을 반영하였다. 그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고착된 신분제로부터의 인간해방이다. 반면 <취교전>의 작자는 그 당시 비중 있는 계층이었던 기생(다오느영)의 신분에서 초점을 맞춘다.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은 부자나 상인에게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받게 된다. 혼란한 사회질서와 막강한 권력,

자본의 부정한 흐름에 의해 그들의 생활은 비참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춘향전>과 <취교전>의 적대적 인물들은 봉건사회에서 강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위권을 남용해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짓밟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보인다. 그렇지만 적대자의 성격을 통해서 볼 때 두 작품이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춘향전>의 경우 신분차별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은 적대자의 머릿속에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취교전>의 경우 돈의 부정한 힘은 적대적의 생각과 행동에 막중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든다. 이를 교육의 내용으로 가져오면 학습자로 하여금 <춘향전>과 <취교전>의 적대적 인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사회의 공통점을 인식하는 동시에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사회를 탐구하게 하는데에 적용될 수 있다.

4) 조력 인물

이상에서 <춘향전>과 <취교전>의 적대적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고전소설에서는 적대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인물 역시 서사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두 작품의 조력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하영은 주변 인물(minor character)을 “대체로 중심인물의 부수적 존재로서 중심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그의 일을 돕거나 시중드는 기능을 하는 인물”로 정의한다. 더불어 이들의 기능을 중심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야기의 흥미로운 전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⁵⁸⁾ 여기서는 여자 주인공인 춘향과 취교

를 돕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들로 국한하여 ‘조력 인물(helper)’로 명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조력 인물을 분석할 때도 춘향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중심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춘향전>의 조력 인물로는 월매, 향단, 방자, 이방, 남원부민, 한량들, 기생, 농부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춘향의 모친인 월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완판 84장본>에서 그녀는 딸에게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몽룡과의 결연을 권유한다. 그녀가 들려준 꿈 이야기는 춘향에게 이몽룡과 인연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춘향과 이몽룡의 혼약에 있어서도 월매는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한다. 언약식에 증인으로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몽룡의 의사(意思)를 확인하고 불망기를 얻는 데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다.

“나와 말 좀 하여 봅시다. 내 딸 춘향(春香)을 버리고 간다 하니 무슨 죄(罪)로 그러시오. 춘향(春香)이 도련님 모신 지 거진 일년(一年) 되었으되, 행실(行實)이 그르던가, 예절(禮節)이 그르던가, 침선(針線)이 그르던가, 언어(言語)가 불순(不順)턴가, 잡(雜)스런 행실(行實) 가져 노류장화(路柳牆花) 음란(淫亂)턴가. 무엇이 그르던가. 이 봉변(逢變)이 웬일인가. 군자(君子) 숙녀(淑女) 버리는 법(法) 칠거지악(七去之惡) 아니며는 못 버리는 줄 모르는가....(중략).... 남 못할 일 그리 마오. 애고 애고 설운지고, 못하지요. 몇 사람 신세(身勢)를 망치려고 아니 데려가오. 도련님 대가리가 둘 돌쳤소. 애고 애고 무서워라. 이 쇠뎡뎡아.”²⁵⁹⁾

인용문은 상경하겠다는 이몽룡에게 월매가 악다구니를 해대는 부분이다. 월매는 손뼉을 치고, 문을 두드리고, 주먹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폭언을 하면서 이도령에게 달려든다. 월매의 이러한 반응은 춘향을 대시한 것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춘향의 심사를 대변한다. 이처럼 월매는 현실 논리에 따라 처신하는 이해타산적인

258) 정하영, 「월매의 성격과 기능」, 김병국 외(1996), 앞의 책, 295면.

259)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01-103면.

인물이지만²⁶⁰⁾ 늘 춘향의 곁에서 돌봐주고 춘향이 하는 일을 돕는다. 춘향이 가혹한 매를 맞을 때 간장이 끊어지듯 아파하여 이몽룡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지만 춘향이 원하지 않아 그러한 생각을 접어둔다. 그녀는 다만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을 하고 돌아와 춘향을 구해주기를 바라며 정성으로 기원한다.

“천지지신(天地之神) 일월성신(日月星辰)은 화위동심(化爲同心) 하옵소서. 다만 독녀(獨女) 춘향(春香)이를 금쪽같이 길러 내어 외손봉사(外孫奉祀) 바라더니 무죄(無罪)한 매를 맞고 옥중(獄中)에 갇혔으니 살릴 길이 없습니다. 천지지신(天地之神)은 감동(感動)하사 한양성(漢陽城) 이몽룡(李夢龍)을 청운(靑雲)에 높이 올려 내 딸 춘향(春香) 살려지이다.”²⁶¹⁾

위의 인용문은 이몽룡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월매가 치성을 드리는 부분으로, 이를 통해 월매가 이몽룡의 약속을 믿고 그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월매의 믿음과 정성은 옥에 갇힌 춘향에게 정신적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월매의 조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²⁶²⁾

월매와 더불어, 향단도 춘향에서 큰 도움이 된다. 춘향의 몸종인 향단은 예의범절과 포용적인 인간애를 지닌 인물로 춘향을 이해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다.

“아씨 아씨 큰 아씨. 마오 마오 그리 마오. 멀고 먼 천리(千里) 길에 뉘 보라고 와 겨판데, 이 괘시(愜視)가 웬일이오. 애기씨가 알

260) 진은진(2002), 「춘향전의 여성 인물 형상 연구」, 『관소리연구』 14, 관소리학회, 296-297면.

261)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85면.

262) <완관 84장본>에서 월매의 형상은 여타의 이본과 차별화된다. 더불어 <완관 84장본>에서도 이별 후 월매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서사 전반에서 일관성 있게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으시면 지레 야단이 날 것이니 너무 괘시(愜視) 마옵소서.”²⁶³⁾

결인이 되어 온 이도령을 월매가 박대하자 향단은 월매를 말리고 이도령을 극진히 대접한다. 향단은 이도령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성을 다하여 봉양함으로써 옥에 갇힌 춘향을 대신하여 보조한다.²⁶⁴⁾ 춘향이 변학도에게 항거할 수 있는 것은 향단과 같은 충실한 몸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향단은 월매와 더불어 춘향이 의지할 곳이 된다.

한편, 방자, 이방, 남원부민, 한량들, 기생들, 농부, 등이 춘향에게 직접 도움을 주지 않지만 이도령과의 결연과 변학도와의 대결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모두 춘향의 입장에 서서 그녀를 지지한다. 특히 방자는 춘향과 이몽룡의 결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중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소개를 통해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 방자의 춘향에 대한 평가는 이몽룡에게 춘향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편 이방이나 농부와 같은 인물 역시 춘향에 대한 지지를 보인다. 이방은 수청을 위해 춘향을 부르라는 변학도에게 아래와 같이 응대한다.

“춘향(春香)이가 기생(妓生)도 아닐 뿐 아니오라, 구등(舊等) 사또 자제(子弟) 도련님과 맹약(盟約)이 중(重)하온데 연치(年齒)는 부동(不同)이나 동반(同班)의 분의(分義)로 부르라기 사또 정체(政體)가 손상(損傷)할까 저어하옵내다.”²⁶⁵⁾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방이 가진 춘향에 대한 인식이다. 이방은 춘향이 기생이 아니며 이도령과 혼인을 한 사이로 그녀를 보고 있

263)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93면.

264) 진은진은 향단을 춘향의 열녀적인 속성을 보조하는 인물로 춘향의 긍정적 내면이 투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진은진(2002), 앞의 논문, 304면.)

265)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29면.

다. 그런 이유로 혼인을 한 춘향을 부르는 일이 사또의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변사또의 명을 받아 춘향을 잡으러 가는 군로사령의 경우 이방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는 행수 기생과 마찬가지로 춘향의 변화된 삶의 태도를 깊이 이해할 수 없었기에 고까움이나 시기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변학도의 춘향에 대한 참혹한 형벌과 변사또에 대한 춘향의 항거는 점차적으로 주변 인물들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는 이 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농부의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골 춘향(春香)이가 본관(本官)에 수청(守廳) 들어 뇌물(賂物)을 많이 먹고, 민정(民政)에 작폐(作弊)한단 말이 옳은지.”²⁶⁶⁾라는 이도령의 물음에 농부는 매우 화를 내며 아래와 같이 대답한다.

“아무데 살든지라니 게는 눈콩알 귀꼇알이 없나. 지금 춘향(春香)이를 수청(守廳) 아니 든다 하고 형장(刑杖) 맞고 간헛으니 창가(娼家)에 그런 열녀(烈女) 세상에 드문지라. 옥(玉)결 같은 춘향(春香)몸에 자네 같은 동냥치가 누설(陋說)을 시키다간 빌어먹어도 못하고 굶어 뒤흔지리.”²⁶⁷⁾

그는 춘향을 세상에 드문 열녀로 칭하고 그런 춘향을 모욕하는 행위자에 대해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춘향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춘향을 옹호하는 인물이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춘향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사람의 평가에 있어서 개혁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들은 사람을 신분이 아닌 인격과 행동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그들의 등장과 행동은 춘향의 영웅적 행위가 관아 주변 인물들로 하여금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남원부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²⁶⁸⁾ 변학도와

266) 구자균 교주(1976), 위의 책, 181면.

267) 구자균 교주(1976), 위의 책, 181면.

268) 정출현(1993), 앞의 논문, 121면.

대결에 있어서 결코 춘향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취교전>의 조력 인물로는 취운, 마교, 관가(管家) 아주머니와 각 연 스님 등을 들 수 있다. 취운은 김중과의 언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⁶⁹⁾ 취운은 김중과의 혼약을 대신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취교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²⁷⁰⁾ 또한 재회할 때 종당(宗堂)의 일을 책임지는 것도 취운이며 취교 역시 취운이 있어야만 자기가 간직했던 정절을 지킬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취운은 취교의 진정한 조력자라고 볼 수 있다.

마교는 수파의 창가에서 기생 노릇을 하는 인물로서 취교와 같은 처지이다. 초경과 함께 도망치다가 잡혀온 취교가 수파의 가혹한 매를 맞았을 때 마교가 취교를 위해 신원보증을 해준다.

동료 가운데 마교(馬翹, 마 끼에우)라는 아가씨가 있어,
취교를 붙잡히 여겨 위험을 무릅쓰고 보증을 서네.²⁷¹⁾

취교의 처지를 안타까워해서 마교는 서로가 잘 모르는 사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취교를 위해 신원보증을 서준다. 마교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수파가 취교를 풀어준다. 이렇게 보면 마교는 취교의 귀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심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취교에게 큰 힘이 된다.

관가 아주머니는 환파네 집에서 노비의 신분으로 일하는 하층민이다. 관가 아주머니는 귀족 집안에서 일하면서도 하층민이 가진 인

269) 응웬 티 썸(Nguyễn Thị Sâm)은 취교와 김중의 사랑에 취운이 희생물이 된다면, 취운이 없으면 취교는 김중과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Nguyễn Thị Sâm, *Người em vườn Thúy*(취원의 여동생), Trịnh Bá Đình 외(2003), 앞의 책, 602-606면 참조.)

270) 팜 반 흥(Phạm Văn Hưng)은 취운이 가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어 받아주었기 때문에 취교가 김중에 대한 고결한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Phạm Văn Hưng(2016), 앞의 책, 136-137면.)

271) Nguyễn Du, *취귀록* 역(2004), 앞의 책, 113면.

자(仁慈)함을 잃지 않고 딱한 처지에 처한 사람에게 행하는 도움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²⁷²⁾ 취교가 까닭을 모르는 채로 환씨의 집에서 곤란을 당할 때에도 관가 아주머니는 취교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 주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봐주며 걱정해 준다.

관가(管家)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드나드는 취교의 품행을 보고 가엾게 여기네.
때로 차도 주고 때로 탕약도 주고,
방편(方便)을 말해 주어 호생(好生)의 길을 열어주네.²⁷³⁾

관가 아주머니의 취교에게 베풀어 준 따뜻한 정이야 말로 취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²⁷⁴⁾

취교는 각연에게 두 번 은혜를 입었는데 취교가 환저 집에서 도망친 사람임을 알고도 그녀를 걱정해 주고 피신할 방도를 마련해 준다.

이곳 불문은 결코 좁지 않지요,
불기(不期)의 재난이 닥치거나 않을까 염려되는데,
그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이라오.
미리 멀리 피할 방도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어요.
앉아서 물이 오기를 기다린대서야 어리석은 일이지요.²⁷⁵⁾

각연이 강권(強權)을 두려워한다²⁷⁶⁾는 의견도 있지만 각연이 두

272) Nguyễn Văn Xung, *Mụ quán gia, một nhân cách lãnh mạnh*(건강한 인격의 관가 아주머니), Lê Xuân Lit(2007), 앞의 책, 1160-1161 면.

273)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62면.

274) 응웬 반 쑹(Nguyễn Văn Xung)은 관가 아주머니가 환파네 집에 하녀의 신분으로 있는 취교의 정신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Nguyễn Văn Xung, 앞의 논문, Lê Xuân Lit(2007), 앞의 책, 1162 면.)

275)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85면.

276) 화이 타잉(Hoài Thanh)은 취교가 바친 종경(鐘磬)이 환씨 집의 것과 닮았다고 듣자 무서워해서 그녀를 다른 데로 보낸 각연의 행동이 수행자의 도리에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이 행동이야말로 취교가 청루에 팔려가게 된다고 보고 있다.(Hoài Thanh, 앞의 논문,

려위한 것은 강권이 아니라 취교가 강권으로부터 해를 입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각연이 취교를 도와줄 수 있을 뿐 강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²⁷⁷⁾ 그런 이유로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으로부터 취교를 미연에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멀지 않은 곳에 박씨 집이 있는데,
운암에 향유를 가지고 자주 오가네.
소식을 전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권하기를,
취교에게 잠시 거처를 옮겨 몸을 피하라고 하네.²⁷⁸⁾

이에 각연은 취교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 각연이 결정한 일은 의심 없이 따른다. <취교전>에서 취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정해준 사람에게 맹세를 하라고 요구하지만 각연에게 만든 예외이다. 각연이 취교의 마음 속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각연은 삼합 스님이 취교의 운명을 알려줄 때 마음을 줄인다.

각연은 말을 듣고는 부들부들 떨며 [탄식하네],
“가련하구나, 취교의 일생이여, 그렇게 삶을 마감한단 말인가!”²⁷⁹⁾

취교의 운명에 동정심을 느낀 그는 재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어부 두 사람을 일년내내 고용해서, / 배를 만들어 항시 나루터에서 기다리면서 투망을 엮어 장에 펼치게”²⁸⁰⁾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연은 또다시 죽음으로부터 취교를 구출해 준다. 각연이야말로 취교를 환생시켜 마음속의 평온함을 가져준 사람이며 취교를 가장

Lê Xuân Lít(2007), 위의 책, 1009 면.)

277) 취귀묵은 “각연은 종교적 은둔의 길로 인도했지만 세상의 악으로부터 취교를 지켜주는 못했다”고 보고 있다.(취귀묵(2010), 『베트남문학의 이해』, 창비, 497면.)

278)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앞의 책, 185-186면.

279)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앞의 책, 230면.

280)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위의 책, 232면.

잘 아는 사람이었다. 취교가 수행 생활을 선택했으나, 각연은 그녀가 불문의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를 가족들에게 보내주었고 각연 덕분에 취교는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조력자의 특성, 조력의 방식, 조력의 효과 등을 중심으로 <춘향전>과 <취교전>을 분석·비교하면 <춘향전>과 <취교전>의 조력 인물들은 대체로 하층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다. <춘향전>의 경우 관아주변 인물들을 제외한 월매, 향단, 방자, 농부들은 모두 춘향과 같이 하층민 계급에 속한 인물로서 춘향의 처지에 공감하고 춘향의 영웅적 행위에 힘입어 양반계층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다. 춘향은 그들의 지지에 힘입어 변학도와와의 대결에 있어서 승리한다. <취교전>의 조력자들은 역시 하층민 계급에 속한 인물로서 취교의 처지를 동정하고 취교의 품행에 감복해서 취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구해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취교의 마음의 의지할 곳이 된다. 취교는 그들의 도움에 힘입어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다.

조력의 방식에서 볼 때 <춘향전>의 경우 조력자들은 대체로 간접적이고 정서적인 방식을 취한다. 그들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춘향을 직접 도와주지 않지만 춘향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와 변사또의 부정부패한 행동에 대한 적대감 표현을 통해서 이도령의 춘향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변사또와의 대결에 있어서 춘향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반면 <취교전>의 경우 조력자들은 실제적이고 예방적 방식을 취한다. 그들은 악(惡)에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지만 취교가 처해있는 처지를 잘 헤아리고 합당한 행동을 통해서 취교가 고통스러운 처지를 벗어나게 도와준다.

조력의 효과를 통해서 볼 때 <춘향전>에서 조력 인물들의 협조는 많은 사람들이 춘향을 열녀로 인정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서 이

도령의 태도를 변화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춘향이 정렬부인이 되는 데 기여한다. <취교전>에서 조력 인물들의 협조는 취교의 안위를 보존하고 취교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으며 간직했던 정절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작품의 조력 인물들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조력의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며, 조력의 효과에서는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적용하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춘향전>과 <취교전>의 조력 인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의 조력자의 성격의 공통성을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신성스러운 인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력자들은 주인공과 같은 계층에 속한 인물로서 주인공과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어서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공이 처해 있는 처지를 잘 이해하고 동정한다. 주인공의 처지나 지향에 따라 조력의 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지만 그 조력은 주인공이 지향을 실현할 수 있거나 그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보게 하는 유사한 효과를 가져다온다. 동시에 조력 인물의 조력 방식과 효과 비교를 통해서 작자의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두 민족의 문화역사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4.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제 비교

이 절에서 <춘향전>과 <취교전>에서의 신의에 기반을 두는 남녀의 사랑, 인간 해방, 봉건 사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발, 선행선보·악행악보(善行善報惡行惡報)라는 민중의 사상을 비교함으로써 <춘향전>의 주제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의에 기반을 두는 남녀의 사랑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춘향전>과 <취교전>을 언급할 때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²⁸¹⁾ <춘향전>의 경우 신분 차이 때문에 춘향과 이몽룡이 이별해야만 했다. 춘향은 남원에 남아 있으면서 지극한 고난을 겪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생 신분 때문에 신관 사또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받았지만 ‘열녀불경이부’라는 지향을 견지하기 위해서 ‘생불여사’를 각오하고 변학도와 맞서 영웅적으로 저항한다. 춘향은 가혹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끝까지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춘향이 이도령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²⁸²⁾ 춘향이 수청 들기를 거듭 강요한 변학도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²⁸³⁾

이몽룡도 비록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신분적 질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까지 춘향 못지 않은 시련을 겪

281) 김병국은 “「춘향전」을 단순히 그 추상적인 이야기 패턴으로만 말한다면, 그것은 신분이 서로 다른 두 젊은 남녀가 많은 곡절 끝에 결합된다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보고 있다.(김병국, 「춘향전의 문학성에 관한 비평적 접근 시론」, 김병국 외(1996), 앞의 책, 38면). 부 각 환(Vũ Khắc Khoan)은 <단장신성(취교전)>에서 여주인공 취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 이야기를 각양각색으로 그려놓았는데 가장 독자들의 환심을 사는 사랑은 취교와 김중의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Vũ Khắc Khoan, Nguyễn Du và tình yêu(완유와 사랑),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961면 참조.)

282) 박희병은 “춘향에 있어 ‘열’이란 남성에 대한 맹목적인 정절 고수를 뜻하기보다는 서로 약속된 사랑, 또 그 사랑 밑에 전제되어 있는 자신의 인간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열렬한 태도나 강고한 신념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다. 이현국도 춘향의 신관에 대한 목숨을 건 저항이 이도령에 대한 신의와 애정 의지의 소산이라고 보고 있다.(박희병, 앞의 논문, 김병국 외(1996), 앞의 책, 98면; 이현국(2007),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의 신분적 특징과 구조적 기능」,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309면 참조.)

283) “당초(當初)에 이수재(李秀才) 만날 때에 태산(泰山), 서해(西海) 굳은 마음 소첩(少妾)의 일심정절(一心貞節) 맹분(孟賁) 같은 용맹(勇猛)인들 빼어내지 못할 터요, 소진(蘇秦), 장의(張儀) 구변(口辯)인들 첩(妾)의 마음 옮겨 가지 못할 터요, 공명선생(孔明先生) 높은 재조(才操) 동남풍(東南風)은 빌었으되, 일편단심(一片丹心) 소녀(小女) 마음 굴복(屈服)치 못하리라.”(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9면.)

어야만 했다.²⁸⁴⁾ 천한 기생인 춘향을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 이려는 이몽룡의 행위는 그가 속한 당대 양반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²⁸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몽룡은 “일구(日久)월심(月深) 마음 굳게 먹고 등과(登科) 외방(外方)”²⁸⁶⁾ 바랐다. 이를 통해 날이 갈수록 춘향을 위한 이몽룡의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장원(場院)급제(及第) 출신(出身)하여 너를 데려갈 것이니, 울지 말고 잘 있거라.”²⁸⁷⁾라는 춘향과의 약속을 현실로 옮기는 것에 성공한다. 이윽고 암행어사가 되고 남원으로 내려와서 춘향을 구출하여 정실부인의 자리에 올린다. 이몽룡의 이와 같은 행동의 동력에는 춘향을 위한 그의 사랑과 신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춘향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한 춘향의 사랑을 굳게 믿었기에 결코 쉽지 않았던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상호 간의 신의는 그들의 사랑을 승화시켜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할 수 있다.²⁸⁸⁾

<취교전>의 경우 취교와 김중의 사랑을 갈린 것은 신분 차이가 아닌 가변(家變)이다. 헤어질 때 취교는 김중과 굳게 약속했다.

이미 동심(同心) 두 글자 맹세를 했으니,
맹세코 평생토록 비파(琵琶)를 안고 다른 사람 배에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²⁸⁹⁾

284) 박희병은 이도령이 춘향과의 최종적 결합을 위해 “자기가 소속된 양반 지배층 쪽에서의 계급적 편견은 물론, 춘향을 둘러싸고 있는 민중 쪽에서 제기하는 배신에의 의혹과 오해”도 극복해야 했다고 보고 있다. 정출현도 이도령이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양반신분으로서의 기득권 일체를 포기”해야 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던 중세봉건사회의 신분적 질곡”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한다.(정출현(1993), 앞의 논문, 99면; 박희병, 앞의 논문, 김병국 외(1996), 앞의 책, 106-107면 참조.)

285) 정출현(1993), 앞의 논문, 99-100면.

286)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19면.

287)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11면.

288) 박희병은 춘향과 이도령의 최종 결합은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박희병, 앞의 논문, 김병국 외(1996), 앞의 책, 101-102면 참조.)

289) Nguyễn Du, 취귀록 역(2004), 앞의 책, 61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풍진의 길에 올라가기 전에 여동생인 취운에게 김중과의 언약을 대신하도록 위탁했다. 김중과의 굳은 약속을 어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파란만장한 십오 년의 세월 동안 늘 김중의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서 김중의 모습을 간직했다.²⁹⁰⁾ 다음 인용은 취교의 마음을 잘 나타낸다.

달 아래에서 맹세의 잔을 나눈 그 사람 생각하네,
오늘내일하며 여전히 소식을 기다리겠지만 헛일이네.
천애해각(天涯海角)의 외로운 처지이지만,
단심(丹心)이 씻긴들 끝내 [그 색이] 바래리오.²⁹¹⁾

취교는 늘 김중을 굳게 믿고 그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지만 다시 만날 때 부부가 되어 달라는 김중의 간청을 거절했다. 김중과의 고결한 사랑에 흠결을 입히기 꺼렸던 까닭이다.²⁹²⁾ 취교와 달리, 김중은 “만일 인연의 끈이 풀어지게 된다면,/ 금석으로 목숨을 끊어버릴 거라오”²⁹³⁾라는 그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다. 십오 년 동안 취운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과거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랐음에도 취교를 찾아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²⁹⁴⁾

290) 마감생의 첩이 되었을 때든 속량의 기회를 기다리느라고 응벽루에 있을 때든 손님대접을 하게 되었을 때든 서해가 처가 되었을 때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김중의 그리움이 늘 취교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291) Nguyễn Du, *최귀록 역*(2004), 앞의 책, 105면.

292) 부 하잉(Vũ Hạnh)은 취교가 김중 집에 있을 때 김중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은 것과 다시 만날 때 김중과의 육체적 관계를 거절한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김중의 사랑에 신의를 두고 오래도록 고결한 사랑을 지켜내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Vũ Hạnh, 앞의 논문, Trịnh Bá Đình(2003), 앞의 책, 583면.)

293) Nguyễn Du, *최귀록 역*(2004), 위의 책, 50면.

294) 팜 반 지에우(Phạm Văn Diêu)는 김중이 취교가 다른 사람의 처와 첩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취교를 찾아 만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그가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취교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Phạm Văn Diêu, *Tâm lý, tính cách nhân vật Truyện Kiều: Kim Trọng*(<취교전>의 작중인물의

“서로가 여러 번 맹세했지요.
 금석(金石)같이 굳은 말들이 어찌 빈말이었겠습니까?
 금침(衾枕)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부니,
 어찌 차마 마음을 끊어 버릴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먼 길이라도 하여도,
 꼭 한번 따님을 만나 보아야만 되겠습니다.”²⁹⁵⁾

[차라리]괘인사관(掛印辭官)하고,
 천수(天水)라도 건너고 만산(萬山)라도 넘고자 하네.
 간과(干戈) 밀집한 속에 몸을 던지려네,
 생사를 무릅쓰더라도 행여 서로 만날 수만 있다면.”²⁹⁶⁾

김중의 이와 같은 강력한 신념은 “오랫동안 바다 속에 빠진 바늘을 [찾듯 그대를] 찾은 것은./ 금석(金石) 같은 약속 때문이었지 화월(花月)을 찾고자 함이었겠소?”²⁹⁷⁾라는 김중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그녀와의 굳건한 약속을 지켜내고 싶어 했다. 이를 통해 취교와 김중이 다시 만나서 끊어졌던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신의에 의해서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형상화는 다르지만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취교와 김중의 사랑 모두가 신의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의는 그들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서로를 위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게 한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결국 춘향의 이몽룡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과 부당한 변학도와의 격렬한 대결과 이몽룡의 춘향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덕분에 혼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취교와 김중의 사랑도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 취교는 가변 때문에 김중과의 약속

심리와 성격: 김중을 중심으로), Lê Xuân Lit(2007), 앞의 책, 1107-1115면 참조.)
 295)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위의 책, 240-241면.
 296)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위의 책, 248면.
 297) Nguyễn Du, 취귀묵 역(2004), 위의 책, 266면.

을 지키지 못하고 동생인 취운에게 부탁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취교와 춘향의 다른 점이 보인다. 그렇지만 오탁한 환경에 몸이 담겨 있는데도 끝내 정결한 마음을 지켜내도록 하는 강인한 의지가 춘향과 유사하다. 한편, 이몽룡처럼 신분제의 선입견으로 인해 좌절된 적이 없지만 김중은 다른 시련을 겪게 된다. 바로 취교의 정절을 평가하는 문제이다.²⁹⁸⁾ 청루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두 남편을 두었던 취교가 온전하게 정절을 지킨다고 볼 수 있는가? 김중은 유교 사회의 통념을 넘어서 취교의 행동을 보지 않고 그 행동의 동기와 태도로 취교를 평가한다. 결국 김중의 이러한 행동은 취교에 대한 굳은 신의에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²⁹⁹⁾

이렇게 보면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과 취교와 김중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사랑만이 아니라 엄청난 시련을 체험해보고 당사자의 시련 극복의 태도와 의지를 알아낼 수 있는 동시에 이를 통해서 인간의 보편성과 한국과 베트남 민족의 특수성을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춘향전> 교육에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2) 인간 해방

(1) 정절·수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완판 84장본>의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춘향의 수절은 <춘향전>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런데 <춘향전>의 수절은 전통적 수절

298) 팜 반 흥(Phạm Văn Hưng)은 김중의 형상화를 통해서 완유가 살던 시대의 앞장에 서서 정절과 열녀에 관한 새로운 관념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Phạm Văn Hưng(2016), 앞의 책, 128-139면.)

299) 레 쩌 비엔은 취교와 김중의 사랑이 굳은 신의에 기반을 둔다고 보고 있다.(Lê Tri Viễn(1978), 앞의 책, 168-177면 참조.).

과 다른 고유한 지점이 있다. 춘향의 수절은 봉건사회의 보수적인 덕목을 강화시키는 성격의 것이 아닌, 자기의 지향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도구라 할 수 있다.³⁰⁰⁾ 춘향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라는 전통적인 윤리에 근거를 두고 변학도의 수청 요구에 항거하였으나, 춘향의 ‘일부종사’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³⁰¹⁾ 춘향의 ‘일부종사’는 사랑 없이 의무로서만 남편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생불여사”라며 형벌을 받을 마음까지 준비되었다. 춘향의 그러한 태도를 통해 춘향에게 수절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의 도구임을 알 수 있다.³⁰²⁾ 춘향이 바라는 삶은 물질적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랑과 행복이 충족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춘향이 “독숙공방(獨宿空房)”을 두려워하면서도 변학도의 수청 요구에 항거한다. 그녀는 스스로 변학도의 수청 요구에 항거하는 것이 승리를 거두지 못할 일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항거한다. 춘향에게 수절은 행복을 보증해주는 수단이다. 이렇듯, 춘향의 수절은 전통적인 덕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몽룡을 위한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수재(李秀才)는 경성(京城) 사대부(士大夫)의 자제(子弟)로서 명문(名門)귀족(貴族)의 사위가 되었으니 일시(一時) 사랑으로 잠깐 노류장화(路柳牆花)하던 너를 일분(一分) 생각하겠느냐”³⁰³⁾라는 변학도의 말에도 춘향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

300) 박희병은 춘향의 열은 순전히 자유의지에 의해 초래되고, 봉건적 신분 관계를 부정하고, 양반적인 통치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합목적적인 성격을 지니고, 약속의 이행, 신의의 관철로서 쌍방의 상호관계에 입각하는 것으로서 봉건적 의미의 열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한다.(박희병, 앞의 논문, 김병국 외(1996), 앞의 책, 96면 참조.)

301) 박희병은 “춘향의 열은 비록 겉으로는 전통적 의미의 열과 똑같이 ‘일부종사’나 ‘열녀불경이부’의 구호를 내걸고 있긴 하지만, 그 위상 및 구체적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박희병, 앞의 논문, 김병국 외(1996), 위의 책, 97면 참조.)

302) 이상택은 춘향의 수절은 이도령과의 애정을 성취하거나, 이도령과 결연함으로써 상류 사회에 진출하여 자기의 신분적 열등의식에서 구제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이상택, 「성격을 통해 본 춘향전」, 김병국 외(1996), 위의 책, 223-224면 참조.)

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춘향에게 수절은 ‘일부종사’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선택에 대한 믿음인 인 까닭이다.

과연 춘향의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이몽룡은 춘향을 잊지 않고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을 고난에서 구해준다. 결국 춘향은 이몽룡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부터 정렬부인이라는 품위를 부여받게 된다. 춘향이 임금으로부터 정렬부인이라는 품위를 받게 된 것을 가리켜 <춘향전>의 춘향의 수절은 결국 전통적 수절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너 같은 창기배(娼妓輩)게 수절(守節)이 무엇이며, 정절(貞節)이 무엇이다. 구관(舊官)은 전송(餞送)하고 신관(新官) 사또 연접(延接)함이 법전(法典)에 당연(當然)하고 사례(事例)에도堂堂(堂堂)커든 고이한 말 내지 마라. 너희 같은 천기배(賤妓輩)게 충렬(忠烈)이자(二字) 왜 있으리.”³⁰⁴⁾라는 회계 나리의 말을 근거로 보면 춘향이 변학도의 수절 요구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완강하게 항거한 것은 봉건사회의 질서에 부합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³⁰⁵⁾ 이렇게 보면 임금이 춘향의 수절에 대해 국가적 질서를 성립한 사례로서가 아닌, 개인의 뛰어난 행위로서 칭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봉건 사회의 최고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임금의 춘향에 대한 칭찬은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행위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춘향의 수절은 신분제 사회에서 미천한 신분에 놓여있는 여성의 사랑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영리한 수단이 된다.

303)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5면.

304) 구자균 교주(1976), 위의 책, 137면.

305) 이지영은 <단천절부시>의 일선을 들며 당대 사회에서 절개를 지키는 행위는 신분과 관계 없이 기생의 정절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론했지만 절개를 지키는 행위가 가치 있는 일로 인식되는 것과 기생의 수절을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일이라고 봐야 한다. 일선은 사랑하던 남자에 대한 수절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죽음 밖에 아무 방법도 없었던 것 자체가 그의 반증이 된다.(이지영(2013), 「<춘향전>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전문학연구』 44, 한국고전문학회, 281-282면에서 참조.)

춘향의 수절과 마찬가지로 <취교전>의 취교의 정절과 수절은 전통적 정절과 수절의 관념과는 다르다. 취교는 세상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정절을 지킨다. 취교의 정절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비과를 연주하는 것을 듣는 김중이 부정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취교가] 말하네, “그렇게 장난치지 마세요,
저만치 떨어져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한 그루 보잘없는 요도(夭桃)가,
홍원(紅園)에 청조(靑鳥)가 날아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미 형포(荊布)가 된 몸,
종부의 도리로는 정절(貞節)이 최우선이지요.
상간복상(桑間濮上)[의 여인처럼] 행실이 부정하다면,
그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원하겠어요!
순간의 정욕에 이끌려 버린다면 그건,
백년의 정절을 하루아침에 저버리는 일이에요!
고금 기우(寄寓)의 인연을 생각해 보건대,
어울리는 한 쌍으로는 그 누가 최장(崔張)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운우(雲雨)가 금석(金石)을 무너뜨리니,
도가 지나쳐 연앵(燕鶯)은 서로 싫증이 나고 말았죠.
비익(比翼), 연지(連枝)와 같이 다정스럽다가
마음 한 구석에서 경시하는 마음이 싹튼 것이지요.
서상(西廂)에서 맹세하며 피운 향이 싸늘하게 식어버려,
도탑던 인연은 부끄러운 인연이 되고 말았죠.
먼저 북(楸)을 던져 [정절을] 지키지 않고서,
훗날 그대에게 부끄럽게 된다면 누구 탓이겠어요?
왜 그리 급히 화류를 강요하시나요?
언젠가 제가 은혜에 보답할 날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³⁰⁶⁾

취교가 정절을 지키고자 김중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306)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57-59면.

청심재인(靑心才人)의 <김운교전(金雲翹傳)>의 취교(翠翹)처럼 천고의 정절의 본보기가 되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김중의 인연이 최장(崔張)의 인연처럼 깨어질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춘향과 마찬가지로 취교에게 수절은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 그것은 마감생에게 몸을 팔 때 취교의 생각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선품(仙品)이 비천한 자의 수중에 떨어졌으니,
누군가를 위해서 햇빛과 비를 피한 일이 허사로구나!
이 몸이 전락하는 지경이 될 줄 알았더라면,
도예(桃藥)를 차라리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꺾게 할 것을!”³⁰⁷⁾

마감생에게 시집갔기 때문에 몸을 허락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임에도 오히려 취교는 억울한 마음만 들고 사랑하는 김중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봉건사회에서는 자못 급진적인 생각³⁰⁸⁾으로, 대부분의 베트남 유가들이 취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³⁰⁹⁾ 그런데 15년간의 수난을 겪고

307) Nguyễn Du, *최귀록 역*(2004), 위의 책, 87-88면.

308) 팜 반 흥(Phạm Văn Hưng)은 취교의 이러한 생각이 반란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법적으로 따지다보면 취교가 마감생의 첩인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 취교가 정신적 외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Phạm Văn Hưng(2016), 앞의 책, 138-139면.)

309) 기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응웬 쑹 쩌(Nguyễn Công Trứ(阮公著, 1788-1858): 완씨(Nguyễn) 왕조의 대신이자 베트남 고유의 문학 갈래인 핫노이(hát nói)의 유명한 작가 중의 하나이다. 그는 첩을 많이 두었는데 그중에 (베트남 교유의 창가유형인 까쑤(ca trù)연주를 업으로 하는)기생출신인 사람이 많다.)도 취교에 대하여 아낌없는 욕설을 퍼붓는다. 그는 <취교영(翠翹詠)>이라는 시로 취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Đã biết má hồng thời phận bạc
Trách Kiều nhi chưa vẹn tấm lòng vàng
Chiếc quạt thoa dành phụ nghĩa Kim lang
Nặng vì hiếu, nhẹ vì tình thời cũng phải
Từ Mã Giám Sinh cho đến chàng Từ Hải
Cánh hoa tàn đem bán lại chốn thanh lâu
Bây giờ Kiều còn hiếu vào đâu
Mà bướm chán ong chường cho đến thế?

홍안박명을 알면서도
취교가 한결같은 마음 지키지 못함을 책하노라.
비녀와 부채로 맺은 김랑과의 연약을 어기고 말았네.
효를 중시하고 정을 경시하는 것은 옳바르지마는
마감생으로부터 서해까지는
청루에서 시든 꽃을 팔아 버렸으니
효만으로 변명할 수 없겠구나.
왜 그렇게 벌과 나비를 실컷 맞아들었느냐?

난 그녀는 김중을 다시 만나 김중과 결혼하라고 가족들이 권하기에
마지못해 승낙했는데 남은 정절을 지키느라고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기로 한다. 취교는 어떠한 까닭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가?
첫날밤에 김중과 취교의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취교가 말하네, “가실이 화해해서,
은애가 넘치기를 누구라도 바라지요.
생각건대 부부의 도리로는
향기로운 꽃은 꽃술을 봉하고 보름달은 둥굴어야 하죠.
정절은 천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
[정절을 지켰다면] 그대와의 동방화축이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변고를 만난 후로 지금까지,
별 나비가 왕래하여 부끄러움이 가득해요.
오랫동안 비바람이 몰아쳐서,
수없이 달은 이지러지고 꽃은 떨어졌어요.
이제 홍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몸이 더럽혀졌는데 다시 무슨 마음을 먹겠어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어찌 부끄럽지 않겠어요?
어떻게 감히 친구의 몸으로 형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대 정의가 무거운 것이야 알지만,
화축을 보면 제 자신이 크게 부끄럽지 않겠어요?
이제부터는 추방 문을 닫아 두고,
비록 승려가 아니지만 승려처럼 살고자 해요.
그대가 만일 옛사랑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Bạc mệnh chẳng làm người tiết nghĩa
Đoạn trường cho đáng kiếp tà dâm!
Bán mình trong bấy nhiêu năm
Đỡ đem chữ hiếu mà làm được ai!
Nghĩ đời mà ngán cho đời!
(Trương Chính(1983), *Thơ văn Nguyễn Công Trứ*(완공저의 시문), Nxb Văn học.)

박명은 절의가 있는 자를 잘못 선택하지 않아,
음탕한 사람이 단장(斷腸)을 겪어야 마땅하다네.
여러 년 동안 몸을 팔았는데
효를 가지고 누구를 속일 수 있겠느냐?
인생을 생각해보니 참으로 한탄하구나.

응오 득 계(Ngô Đức Kế)와 후윙 푹 카잉(Huỳnh Thúc Kháng)도 전통 유교의 관점에
서서 취교를 베트남 국민의 정신적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창녀라고 보고 있
다.(Ngô Đức Kế, 앞의 논문,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708-1712면; Huỳnh Thúc
Kháng, 앞의 논문,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1725-1728면에서 참조.)

금슬의 정을 금기의 정으로 바꾸도록 해요.
어째서 결발하고 부부가 될 것을 말하나요?
애꿎듯 슬프고 또 평생토록 부끄러울 텐데요.”³¹⁰⁾

.....

취교가 말하네, “저는 어쩔 수 없이 되어 버렸어요.
망가진 몸인데 무얼 더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그대의 옛사람에 대한 의와 마음에 새긴 정을 생각해서,
[그대의] 바람을 좇아 조금이나마 창수하려는 거지요.
마음속으로는 참으로 부끄러웠으니,
후안무치를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사랑은 곁에서 그친다면,
[부끄러움이 없이] 얼굴을 들어 그대를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 만일 남들 하듯이 한다면,
땅바닥에서 [다된] 향을 줍고 늦은 계절에 [시든] 꽃을 꺾는 것이지요.
또한 추하고 우스운 일이니,
정은 무슨 정이겠어요, 서로 원수가 되고 말 거예요.
그대가 저를 사랑하면 그만큼 저는 그대에게 부끄러울 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도리어 서로를 저버리는 것이지요.”³¹¹⁾

인용문에서 보이듯, 마감생이 취교의 몸을 범했을 땐 차라리 김중에게 몸을 허락했으면 좋겠다며 후회했지만 이제 다시 만나서 대면하면서도 몸을 허락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취교가 육체적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선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까닭이다. 지금의 취교에게 수절하는 것은 사랑과 행복을 보증해주는 행위라고 봐야 타당하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춘향과 취교의 수절은 전통적 의미의 수절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 그들이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보증하기 위해서 수절하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처해

310)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61-261면.

311)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위의 책, 265-266면.

있는 처지가 달라서 그들의 수절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춘향은 이도령과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변학도의 수절 요구에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한다. 반면 취교는 김중과의 고결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김중과의 육체적 관계를 거절한다. 혼례식에 김중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러한 행동은 취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 인식은 15년간의 파란만장한 생활을 체험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

춘향과 취교의 인생을 통해 <춘향전>과 <취교전>은 여성 인권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는데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하고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위한 투쟁의 두 측면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제는 남녀의 연애·사랑이다. 두 작품의 여성 주인공인 춘향과 취교가 남성 주인공을 따라 수동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애·사랑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할 수 있다. 처음, 광한루에서 이도령과 만날 때 춘향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도령에게 갔으나, 사실 월매가 다녀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이몽룡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³¹²⁾ 광한루에서 이도령을 잠깐 보았지만 흠모하는 마음이 들었다.³¹³⁾ 그래서 이도령은 “오늘 밤 퇴령 후에 너의 집에 갈 것이니

312) 진은진은 춘향이 스스로 이도령에게 가지 않고 월매의 권유에 의해 못 이기는 척 따르는 것을 보고 춘향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는데 유교사회가 아닌 근대사회에 살던 여성들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춘향처럼 행동할 수밖에 못했을 것이다.(진은진(2002), 앞의 논문, 299면에서 참조.)

팔시나 부디 말라”³¹⁴⁾라고 하는데 춘향은 “나는 몰라요”라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허락한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첫날에도 망설임 없이 이도령에게 몸을 허락한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춘향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여자임을 말해준다. 춘향은 여성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인식한다. 광한루에서 만날 때 이도령에게 하는 말³¹⁵⁾과 헤어질 때 하는 말³¹⁶⁾을 통해서 춘향의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춘향이 여러 번 ‘독숙공방’을 말하는데 춘향으로 의해 ‘독숙공방’은 행복의 원수가 인식된다. 처음 광한루에서 이도령의 구애를 거절하고 이도령이 이별 통보를 선언할 때 강력하게 반응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춘향과 마찬가지로 취교도 여성의 행복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봄나들이를 다녀오는 도중에 우연히 김중을 만나 첫눈에 반했다. “객(客)은 말에 오르고 그녀의 눈길은 살며시 그를 좇네”³¹⁷⁾라는 행동은 그녀가 자기의 감정에 매우 충실한 여자임을 잘 보여준다. 취교가 김중과 함께 연애하는 것은 봉건사회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부모와 동생들이 외조부모 댁에 간 틈을 타 김중에게 가거나, 김중 집에서 돌아왔음에도 부모와 동생들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취교는 “한밤중에 종종걸음으로 곧장 뜰로 건너”³¹⁸⁾ 김중한테 다시 가고는 하였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행복

313) “춘향(春享)이 추파(秋波)를 잠깐 들어 이도령(李道令)을 살펴보니, 금세(今世)의 호걸(豪傑)이요, 진세간(塵世間) 기남자(奇男子)라. 천정(天庭)이 높았으니 소년공명(少年功名)할 것이요, 오악(五嶽)이 조귀(朝歸)하니 보국충신(輔國忠臣) 될 것이매 마음에 흠모(欽慕)하여 아미(蛾眉)를 숙이고 엄슬단좌(斂膝端坐)뿐이로다.”(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30면.)

314) 구자균 교주(1976), 위의 책, 35면.

315) “한 번 탁정(濁井)한 연후에 인(因)하여 버리시면 일편단심(一片丹心)이 내 마음 독숙공방(獨宿空房)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身勢)에 내 아니면 뉘가 길고.”(구자균 교주(1976), 위의 책, 31면.)

316) “이팔청춘(二八青春) 젊은 것이 낭군(郎君) 없이 어찌 살꼬. 침침공방추야장(沈沈空房秋夜長)에 시름 상사(相思) 어이할꼬.”(구자균 교주(1976), 위의 책, 97면.)

317)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29면.

318)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위의 책, 50면

한 순간을 소중히 하고 예감한 운명과 맞서 적극적으로 쟁취한다. 부 하잉(Vũ Hạnh)이 지적한 바와 같이 취교의 이러한 행동은 자기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랑에 있어서 능동적이며 동등한 자세를 취하는 여자임을 잘 보여준다.³¹⁹⁾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춘향과 취교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사랑을 성취하기에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춘향은 첫날밤에 이도령에게 몸을 허락하고 사랑놀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취교는 끝까지 김중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점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취교가 사랑에 있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거나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논의했지만 취교는 김중과 사랑을 나누기에 있어서 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취교가 김중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열녀의 본보기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자기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데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면 춘향이 이도령에게 몸을 허락한 이유와 다르지 않다. 여성들이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고 예법에 따라 처신했던 유교적 사회에서 살던 춘향과 취교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배우자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와의 사랑을 성취하기에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 즉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의 행복 추구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³²⁰⁾

나.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위한 투쟁

개인의 욕망과 위상이 크게 존중되지 않았던 봉건사회의 춘향과

319) Vũ Hạnh, 앞의 논문, Trịnh Bá Đình(2003), 앞의 책, 584-585면에서 참조.

320) 박희병은 “춘향은 현실이 자기에게 용납하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진정한 가치로서 추구하는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다.(박희병, 앞의 논문, 김병국 외(1996), 앞의 책, 112면.)

취교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격렬한,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할 만한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춘향은 자신의 지향대로 살기 위해서 봉건 세력을 대표하는 변학도와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이몽룡을 위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춘향은 수청 들라는 변학도의 설득에 죽음을 무릅쓰고 응대한다.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요,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라. 절개를 본받고자 하옵는데 계속 이렇게 분부하시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고 열녀불경이부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³²¹⁾

“첩의 몸이 비록 천한 계집이나 이들을 모르리까. 사람의 첩이 되어 남편을 배반하는 것은 벼슬하는 관장님네 나라를 배반하는 것과 같사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³²²⁾

변학도의 수청 요구에 완강하게 항거하는 춘향의 행위는 바로 역성의 인권을 짓밟는 봉건사회와 그 제도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지배 세력을 반항하는 것이다.³²³⁾ 오수창은 “이념뿐 아니라 법과 제도, 사회 그 어느 것도 춘향에게 적대적이지 않았”³²⁴⁾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춘향은 천자수도법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고 신분제도에

321)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09-111면.

322) 구자균 교주(1976), 위의 책 112-113면.

323) 박희병은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사랑 및 변학도에 대한 항거에는 양반층 내의 양심적 양반과 결합하여 그 계층 내부의 극도로 보수적이며 민중수탈적인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봉건적 현실을 개조하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당대 민중의 정치적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가 의문이 든다. 춘향과 변학도의 대결은 이도령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와서 변학도를 징치한 것도 춘향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사랑 및 변학도에 대한 항거는 양반층 내의 양심적 양반과 결합하여 그 계층 내부의 극도로 보수적이며 민중수탈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가 온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춘향의 변학도에 대한 항거는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짓밟히는 민중이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을 악용해서 민중을 수탈하는 지배세력에 대한 항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박희병, 앞의 논문, 김병국 외(1996), 앞의 책, 116면.)

324) 오수창(2012), 「조선의 통치체제와 춘향전의 역사적 성취」, 『역사비평』 99, 역사비평사, 357면.

따라 차별대우를 받고 기생의 딸이라면 기생이라는 사회의 인습에 인해 천한 신분의 뿌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법과 제도, 사회 등은 춘향에게 치명적 질곡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변학도와 회계 나리가 법률과 사회의 인습을 들어 춘향을 기생으로 취급하고 수청 들기를 강요한다. 그들이 춘향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녀의 인권을 짓밟았지만 오히려 그녀를 거역장관의 죄로 몰아넣고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 변학도가 춘향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 목적이 그녀를 굴복시켜 자기의 수청 요구에 순종하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러기에 춘향이 반생반사의 상태임에도 “유부(有夫)첩탈(劫奪)하는 것은 죄(罪) 아니고 무엇이요”³²⁵⁾라고 격렬하게 저항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춘향의 이러한 저항은 여성에게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돌려달라는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춘향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위한 취교의 투쟁도 지난하다. 마감생의 첩이 된 줄 아는 취교가 “애야, 여기 어머니께 머리 조아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저기 계신 네 아버지께 머리 조아려 인사 올리거라”³²⁶⁾라는 수파의 분부에 바로 항의를 한다.

취교가 말하네, “유리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소성(小星)의 비천한 처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어쩐 일로 제비를 앵무새라고 하시는지,
철이 없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납채(納采), 우귀(于歸)를 예법에 맞게 했고,
침식(寢食)을 함께 했고 좌립(坐立)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위를 바꾸라고 하니,
사정을 분명히 아시도록 감히 한 말씀을 올립니다.”³²⁷⁾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불분명한 것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에 수파가 취교에게 겁을 주어서

325) 구자균 교주(1976), 앞의 책, 139면.

326)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99-100면.

327)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위의 책, 100면.

굴복시키느라고 ‘피편(皮鞭)’을 움켜쥐고는 달려들어 때리려 한다.
그러나 취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취교가 말하네, “하늘이여, 땅이여!
이 몸은 오래 전 떠나 올 때부터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다 끝난 마당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준비한 칼을 즉시 소매에서 꺼내 드네.
옥 같고 꽃 같은 몸을 손상할까 두려워하며,
수파는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취교는 칼로 찔렀네.³²⁸⁾

기생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서 망설임 없이 자살하기로 한다.³²⁹⁾ 초경의 속임수에 걸려서
수파의 가혹한 매를 맞은 취교는 “속아 넘어간 것이야 어쩔 수 없
지!(중략)....말을 아끼고 괜히 [그와] 얹혀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해”³³⁰⁾라는 마교의 충고를 받았는데도 초경이 나타나서 자기에 대
한 악담을 하자 참지 못해 썩 나서서 대두하게 된다.

취교가 말하네, “하늘이여, 아는가!
앵연(鶯燕)을 찢어 낸 것이 누구 짓인지들,
사람을 데려다 깊은 우물에 빠뜨리고,
말을 뱉어 놓고는 곧바로 식언(食言)하다니!
석월(昔越)이라는 쓴 편지 아직 수중에 있지,
분명 그 얼굴이 이 얼굴이지 달리 누구겠어?”³³¹⁾

부 하잉이 지적한 바와 같이 취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
이 사기꾼인 초경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취교의 인간다운 삶

328)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01-102면.

329) 응웬 록(Nguyễn Lộc)은 취교의 이렇게 격렬한 저항이 그녀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
식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Nguyễn Lộc(1994), 앞의 책, 354면 참조.)

330)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위의 책, 113-114면

331)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위의 책, 114-115면.

의 권리를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³³²⁾

취교는 수파와 초경의 숙임수에 걸려서 손님대접을 하게 되었지만 몸만 파는 것이지 정결한 마음을 끝내 지켜낸다. 그래서 남의 첩이 되는 것이 힘든 일임을 잘 알면서도 속생의 첩이 되기로 했다. 속생의 아버지인 속옹의 소송에 의해 관청으로 끌려갔을 때 관장이 엄한 태도로 위세 당당하게 질타하며 그녀의 죄를 논하고 두 판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분부한다.

“법률에 비추어 이 안건을 논하건대,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어느 쪽을 택하든 뜻대로 하라.
하나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요,
둘은 다시 청루로 돌려보내는 것이다.”³³³⁾

하지만 취교는 이미 결정해 놓은 듯 대답한다.

“이미 한 쪽으로 정했습니다.
거미가 또다시 거미줄에 걸려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탁하든 맑든 몸은 또한 몸이니,
약하고 어린 저지만 관정에서 뇌정을 받겠사옵습니다.”³³⁴⁾

취교는 가혹한 형벌을 받더라도 절대로 청루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인다. 이는 취교가 늘 인간다운 삶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취교가 전당강물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어버린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남편을 죽이고 또 다시 남편을 얻으니, / 무슨 낮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³³⁵⁾라는 죄책감에 휩쓸려 있는 그녀는 토관과의 혼인에 있어서 살아남을 의의를 조금도 찾지 못했다. 호종현이

332) Vũ Hạnh, 앞의 논문, Lê Xuân Lit(2007), 앞의 책, 1071면 참조.

333)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앞의 책, 136면.

334)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위의 책, 136면.

335)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위의 책, 225면.

약속에 어기고 토관과의 혼인을 강요시킨 것은 취교의 인격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유감없이 짓밟는 일이었다. 그래서 취교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으로서 살 권리에 대한 깊은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³³⁶⁾ 응웬 록(Nguyễn Lộc)이 지적한 바와 같이 취교의 성격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³³⁷⁾ 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의식 덕분에 취교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끝내 정결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춘향과 취교는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춘향은 천한 기생 신분으로 인해 훼손, 즉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을 대면해야 했다. 그녀의 변학도와의 대결은 ‘일부종사’를 지향하는 기생 개개인과 부정부패한 수령과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지배 계층을 비롯한 당대 사회 계층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인습과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저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춘향과 취교의 투쟁은 다른 점이 보인다. 취교가 대면해야 한 것은 속임과 배신이 난무하는 사회이다. 이렇듯 취교의 투쟁도 험난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 번 죽음을 선택했다. 취교가 대면해야 하는 세력이 각양각색함에 따라 그녀의 저항도 복잡다단하였다. 최귀묵은 취교가 김중에게 돌아오는 길은 멀고 험한 것은 “취교가 세상의 ‘간교한’ 악에 ‘순진함’만으로 맞섰기 때문이”³³⁸⁾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앞서 분석한 것처럼 취교는 허락하는 범위에서 닥쳐온 수난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춘향과 취교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비교를 통해 근대로의 이행기문학에 등장한 여성인물의 성격에 있어서 자애심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라는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한국여성과 베

336) 응웬 록(Nguyễn Lộc)은 취교의 이러한 행동이 절망에 빠진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반항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취교가 무의식 속에서가 아니라 낱알이 헤아리고 결정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Nguyễn Lộc(1994), 앞의 책, 356 면 참조.)

337) Nguyễn Lộc(1994), 위의 책, 348 면.

338) 최귀묵(2010), 『베트남문학의 이해』, 창비, 498면.

트남여성의 심리적 특수성을 탐구할 수 있다.³³⁹⁾

3) 봉건사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발

<춘향전>과 <취교전>은 춘향과 취교를 통해서 봉건사회의 질서에 반항하는 목소리다. <춘향전>의 경우 여성의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짓밟았던 조선시대의 신분제의 불합리성을 고발한다. 만약 춘향이 자신의 행복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이 부재하고 기존 질서에 굴종했다라면 고난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춘향은 이도령과의 사랑을 나눈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행복의 진정한 가치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존 질서에 반항할 수밖에 없었다. 봉건사회는 그러한 춘향을 용납하지 못하고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춘향의 지향을 꺾어내고자 하였다. 조동일은 변학도와 춘향의 대결은 지배층의 비인간적인 횡포에 맞서서 인간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민중의 항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³⁴⁰⁾ 변학도와 춘향의 대결을 통해서 중세봉건사회의 제도적 문제점이 여과없이 노출된다. 변학도와 춘향의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춘향의 신분이다. 변학도는 기생의 딸이면 기생이라는 논리를 들어 춘향을 기생으로 취급하고 기생이 수절할지라도 아무 가치도 없다는 입론으로 이도령에 대한 수절을 하고 있는 춘향에게 수절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면 춘향의 ‘일부중사’의 지향에 대한 장애는 조선시대의 신분제임을 알 수 있다.³⁴¹⁾

339) 이 문제에 대해서 Nguyễn Lộc(1994), 앞의 책; Trần Đình Hượu(1999), 앞의 책; Hoài Thanh, 앞의 논문, Trịnh Bá Đình(2003), 앞의 책; Đặng Văn Kim(2003), 앞의 논문에서 논의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340) 조동일, 「춘향전 주제의 새로운 고찰」, 김병국 외(1996), 앞의 책, 14-35면.

341) 오수창은 “조선시대의 지배체제는 정렬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녀에게까지 정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생에게 수절이 의무가 아닐 만큼 보장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오수창(2012), 앞의 논문, 352면.)

한편, 춘향과 이몽룡은 서로에게 사랑이 깊어지면서도 이별해야만 했다. 이몽룡과 춘향의 신분 차이 때문이다. 인연을 맺었을 당시에 이몽룡은 신분 차이에 상관하지 않았으나, 춘향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는 이 신분 차이가 큰 장애가 된다. 만약에 이몽룡이 춘향을 데리고 간다면 화방작첩한 연유로 그의 가문에 폐단이 생길 수도 있고 그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 그런데 춘향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롭게 할 수 없기에 이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봉건사회의 신분제도라고 볼 수 있다.³⁴²⁾

<취교전>의 경우 여성의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짓밟았던 봉건사회와 돈의 부정적인 힘을 고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김중이 요양에 가지 않았으면 취교가 몸을 팔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취교와 김중의 오랜 이별은 그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취교가 숙부의 상을 입은 것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관리들이 공정하게 정치를 행했다면 취교의 아버지가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면 그녀는 몸을 팔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또 마감생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는 이가 아니라면 첩을 구한다는 속임수로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순결한 처녀를 속여 정조를 유린시켜 청루에 팔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초경도 수파가 꺼내준 30량의 은전(銀錢) 때문이 아니라면 같이 도망가자고 취교를 속여 손님을 대접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취교를 청루에 넘겨주고 얻을 수 있을 돈 때문이 아니라면 박파와 박행이 결혼이라는 계락을 쓰고 자기 집으로 피난해온 취교를 청루에 팔리는 신세로 몰아넣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취교와 김중의 사랑에 장애가 되고 취교의 삶이 비참하게 한 것은 바로 쇠퇴해가는 봉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⁴³⁾

342) 정출현은 중세 봉건사회의 신분적 질곡이 춘향과 이도령의 애정 성취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다.(정출현(1993), 앞의 논문, 101면 참조.)

343) 당 타이 마이는 무죄한 왕씨 가문이 망해지고 취교가 타향살이를 하게 된 수법이 바로 봉건정권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또한 <취교전>이 무역경제의 맹아가 싹튼 사회에서

한편, 춘향과 취교의 수절은 모두 전통적인 수절의 관념과 차이가 있다. 그들의 수절은 봉건사회가 정해놓은 덕목과 질서를 의무로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개인의 사랑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 그런데 봉건사회에 속해 있기에 그들이 자신의 지향을 실행하는 데에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춘향이 ‘일부종사’를 하느라고 수절한다고 하는데 회계 나리의 말처럼 그녀에게는 그러한 자격도 없고 그러한 권리도 없다. 여성에게 수절을 요구했던 유교의 사회에서 왜 춘향이 수절하면 안 되는가? 춘향이 비천한 신분을 갖기 때문인가? 비천한 여자에게 수절을 요구하지 않지만 수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바로 춘향의 미모(美貌)이다. 만약에 춘향이 예쁘지 않았다면, 춘향과 변학도는 첨예한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춘향은 아름다웠고, 변학도는 아름다운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두었기에 도입하는 즉시 기생점고(妓生點考)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춘향이 이몽룡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청 들라고 요구했다. 이렇듯, 춘향이 수절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춘향의 미(美)라고 할 수 있다. 봉건사회에서 여자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그 여성에게 고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법률은 뚜렷하지 않아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늘 대상화 되어왔다.³⁴⁴⁾

춘향과 마찬가지로 취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취교의 재색(才色)에 있다. 만약에 취교가 재색이 없었다면 여자를 사서 청류에서 몸을 팔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생계로 하는 마감생이 취교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아래의 인용을 보면 그를 확

돈의 부정한 힘을 고발한다고 한다. 응웬 각 비엔도 취교의 수난이 실장사치의 사건에 있어서 장관의 불공명한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해석한다.(Đặng Thai Mai, Đặc sắc của văn học cổ điển Việt Nam qua nội dung Truyện Kiều(<취교전>의 내용을 통해서 본 베트남고전문학의 특색), Trịnh Bá Đình(2003), 앞의 책, 528-529면; Nguyễn Khắc Viện, Giới thiệu Truyện Kiều(<취교전>의 소개), Trịnh Bá Đình(2003), 앞의 책, 540면 참조.)

344) Trần Nho Thìn(2003), 앞의 책, 125-167면에서 참조.

인할 수 있게 된다.

속으로 좋아하네, ‘깃발이 수중에 있지,
옥 같은 자태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취하는 걸.
국색천향(國色天香)이니,
일소천금(一笑千金)이란 말 그릇되지 않군.
일단 데려다 놓으면 먼저 꽃을 꺾겠다고,
왕손귀객(王孫貴客)들이 틀림없이 서로 다투겠지.
적어도 삼백 냥 이상일 것은 틀림없으니,
일단 자본금을 뽑은 후로는 이익이렸다.’³⁴⁵⁾

취교의 재색은 취교를 사람을 사고파는 자의 피해자로 만들었다. 수파가 초경과 계락을 꾸며 취교에게 손님대접을 하게 한 것은 역시 취교의 재색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박파가 자기의 손자인 박행과 모계를 꾸며 취교가 두번째 청류에 팔려가게 한 행동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취교가 연지분 바르지 않았어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³⁴⁶⁾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얻었다고 속으로 좋아하네.³⁴⁷⁾

위의 인용은 박파가 자기 집으로 피신해 온 취교를 보고 속으로 하는 생각이다. 박파는 취교의 신세를 동정하지 않는데다가 오히려 취교의 불행을 자기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취교의 재색은 역시 취교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45) Nguyễn Du, *최귀목 역*(2004), 앞의 책, 90-91면.

346) 응웬 타익 장(Nguyễn Thạch Giang)이 교주환 <취교전(Truyện Kiều)>에서 “Thấy nàng mặt phấn tươi son(취교가 연지분을 바른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고)”으로 되어 있다.(Nguyễn Thạch Giang khảo đính và chú giải(2008), *Truyện Kiều*(<취교전>), Nxb Văn học, 191면.)

347) Nguyễn Du, *최귀목 역*(2004), 앞의 책, 186면.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춘향전>과 <취교전>은 여성의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짓밟는 봉건사회의 질서에 반항하는 목소리다. <춘향전>의 경우 춘향의 이도령과의 사랑 성취와 일부중사의 지향에 장애가 된 것은 신분 차별이 비인간적인 정도로 극심한 신분제의 불합리성이다. 반면, <취교전>의 경우 김중과의 사랑 성취와 인간다운 삶의 지향에 장애가 된 것은 지배층의 부정부패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는 사회의 폐단이다. 이렇게 보면 <춘향전>과 <취교전>에서 다른 문제가 다른 점이 보인다. 그렇지만 남권중심사회에 살던 여성의 인간으로서 살 권리에 초점을 맞춰 볼 때 상당히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취교전>에서 춘향은 천한 기생 신분 때문에 수난을 겪게 되고 <취교전>에서 취교는 가난 때문에 타향살이를 하게 된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아름다움’이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가부장제사회에서 재색이 뛰어난 여성들이 늘 남성지배층이나 부자남성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 대면하였으며³⁴⁸⁾ 그들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지킬 수 있는 길이 험난하였다.

4) 민중의 사상: 선행선보, 악행악보(善行善報, 惡行惡報)

<춘향전>을 춘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절하는 것이 여성의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복을 받는다는 주제가 드러난다. 이는 봉건사회의 질서 고착을 위한 보수적인 성격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춘향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수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절을 하는 것으로 봉건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절과 내용이 다르다. 또한 <춘향전>은 춘향이 변학도에 항거하여 수절하는 과정을 통해 진

348) 재색이 뛰어난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Trần Nho Thìn(2003), 앞의 책, 125-167면에서 논의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실된 마음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된다. 한결같은 춘향의 마음은 융통성이 없고 포악한 변학도를 이겨낸다. 춘향이 변학도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춘향이 패배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춘향은 변학도와 대결의 과정에서 민중으로부터 공감과 찬양을 얻었고 변학도는 민중으로부터 반감과 비판을 일으켜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과 재결합하고 정렬부인이 될 수 있었던 반면 변학도는 봉고파직을 당한 것으로 끝맺는 것은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일반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³⁴⁹⁾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취교전>도 취교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찐 덩 쓰는 <취교전>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며 마음(心)에 대한 소설이라고 보고 있다.³⁵⁰⁾ <취교전>에서 취교의 형상화를 통해서 완유가 ‘심’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완유가 논의한 ‘심’은 불교의 ‘심’이 아닌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것이다.³⁵¹⁾ 취교는 온갖 세상풍진을 겪었음에도 독자들로 부터 인정과 찬양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취교의 진실된 마음 때문이다. 취교는 오탁한 환경에서도 마음만은 더럽히지 않았다. 결국 효도가 지극한 취교는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 김중과 재결합하고 열녀라는 칭송을 받게 된다. 까오 휘 덩(Cao Huy Đình)은 이러한 결말은 이 세상에서 행복 누리기를 바라는 고통스러운 민중의 간절한 소망이라³⁵²⁾고 한다. 응웬 록(Nguyễn Lộc)도 <취교전>의 결말은 현실의 이치에 맞지 않지만 선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

349) 정하영은 춘향을 기생에서 정렬부인에게까지 높여준 것은 <춘향전>의 작자군의 춘향에 대한 사랑의 표시라고 보고 있다. 그는 “춘향의 신분을 이동시킨 것은 선(善)과 악(惡), 진(眞)과 가(假)에 대한 작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정하영이 지적한 ‘사랑의 표시’나 ‘선(善)과 악(惡), 진(眞)과 가(假)에 대한 입장’은 ‘선행선보, 악행악보(善行善報, 惡行惡報)’라는 민중의 소박한 소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정하영(2003),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73-74면.)

350) Trần Đình Sử(2007), 앞의 책, 111면.

351) Cao Huy Đình, *Triết lý đạo Phật trong Truyện Kiều*(<취교전>에 나타난 불교의 철학), Lê Xuân Lít(2007), 앞의 책, 946-947면 참조.

352) Cao Huy Đình, 위의 논문, Lê Xuân Lít(2007), 위의 책, 944면.

이나 시련을 겪더라도 결국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민중의 꿈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³⁵³⁾ 한편 까오 휘 덩은 취교의 보은보원(報恩報怨)을 통해서 완유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민중의 사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³⁵⁴⁾ 이렇게 보면 <취교전>에서 취교를 통해서 선행선보·악행악보라는 민중의 사상과 ‘심’의 철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에 <춘향전>과 <취교전>이 비슷한 점이 보인다. <춘향전>의 경우 춘향의 이도령과의 애정 성취 과정이나 변학도와 대결 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춘향의 마음이다. <취교전>의 경우 김중과의 애정 성취 과정이나 엄청난 고난을 극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취교의 마음이다. 한결같은 마음은 춘향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도령과 재결합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순결한 마음은 취교가 오탁한 생활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고개를 들고 김중을 대면할 수 있게 한다. <춘향전>과 <취교전>의 결말에 춘향이 이도령과 재결합해서 행복한 부부생활을 누리게 된 반면 취교가 김중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고 우정으로 지내게 된 데에 다른 점이 보이지만 마음씨가 고운 춘향과 취교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도 결국 좋은 결말을 보게 된 것이 비슷하다. 또한 어사출도에서 착한 춘향은 구출 받고 포악한 변학도는 봉고파직을 당한 것과 취교의 보은보원에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보답하고 자기에 해를 준 사람에게 벌을 준 것은 전개 양상이 다르지만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민중의 사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마음을 중요시하는 것과 ‘선행선보·악행악보’는 한국민족과 베트남민족의 사상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353) Nguyễn Lộc(1994), 앞의 책, 356면.

354) Cao Huy Đình, 앞의 논문, Lê Xuân Lit(2007), 앞의 책, 947면 참조.

IV.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방안

II장과 III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수업 관찰 자료, 학습자의 심층면담 자료와 소감문, 비평문 등을 분석하여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1.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목표와 방법

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은 어문교육과정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였고 문학 감상 능력과 문학적 사고력도 갖춘 상태라 할 수 있다. 어문 교과서에 외국문학작품이 수록되지만 이는 베트남 문학 작품에 비해 비교적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의 문학 지식은 대부분 베트남 문학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어문교육과정에는 고전문학작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취교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자는 중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6주에 걸쳐서 <취교전>의 형성배경, 작품의 사회상, 서사구조, 인물, 주제, 표현 기법, 자연경관 및 인물 묘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배운다. 또한 학습자는 어릴 때부터 베트남 전통 예술이나 어머니의 자장가를 통해서 <취교전>을 많이 접한다. 나아가 최근 <취교전>을 각색한 드라마 <교외전(Kiêu ngoại truyện, 翹外傳)>이 온라인을 통해서 상영되어 학습자가 <취교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영상을 통해 더 가까이 느끼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에 있어서 비교 연구의 이론과 스키마 이론을 도입해서 <취교전>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베트남 학습자들의 베트남 문학과 <취교전>에 대한 기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친근감을 가지고 <춘향전>의 수업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춘향전>을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문학 감상 능력과 서사적 사고력, 문화 이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앞서 축취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비교·탐구를 통한 한국어 문학 교육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한국어 문학 교육의 목표를 첫째, 한국 문학 작품의 표현 기법 파악과 장르적 특징 이해, 둘째, 작중인물 이해를 통한 인간 행위의 보편성과 동양 문화의 공통성 파악을 통한 한·중 문화의 이질성과 작자의식의 차이점 인식, 셋째, 작품의 주제 이해 및 한·중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이해를 통한 상호 문화 능력 향상, 넷째, 비교·토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간 및 교사와 학습자의 대화를 통한 작품 이해와 문화 이해 심화와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³⁵⁵⁾ 본 연구는 이를 참조하여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① <춘향전>의 창작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취교전>의 창작배경에 관한 스키마를 활용해서 작품의 사회 배경을 보다 깊이 파악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 문화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물 이해와 주제 이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②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의 비교를 통해 베트남 학습자의 기존 스키마를 동원해서 <춘향전>의 서사구조를 탐구하고 서사적 사건의 연관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작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학습자 자신의 서사적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355) 축취영(2012), 앞의 논문, 156-157면.

- ③ <춘향전>과 <취교전>에 등장한 유사한 인물들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베트남 문학과 <취교전>에 대한 기존 스키마를 동원해서 <춘향전>의 작중인물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간 행위의 보편성과 한·베의 공통성을 파악하고 인물들이 지닌 차이점을 탐색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④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제 비교를 통해 <춘향전>의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고 문화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⑤ 안내자로서의 교사를 중심으로 한 토의를 통해서 학습자의 기존 스키마를 활성화해서 작품의 이해가 용이해지게 하고 비교·토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능동성을 최대화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하고 창의적 의미를 창출하도록 한다.

2.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설계

앞서 살펴보았듯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은 학습자에게 보다 흥미롭고 유의미할 뿐 아니라 심도 있는 탐구와 이해의 기회도 제공한다. 나아가 비교를 위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칠 경우 자신의 생활과 가치관에 대해 표현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3일간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H대학교 한국어 전공 3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춘향전> 예비 수업을 실시하였다. 예비 수업에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춘향전>의 예비 실험 수업	
교육 대상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H 대학교 한국어 전공 3 학년학생 10명 (전부 여학생)

교육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성욱 풀어 옮김·백범영 그림, 『춘향전』에 수록된 <열녀 춘향수절가> - <춘향전>의 베트남어 번역본³⁵⁶⁾
교수·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향전>의 형성과정 및 사회적 배경 - <춘향전>의 서사구조 - <춘향전>의 주요 인물들 - <춘향전>의 주제 - 한국의 기생문화와 열 사상
교수· 학습 방법	<p>첫 번째 수업: 개방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춘향전>의 주제와 주인공 등에 대해 자유로이 탐색하도록 한다.</p> <p>두 번째 수업: 교사가 안내적인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취교전>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춘향전>의 주인공(춘향, 이몽룡), 주제, 관련 문화 사상(기생 문화, 열 사상 등)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한다.</p> <p>세 번째 수업: 교사가 학습자들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자기의 주장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밝히고 시범을 보이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토의하도록 한다.</p>
수업 시간	540분

표8: <춘향전>의 예비 수업 개요

이 예비 수업에서 다음 세 가지의 잠정적 결론을 얻었다.³⁵⁷⁾

- ◆ 비슷한 베트남 문학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고전소설을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베트남 문학에 관한 배경지식을 동원해서 문학작품에 더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학습자들이 감상문을 쓰고 발표하는 대신에 다른 학습자 또는 교사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문학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다.
- ◆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대신에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수·학

356) Bae Yang Soo 역(1994), *Truyện Xuân Hương*, Nxb Khoa học Xã hội.

357) 예비 수업에서 얻은 학습자의 작문과제 분석을 통한 수업 효과 검증 내용은 켄 티 빅 프영(2013), 앞의 논문, 123-172면 참조.

습 내용을 구성하고 학습자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결론에 정확성과 보편성을 더하기 위해 2014년 1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하노이에 위치한 H대학교의 한국어 전공 3학년 학생 86명을 대상으로 <춘향전>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어 텍스트의 중요성과 필요성, 번역본의 필요성, 안내자로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 비슷한 베트남 작품과 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참여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표9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육 대상	그룹 1 (24명)	그룹 2 (31명)	그룹 3 (31명)
교육 제재	-<춘향전>의 줄거리 -<춘향전>의 베트남어 번역본 ³⁵⁸⁾	-<춘향전>의 줄거리 -<춘향전>의 베트남어 번역본 -<완판 84장본> 한국어 텍스트 ³⁵⁹⁾ 의 중요한 대목들	-<춘향전>의 줄거리 -<춘향전>의 베트남어 번역본 -<완판 84장본> 한국어 텍스트 전문 -<취교전>(Nguyễn Thạch Giang, Truyện Kiều, Nxb Văn học, 2008)
교수 학습 내용	<춘향전>의 창작배경, 서사구조, 인물, 주제, 문화요소 (기생문화, 정절·수절에 대한 의식 및 열 사상 등)		
교수 학습 방법	(1) 교사가 <춘향전>의 창작배경, 서사구조, 인물,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들에 대하여 자유로이 토	(1) 교사가 <춘향전>의 창작배경, 서사구조, 인물,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들에 대하여 자유로이 토	(1') 교사가 <취교전>의 창작배경, 서사구조, 인물, 주제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작품에 관한 스키마를 환기시킨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p>의하도록 한다.</p> <p>(2) 교사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하여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학습자들에게 같은 질문에 답하게 한다. 학습자가 잘 답변하지 못한 경우 안내 질문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3) 토의 활동이 끝난 후에 안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작문과제를 쓰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작문과제에 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궁금해 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설명해 준다.</p>	<p><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해 <춘향전>의 서사구조, 인물, 주제, 문화요소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한다.</p> <p>(2) 교사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하여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학습자들로 하여금 같은 질문에 답하게 한다. 학습자들이 잘 답변하지 못한 경우 안내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3') 토의 활동이 끝난 후에 안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작문과제를 쓰도록 한다.</p>
수업 시간	300분 (주당 3교시씩 2주)	450분 (주당 3교시씩 3주)	600분 (주당 3교시씩 4주)

표9: 2014년에 실시한 <춘향전> 실험 수업 개요

358) Bae Yang Soo 역(1994), 앞의 책.

359) 송성옥 풀어읽김(2006), 『춘향전』, 민음사.

표9에 제시된 그룹 1, 2, 3은 교육 제재와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각각 차이점이 있다. 베트남어 번역본의 필요성과 한국어 텍스트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그룹 1에는 베트남어 번역본만을, 그룹 2에는 베트남어 번역본과 한국어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을, 그룹 3에는 베트남어 번역본과 한국어 텍스트 전문을 제공했다. 안내자로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그룹 1에서는 안내 질문을 제시하지 않고 교사가 학습자의 토의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비슷한 베트남 작품과 <춘향전>을 비교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룹 2에서는 <춘향전> 교수·학습만 실시했고 그룹 3에서는 <취교전>과의 비교 활동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상과 같이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관찰한 결과, 그룹 1의 학습자들은 번역본을 읽고 <춘향전> 내용을 대강 이해할 수 있었지만 토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토의했다. 반면 그룹 2의 학습자들은 번역본뿐만 아니라 한국어 텍스트의 중요한 부분들을 읽었기 때문에 작품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토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교사가 던져준 질문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밝혔다. 학습자들의 답변은 대부분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며, 사회현상에 대해서 보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교사가 <취교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춘향에 대해서 토의할 때 취교와 관련지어 논의한 학생도 있었다. 그룹 3의 경우 교사가 <취교전>의 창작배경, 서사구조, 인물, 주제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이를 <춘향전> 이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자들은 <춘향전>과 <취교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해명하는 데에 자신들의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다.

학습자 과제물을 분석한 결과, 그룹 1의 학습자들은 <춘향전>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반면 그룹 2의 학습자들은 대부분 인물과 주제를 자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였다. 그룹 3의 학습자들은 <춘향

전>의 인물과 주제를 자세히 분석하고 자신들의 입장과 경험을 <취교전>과 연관지어 논의하였다.

수업 실시 후에는 <춘향전> 교육에 있어서 베트남어 번역본 제공이 필요한지, 한국어 텍스트 전문 읽기가 필요한지, 한국어 텍스트에서 중요한 대목을 발췌하여 읽는 것이 필요한지, 베트남 문학 작품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지, <취교전>과 비교하며 <춘향전>을 교육하는 것이 적절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³⁶⁰⁾ 대부분의 응답자는 배울 작품의 번역본을 읽는 것이 그 작품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춘향전>의 한국어 텍스트 전문을 읽는 것이 한국어 독해 능력 향상, 한국어 어휘력 신장, 그리고 한국어 표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시간을 감안하여 작품 전문 대신에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것이 더 좋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춘향전>을 배울 때 <취교전>과 비교하는 것이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춘향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토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지만, 처음으로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할 때에는 교사가 제공해주는 작품 관련 정보와 안내 질문들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 당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작품을 이해·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들 덕분에 작품에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는 방향이 생겼다는 응답도 있었다.

수업과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360) 이 사후설문조사는 2014년 3월 28일에 실험 수업을 들은 세 그룹의 학습자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어 번역본 제공의 필요성, 한국어 텍스트 전문 읽기의 필요성, 한국어 텍스트의 중요한 대목 읽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그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문학 작품과의 비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룹 1, 2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적절성, 흥미도, 효율성에 대해서 그룹 3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세 그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후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후설문조사의 자세한 결과 분석은 Trần Thị Bích Phương (2016), 앞의 논문, 44-56면 참조.

다.

- ◆ 장편소설과 같이 분량이 많은 작품의 경우 작품 내용 이해를 위해 베트남어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작품 전문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 ◆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 ◆ 비슷한 베트남 문학 작품과의 비교가 배울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미도 주는 수업 방법이 될 수 있다.
- ◆ 학습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토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되, 교사의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과 II장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1)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자료의 제공

(1) 교육 제재 선정·처리

한국고전소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교수·학습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은 텍스트라도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으면 좋은 교수·학습 제재라고 할 수 없다. 텍스트를 선정할 때에는 교사의 주관적 판단을 피하고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잘 고려해서 알맞은 텍스트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교수·학습 제재용 텍스트를 선정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텍스트의 가독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분량이 많은 작품의 경우 번역본이 있으면 보조 교

재로 활용하고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교수·학습하는 것이 좋다. 번역본이 없는 경우 작품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베트남어로 된 자세한 요약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춘향전>의 경우 베트남어 번역본이 있으므로 학습자가 작품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보조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요 교재의 경우 송성욱이 풀어 읊긴 <열녀춘향수절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이 자료를 80% 이상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춘향전>은 분량이 많은 편이어서 작품 전문을 읽히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작중인물과 주제의 이해에 필요한 중요 대목을 발췌해서 교육 제재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작품 관련 정보 제공

문학 작품을 접할 때에는 그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역사적 배경지식을 알아야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그러한 배경지식이 많이 부족하기에 교사가 작품에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다. <춘향전>의 경우 조선 후기의 사회 배경에 대한 정보, 가부장제, 암행어사제도, 신분제도, 기생문화 등에 관한 일화나 설화가 제공될 수 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학습자에게 부족한 배경지식을 보충해줄 수 있다.

2) 스키마의 활성화를 통한 작품의 이해

한국과 베트남은 한문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나라로서 역사·사회·문화·사상의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역사·사회적인 현상³⁶¹⁾이라고 여겨지는 문학은 장르, 표현, 모티프, 인물 유형,

주제, 사상 등의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이 보인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교육과정이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해 왔다. 학습자에 따라 넓이와 깊이가 다르지만 이러한 지식은 그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렇기에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할 때 학습자들은 비슷한 내용, 주제, 인물 유형을 보이는 베트남 문학 작품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작품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냥 비슷한 작품을 연상하는 데에만 그칠 수도 있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지닌 스키마(배경 지식)를 활성화시켜 한국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이를 제대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 대상인 한국 문학 작품의 창작 배경, 장르, 표현 방식, 내용, 작중인물, 주제, 사상 등에 관련된 안내 질문들을 통해서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다.

- ① <춘향전>처럼 베트남 고전소설 중에는 작중인물의 이름으로 작품의 제목을 짓는 것이 꽤 많지요. 이 제목들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 질문은 배경지식에 대한 것이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고전소설 작품 제목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상기시켜 <춘향전>의 제목 이해에 적용하도록 한다.
- ② <취교전>의 원제목은 <단장신성(斷腸新聲)>입니다. <열녀춘향수절가>는 <춘향전>의 이본 중의 하나입니다. <열녀춘향수절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장신성>의 창작 의도에 대한 지식을 상기시켜서 <춘향전>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적용하도록 한다.
- ③ <취교전>은 ‘만남-이별-수난(타향살이)-재회’의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춘향전>은 어떨까요?

361) 우한용(2009), 「문학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으로서 문학능력의 개념, 교육 방향」, 『문학교육학』 28, 한국문학교육학회, 15면.

이 질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춘향전>의 서사구조를 이해할 때 <취교전>의 서사구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게 한다.

④ 취교는 가난 때문에 몸을 팔아서 온갖 풍진을 겪었는데 춘향은 어떨까요?

이 질문은 취교의 수난 원인을 알려줌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춘향의 수난 원인을 알아보게 한다.

⑤ <취교전>은 취교와 김중의 사랑 이야기이며 근대이행기 봉건사회의 여러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춘향전>은 어떨까요?

이 질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배웠던 <취교전>에 반영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상기시켜 <춘향전>에 반영된 사회적 문제들을 알아보게 한다.

⑥ 춘향이 이몽룡을 만나러 광한루에 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은 <취교전>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킬까요?

취교가 김중을 만나러 한밤중에 종종걸음으로 곧장 뜰로 나가는 모습이 김중과 열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녀의 마음을 뛰어나게 묘사한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춘향의 모습에 주목하여 춘향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게 한다.

⑦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해서 매를 맞는 장면은 <취교전>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킬까요? 이 두 장면은 같은 점이 무엇일까요?

취교는 청루에 돌아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관아에서 가혹한 매를 맞아야 했다. 취교가 매를 맞은 이유가 춘향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식 때문에 기생 노릇을 거절했다는 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춘향이 매를 맞은 것의 본질(이면의 이유)을 파악하게 한다.

⑧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춘향을 구출하는 장면은 <취교전>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킬까요? 이 두 장면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옥중에 있는 춘향을 구출해서 정실부인으로 맞아들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룩한다는 삽화가 결말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각연 스님이 전당강으로 투신한 취교를 구출

해서 함께 살게 되는 삽화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주인공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연과 이몽룡의 역할은 다르며, 암행어사로서 이몽룡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서해이다. 서해는 청루로부터 취교를 구출해서 부인으로 맞아들이지만 호종헌의 속임수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 질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몽룡과 서해의 역할 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게 하고, 춘향과의 관계에 있어 암행어사로서 이몽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게 한다.

3) 비교·토의를 통한 문학능력 신장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학능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한용은 문학능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학능력은 문학을 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러면 다시 문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학을 한다는 것은, 문학하기는 문학현상과 다면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 일체를 포괄한다. 따라서 문학을 창작하는 주체는 문학 생산의 주체이고, 문학을 수용하는 주체는 수용 주체이다. 문학능력은 이러한 두 주체의 능력으로 구체화된다.³⁶²⁾

우한용에 따르면 문학능력의 범주 안에 문학적 감수력(literary sensibility), 문학적 사고력(literary thinking ability), 문학적 판단력(ability of literary judgement), 문학적 지향의지(literary willingness, literary perspectives)와 같은 영역을 상정할 수 있다. 문학적 감수력은 대상을 문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대상의 미적 자질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감수성과 연관짓는 능력이다. 슬픔과 기쁨과 증오와 혐오감을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감

362) 우한용(2009), 앞의 논문, 13-14면.

성과 연계짓는 능력을 뜻한다. 문학적 사고력은 형상화 능력과 서사 능력으로 대표된다. 형상화 능력은 상상력의 다른 이름이다. 서사 능력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 전반에 연관된다. 문학적 판단력은 문학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능력이다. 이는 달리 문학적 비평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문학적 지향의지는 간단히 ‘역사전망’이라 할 수 있다.³⁶³⁾ 정도가 다르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은 학습자가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에 목표를 두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두 작품의 서사구조를 비교·토의하고 서사단락을 삭제·첨가하면서 재구성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서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두 작품의 작중인물을 비교·토의를 통해서 그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감성과 연계지어 해석하고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문학적 감수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두 작품의 주요 인물의 인생을 논의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비교·토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자신의 문학적 비평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학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비교·토의 문제 설정과 학습자의 토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습자의 토의 태도가 성실한지가 비교·토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토의 문제가 학습자의 관심사에 부합하고 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들의 스키마(배경지식)를 잘 활성화할 수 있어야 비교·토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교·토의 문제 설정은 비교·토의 수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토의 수업에는 비교·토의 문제를 잘 설정해야만 한다.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경우 다음과 같은 비교·토의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363) 우한용(2009), 앞의 논문, 14-15면.

- ① 다음은 <춘향전>의 서사단락입니다. 삭제하거나 첨가하고 싶은 서사단락이 있는지 친구들과 토의해서 결정하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취교전>의 서사단락을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춘향전>	<취교전>
만남	㉠ 춘향이 태어나다. ① 이도령이 광한루로 나들이를 가다. ② 이도령이 춘향을 보고 반하다. ③ 이도령이 춘향을 초래하다. ④ 월매가 간밤의 꿈을 들려주다. ⑤ 이도령과 춘향이 처음으로 만나다. ⑥ 이도령이 서책을 읽다. ⑦ 이도령이 춘향집으로 가다. ⑧ 이도령과 춘향이 가약을 맺다. ⑨ 이도령과 춘향이 첫날밤을 보내다.	① 취교의 가세와 재색 ② 취교가 동생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가다가 명기 담선의 무덤을 지나가다. ③ 취교와 김중이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반하다. ④ 취교가 꿈속에서 담선을 만나서 자신의 전정을 알게 되다. ⑤ 김중이 취교의 옆집으로 이사오다. ⑥ 김중이 취교를 사모하다. ⑦ 취교와 김중이 언약을 맺으며 신물을 교환하다. ⑧ 취교가 김중의 집으로 가다. ⑨ 취교와 김중이 백년동심(百年同心)을 맹세하다. ⑩ 취교가 호금을 연주하다.
이별	⑩ 이몽룡이 아버지의 승진 때문에 상경하게 되다. ⑪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하다. ⑫ 춘향이 이도령을 그리워하다.	⑪ 김중이 숙부상 때문에 요양정으로 떠나게 되다. ⑫ 취교와 김중이 이별하다.
수난	⑬ 신관이 부임하다. ⑭ 신관이 기생점고하다. ⑮ 신관이 춘향을 부르다. ⑯ 춘향이 이몽룡을 그리워하며 자탄하다.	⑬ 취교가 가변을 당하다. ⑭ 취교가 아버지와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팔다. ⑮ 취교가 김중을 생각하다. ⑯ 취교가 취운에게 김중과의 혼

	<p>⑰ 신관이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다.</p> <p>⑱ 춘향이 수청요구를 거절하다.</p> <p>⑲ 춘향이 형벌을 받다.</p> <p>⑳ 춘향이 구완을 받다.</p> <p>㉑ 춘향이 옥에 갇히다.</p> <p>㉒ 춘향이 옥중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다.</p> <p>㉓ 춘향이 황룡묘를 봉유하다</p> <p>㉔ 춘향이 꿈 해몽을 하다.</p>	<p>약을 부탁하다.</p> <p>⑰ 취교가 마감생의 속임수에 걸려서 청루에 팔려가다.</p> <p>⑱ 취교가 자살을 시도하다.</p> <p>⑲ 취교가 꿈속에서 담선을 만나다.</p> <p>㉑ 취교가 응벽루에서 김중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다.</p> <p>㉒ 취교가 초경의 속임수에 넘어가다.</p> <p>㉓ 취교가 손님대접을 해야 하다.</p> <p>㉔ 취교가 속생의 첩이 되다.</p> <p>㉕ 취교가 속옹의 신고로 인해 관아에 끌려가다.</p> <p>㉖ 취교가 형벌을 받다.</p> <p>㉗ 취교가 환파네 집의 노비가 되다.</p> <p>㉘ 취교가 관가 아주머니의 돌봄을 받다.</p> <p>㉙ 취교가 환저의 꾀박을 받다.</p> <p>㉚ 취교가 관음각에서 불경을 베끼다.</p> <p>㉛ 취교가 환저네 집에서 도망치다.</p> <p>㉜ 취교가 초은암에 의탁하다.</p> <p>㉝ 취교가 박파의 집으로 피신하다.</p> <p>㉞ 취교가 박행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청루에 팔려가다.</p> <p>㉟ 취교가 서해의 처가 되다.</p> <p>㊱ 취교가 보은보원하다.</p> <p>㊲ 취교가 호종현의 속임수에 넘어가다.</p>
--	---	--

		<p>㉞ 서해가 호종현의 배신으로 인해 죽임당하다.</p> <p>㉟ 취교가 전당강으로 몸을 던져 죽다.</p> <p>㊱ 각연이 취교를 구조하다.</p> <p>㊲ 취교가 꿈속에서 담선을 만나다.</p> <p>㊳ 취교가 불문에 의탁하다.</p>
재회	<p>㉔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다.</p> <p>㉕ 어사가 남원으로 오다.</p> <p>㉖ 어사가 춘향의 편지를 받다.</p> <p>㉗ 어사가 춘향집을 찾다.</p> <p>㉘ 어사와 춘향이 옥중에서 재회하다.</p> <p>㉙ 춘향이 어머니에게 이몽룡을 부탁하다.</p> <p>㉚ 춘향이 이몽룡에게 자기의 후사를 부탁하다.</p> <p>㉛ 어사가 신관의 생일연에 참석하다.</p> <p>㉜ 어사가 출도하다.</p> <p>㉝ 어사가 춘향의 정절을 시험하다.</p> <p>㉞ 어사와 춘향이 동헌에서 상봉하다.</p> <p>㉟ 춘향이 정렬부인에 봉해지고 이몽룡의 정실부인이 되다.</p>	<p>㉔ 김중이 취원에 돌아가다.</p> <p>㉕ 김중이 취운과 혼인하다.</p> <p>㉖ 김중이 과거급제해서 임지땅으로 도입하다.</p> <p>㉗ 김중이 취교의 소식을 알아내다.</p> <p>㉘ 김중이 전당강가에서 취교에게 제사를 지내다.</p> <p>㉙ 취교와 김중이 초암에서 상봉하다.</p> <p>㉚ 김중이 취교의 정절을 칭찬하다.</p> <p>㉛ 취교가 김중과 ㄹ 육체적 관계를 거절하다.</p>

서보영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춘향전>에 삭제하면 안 되는 핵심 삽화가 있고 삭제하거나 다른 삽화로 대체해도 괜찮은 자유삽화도 있다.³⁶⁴⁾ 그래서 학습자가 작품을 잘 이해해야 삽화를 제대로 삭제하

거나 첨가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춘향전>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서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단위로 보면 <춘향전>과 <취교전>은 비슷한 서사구조가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이 많다. 이 다른 점은 출신환경과 수난과정에 기인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단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통해서 <춘향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② <취교전>의 취교와 마찬가지로 <춘향전>의 춘향은 사랑에 충실한 여자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춘향과 취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보이는데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춘향이 광한루에서 처음 이몽룡을 만나는 순간부터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며 이몽룡이 집에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후 망설임 없이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한다. 취교도 처음 김중을 만나는 순간부터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 ‘백년인연’까지 생각하며, 김중과 언약을 맺은 후 한밤 중에도 망설임 없이 종중걸음으로 곧장 뜰을 건너서 김중에게 찾아가간다. 사랑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춘향과 취교는 비슷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을 간직하는 방식에는 차이점이 보인다. 학습자들은 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춘향전>과 <취교전>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과 생활경험을 투영해야 한다.


- ③ 춘향과 취교는 정절을 중요시합니다. 두 사람의 정절을 지킴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춘향은 끝까지 이몽룡에 대한 수절을 하였는데 취교는 청루에서 손님대접을 해야 했으며, 속생의 첩이 되기도 하고 서해의 부인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김중을 다시 만날 때 남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김중과 육체적 관계를 거절한다. 겉으로 보면 춘향이 지향하는 정절과 취교가 지향하는 정절이 다르게 보인다. 그렇지만 두 여자의 정절을 지키는 목적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


364) 서보영(2017), 앞의 논문, 48-56면 참조.

질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취교의 정절과 비교함으로써 춘향의 수절의 본질을 깊이 알아보게 한다.

- ④ 이몽룡과 김중은 여주인공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취교전>에서 김중의 상사하는 마음을 묘하게 묘사한다. 취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해서 처음 만난 곳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취교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 집의 옆집으로 이사 오기도 한다. 취교에 대한 그리움에 몸이 야위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정신이 나간 듯하다. 이몽룡도 춘향을 보자마자 정신이 황홀해지고 급히 방자를 시켜 불러오라고 한다. 거절을 당했는데도 계속 방자를 시켜 오라고 청한다. 춘향을 만난 후 설레는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춘향 생각만 하고 그녀와 만나는 것만 기다린다. 첫사랑에 설레는 마음이 김중과 같지만 그 사랑을 성취하는 것에 다른 점이 보인다. 이 같은 점과 차이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김중과 이몽룡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배경을 알아야 한다.

- ⑤ 이몽룡은 전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해서 춘향과 이별하려고 했습니다. 속생은 혈통을 이어줄 아들을 두지 못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취교와 사랑을 끊고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몽룡과 속생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논의해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몽룡과 속생은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여주인공과 이별하자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추적하면 그 원인은 유교적 사회질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유교적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학습자가 인물의 행동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질문은 학습자의 비평 능력을 요구한다. 한편, 이 질문을 해결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⑥ 이몽룡은 옥중에 있는 춘향을 구출해서 정실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정렬부인을 부여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 주었습니다. 서해는 청루에 있는 취교를 구출해서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마음대로 보은·보원(報恩報怨)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춘향과 취교에게는 그들이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몽룡과 서해의 영웅으로서의 성격에 다른 점이 보입니다. 그런 점을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서해가 청루에서 취교를 구출해서 보은·보원(報恩報怨)을 통해서 공리(公理)를 실현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서해의 공리는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엄명한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이몽룡이 엄명한 법을 실현함으로써 춘향을 구출한다. 이 점에서 이몽룡과 서해가 차이점을 보인다. 이 차이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몽룡과 서해의 출신과 성취동기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 ⑦ 춘향과 이몽룡이 신분 차이 때문에 이별해야 했는데 결국 다시 만나서 부부로 결합했습니다. 취교와 김중도 숙부상으로 인해 헤어졌고 취교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구할 돈 때문에 몸을 팔아서 고통스러운 타향살이를 했는데 결국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취교와 김중의 사랑 이야기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논의해 보십시오.

☞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취교와 김중의 사랑은 시련을 겪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춘향은 변학도와 대결을 통해서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다. 취교는 마감생의 첩이 되자 김중과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지만, 파란만장한 생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게 된다. 그 때문에 취교와 김중의 사랑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처럼 행복한 혼인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도록 하는 질문이기에 학습자의 분석능력과 평가능력을 요구한다.

- ⑧ 춘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결국 정렬부인을 부여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교는 가난(家難)을 계기로 15년 동안 풍진의 생활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들과 옛애인을 만나서 마음속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춘향과 취교의

인생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춘향전>과 <취교전>에서 춘향과 취교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 춘향과 취교의 인생은 여성으로서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수난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춘향의 수난은 변학도의 수청 요구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춘향의 수난이 끝난다. 그렇지만 취교의 수난은 가난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이 고난이 해결되면 다른 고난이 뒤따르기에 계속해서 확장된다. 춘향과 취교가 겪는 수난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

4) 동영상 자료 시청 및 교사 중심의 종합적 토의

여기서 말하는 동영상 자료는 문학 작품에 관련된 동영상 자료일 수도 있고, 그 문학작품을 각색한 영화일 수도 있으며,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의 내용을 발췌하여 자신들의 이해한 대로 만든 동영상일 수도 있다. 이 중 학습자들이 만든 동영상은 문학작품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춘향전>과 관련된 동영상에는 <춘향가> 판소리나 <춘향전> 영화 등이 있는데, 베트남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면 <춘향전> 영화를 시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영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소설과 다르게 전개된 내용에 대해서 토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습자들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역할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하여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동료 학습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받은 동영상을 선발해서 이에 대해서 토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5) 작문과제 수행을 통한 학습자의 내면화하기

여기서 말하는 작문과제는 배웠던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그들에게 친숙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춘향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작문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① 다음 서사 단락을 어떻게 개작할까요? 왜 그렇게 전개하나요?

㉠ 춘향이 퇴기 월매의 딸이라고 듣자 이몽룡은 방자를 시켜 그녀를 불러오라고 한다. 그런데 춘향은 이몽룡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집에 돌아간다. 방자가 춘향 집으로 가서 이몽룡의 전갈을 다시 전한다. 춘향은 이몽룡과의 인연이 있다고 짐작하고 춘향 모도 갔다 오라고 해서 광한루에 가서 이몽룡을 만난다.

㉡ 이몽룡은 어머니에게 춘향의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 꾸중을 듣자 춘향에게 가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고 한다.

㉢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한 춘향은 하옥을 당했는데 이몽룡으로 의해 구출되고 정렬부인이 된다.

☞ 이 질문은 학습자의 서사능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기생문화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서사능력을 기반으로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기생문화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을 잘 소화시켜야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대하여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취교와 연관지어 논의해 보십시오.)

☞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학습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춘향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논리에 맞게끔 그 정보들을 재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배웠던 지식을 내면화시킬 수 있다.

③ 춘향이 이몽룡에게는 몸을 허락하였는데 변학도의 수청 요구는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교와 연관지어 논의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학습자들이 춘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몽룡과 변학도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다.

④ 춘향이 되기 월매의 딸이라고 듣자 방자를 시켜 춘향을 불러오라는 이몽룡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은 학습자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으로 작품에 제시된 이몽룡에 대한 정보로도 답변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주관적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⑤ 화방작점으로 인해 앞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춘향과 영영 이별하려는 이몽룡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생과 연관지어 논의해 보십시오.)

이몽룡의 이러한 행동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몽룡의 입장에 서서 봐야 한다. 이 질문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기생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을 잘 소화시켜야 학습자의 답변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⑥ 광한루에서 처음으로 춘향을 봤던 이몽룡과 춘향과의 이별 후 이몽룡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서해와 연관지어 논의해 보십시오.)

이몽룡의 달라짐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학습자가 춘향과 이몽룡의 관계,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사랑을 잘 이해해야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

⑦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에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습자가 자신의 생활관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⑧ 춘향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

- 일까요?
- 이 질문은 학습자의 <춘향전>에 대한 내면화를 묻는 질문으로 학습자의 생활경험과 생활관에 따라 답변이 다양할 수 있다.
- ⑨ 이몽룡은 춘향을 조강지처같이 여긴다고 굳은 약속을 해놓았는데 상경할 때 춘향을 남겨두고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변학도는 춘향이 이몽룡을 위해 수절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 이 질문에 학습자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기생문화를 잘 알아야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
- ⑩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수절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지만 춘향의 항거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에 따라 답변이 각각 다를 수 있다.

3.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실제

1) 실제 수업

2절에서 설계한 <춘향전>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절차의 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노이에 위치해 있는 T대학교와 H대학교에서 실제 수업을 실행하였다.

T대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 수업은 다음과 같다.

시기	교수·학습 내용 및 절차
수업 전	-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 설명 - 교수·학습 자료 배부: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 과정

	<p>및 특징, <춘향전>의 형성 과정 및 한국 문학사상의 위상에 관한 자료, <열녀춘향수절가>의 복사본(송성욱 풀어옴김, 민음사, 2006), Truyện Xuân Hương(춘향전)의 복사본(Bae Yang Soo, NXB Khoa học Xã hội, 1994), 한국과 베트남의 기생과 열녀에 관한 설화들과 소설들(줄거리 또는 베트남어 번역본)</p>
<p>1차 수업 (소요 시간: 3시간 / 18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한국 고전 문학,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 <춘향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 흥미도를 파악함. -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 과정 및 특징, <춘향전>의 형성 과정 및 한국 문학사상의 위상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웬놈(Truyện Nôm)의 형성 과정 및 특징, <취교전(Truyện Kiêu)>의 형성 과정 및 베트남 문학사상의 위상을 상기시킴. - <춘향전>의 줄거리를 확인, <열녀춘향수절가>의 중요한 대목을 강독함. - 다음 수업을 위한 과제 제시: <춘향전>과 <취교전>에 나타난 사회배경과 서사구조를 조사하고 비교함.
<p>2차 수업 (소요 시간: 3시간 / 18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녀춘향수절가>의 중요한 대목을 계속 강독함. - <취교전>에 나타난 사회배경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에 나타난 사회배경 이해: 교사가 질의응답을 통해 <취교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5명씩 한 조를 구성해서 20분 동안 <춘향전>과 <취교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을 비교·토의하고 나서 5분 발표하게 한 후 교사가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춘향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 - <취교전>의 서사구조와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서사구조 이해: 교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취교전>의 서사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5명씩 한 조를 구성해서 20분 동안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를 비교·토의해서 5분 내 발표하게 한 후 교사가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춘향전>의 서사구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 - 다음 수업을 위한 과제 제시: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요 인물의 출신환경, 행동, 성격에 대해서 조사하고 비교함.

3차 수업 (소요 시간: 3시간 / 1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교전>의 주요 인물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주요 인물 이해: 교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취교전>의 주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상기시키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5명씩 한 조를 구성해서 20분 동안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요 인물을 비교·토의하고 5분 내 발표하게 한 후 교사가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춘향전>의 주요인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 - 다음 수업을 위한 과제 제시: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제에 있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조사함.
4차 수업 (소요 시간: 3시간 /180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교전>의 주제와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주제 이해: 교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취교전>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5명씩 한 조를 구성해서 20분 동안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제를 비교·토의하고 5분 내 발표하게 한 후 교사가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춘향전>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
수업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향전>에 대한 교수·학습한 내용은 어떻게 내면화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문 과제를 제시함. -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감문 쓰기, 학습자 심층면담 실시

표10: T대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 수업

표10과 같이 수업 전에는 학습자에게 교육자료 및 교육의 내용, 방법, 절차를 설명한 후 교육자료를 미리 살펴보고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열녀춘향수절가>를 읽는 데 시간상·수준상의 어려움을 겪었기에 <춘향전>의 베트남어 번역본만 읽어 왔다.

이를 감안하여 첫 번째 수업에서는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 <춘향전>의 줄거리를 확인하고 중요한 대목을 강독했다. 그리고 낯선 단어와 문법을 설명하고 학습자들과 함께 읽은 부분을 베트남어로 번역했다. 학습자들은 이 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두 번째 수업에서 <열녀춘향수절가>의 중요한 대목을 계속 강독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했다. 춘향이 기생노릇을 하지 않는데 변학도가 왜 춘향을 기생으로 취급하는 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학습자에게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생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다음에 <춘향전>의 창작배경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했다. 처음에 학습자가 <춘향전>의 창작배경을 잘 파악하지 못했지만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취교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에 대해서 환기시킨 다음에 비슷한 질문을 던져서 <춘향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을 파악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춘향전>의 서사구조를 알아보고 서사구조의 의미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집단을 나누어서 지금까지 쌓아둔 문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춘향전>의 서사단락을 재구성하도록 했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조력과 문학적 경험을 동원해서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내고 발표했다. 그 다음에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해 <춘향전>의 서사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춘향전>에 등장한 여주인공 춘향과 남주인공 이몽룡에 대해서 토의했는데 진행 방식은 두 번째 수업과 같았다. 교사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신에 인물들과 관련된 <춘향전> 텍스트 부분을 보여주면서 <취교전>과 연관지어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에 대해 토의하도록 했다.

네 번째 수업은 <춘향전>의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되 지난번 수업에서 배웠던 춘향의 인생과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취교전>의 주제와 연관지어 <춘향전>의 주제를 파악하도록 했다. 네 번째 수업이 끝난 후 학습자가 <춘향전>을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내면화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문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층면담 1을 실시했다.

T대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 수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H대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춘향전> 수업을 다시 설계해서 실시하였다. 이 수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시기	교수·학습 내용 및 수업 절차
수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 설명 - 교수·학습 자료 배부: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형성 과정 및 특징, <춘향전>의 형성 과정 및 한국 문학사상의 위상에 관한 자료, <열녀춘향수절가>의 중요한 대목을 중심으로 한 축약본(365), <춘향전>의 베트남어 번역본의 복사본(Bae Yang Soo, Truyện Xuân Hương, Nxb Khoa học Xã hội, 1994), 한국과 베트남의 기생과 열녀에 관한 설화들과 소설들(줄거리 또는 베트남어 번역본)
1차 수업 (소요 시간: 3시간/ 1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한국고전문학,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 <춘향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 흥미도를 파악함. - 판소리와 판소리계소설의 형성과정 및 특징, <춘향전>의 형성과정 및 한국 문학사상의 위상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웬놈(Truyện Nôm)의 형성과정 및 특징, <취교전(Truyện Kiều)>의 형성과정 및 베트남 문학사상의 위상을 상기시킴. - 관련 그림과 사진들(366)을 편집하여 보여주면서 <춘향전> 내용을 서술하게 함. - 다음 수업을 위한 과제 제시: <춘향전>과 <취교전>에 나타난 사회배경과 서사구조를 조사하고 비교함.
2차 수업 (소요 시간: 3시간/ 1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교전>에 나타난 사회배경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에 나타난 사회배경 이해: 교사가 질문응답을 통해 <취교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5명씩 한 조를 구성해서 20분 동안 <춘향전>과 <취교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을 비교·토의해서 5분 발표하게 한 후 교사가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춘향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 - <취교전>의 서사구조와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서사구

	<p>조 이해: 교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취교전>의 서사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5명씩 한 조를 구성해서 20분 동안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 구조를 비교·토의해서 5분 내 발표하게 한 후 교사가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춘향전>의 서사구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p> <p>- 다음 수업을 위한 과제 제시: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요 인물의 출신환경, 행동, 성격의 측면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조사함;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제가 무엇인지, 두 작품의 주제 측면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조사함.</p>
3차 수업 (소요 시간: 3시간/ 180분)	<p>- <취교전>의 주요인물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주요인물 이해: 교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취교전>의 주요인물에 대한 정보를 상기시키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5명씩 한 조를 구성해서 20분 동안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요인물을 비교·토의하고 5분 내 발표하게 한 후 교사가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춘향전>의 주요인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p> <p>- <취교전>의 주제와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의 주제 이해: 교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취교전>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5명씩 한 조를 구성해서 20분 동안 <춘향전>과 <취교전>의 주제를 비교·토의해서 5분 내 발표하게 한 후 교사가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춘향전>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p> <p>- 다음 수업을 위한 과제 제시: <춘향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고 옴.</p>
4차 수업 (소요 시간: 3시간/ 180분)	<p>- <춘향전> 영화(1961, 홍성기 감독)를 관람하면서 <춘향전> 내용을 재확인하고 사건 전개에 있어서 소설 <춘향전>과 영화 <춘향전>의 다른 점에 대하여 토의함.</p> <p>- 교사를 중심으로 종합적 토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춘향전> 교수·학습 내용을 재확인하고 수정 보완함.</p>
수업	- <춘향전>에 대한 교수·학습한 것은 어떻게 내면화되었는지

후	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문 과제를 수행하게 함. -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감문 쓰기, 학습자와의 심층면담 실시
---	---

표11: H대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수업

표11에 제시된 H대학교의 수업은 T대학교에서 실시한 수업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교육제재에 있어서는 <열녀춘향수절가> 전문 대신에 중요한 대목들을 중심으로 한 축약본을 제공했다. T대학교에서 실시한 실제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춘향전> 전문 읽기가 부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진과 그림을 많이 활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업 절차에 있어서도 강독을 하는 대신에 학습자가 스스로 작품을 읽어 올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수업시간을 절약하고 중요한 대목을 집중적으로 강독할 필요성을 살피기 위해서이다.

네 번째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영화 <춘향전>(홍기성, 1961)을 소설 <춘향전>과 대조하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했다. 이 활동을 추가한 이유는 글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사회를 영화를 통해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감상 및 토의 후 교사는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그것을 스스로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³⁶⁷⁾

2) 효과 분석

365) 필자가 <춘향전>의 등장인물과 주제의 이해에 중요한 대목들을 유지하면서 요약한 축약본이다.

366) 나은정(2015), 앞의 논문에서 제시된 시각자료를 재정리하여 사용하였다.

367) 토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공통된 의미에 도달하도록 하기보다는, 스키마를 최대한 활성화하여 설득력 있는 다양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 혹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수업관찰 자료와 학습자의 비평문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배경, 서사구조, 등장인물, 주제 측면에서 <취교전>과의 비교·토의 활동이 <춘향전>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작품 이해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춘향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취교전>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서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켰다.

교사: <춘향전>은 언제 창작되었습니까?

학생: 19세기에요.

교사: 네, <춘향전>은 17세기 이후 형성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우리가 배우는 <열녀춘향수절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 거지요. 그때 사회배경은 어땠어요?

학생:

교사: <취교전>의 취교가 무엇 때문에 기생이 되었을까요?

학생1: 가변 때문에 마감생에게 몸을 팔아 기생이 됐어요.

교사: 네, 그렇지요. 그런데 마감생이 취교를 사서 첩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취교는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요?

학생2: 취교가 경국의 미인이라서 그녀를 사서 남자 손님을 대접하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계산해서 그녀를 속여서 청류로 사들였습니다.

교사: 하지만 취교는 죽음을 무릅쓰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항거했는데 결국 어떻게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을까요?

학생3: 초경이 취교를 속여서 수파가 취교의 손님 대접을 강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교사: 네, 그렇지요. 그런데 초경은 무엇 때문에 취교를 속였을까요?

학생4: 돈 때문이지요. 그는 수파의 30량을 받았는데요.

교사: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박파가 절에 가오면서 각연 스님과 안면이 있는데 왜 취교를 속여서 청루로 팔았을까요?

학생5: 아, 그것도 돈 때문이에요. 취교가 예뻐서 청루로 그녀를 팔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어요.

교사: 네, 맞습니다. 결국 취교는 돈을 탐욕하는 사람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으로 몰려 넣었지요. 마찬가지로, 춘향도 비극적인 삶으로 몰려 넣었으며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학생1: 신분 차이예요.

교사: 네~ 춘향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학생1: 춘향이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춘향이 기생 역할을 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기생이라서 기생 취급을 받아요.

교사: 그러니까?

학생1: 그러니까 이몽룡의 불러움을 당하고 이몽룡과의 헤어짐을 당하고 변학도로부터 수청 요구를 받았어요.

(T-A)

위의 수업 담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춘향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했다. 그렇지만 <취교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습자는 <춘향전>에 나타난 사회배경이 어떤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수업 담화를 더 살펴보자.

교사: <춘향전>의 서사구조가 어떻게 구성될까요?

학생1: 춘향이 이몽룡을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교사: 아, 그러네요. 그럼, <취교전>에서 취교와 김중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학생1: 아, 만남 - 결연 - 이별 - 고난 - 대단원으로 전개됩니다.

교사: 네, 그렇지요. 그런데 취교가 김중을 어떻게 만났어요?

학생2: 동생들과 봄나들이를 갔다가 오는 길에서 만났어요.

교사: 그래서요?

학생3: 서로 반했어요.

교사: 아, 그러네요. 그럼, 둘이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학생4: 김중이 취교가 빠뜨린 비너를 돌려주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교사: 그런데 왜 이별해야 했지요?

학생4: 아버지와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마감생에게 몸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교사: 네, 가난 때문에 취교가 아버지와 남동생을 살릴 300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감생의 첩이 됐지요. 그런데 취교 집안이 화를 당했을 때 김중은 어디 있었어요?

학생5: 아, 맞아요. 작은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김중이 취교와 헤어져야 했어요.

교사: 네, 그러면 김중과 헤어진 후 취교가 고난을 당했지요.

학생들: 네~

교사: 그런데 취교의 고난은 마감생의 첩이 된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학생들: 아니에요. 그거 고난의 시작이에요.

교사: 그러면 취교가 어떤 고난을 더 만났을까요?

학생6: 취교가 청루에 팔려서 기생이 됐어요.

교사: 아~ 네, 그럼 기생 노릇을 감내했어요?

학생6: 아니에요. 기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결 시도도 했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교사: 네, 그랬지요. 취교가 늘 닦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이러한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결국 살아남아 가족들과 옛 애인인 김중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춘향의 경우는 어떨까요?

학생7: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춘향과 이몽룡이 광한루에서

만나서 서로 반했어요. 그날 밤 이몽룡이 춘향 집에 가서 백년가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승진해서 상경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이몽룡의 아버지가 상경한 후 변학도가 도입해서 춘향에게 수청 요구를 했어요. 춘향이 거절해서 하옥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몽룡이 장원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돼서 남원으로 내려가서 춘향을 구출했어요.

교사: 네, 그러네요. <춘향전>의 서사구조가 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이몽룡이 상경하는 바람에 둘이 헤어진 이별, 새로 도입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수난, 어사가 된 이몽룡으로부터 구출되어서 정렬부인이 된 행복한 결말로 전개되었지요.

학생들: 네~

(H-A)

위의 수업 담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생1은 서사구조를 춘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취교전>의 여주인공과 관련된 질문들로 자극을 주자 학생들은 <취교전>의 서사구조에 대한 지식을 <춘향전> 서사구조의 이해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자유로이 펼쳤다.

교사: 춘향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학생1: 이몽룡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아, 그렇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나요?

학생2: 그리고 변학도가 춘향을 기생으로 취급해서 그래요.

교사: 춘향이 기생이 아니에요?

학생3: 기생 신분이지만 기생이 아니에요.

교사: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학생3: 왜냐하면 기생을 하지 않아서요.

교사: 아, 그러네요. 그런데 <취교전>에서 15년만에 다시 만난 김중이 취교에게 부부로 결합하자고 청했는데 왜 취교는 응하지 않았을까요?

학생 전체:

교사: 취교가 김중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학생4: 김중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사: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학생4: 김중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요.

교사: 정조를 잃어서 부끄러워해요?

학생4: 네, 여러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으니까요.

교사: 아, 그랬겠지요. 그런데 왜 취교가 이런 말을 했지요? “보잘것없이 남은 정절이기는 해도/ 굳게 지키지 않고서 짓밟아 부수어서야 하겠어요.

학생5: 취교가 말한 정절이 봉건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 생각했던 정절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사: 어떻게 달라요?

학생5: 여자가 남자 한명에게만 충성해야 한다고 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예요.

교사: 그러면 김중과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게 취교가 바라는 행복이 아니예요?

학생5: 물론이지요. 그런데 김중에게 미안해서 당당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교사: 아, 그렇군요. 취교가 정절에 대해서 자기와 갈등을 빚었네요. 그런데 춘향이 어떨까요? 무엇 때문에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학생6: 아, 춘향이 이몽룡을 위한 수절을 하기 위해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취교와 마찬가지로 춘향이 생각하는 수절도 수절에 대한 구식 관념과 달라요.

교사: 어떻게 달라요?

학생6: 춘향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절 관념에 맞춰서 수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절 관념을 이용해서 자기 사랑을 보호하도록 했어요.

교사: 아, 그러네요.

(H-A)

위의 수업 담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처음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춘향이 변학도의 수절 요구를 거절한 것은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또는 변학도가 춘향을 기생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취교전>에서 15년 만에 다시 만난 김중이 취교에게 부부로 결합하자고 청했을 때 그녀가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르게 답하였다. <취교전>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춘향의 수절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한 학습자들은 춘향이 변학도의 수절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해명하였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자기의 배경지식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2) 소집단 중심의 비교·토의를 통한 의미 구성

학습자의 능동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집단 중심의 토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소집단 중심의 비교·토의가 수업의 핵심이 된다. 이 활동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형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춘향전>과 <취교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공통된 의미를 도모하고 자신의 문학적 시야를 넓혀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소집단 중심의 비교·토의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담화 자료를 살펴보자.

- 학생1: 내 생각에는 춘향전과 취교전은 신분을 차별하고 기생을 경멸했던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같은 점이다.
- 학생2: 취교전에 비하면 춘향전에서는 신분 차별을 더 분명히 보여주었어. 취교전에서 취교의 신분은 그녀의 생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 학생3: 영향을 안 주었다고? 내 생각에는 취교의 신분은 그녀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을 걸. 그녀의 기생 신분 때문에 속옹이 청루에 돌려보내도록 관아에 신고했잖아.
- 학생4: 아, 그렇지. 기생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취교는 가혹한 매질을 감내했지.
- 학생5: 이 점은 춘향과 비슷하지? 춘향도 변학도에게 기생으로서 수청 드는 것을 거절하고 가혹한 매질을 받았지.
- 학생1: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신분 차별 외에는 두 작품의 사회 배경이 달라.
- 학생3: 그렇다. 춘향전에서 신분제도의 불합리를 강조해. 춘향은 이몽룡과 이별해야 하고 변학도로부터 수청 강요를 당하고 매를 맞고 하옥을 당한 것은 다 춘향의 기생 신분 때문이야. 취교전에서 응웬주는 부정한 돈의 힘을 강조해. 돈 때문에 취교가 몸을 팔았고 돈 때문에 소경의 속임수를 당했고 박파와 박행도 돈 때문에 취교를 속여서 청루에 팔았어.
- 학생4: 그래. 취교전에서의 사회는 쇠퇴해가는 봉건사회야. 거기서 돈의 힘의 영향이 생활의 방방곡곡에 스며들어 있어.³⁶⁸⁾(H-A-(5))

368) 학습자1: Theo như tờ thì Truyện Xuân Hương và Truyện Kiều đều giống nhau ở chỗ là xã hội phân biệt giai cấp, tầng lớp kĩ nữ bị khinh rẻ.

학습자2: So với Truyện Kiều thì sự phân biệt giai cấp ở Truyện Xuân Hương thể hiện rõ rệt hơn. Trong Truyện Kiều thân phận của nàng Kiều không ảnh hưởng nhiều đến cuộc sống của nàng.

학습자3: Sao lại không ảnh hưởng? Tờ thấy có ảnh hưởng lớn đến cuộc sống của nàng đấy chứ. Chính vì thân phận kĩ nữ mà Thúc Ông đã cáo quan buộc nàng phải trở về lầu xanh là gì.

학습자4: Ủ, đúng đấy. Để thoát khỏi thân phận kĩ nữ nàng chấp nhận bị phạt đòn đầy thôi.

학습자5: Điểm này giống Xuân Hương nhỉ. Xuân Hương cũng chấp nhận bị tra tấn chứ không chịu hầu hạ Biền Học Đạo dưới thân phận là kĩ nữ.

위의 담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습자2는 학습자1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학습자3은 학습자2의 의견을 반론하면서 논증을 제시해서 동료학습자들이 자기의 의견에 찬성하도록 설득했다. 학습자4는 학습자3의 의견을 찬성하면서 구체화된 내용을 추가했다. 학습자5는 학습자4와 찬성한다는 의사를 보여주면서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다가 학습자1은 새로 발견하는 것처럼 두 작품의 사회 배경이 다르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학습자3은 <춘향전>의 신분제도와 <취교전>의 돈의 힘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 의견을 구체화했다. 학습자4는 학습자3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를 보면 학습자들이 비교·토의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두 작품의 사회배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과 취교의 생각과 이몽룡과 서해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들어보자.

- 1)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대하여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취교와 연관지어 토의해 보십시오.
- 2) 광한루에서 처음으로 춘향을 봤던 이몽룡과 춘향과의 이별 후 이몽룡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서해와 연관지어 논의해보십시오.

학생1: 내 생각에는 춘향과 취교의 사랑과 혼인에 대한 생각이 대체로 비슷해. 둘이 다 자유연애를 원하고 자기의 행복을

학습자1: Nhưng mà tớ thấy ngoài điểm phân biệt giai cấp ra thì hoàn cảnh xã hội của hai tác phẩm khác nhau.

학습자3: Đúng đấy. Truyện Xuân Hương nhấn mạnh đến sự bất hợp lý của chế độ phân biệt giai cấp. Xuân Hương phải chia tay Lí Mộng Long, bị Biên Học Đạo ép hầu hạ, bị đánh đòn và tống ngục là vì Xuân Hương có thân phận là kĩ nữ. Ở Truyện Kiều Nguyễn Du nhấn mạnh đến sức mạnh của đồng tiền. Kiều phải bán mình cũng là vì tiền, Kiều bị Sở Khanh lừa cũng là vì tiền, Bạc Bà Bạc Hạnh lừa bán Kiều vào lầu xanh cũng là vì tiền.

학습자4: Đúng vậy. Xã hội trong Truyện Kiều là một xã hội phong kiến mục nát, nơi đồng tiền ngự trị mọi ngóc ngách của đời sống. (H-A-⑤의 원문)

주동적으로 추구해.

학생2: 나도 그렇게 생각해. 춘향과 취교의 사랑과 혼인에 대한 생각에 비슷한 점이 많아. 시작한 사람이 이몽룡이지만 춘향이 이몽룡에게 간 것은 그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비롯했어. 재자와 가인이 만나는 것처럼. 취교의 경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속으로는 서로 반했지만 얼굴에는 아직은 걱정스러운 빛이 감도네(tình trong như đã mặt ngoài còn e)"라고 하잖아.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부터 김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 "우연히 그를 만난 것은 어떤 일일까?/ 모르겠네, 백년의 인연이 있어서일까?(Người đâu gặp gỡ làm chi, Trăm năm biết có duyên gì hay không?)".

학생3: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녀들이 연애를 할 때 아주 능동적으로 해. 그런데도 다른 점이 있어. 춘향은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했어. 그런데 취교는 "언젠가 제가 은혜에 보답할 날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còn thân ấy sẽ đền bồi có khi)"라는 이유로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자 했잖아.

학생4: 그래도 다른 것이 아니야. 처음 만났을 때이지만 춘향과 이몽룡이 혼약을 맺었고 춘향의 어머니 앞에서 진행했잖아.

학생5: 그래, 그래. 그건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격식으로 행했을 뿐이야. 그리고 마감생에게 정조를 유린당했을 땐 취교가 김중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잖아.

학생3: 그렇지만 나는 취교가 언약을 맺었을 때 김중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중이 그녀를 존경하고 끝까지 그녀를 찾아내고 싶었다고 생각해. 김중은 "[차라리]패인사관(掛印辭官)하고,/천수(千水)라도 건너고 만산(萬山)이라도 넘고자 하네./간과(干戈) 밀집한 속에 몸을 던지려네./생사를 무릅쓰더라도 행여 서로 만날 수만 있다면(Ráp mong treo ấn từ quan, Mấy sông cũng lội mấy ngàn cũng qua. Dẫn mình trong áng can qua, Vào sinh ra

từ họa là thấy nhau)"라고 생각했잖아.

학생1: 물론 정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춘향과 취교가 다르게 생각하지만 사랑과 혼인에 대한 생각이 똑같지 않아? 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바라잖아.

학생3: 그래, 그 점에는 똑같네.

(T-A-①)

위의 토의 담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교·토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 간의 의견 차이가 많이 좁혀지게 되었다. 취교와의 비교를 통해 춘향의 행동을 잘 이해하게 된 것이다. 학습자3이 춘향과 취교의 차이점을 제시한 것은 학습자4와 학습자5가 춘향이 이몽룡에 몸을 허락한 행동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학습자3은 취교가 끝내 김중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춘향과 다른 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과 취교의 생각이 같다는 학습자1의 의견에 찬성하였다.

제시된 이견이 토의를 통해 합의에 이른 후에는 이몽룡과 서해가 변한 이유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들이 변한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라는 데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춘향과 취교의 사랑 덕분에 이몽룡과 서해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학생1: 내 생각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자기를 개선하도록 하는 점에 이몽룡과 서해가 같은 점을 보여.

학생2: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몽룡은 철없는 도련님이었는데 춘향과 이별한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책임감이 있는 암행어사가 됐어. 이몽룡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합격하고 지방관이 돼서 춘향과 함께 살기를 기원했어. 서해도 원래 도적의 우두머리였는데 취교를 만난

후에 사회의 불공평을 없애는 영웅이 됐어. 서해가 호종현의 속임을 당한 것도 취교에게 행복한 삶을 주고 싶어했기 때문이잖아.

학생3: 그래,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몽룡과 서해가 변한 것은 춘향과 취교에 대한 사랑 때문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싶어 해서 변했어.

학생4: 나도 그렇게 생각해. 취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서해와 함께 살았을 때라고 생각해.

학생5: 나도 그렇게 생각해. 취교의 세 남자 중 취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 사람이 서해라고 생각해.

(H-A-②)

위의 토의 담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습자2는 학습자1의 의견을 구체화하고 학습자3은 학습자2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덧붙여서 보완했다. 학습자4는 학습자3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화제를 살짝 바꾸었는데 학습자5는 그에 호응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덧붙였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소집단 중심의 비교·토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동료학습자들과 잘 협력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논의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펼침과 동시에 동료학습자의 의견을 수용해서 자기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동료학습자의 의견을 구체화했다.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이견의 폭을 좁혔다. <취교전>과의 비교는 학습자의 <춘향전>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해서 활발한 토의 분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춘향전>의 제문제를 파악하는 다양한 방향을 열어주고 학습자의 논의를 풍부화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소집단 중심의 비교·토의 활동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3) 작문과제 수행을 통한 내면화하기

아무리 유용한 지식도 내면화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들이 실생활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습득한 지식을 융통성 있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작문과제 수행을 통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살펴보자.

학습자가 <춘향전>에 깔려있는 신분차별과 기생문화를 잘 인식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했다.

이몽룡은 춘향을 조강지처같이 여긴다고 굳은 약속을 해놓았는데 상경할 때 춘향을 남겨두고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변학도는 춘향이 이몽룡을 위해 수절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춘향에게 수청 들라고 강요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이에 대해 춘향이 기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신분 차별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몽룡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춘향과 결혼하면 그의 가문의 명예가 망가질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 합격하고 관료가 될 꿈을 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변학도는 춘향이 기생과 동등한 신분인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구관을 보내고 신관인 자기에게 수청을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³⁶⁹⁾(T-E-②)

“제 생각에는 그들이 생활의 방방곡곡에 스며들어 있는 신분제도

369) “Hai điều trên đều là hệ quả của sự khác biệt thân phận. Nếu Lý Mộng Long cưới nàng khi còn chưa có gì trong tay, cả 2 người sẽ không thể sống yên ổn, thanh danh của gia đình chàng sẽ chẳng còn. Và chàng cũng không thể mơ đến đỗ đạt làm quan được. Còn Biện Học Đạo vì nàng là con gái kỹ nữ - thân phận cũng chỉ ngang một người kỹ nữ, nên cho rằng nàng sau khi quan huyện cũ rời đi lại quay qua hầu hạ mình là chuyện hiển nhiên.”(T-E-②의 원문)

의식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몽룡과 변학도가 춘향에게 다르게 대해 주었지만 결국 신분제도로 비롯된 것입니다. 이몽룡은 엄격한 신분제도가 자기의 전정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해서 약속을 어기고 그녀를 저버리려고 했습니다. 변학도는 심성이 나쁘고 신분제도를 이용해서 “너 같은 기생무리가 무슨 수절을 하겠느냐”라고 춘향을 경시하고 위협해서 마음대로 자기에게 수청 들라고 강요했습니다. 춘향은 천한 기생신분이니까 관아의 소유물밖에 안 되는 신세입니다.”³⁷⁰⁾(H-E-⑭)

학습자 T-E-②와 학습자 H-E-⑭는 표현을 다르게 하지만 둘 다 이몽룡이 춘향과 헤어지려고 한 이유가 기생신분인 춘향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자기의 앞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변학도가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한 이유는 춘향이 퇴기의 딸이므로 자기의 수청 요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학습자가 신분제도와 기생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습자가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제 생각에는 춘향이 여성으로서 이몽룡을 위한 일편단심을 지키고 퇴기 딸이라서 수청을 들어야 한다는 변학도의 요구를 인정하지 못

370) “Theo em, vì họ sống trong thời đại xưa nơi chế độ thân phận tồn tại mọi góc ngách của đời sống, Lý Mộng Long và Biên Học Đạo dù đối xử khác nhau với Xuân Hương nhưng chung quy cũng vì chế độ thân phận. Lý Mộng Long sợ những khắc nghiệt của chế độ thân phận làm ảnh hưởng đến tiền đồ sự nghiệp mà quên lời thề hẹn bỏ mặc nàng. Biên Học Đạo tâm tính đã xấu xí, dựa vào chế độ thân phận mà coi thường, đây quyền uy hiếp, thoái mái yêu cầu Xuân Hương hầu hạ mình vì “cái loại kĩ nữ nhà mày mà đòi thủ tiết cái gì”. Xuân Hương thân phận thì thấp, còn mang tiếng kĩ nữ như đồ sở hữu của quan mà thôi.”(H-E-⑭의 원문)

해서 그랬습니다. 게다가 춘향은 유부녀입니다. 여성, 특히 동아시아 여성의 일편단심은 예로부터 늘 칭찬을 받아온 덕목입니다.”³⁷¹⁾
(T-E-④)

“춘향이 죽음을 당하더라도 변학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몽룡을 위해 수절하고 “열녀불경이부”의 일편단심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학도가 위력으로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해서 춘향은 끝까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³⁷²⁾
(H-E-⑭)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습자 T-E-④와 학습자 H-E-⑭는 춘향이 이몽룡을 위해 수절을 하기 위해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였다. 학습자 T-E-④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일편단심이 동아시아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요시되어 왔다고 하며, 춘향의 수절이 열녀관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학습자 H-E-⑭ 또한 춘향이 ‘열녀불경이부’라는 원칙에 따라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며 변학도가 위력으로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학습자들은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는 춘향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배웠던 지식과 생활 경험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춘향전>의 등장인물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살펴보

371) “Theo em vì Xuân Hương là phụ nữ, nàng chung thủy một lòng với Lý Mộng Long, nàng không chấp nhận những yêu cầu của Biền Học Đạo chỉ vì nàng là con của kẻ nữ đã giải nghệ thì nàng phải hầu hạ hắn. Chưa kể nàng thì đã là phụ nữ có chồng. Lòng chung thủy của phụ nữ, đặc biệt là phụ nữ Á Đông, từ xưa đến nay vẫn là điều được ca ngợi.”(T-E-④의 원문)

372) “Xuân Hương dù chết cũng không đồng ý yêu cầu của Viên quan mới trước tiên là vì Xuân Hương muốn thủ tiết vì Lý Mộng Long, vì lòng thủy chung son sắt “liệt nữ chỉ thờ một chồng”, thứ hai là vì Viên quan đã dùng bạo lực để ép Xuân Hương đồng ý yêu cầu phục vụ mình nên Xuân Hương kiên quyết không nghe theo.” (H-E-⑭의 원문)

졌다. <춘향전>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학습자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춘향과 이몽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습자가 관심 있는 문제를 관련지어 춘향과 이몽룡의 성격, 행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이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했다.

1. 춘향

- 1)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대하여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취교와 연관지어 논의해 보십시오.
- 2) 춘향은 왜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하였는데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하였습니까? 취교와 연관지어 논의해 보십시오.

2. 이몽룡

- 1) 춘향이 되기 월매의 딸이라고 듣자 방자를 시켜 춘향을 불러오라는 이몽룡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2) 화방작첩으로 인해 앞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춘향과 영영 이별하려는 이몽룡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생과 연관 지어 논의해보십시오.
- 3) 광한루에서 처음으로 춘향을 봤던 이몽룡과 춘향과의 이별 후 이몽룡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서해와 연관 지어 논의해보십시오.

먼저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살펴보자.

“저는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첫째, 그녀는 사랑에 대해서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바치고 그에게만 아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춘향이 한결같은 마음의 여자입니다. 처음 서로 사랑하는 순간부터 이몽룡만 사랑하고 그에게만 아내가 되며, 죽음을 당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음을 결정했습니다.”(T-E-①)³⁷³⁾

373) “Em đồng tình với suy nghĩ của Xuân Hương về tình yêu và hôn nhân. Thứ nhất, nàng có quan điểm rất tiến bộ trong tình yêu, khi yêu là dâng trọn hết mọi thứ cho người mình yêu. Nàng dành trọn tình yêu cho người yêu và muốn trở thành vợ của chỉ một mình chàng mà thôi. Thứ hai, nàng là một người phụ nữ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대하여 완전히 찬성한다. 왜냐하면 봉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춘향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은 진보적이다. 그녀는 자기가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은 꼭 혼인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춘향에게는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T-E-⑥)

“춘향의 생각과 찬성합니다. 사회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 신분제도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기생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문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날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몽룡이 그 선입견에 신경쓰지 않고 춘향을 사랑합니다. 그런 남자가 춘향의 한결같은 마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한편, 사랑에 대한 진보적인 춘향의 생각은 칭찬할 만합니다. 사랑하면 결혼합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남자를 찾을 수 있으면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여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³⁷⁴⁾ (H-E-②)

“저는 춘향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봉건사회에서 살지만 춘향은 현대적인 여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분 차별이나 지위의 차이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무릅쓰고 늘 그 사람만 생각하고 향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귀한

chung thủy. Tuy mới chỉ yêu nhau nhưng nàng đã xác định kiếp này chỉ yêu chàng, chỉ trở thành vợ chàng. Dù phải chết cũng không chịu khuất phục, không thay lòng đổi dạ.” (T-E-①의 원문)

374) “Em đồng tình với suy nghĩ của Xuân Hương. Bởi lẽ xét về mặt xã hội, lúc bấy giờ, chế độ thân phận đang được coi trọng, việc một người quý tộc lấy một kẻ con nhà kĩ nữ là hoàn toàn là một quyết định mạo hiểm, nó có thể ảnh hưởng không chỉ tới gia môn mà còn ảnh hưởng tới tiền đồ của bản thân, thế nhưng Lý Mộng Long đã gạt bỏ định kiến ấy và yêu Xuân Hương. Một người con trai như vậy xứng đáng được nhận tình yêu chung thủy từ nàng. Mặt khác, suy nghĩ tiến bộ về tình yêu của Xuân Hương cũng rất đáng khen: yêu là cưới, chỉ cần yêu thì mọi thứ khác đều không quan trọng, một khi đã xác định người đàn ông của đời mình là ai thì sẽ không ngần ngại dành mọi điều cho người ấy- một điều mà các cô gái thời đó hiếm ai làm được.” (H-E-②의 원문)

출신이 아니지만 춘향은 도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몸을 허락하면 그 사람에게만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고 자기 인품을 펴하하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³⁷⁵⁾(H-E-⑤)

“그 당시 봉건사회에서 기생인 춘향이 이몽룡과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춘향은 용감하게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몽룡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을 지킵니다. 그러한 생각은 그 당시에 올바르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는 지극히 보통입니다. 평생토록 행복한 혼인을 유지하기에 유일한 조건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춘향이 이몽룡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완전히 찬성합니다.”³⁷⁶⁾(H-E-⑩)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습자는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이 진보적이며 지혜롭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든 학습자가 춘향의 생각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저는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춘향이 계급에 대한 고정관념을 초월해서 사랑

375) “Em đồng tình với suy nghĩ của Xuân Hương. Tuy sống trong xã hội phong kiến, Xuân Hương có quan điểm của một người con gái hiện đại. Nàng không hề ngần ngại cách biệt địa vị hay thân phận. Nếu đã là người mình yêu, thì chỉ luôn hướng về người đấy mà không màng đến khó khăn trắc trở. Hơn nữa, tuy không có xuất thân cao sang, nhưng Xuân Hương là một người hiểu đạo lý. Khi đã trao thân cho ai, nàng quyết không bán rẻ mình, mà chỉ giữ lòng son sắt với người mình yêu.” (H-E-⑤의 원문)

376) “Thời phong kiến trong xã hội thời kì bấy giờ không chấp nhận việc một kĩ nữ như Xuân Hương được quyền trao tình cảm của mình cho một người như Lý Mộng Long. Tuy nhiên, bất chấp những điều như vậy, Xuân Hương vẫn dũng cảm, bất chấp tất cả mọi nguy hiểm gian nan, một lòng một dạ với Lý Mộng Long. Suy nghĩ đó hoàn toàn là không đúng đắn ở thời đó tuy nhiên lại hoàn toàn bình thường với thời hiện nay. Muốn có một cuộc hôn nhân hạnh phúc thì điều duy nhất có thể duy trì điều đó đến suốt cuộc đời của một con người đó chỉ có thể là tình yêu đích thực. Đó cũng là chính là thứ là Xuân Hương trao cho Lý Mộng Long. Do vậy, em hoàn toàn đồng ý với suy nghĩ đó của Xuân Hương về tình yêu và hôn nhân.” (H-E-⑩의 원문)

하는 사람을 기꺼이 기다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강권과 맞싸우고 사회의 선입견을 타파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첫눈에 반한 남자에게 몸을 맡긴 것에 반대합니다. 고난 끝에 이몽룡에게 정조를 주면 더 완벽할 것입니다.”³⁷⁷⁾(H-E-⑪)

“저는 사랑에 대한 춘향의 관점에 찬성합니다. 춘향은 평생토록 한 남편만 섬기고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옥에 갇히고 죽음에 직면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절합니다. (중략) 춘향은 양반관료의 노리개로 여겨지는 기생출신인데도 감히 장관에게 항거했습니다. 춘향에게는 사랑이 양쪽에서 나온 감정입니다. 천한 신분이지만 사랑하는 남자를 얻게 되면 그 남자에게 육체와 마음을 모두 바칩니다. 춘향이 혼례 전에 이몽룡에게 몸을 주는 것은 춘향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데다가 이몽룡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의 사고방식이 훨씬 더 개방적인데도 혼인 전 몸을 주는 것은 아직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남편에게 몸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몽룡이 이후에 반드시 춘향의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지만 찬성하지는 못합니다.”³⁷⁸⁾(H-E-⑫)

377) “Ý kiến của em là nửa đồng tình, nửa phản đối. Đồng tình vì Xuân Hương đã vượt qua định kiến giai cấp, sẵn sàng chờ đợi, chiến đấu cùng người mình yêu chống lại cường quyền, chống lại định kiến xã hội. Nhưng phản đối là vì, khi gặp người con trai tựa như “tiếng sét ái tình” đã vội trao thân gửi phận. Nếu nàng có thể trao trinh tiết cho Lý Mộng Long sau tất cả những biến cố đó, thì câu chuyện sẽ hoàn hảo hơn.” (H-E-⑪)의 원문)

378) “Em tán thành với quan điểm của Xuân Hương về tình yêu. Xuân Hương cho rằng cả cuộc đời của nàng sẽ chỉ có một và chỉ một đời chồng. Nàng quyết thủ tiết hay bị giam ngục, đối mặt với cái chết để giữ tiết trinh với người nàng thương. Trong một xã hội nam thê bảy thiếp là chuyện bình thường, hơn thế Xuân Hương là kỹ nữ, thân phận sinh ra đã là để phục tùng mua vui cho quan lại mà dám đứng lên từ chối quan lớn. Tình yêu với Xuân Hương cũng là cảm xúc đến từ hai phía, dù thân phận thấp kém nhưng một khi nàng đã tìm và trao thân cho một người con trai thì không chỉ tinh thần mà thể xác nàng cũng thuộc về người nàng yêu. Về quan điểm chưa kết hôn nhưng đã trao thân cho người yêu của Xuân Hương em hiểu rằng nàng tin yêu Lý Mộng Long nên mới thế, và cũng vì nàng có tư tưởng rất hiện đại. Nhưng từ suy nghĩ của em, việc trao thân trước khi kết hôn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대하여 반대한다. 춘향이의 사랑은 맹목적인 것 같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결혼하겠다는 공식적인 문서나, 양 부모간의 약속이 있지 않은 사람을 목숨이 내달린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고대시대의 사랑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으로서는 비극을 낳는 사랑이 될 수 있다.”
(H-E-⑱)

학습자 H-E-⑪은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이 학습자는 정절이 여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조를 잘 지켜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몸을 허락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학습자 H-E-⑫ 또한 춘향은 혼례 전에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 사랑하는 사람은 둘 이상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자 H-E-⑬ 또한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반대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다르다. 이 학습자는 사랑을 보장할 만한 증거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라고 하며, 춘향이 이몽룡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변학도의 수청 요구에 저항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렇듯 학습자들은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평가할 때 자신의 생활관, 가치관 등을 투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춘향이 이몽룡에게는 몸을 허락하고 변학도의 수청 요구는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하는 이유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đến thế giới hiện đại bây giờ vẫn đang là vấn đề nóng gây nhiều tranh cãi, dù từ trước mọi người đã thoát hơn rất nhiều. Em nghĩ rằng việc thù tiết đến cuối cùng và trao thân cho người mình gọi là chồng thay vì người yêu thì sẽ càng khẳng định được phẩm giá của Xuân Hương, bởi người yêu thì có thể có nhiều, trong khi chồng chỉ có một. Đầu có gì chắc chắn rằng Lý Mộng Long là chồng của Xuân Hương sau này. Hơn nữa, Xuân Hương về mặt xã hội vẫn mang thân phận là kĩ nữ. Do đó, quan điểm về hôn nhân của Xuân Hương thì em chỉ có thể hiểu cho Xuân Hương chứ không thể tán thành.” (H-E-⑫의 원문)

“춘향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몽룡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몽룡이 자기 현생의 남자임을 확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춘향은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질과 형벌도 무섭지 않을 만큼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는 여자이기에 권력을 이용해서 선민을 억압하는 소인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³⁷⁹⁾(T-E-②)

“이몽룡과 달리, 변학도는 춘향이 청혼을 수락하도록 유혹하거나 위력으로 위협합니다. 변학도는 춘향의 미색을 탐해서 그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한편,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은 양쪽에서 출발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변학도와 이몽룡의 성품 때문입니다. 변학도는 부도덕한 사람이니까 춘향이 그를 연모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³⁸⁰⁾(H-E-⑤)

“춘향이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한 것은 그를 위한 고상하고 정결한 사랑 때문입니다. 반면, 호색하고 부도덕한 변학도는 춘향이 혐오하고 경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변학도에게 몸을 허락하면 당분간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녀가 자기의 자존심과 정조를 꺾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몽룡을 위한 그녀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³⁸¹⁾(H-E-⑦)

379) “Bởi người Xuân Hương yêu là Lý Mộng Long. Nàng xác định rằng Lý Mộng Long chính là người đàn ông kiếp này của cô và muốn dành mọi điều cho chàng, muốn trao cho chàng tất cả. Hơn nữa nàng có quan điểm về tình yêu rất rõ ràng, đó là lòng thủy chung, một lòng một dạ. Một cô gái có ý chí mạnh mẽ hơn cả gông cùm, roi vọt như thế sẽ không bao giờ chịu khuất phục trước kẻ tiểu nhân, dùng quyền lực cưỡng ép dân lành.” (T-E-②의 원문)

380) “Khác với Lý Mộng Long, Biền Học Đạo đối với Xuân Hương không dụ dỗ thì dùng biện pháp đe dọa để có thể cầu hôn nàng. Biền Học Đạo vì đam mê sắc đẹp của Xuân Hương mà muốn có được nàng để hầu hạ mình. Mặt khác, Lý Mộng Long đến với Xuân Hương do tình cảm tự nguyện từ hai bên. Một lý do khác cũng là vì bản chất của Biền Học Đạo và Lý Mộng Long. Biền Học Đạo được coi là kẻ sống không có đạo đức, nên Xuân Hương không có lòng mến mộ cũng là chuyện dễ hiểu.” (H-E-⑤의 원문)

“봉건사회에 살았던 기생신분으로 춘향은 변학도를 비롯한 양반 귀족층의 사람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몽룡을 위한 감정 때문입니다. 이몽룡을 위한 사랑 때문에 춘향은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보기 드문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혼인은 부모가 정해주고 신분이 다르면 서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³⁸²⁾(H-E-⑩)

“왜냐하면 그녀가 한 사람만 사랑했고, 그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여 깊은 교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녀의 마음과 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녀의 사랑에는 제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³⁸³⁾(H-E-⑪)

“제 생각에는 춘향이 자원해서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한 것은 그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한 것은 춘향의 한결같은 마음의 증거이며, 사랑하는 사람

381) “Việc Xuân Hương trao thân cho Lý Mộng Long xuất phát từ tình yêu cao thượng và trong sáng của nàng dành cho chàng. Ngược lại, đối với Biền Học Đạo, một kẻ háo sắc và có đạo đức rề rặt, Xuân Hương chỉ có sự căm ghét và khinh bỉ. Nếu nàng trao thân cho Biền Học Đạo, điều đó đồng nghĩa với việc vì sự bình yên trước mắt, nàng bị khuất phục, đồng ý bán rẻ sự tự tôn và trinh trắng của bản thân, đồng thời hành động đó cũng đã phản bội tình yêu của Lý Mộng Long dành cho nàng.” (H-E-⑦의 원문)

382) “Với thân phận của một kĩ nữ thời phong kiến, Xuân Hương không có quyền lựa chọn, thậm chí là cự tuyệt hầu hạ của bất kì ai ở giới quý tộc nói chung và Biền Học Đạo nói riêng. Tuy nhiên Xuân Hương lại làm điều đó. Đó đơn thuần là vì tình cảm mà Xuân Hương dành cho Lý Mộng Long. Vì tình yêu mà Xuân Hương đã bất chấp tất cả, thậm chí suýt mất cả tính mạng của mình. Đó là một thứ tình cảm mà thời đó vô cùng hiếm có, mọi người hầu như đều được sắp đặt bởi cha mẹ, và nếu khác thân phận thì cũng không thể đến với nhau.” (H-E-⑩의 원문)

383) “Bởi vì, nàng nghĩ rằng nàng chỉ yêu một người và tình yêu đó là sự hòa quyện của cả hai bên. Và người được trao cho tình yêu cũng là người duy nhất có được trái tim cũng như thân xác của nàng. Từ trong lý trí và hành động đã đưa ra kết quả: Không có kẻ thứ ba trong cuộc tình này.” (H-E-⑪의 원문)

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한 것은 감정 면에서나 이성 면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춘향은 이몽룡을 위해 수절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두 사람이 이루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끼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³⁸⁴(H-E-⑩)

“춘향은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의심하지도, 계산하지도 않는 순수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결 같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했습니다.”³⁸⁵(H-E-⑪)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자가 춘향이 이몽룡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완전히 신뢰해서 망설임 없이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했으며 이몽룡에 대한 일편단심을 지키기 위해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했다고 하였다. 학습자 T-E-②는 춘향이 건강한 애정관과 강인한 의지를 소유하고 있기에 위권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자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같은 관점으로 학습자 H-E-⑤는 이몽룡과의 사랑은 자유연애이며 양쪽이 자발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지만 변학도는 부도덕한 자로서 춘향을 굴복시키려고 해서 춘향의 마음

384) “Theo em nghĩ, Xuân Hương tự nguyện trao thân cho Lý Mộng Long là bởi nàng thực sự yêu chàng và chấp nhận trao tất cả cho người mình yêu. Nàng là người chung thủy và việc nàng trao thân càng chứng minh thêm sự chung thủy của nàng, nàng hoàn toàn tin tưởng người yêu. Vậy nên việc nàng từ chối hậu hạ Biền Học Đạo là thuận tình thuận lý, nàng muốn thủ tiết bởi tình yêu là mối quan hệ một với một bình đẳng, nàng không muốn dây dưa với bất người nào khác.” (H ⑩E의 원문)

385) “Vì theo Xuân Hương, đã yêu thì cống hiến hết mình cho tình yêu, nên cô không ngại trao thân cho Lý Mộng Long. Với cô, đó là minh chứng cho tình yêu, một tình yêu không toan tính và ngờ vực. Và Xuân Hương cũng với quan điểm trong tình yêu cần phải chung thủy, một lòng son sắt với người mình yêu, nên cô đã bất chấp cái chết để cự tuyệt lại yêu cầu hậu hạ của Biền Học Đạo.” (H-E-⑪의 원문)

을 얻지 못했다고 보았다.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는 춘향의 행위에 대해서 학습자 H-E-⑦도 학습자 H-E-⑤와 같은 생각이다. 변학도가 호색하고 부도덕해서 춘향은 그를 경멸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학도의 요구에 응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춘향의 자존심과 정절을 훼손시키고 이몽룡을 배반하는 것이기에 춘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학습자 H-E-⑩과 학습자 H-E-⑪은 그러한 행동이 춘향의 진정한 애정관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위의 학습자들과 달리, 이몽룡에 대한 사랑만으로 춘향의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반박하는 학습자도 있다.

“춘향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옛 사회의 신분제도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학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춘향은 영원히 기생 대접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이몽룡을 만날 수 있더라도 그를 대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을 팔아 마감생의 첩이 된 취교도 김중을 그리워할 때 가령 김중을 다시 만날 수 있더라도 정절을 잃은 이 몸은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³⁸⁶⁾(T-E-⑬)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습자 T-E-⑬은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는 춘향의 행위가 봉건사회의 신분제도에 대한 저항 의식에 기반해 있다고 하였다. 마감생의 첩이 된 취교가 김중에 대해 한 생각과 관련지으면서, 춘향도 변학도의 요구에 순응하면 영원히 기생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습자 H-E-⑨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다.

386) “Xuân Hương làm như vậy là thể hiện sự phản kháng lại chế độ thân phận trong xã hội xưa. Nếu nghe theo lời yêu cầu của Biền Học Đồ nàng sẽ mãi mãi bị coi là kỹ nữ, dù có được gặp lại người yêu nàng cũng không còn có thể sánh vai với người yêu nữa. Thúy Kiều khi đã trở thành thiếp của Mã Giám Sinh, nhớ về Kim Trọng cũng đã từng nghĩ rằng mình không thể mong chờ điều gì nữa vì không còn giữ được tấm thân trong sạch.” (T-E-⑬의 원문)

“춘향이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이몽룡과 혼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유일한 남편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변학도에게 수청을 들면 자기가 기생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춘향은 기생의 딸이라면 저절로 기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춘향은 여염집의 처녀처럼 사랑과 혼인에 있어서 자유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더라도 춘향은 기생이 아닌 양민으로서 살고 싶어 합니다. 춘향의 이러한 행동은 취교가 김중과 다시 만났을 때 육체적 관계를 거절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마감생으로 인해 정절을 잃었을 때 취교는 김중에게 몸을 주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 남자에게 몸을 바친 후 김중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은 정절을 지키는 취교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³⁸⁷⁾(H-E-⑨)

학습자 H-E-⑨에 따르면 춘향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이몽룡과 혼인 약속을 하여 그를 남편으로 맞이했으니 이몽룡을 위해 수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춘향은 변학도가 자신을 기생으로 취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여염집의 여자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한다. 춘향의 이

387) “Xuân Hương trao thân cho Lý Mộng Long nhưng lại bất chấp cái chết cự tuyệt lại yêu cầu hầu hạ của Biền Học Đạo vì nàng cho rằng mình và Lý Mộng Long đã thành thân dưới sự chứng kiến của mẹ mình nên nàng cần thủ tiết, chung thủy với một người chồng duy nhất đó là Lý Mộng Long. Ngoài ra, việc hầu hạ Biền Học Đạo là với thân phận của một kĩ nữ mà Xuân Hương lại không chấp nhận cái lẽ đời rằng là con gái của kĩ nữ thì sau khi lớn lên cũng là một kĩ nữ. Cô muốn là một cô gái bình thường như bao người khác có quyền tự do trong tình yêu cũng như trong hôn nhân. Dù người khác không công nhận cô như vậy nhưng Xuân Hương muốn mình sống dưới thân phận của một người dân bình thường chứ không phải là một kĩ nữ. Điều này cũng giống như việc Thúy Kiều từ chối quan hệ thể xác với Kim Trọng khi gặp lại. Mặc dù khi thất thân với Mã Giám Sinh Thúy Kiều đã hối hận về việc không trao thân cho Kim Trọng nhưng sau khi trải qua cuộc sống địa ngục trần gian phải hiến thân cho nhiều đàn ông Thúy Kiều không thể quan hệ thể xác với Kim Trọng được nữa. Có thể coi đây là cách giữ chút trinh tiết còn lại của riêng Thúy Kiều.”(H-E-⑨의 원문)

러한 행동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춘향의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학습자 H-E-⑨는 춘향의 행동을 취교의 행동과 연관지어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학습자 H-E-⑬ 또한 춘향이 혼례식을 정식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허락으로 이몽룡을 남편으로 맞이한 것을 언급하였다. 그렇기에 춘향은 남편인 이몽룡을 위해 일편단심을 지키고자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학습자는 행동의 목적에 주목했을 때 춘향의 행동과 취교의 행동이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춘향은 옛 사회의 도덕적 표준에 따라 사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이몽룡에게 몸을 준 것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으며 이몽룡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한 것은 이몽룡을 위한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춘향의 이러한 행동은 김중과의 육체적 관계를 거절한 취교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취교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김중에 대한 정결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³⁸⁸⁾(H-E-⑬)

한편, 학습자 H-E-⑮는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한 춘향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한다. 춘향의 행동에는 정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춘향이 생각하는 정절은 당대의 통념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위해 지키는 것이다. 이 학습자는 이몽룡을 위해 일편단심을 지키는 춘향의 행동이 그녀가 자의식을 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봉건사회의 신분제도에 반항하는 것이라고 본다.

388) “Xuân Hương là một người phụ nữ sống đúng với khuôn phép đạo đức của xã hội xưa, nàng trao thân cho người yêu là do đã có sự cho phép của mẹ và cũng là để chứng minh cho tình yêu thủy chung với Lý Mộng Long. nàng cự tuyệt hầu hạ Biền học đạo tất cả cũng chỉ vì người yêu, vì chữ tình mà nàng quyết giữ lấy sự trong trắng cho người yêu. Hành động này của Xuân Hương cũng giống như hành động từ chối quan hệ thể xác với Kim Trọng của Thúy Kiều. Lý do Thúy Kiều quyết định như thế là vì muốn giữ mối tình trong trắng đối với Kim Trọng.” (H-E-⑬의 원문)

“왜냐하면 춘향은 정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춘향이 이몽룡을 사랑해서 그에게만 사랑을 주고 평생토록 그를 위해 희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여겨온 기생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몽룡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은 신분제도를 초월해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할 의지를 보여 줍니다.”³⁸⁹⁾(H-E-⑮)

한편, 학습자 H-E-⑮은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한 춘향의 행동에 대해서 학습자 H-E-⑨와 H-E-⑬과 비슷한 생각이지만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한 춘향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한다.

“춘향은 이몽룡을 사랑하고 이몽룡도 월매에게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춘향은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하였다. 춘향은 충실한 여자라서 이몽룡 외에 아무에게도 몸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기생이라서 양반은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양반이기에 당시 정조 관념에 맞춰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하였다.” (H-E-⑮)

춘향 어머니가 기생이기에 천자종모법에 따라 춘향은 기생 신분이지만, 성 참판의 서녀로서 양반을 핏줄을 이어받은 몸이기도 하다. 춘향은 기생의 길 대신 양반의 길에 맞추어 행동하였기에 열녀관을 고수한 것이다. 이는 두 목적을 향한 것이다. 하나는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춘향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여

389) “왜냐하면 춘향은 정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Theo em, Xuân Hương đem lòng yêu Lý Mộng Long, nguyên một đời hi sinh và dành tình cảm chỉ cho chàng mà thôi. Nàng không nghĩ mình phải sống như thân phận con gái của kĩ nữ như người đời coi nàng như vậy. Sự chung thủy phần nào còn thể hiện ý chí vượt lên chế độ thân phận để tìm hạnh phúc cho riêng mình.” (H-E-⑮의 원문)

기서부터는 이몽룡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겠다. 먼저 춘향이 되기 월매의 딸이라고 듣자 방자를 시켜 춘향을 불러오라는 이몽룡의 행동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을 살펴보자.

“이 행동은 처음 이몽룡이 춘향이 기생의 딸임을 알게 돼서 그녀를 가볍게 여긴 것을 보여줍니다. 이몽룡은 신분제도에 대한 그 당시의 사회적 선입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학식이 있는 양반관료의 아들이지만 자기 계층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³⁹⁰⁾(H-E-④)

“이몽룡의 이러한 행동은 변학도처럼 춘향을 탐내고 춘향을 기생으로 여겼던 도련님의 행위일 뿐이다.”(H-E-⑥)

“이몽룡이 춘향을 기생으로 여기고 그녀를 불러온 것은 양반관료의 도련님이 할 수 있는 예삿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가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 특히 춘향과 같은 비천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³⁹¹⁾(H-E-⑨)

“이몽룡은 지위가 높은 양반관료의 아들이어서 학식을 갖추었지만 신분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향이 기생의 딸이라고 들은 몽룡은 춘향에게 아무 짓이나 할 수 있고 만나고 싶으면 당장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춘향의 신분을 경시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³⁹²⁾(H-E-⑬)

390) “Hành động này của Lý Mộng Long cho thấy chàng ban đầu có ý coi thường Xuân Hương khi biết nàng xuất thân là con gái của một kĩ nữ. Lý Mộng Long đã bị ảnh hưởng lớn bởi chế độ thân phận cũng như định kiến của xã hội lúc bấy giờ. Dù chàng là một công tử con quan, có học thức nhưng cũng không tránh khỏi sự ảnh hưởng quá sâu sắc từ giai cấp xã hội.” (H-E-④의 원문)

391) “Lý Mộng Long cho rằng Xuân Hương là con gái của kĩ nữ nên cô cũng là một kĩ nữ và việc chàng gọi Xuân Hương đến là điều bình thường mà mọi công tử con quan có thể làm được. Chàng đang thể hiện mình là người có thân phận cao quý hơn muốn người khác phải phục tùng mệnh lệnh của mình đặc biệt là thân phận thấp hèn như kĩ nữ của Xuân Hương.” (H-E-⑨의 원문)

392) “Chàng Lý là con nhà quan, có quyền cao chức trọng, vì vậy tuy chàng là

“처음에 이몽룡이 춘향의 출신을 알게 돼서 그녀를 경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몽룡은 그때 신분제도에 대한 선입견에 젖어 있었습니다.”³⁹³⁾(H-E-⑮)

“이 행동은 16세 소년인 이몽룡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춘향이 기생의 딸이라고 듣고 그는 자기가 학식이 있으며 고귀한 지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³⁹⁴⁾(H-E-⑰)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습자가 이몽룡이 춘향을 기생으로 보고 업신여겼다고 비판하였다. 학습자 H-E-④는 신분차별 의식이 이몽룡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석한다. 학습자 H-E-⑥, H-E-⑨, H-E-⑬, H-E-⑮, H-E-⑰도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학습자 H-E-④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깊은 논리로 해석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학습자가 이몽룡의 이러한 행동이 신분차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화방작첩이 앞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해서 춘향과 이별하려는 이몽룡의 행위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를 살펴보자.

“이몽룡의 이 행동은 비판을 받을 만하며 춘향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변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춘향과 그녀의 어머니는 신분 차이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이몽

người có học thức nhưng cũng không thể không bị ảnh hưởng bởi chế độ thân phận. Nghe tin Xuân Hương là con của kĩ nữ, trong đầu chàng có lẽ sẽ nghĩ "muốn làm gì Xuân Hương cũng được, muốn gặp là gặp được ngay" hay có thể nói là "khá khinh thường thân phận của xuân hương." (H-E-⑬의 원문)

393) “Theo em hành động này của Lý Mộng Long cho thấy chàng ban đầu có ý coi thường Xuân Hương khi nghe xuất thân của nàng. Lý Mộng Long khi đó, sống với ý niệm về chế độ thân phận.” (H-E-⑮의 원문)

394) “Qua hành động này của Lý Mộng Long, em thấy ở cậu thanh niên 16 này có chút ngạo mạn. Khi nghe Xuân Hương là con gái của kĩ nữ, cậu đã tự đặt mình ở địa vị cao quý, học thức hơn nên mới hành động như vậy.” (H-E-⑰의 원문)

룡은 그녀와 결혼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사랑해서 서로의 곁에 있으면 되고 번고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몽룡은 일이 일어났을 때 슬퍼하기만 했을 뿐이지만 춘향은 매를 맞고 하옥까지 당했습니다. 그는 춘향을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그녀에게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후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고 옥중에 있는 춘향을 구출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줬습니다.”³⁹⁵⁾(T-E-①)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습자 T-E-①은 이몽룡이 세 상일을 잘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만 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학습자 H-E-⑥은 이몽룡이 무책임하고 현실적 능력이 없는 남자라고 보고 있다.

“부친의 승진 소식을 들은 후 이몽룡의 언행에서는 더 이상 춘향과 열정적인 사랑을 즐기던 유쾌한 소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때의 이몽룡은 자기의 전정만 걱정하고 춘향과 그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몽룡은 무책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성숙하고 현실적 능력이 없는 나약한 소년의 모습을 보인다.” (H-E-⑥)

그런데 모든 학습자가 춘향을 남겨두고 혼자 상경하려는 이몽룡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 H-E-⑤와 H-E-⑬과 같

395) “Về hành động này của Lý Mộng Long, em thấy chàng thật đáng trách, và thương cảm cho nàng Xuân Hương. Vì đây không phải một biến cố không thể dự đoán trước. Ngay từ đầu nàng và mẹ đã tỏ rõ sự lo lắng về sự khác biệt thân phận, nhưng chính chàng đã buông lời hứa hẹn, bảo đảm rằng mình sẽ cưới nàng. Chàng có nghiêm túc khi suy nghĩ về tương lai không, hay chỉ nghĩ đơn giản hai người yêu nhau thì cứ ở bên nhau đã, nếu biến cố xảy ra sẽ suy nghĩ sau. Chàng khiến cho nàng yên tâm, nhưng rồi chuyện xảy ra thì chàng chỉ buồn đau về tình thần, còn nàng không chỉ buồn lòng mà còn bị đánh đập, bị tống vào tù. Chàng yêu nàng, nhưng chỉ có tình yêu sẽ không đủ để khiến nàng hạnh phúc trọn vẹn. Thật may rằng về sau chàng đã có gắng học hành thi cử để đỗ đạt, cứu nàng khỏi cảnh tù tội oan uổng và đem lại hạnh phúc cho nàng.” (T-E-①의 원문)

이 다른 시선으로 이몽룡을 보도록 노력한 학습자도 있다.

“사실은 춘향전을 훑어보면 사람들이 이몽룡의 이러한 행동에 찬성하지 않고 그가 물질, 명성을 탐하는 남자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의 디테일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이 행동은 이몽룡의 심리 변화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자는 이몽룡의 형상을 완전히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또한 그의 성격을 상당히 복잡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춘향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그녀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 스며들어있는 계층 의식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몽룡의 행동은 속생의 행동을 연상하게 합니다. 속생은 취교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집에서 취교를 다시 만났을 때 하소연만 했으며 취교에게 도망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생이 비겁하다고 비난하지만 저는 속생의 처지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당대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생은 취교 때문에 가문을 희생하지 못합니다. 이몽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 때문에 가문의 명성을 훼손해서 불효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³⁹⁶⁾
(H-E-⑬)

396) “Thật sự rằng nếu chỉ đọc qua truyện thì mọi người sẽ không đồng tình với hành động này của Lý Mộng Long, cho rằng chàng là người ham danh lợi, vật chất. Tuy nhiên, sau khi nghiên cứu kĩ tình tiết nhân vật thì em lại thấy hành động này là hoàn toàn phù hợp với diễn biến tâm lý nhân vật. Ở đây, tác giả không mỹ hóa hoàn toàn hình tượng Lý công tử, ngòi bút sáng tạo của tác giả đã hướng tới hiện thực. Tính cách nhân vật Lý công tử được khắc họa một cách tương đối sắc nét và phức tạp. Chàng yêu Xuân Hương hết mực, chung thủy với nàng nhưng không tránh khỏi những giây phút dao động, yếu đuối do ý thức hệ của giai cấp đã ăn sâu trong tâm trí chàng. Hành động của hàng Lý làm em liên tưởng đến hành động của Thúc Sinh. Chàng Thúc cũng đã từng hứa sẽ bảo vệ Kiều và đem lại hạnh phúc cho Kiều. Thế nhưng khi gặp Kiều ở nhà Hoạn Thư chàng lại chỉ biết than thở và khuyên Kiều nên cao chạy xa bay. Mọi người cho rằng chàng Thúc đã rất hèn khi làm như thế nhưng em cho rằng phần lớn đang ông thời ấy khi rơi vào hoàn cảnh của Thúc Sinh cũng sẽ làm như thế. Thúc Sinh không thể vì Kiều mà hi sinh gia đình. Chàng Lý cũng thế. Chàng không thể vì Xuân Hương mà hủy hoại thanh danh của dòng tộc và trở thành người con bất hiếu được.”
(H-E-⑬의 원문)

학습자 H-E-⑬은 이몽룡의 그러한 행위가 현실적 상황에 들어 맞는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속생이 취교와 정을 끊고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권유한 행동과 연관된다고 본다. 이몽룡이 춘향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춘향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 아니라고 보지 않고, 양반집의 자제로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학습자 H-E-⑤ 또한 신분 의식을 기반으로 이몽룡의 행위를 변호한다.

“이 행동은 이몽룡이 의리(義理)보다 공명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춘향과 헤어짐은 현실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엄격한 봉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몽룡은 권력을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양반관료의 아들이기에 사회적 선입견을 타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몽룡은 자기와 춘향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과거에 합격해서 춘향에게 일정한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몽룡의 행동은 취교에게 도망가라고 권유한 속생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속생은 자기의 힘으로 더 이상 취교를 보호할 수 없고 취교도 환저의 집에 남아있어 좋을 것이 없기에 그렇게 권유했을 것 같습니다.”³⁹⁷⁾(H-E-⑤)

학습자 H-E-⑤에 따르면 이몽룡은 그런 처지에 놓여있어서 그렇

397) “Hành động này quá thật khiến người ta nghĩ Lý Mộng Long là con người coi trọng công danh hơn là tình nghĩa. Thế nhưng, em cho rằng việc đoạn tuyệt với Xuân Hương là một hành động khá thực tế. Để sống sót trong xã hội phong kiến khắt khe lúc bấy giờ, Lý Mộng Long biết mình không thể cố chấp mà cần phải nỗ lực đạt được quyền lực đứng trên người khác. Đặc biệt khi Lý Mộng Long lại có xuất thân là con nhà quan, việc phá vỡ định kiến lại càng khó khăn hơn. Lý Mộng Long có lẽ biết rằng cách tốt nhất để mình và Xuân Hương được hạnh phúc là đạt được thành công trước, khi đã có chỗ đứng vững mới đường hoàng cho Xuân Hương một danh phận. Hành động của chàng Lý làm em nhớ tới hành động của Thúc Sinh khi chàng khuyên Thúy Kiều bỏ trốn. Có lẽ vì Thúc Sinh không thể bảo vệ Kiều được nữa, Kiều ở lại nhà Hoạn Thư cũng sẽ không hứa hẹn điều gì tốt nên Thúc Sinh đã khuyên Kiều như vậy.” (H-E-⑤의 원문)

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원 부사의 자제로서 이몽룡은 사회의 선입견을 타파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이몽룡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살아남으려면 공명현달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자기의 사랑을 보호할 수 있고 춘향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 H-E-⑤는 이러한 이몽룡의 행동을 속생의 행동과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다.

위의 학습자들과 달리, 학습자 H-E-⑩은 이몽룡이 봉건사회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자 H-E-⑩³⁹⁸⁾은 대장부는 자기의 공명현달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남녀의 사랑을 대장부의 마음에 두어선 안 된다고 본다.

“이몽룡이 봉건사회의 모범생으로서의 남자라면 공명현달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삿일입니다. 남녀의 사랑은 대장부의 머릿속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³⁹⁹⁾(H-E-⑩)

이 외에도 춘향을 남겨두고 혼자 상경한 이몽룡의 행위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한 학습자도 있다.

“가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까봐 춘향과 이별한 것은 이몽룡이 순수한 마음으로 춘향을 사랑하지만 계층의 선입견이 그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몽룡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명망을 망설임 없이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었으면, 춘향이 그를 위해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해서 옥중에서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몽룡을 위한 춘향의 사랑과 의지가 이몽룡에 비해 더욱 강하

398) H-E-⑩은 유일한 남학생으로서 중국학을 전공한 학습자이다. 그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399) “Nếu Lý Mộng Long là một nam nhân chuẩn mực thời phong kiến, thì luôn phải đặt sự nghiệp, sự thăng tiến là điều thường tình, chuyện tình yêu nam nữ không nên đặt trong tâm trí của một đại trượng phu.” (H-E-⑩의 원문)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기생 신분 때문에 신분 상승에 대한 춘향의 갈망과 사랑을 위한 그녀의 투쟁은 이몽룡에 비해서 더 열렬했습니다.”⁴⁰⁰⁾
(H-E-⑫)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습자 H-E-⑫는 이몽룡이 춘향을 남겨두고 혼자 상경하려는 이유가 춘향의 사랑만큼 그의 사랑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학습자는 이몽룡과 춘향의 의지와 성취동기에 주목했다.

다음으로 광한루에서 처음 춘향을 봤던 이몽룡과 춘향과의 이별 후 이몽룡이 어떻게 달라졌고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살펴보자.

“제 생각에 이몽룡이 달라진 이유는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길을 밟으면서 사회의 불공평과 선입견을 깨닫고 의식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한 계층의 편을 들고 관료층의 죄악을 숨김없이 드러내 응징하고 공평한 사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납니다.”⁴⁰¹⁾
(H-E-④)

400) “Hành động chấp nhận ly biệt với Xuân Hương vì lo sợ sẽ ảnh hưởng đến con đường thăng tiến của dòng tộc cho thấy Lý Mộng Long tuy tâm sáng và yêu thương Xuân Hương nhưng ảnh hưởng của giai cấp vẫn còn ảnh hưởng đến suy nghĩ của chàng khá nhiều. Nếu chàng không quan tâm đến người đời suy nghĩ, sẵn sàng vứt bỏ danh vọng để ở bên người thương thì có lẽ Xuân Hương đã không phải chịu khổ trong ngục tối vì từ chối hầu hạ Biện Học Đồ, thù tiết cho chàng Lý. Ở một mức độ nào đó, có thể khẳng định tình yêu của Xuân Hương dành cho Lý Mộng Long lớn hơn nhiều, bản lĩnh của Xuân Hương dám chống lại quan lớn vì tình yêu cũng lớn hơn Lý Mộng Long. Có lẽ lý giải tốt nhất chính là xuất phát điểm của hai người. Với thân phận thấp kém, kĩ nữ, đương nhiên khát vọng thay đổi số phận, vùng lên vì yêu thương của Xuân Hương sẽ lớn hơn Lý Mộng Long.”
(H-E-⑫의 원문)

401) “Theo em lí do Lí Mộng Long đã thay đổi là sau khi đỗ đạt, làm quan, chàng nhận ra vô số những bất công, định kiến trong xã hội và đã có sự thay đổi trong nhận thức. Điều đó được thể hiện qua việc chàng đã đứng về phía nhân dân, những người yếu thế trong xã hội, vạch trần tội ác của tầng lớp quan lại, mong muốn trừng trị tội ác, chống lại chế độ, đem lại công bằng cho xã hội.” (H-E-④의 원문)

“처음 춘향을 만난 이몽룡은 첫눈에 반해서 모든 것을 무릅쓰고 성급하게 감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의 이몽룡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과거에 합격해서 권위를 취득하고 춘향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큰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몽룡이 이렇게 변화한 이유는 춘향의 신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춘향과 이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몽룡은 자기가 성공해서 권위를 얻어야만 고귀한 양반과 비천한 기생의 차이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을 이겨내고 둘의 사랑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⁴⁰²⁾(H-E-⑦)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습자가 광한루에서 처음 춘향을 만났던 이몽룡은 미성숙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했지만 춘향과 헤어진 후 성숙해지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남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습자 H-E-⑦에 의하면 이몽룡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춘향과의 사랑을 지키려면 과거급제를 해야 한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습자 H-E-⑨는 이몽룡이 철없는 도련님에서 좋은 관료로 변화하게 된 것을 다르게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광한루에서 처음 춘향을 만났을 때 이몽룡은 남원 부사의 자제로서 아무 걱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장원 급제한 후 관료가 되어서 백성을 돌볼 책임이 생기고 삶에 대해 많이 깨달아서 더 성숙해진 것이다.

402) “Lý Mộng Long lần đầu gặp Xuân Hương đã trúng tiếng sét ái tình, hạnh phúc, nóng vội, bất chấp tất cả, để cảm xúc chi phối hành động của mình. Ngược lại, Lý Mộng Long sau khi ly biệt lại là người dùng lý trí để điều khiển mình, chàng hạ quyết tâm phải đỗ đạt, phải có quyền lực để sau này có thể trao cho Xuân Hương một cuộc sống hạnh phúc. Có sự thay đổi như vậy là do Lý Mộng Long sau khi chứng kiến sự cay nghiệt từ phía gia đình đối với thân phận của Xuân Hương đã bất đắc dĩ phải đoạn tuyệt với người yêu. Lúc này, chàng cho rằng sẽ chỉ có quyền lực và sự thành công của chàng mới có thể giúp tình yêu của hai người đứng vững và nở hoa trước sự dèm pha của xã hội về khoảng cách thân phận giữa quý tộc cao sang và kỹ nữ thấp hèn.” (H-E-⑦의 원문)

“처음 춘향을 만난 이몽룡은 신임 부사의 아들이자 오만한 젊은 공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춘향과의 이별 후에 이몽룡은 생각이 많이 깊어졌으며,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배려하는 관료가 되었습니다. 이몽룡이 그렇게 변한 이유는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책임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춘향을 만났을 때 그는 어린 도령으로서 걱정할 것이 없고 하인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춘향과의 이별 후에 장원급제해서 조정의 관료가 된 몽룡은 백성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들이 행복하고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더욱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⁴⁰³⁾
(H-E-⑨)

학습자 H-E-⑨와 비슷한 생각으로 학습자 H-E-⑫도 광한루에서 처음 춘향을 만났던 이몽룡은 감정적으로 행동했지만 춘향과 이별한 후 실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사회에 존재하는 불공평한 문제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신분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알게 되어 자기 계급의 불합리를 청산하는 데에 나선다고 해석한다.

“광한루에서 처음 춘향을 만났을 때에 비해서 춘향과의 이별 이후의 이몽룡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 춘향을 만났을 때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조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춘향의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굳은 약속까지 했

403) “Lý Mộng Long khi gặp Xuân Hương lần đầu là chàng Lý con của quan mới về nhậm chức nên tràn đầy tính cách của một chàng công tử trẻ tuổi, hào hoa, ngạo nghễ, muốn thể hiện địa vị của bản thân. Còn sau khi ly biệt với Xuân Hương, Lý Mộng Long là vị quan yêu nước thương dân, trưởng thành trong suy nghĩ. Lý Mộng Long thay đổi như vậy vì chàng ở hai thời điểm khác nhau có những trách nhiệm khác nhau. Khi gặp Xuân Hương lần đầu chàng chỉ là công tử trẻ tuổi, vô lo vô nghĩ, có kẻ hầu người hạ, muốn gì cũng có. Nhưng sau khi chia tay Xuân Hương chàng thì đau trạng nguyên, làm quan phục vụ triều đình nên chàng cần lo nghĩ cho người dân, chăm lo cho người dân cũng như phục vụ người dân để họ được ấm no, hạnh phúc. Hơn nữa, chàng đã trải qua nhiều sự tình trong cuộc sống do đó cũng hiểu cuộc sống hơn, thấy được những khó khăn do đó cũng trưởng thành hơn và biết hành động, suy nghĩ vì người khác.” (H-E-⑨의 원문)

습니다. 춘향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자기 계층의 선입견이 머리 속에 못이 박혀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실제 생활을 체험해보면서 사회에 많은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춘향이 처음 광한루에서 만났을 때 “천하의 호걸이요 세상의 기이한 남자라”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몽룡은 현명한 대처를 통해서 춘향과의 약속을 잘 지켜냈고 더욱더 성숙해졌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계급 차별을 깊이 인식하고 나서 도피하는 대신에 직접 나서서 그 포악과 불공평을 비판하고 없애도록 노력하였습니다.”⁴⁰⁴⁾(H-E-⑫)

위의 학습자들과 달리, 학습자 H-E-⑮는 이몽룡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춘향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한다.

“처음 춘향을 만났을 때 양반관료의 아들로써 이몽룡의 머릿속에는 신분제도, 계급차별, 빈부차별이라는 사회의 선입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춘향의 신분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춘향과의 이별 이후 춘향을 다시 만나기 위해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몽룡이 그렇게 변한 이유는 둘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04) “Khi lần đầu gặp Xuân Hương ở lầu Kwang Han và sau cuộc ly biệt với Xuân Hương, Lý Mộng Long đã thay đổi rất nhiều. Khi mới gặp Xuân Hương, bị choáng ngợp bởi tình yêu rạo rực chàng thể hiện thái độ vội vàng, hấp tấp nóng lòng muốn được thể hiện tình yêu nóng bỏng của mình. Chàng còn chắc nịch thề non hẹn biển sẽ vì tình yêu này mà làm tất cả, để thuyết phục mẹ Xuân Hương. Chàng yêu Xuân Hương chân thành nhưng không tránh khỏi những giây phút dao động, yếu đuối do ý thức hệ của giai cấp đã ăn sâu trong tâm trí. Sau này khi thâm nhập vào cuộc sống thực tế trong xã hội, chàng mới hiểu ra nhiều điều và nhận thấy trong xã hội đang tồn tại quá nhiều bất công. Từ cách hành xử thông minh tài trí của Lý Mộng Long, có thể thấy chàng Lý đã giữ lời hẹn ước với Xuân Hương, đã trưởng thành hơn rất nhiều, đã có thể đủ lòng can đảm để thực sự bảo vệ được người mình yêu, đúng như Xuân Hương cảm nhận về chàng từ buổi đầu gặp gỡ tại lầu Quảng Hàn: “hào kiệt trong thiên hạ, đáng nam nhi kì lạ trong chốn nhân gian”. Sau khi giác ngộ về sự phân biệt giai cấp, thay vì chạy trốn thì chàng đã trực tiếp vạch trần, tố cáo, phản đối, mong trừng trị cái ác, sự tàn bạo, bất công của chính giai cấp mình.” (H-E-⑫의 원문)

떨어져 있으면서도 춘향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쟁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⁴⁰⁵⁾ (H-E-⑮)

학습자 H-E-⑮에 의하면 처음 춘향을 만났을 때 이몽룡은 남원 부사의 자제로서 신분차별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춘향과 이별한 후에는 춘향을 다시 만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이몽룡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춘향과의 사랑 때문이다. 춘향과 떨어져 있지만 춘향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었기에 몽룡이 과거에 급제한 것은 그의 미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춘향전>의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를 살펴보자. 학습자들이 <춘향전>의 주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했다.

1.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취교전>의 취교와 김중의 사랑 이야기와 연관 지어 논의해 보십시오.
2. 춘향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취교의 일생과 연관 지어 논의해 보십시오.

먼저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살펴보자.

405) “Lần đầu tiên gặp Xuân Hương Lý Mộng Long là công tử con quan, trong đầu chàng ngập tràn tư tưởng mà xã hội chàng sống reo rắc mỗi ngày, đó là: chế độ thân phận, sự phân biệt giai cấp, giàu nghèo. Chàng khi đó còn bồng bột nên đã coi thường khi nghe đến thân phận của Xuân Hương. Nhưng sau khi ly biệt Xuân Hương, chàng đã nỗ lực học tập thi cử để đạt làm quan để có ngày quay trở về gặp lại Xuân Hương. Em nghĩ Lý Mộng Long đã thay đổi như vậy nhờ vào tình yêu của 2 người. Xa cách rồi, những tình yêu vẫn ở đó, trở thành nguồn động lực giúp chàng nỗ lực cố gắng đấu tranh không chỉ vì tương lai mà còn vì hạnh phúc của bản thân.” (H-E-⑮의 원문)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을 통해서 신분차이를 초월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무릅쓴 여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신분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동시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갈망을 표현합니다.”⁴⁰⁶⁾ (T-E-②)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과 자유의 추구를 방해하는 신분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되찾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어 신분제도를 타파하는 원동력인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절과 정욕에 대한 새롭고 진보적인 관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⁴⁰⁷⁾ (H-E-④)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에 방해가 되었던 신분제도를 고발합니다. 두 번째,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겨내고 모든 고통을 견뎌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신분제도를 타파하는 데에 힘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춘향전은 또한 정절에 대한 새롭고 진보적인 관념을 나타냅니다.”⁴⁰⁸⁾ (H-E-⑮)

406) “Truyện Xuân Hương thông qua tình yêu giữa Xuân Hương và Lý Mộng Long muốn ca ngợi tình yêu nam nữ vượt lên sự khác biệt giai cấp, ca ngợi tình yêu son sắt thủy chung của người con gái bất chấp mọi gian khó thử thách chỉ một lòng hướng về người mình yêu. Thông qua tình yêu giữa Xuân Hương và Lý Mộng Long, truyện Xuân hương muốn phản ánh thực trạng chế độ thân phận thời trước đem tới khổ đau cho con người, nhất là người phụ nữ. Đồng thời nói lên khát vọng hướng tới hạnh phúc của con người.” (T-E-②의 원문)

407) “Qua tình yêu giữa Xuân Hương và Lý Mộng Long, Truyện Xuân Hương muốn nói lên 3 điều sau. Một là phê phán chế độ thân phận, đã ngăn cản con người tìm kiếm sự tự do, tình yêu của cuộc đời mình. Hai là ca ngợi tình yêu đôi lứa, trở thành động lực giúp con người tìm lại bản thân mình, chịu đựng những khổ đau, đứng lên chống lại chế độ thân phận trong xã hội. Ba là thể hiện tư tưởng mới, quan điểm tiến bộ về vấn đề trinh tiết, tình dục.”(H-E-④의 원문)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신분 벽을 뛰어넘은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신분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정절과 정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춘향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살펴보자.

“춘향의 인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중요한 것은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춘향은 천한 기생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완강하게 투쟁했습니다. 결국 천한 기생신분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렬부인에도 봉해졌습니다.”⁴⁰⁹⁾ (H-E-⑩)

“춘향의 인생은 독자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 번째, 춘향 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잘 지켜내면 진정한 사랑을 찾아낼 수 있으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분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비

408) “Theo em, thông qua tình yêu giữa Xuân Hương và Lý Mông Long, Truyện Xuân Hương muốn nói lên 3 điều sau. Thứ nhất là lên án chế độ thân phận, đã ngăn cản người ta sống một cuộc đời tự do, hạnh phúc. Thứ hai là ca ngợi tình yêu đôi lứa vượt lên trên sự khác biệt về thân phận. Chính tình yêu đó đã giúp họ thay đổi tích cực, giúp họ vượt lên chính bản thân mình, vượt qua mọi khổ đau và hoàn thiện bản thân mỗi ngày để chống lại chế độ thân phận vì hạnh phúc của mình. Thứ ba, truyện còn phản ánh tư tưởng mới, quan điểm tiến bộ về vấn đề trình tiết của người phụ nữ.” (H-E-⑩의 원문)

409) “Từ câu chuyện cuộc đời của Xuân Hương, điều mà em nhận ra rằng cần phải sống cho bản thân chứ không phải cho ai khác. Cho dù chúng ta có sinh ra trong một gia đình nghèo khó hay giàu có thì điều đó cũng không quan trọng mà quan trọng hơn đó chính là tư thế sống. Mặc dù Xuân Hương sinh ra với thân phận kỹ nữ thấp hèn nhưng nàng đã đấu tranh ngoan cường để có thể sống cuộc sống mình mong ước. Kết quả là nàng không chỉ thoát khỏi thân phận thấp hèn mà còn được phong là liệt nữ phu nhân.” (H-E-⑩의 원문)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신분을 가지더라도 운명에 따르지 않고 늘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구별’이 언제나 틀린 것은 아니므로 더불어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춘향이 어머니처럼 남다른 품격을 숨긴 채 살았다면 사회는 개혁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녀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⁴¹⁰⁾ (H-E-⑫)

“춘향의 인생을 통해서 노력한 만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춘향이 되기 월매의 딸로서 이몽룡과 만나서 그의 사랑을 받게 되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짧은 행복에 불과했습니다. 이몽룡과의 이별 이후 춘향은 죽음밖에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더 이상 행복을 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녀는 원만한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돌아온 이몽룡에 의해 옥중에서 구출되고 정렬부인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⁴¹¹⁾ (H-E-⑮)

410) “Cuộc đời của Xuân Hương để lại cho người đọc rất nhiều bài học chiêm nghiệm. Thứ nhất nếu cứ giữ tâm sáng, chung thủy như Xuân Hương thì sẽ tìm được tình yêu đích thực, sẽ có sức mạnh để vượt qua khó khăn, để lại được hạnh phúc bên người mình yêu. Thứ hai, không ai được chọn sinh ra với thân phận như thế nào, cũng không ai thích chọn thân phận thấp kém, nhưng dù là thân phận như thế nào, chỉ cần không tuân theo định mệnh và luôn nỗ lực không ngừng vươn lên thì sẽ có được hạnh phúc. Thứ ba, sự “khác biệt” không phải lúc nào cũng sai, hãy luôn để bản thân hòa hợp chứ không hòa tan. Nếu Xuân Hương chấp nhận cuộc sống như mẹ nàng cũng như giấu đi những phẩm chất khác thường đáng quý của nàng thì sẽ không bao giờ xã hội biến đổi và cũng không bao giờ có thể đạt được hạnh phúc.” (H-E-⑫의 원문)

411) “Từ cuộc đời của Xuân Hương, em nhận thấy rằng, chúng ta rồi sẽ nhận được hạnh phúc xứng đáng với nỗ lực chúng ta bỏ ra. Xuân Hương con kĩ nữ đã giải nghệ, được gặp và yêu Lý Mộng Long, tưởng chừng hạnh phúc đầy nhưng cũng chỉ là hạnh phúc ngắn ngủi. Sau khi từ biệt Lý Mộng Long nàng đã bị rơi vào tình cảnh chỉ còn có thể chọn lấy cái chết để thủ tiết với chàng. Ta tưởng rằng nàng sẽ không thể có được hạnh phúc nữa. Nhưng cuối cùng lại có kết thúc viên mãn khi được Lý Mộng Long đỡ đạt làm quan quay trở về cứu nàng từ ngục ra và được phong là Trinh Liệt Phu Nhân. Chỉ cần có niềm tin và không ngừng cố gắng, dù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생활관, 가치관으로 <춘향전>의 주제를 읽었다. 그들은 춘향의 일생에서 보이는 생활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자신들의 생활관을 정립하였다. 물론 등장인물과 주제 등을 제대로 분석 및 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습자들이 인지 주체가 되어 교사와 다른 동료 학습자들과 대화하고 주어진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도록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소략하고 주관적이지만 학습자들은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작품을 이해하도록 노력했으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면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문제점과 보완 방안

(1) 교육 제재의 측면

T대학교에서 실시한 실제 수업에서는 학습자에게 <열녀춘향수절가> 전문을 제공하고 베트남어 번역본과 대조하여 읽을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번역본만 읽었는데, 이는 분량이 많아서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였다.

“한국어로 된 텍스트인데 분량이 많아서 보기만 해도 싫증이 나요. 안 읽고 싶어요. 그래서 번역본만 읽었어요.” (T-B-⑧)

“학습 내용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많이 활용했다면 더 재미있었을 거예요. 한국어로 된 긴 텍스트만 읽기가 어려우니 내용 관련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넣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 동영상이나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T-D-②③)

khó khăn đến đâu, nhất định sẽ vượt qua được để đến với hạnh phúc.”(H-E-⑮의 원문)

H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험 수업에서는 <열녀춘향수절가> 전문 대신에 중요한 대목을 중심으로 요약한 축약본을 주요 교재로 삼았다. 그런데 이 역시 분량이 많고 낯선 표현과 문법이 많아서 잘 읽히지 않았다는 반응이 있었다.

“요약본이지만 분량이 아직 많고 낯선 표현과 문법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원본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읽어봤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H-B-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공해서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주신 춘향전 원본을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낯선 표현과 문법이 많아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번역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엔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베트남어 번역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을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본 전체보다 중요한 대목을 중심으로 한 요약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요약본보다 분량이 더 적은 요약본이요.”
(H-B-⑧)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습자가 아무리 한국어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춘향전> 전문을 제대로 읽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요한 대목을 중심으로 적당한 분량의 요약본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인물의 성격, 행동, 심리의 이해에 중요한 부분을 살리면서 간결하게 요약한 축약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낯선 단어와 표현에 대해 주석을 달아 설명하고, 강독 시 교사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춘향전> 내용 이해를 위해 서사 전개에 따라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편집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H대학교에서 실시한 실제

수업에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게 하였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림을 보면서 관련된 장면을 서술하는 활동이 참 재미있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춘향전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H-B-⑤)

“이 활동이 춘향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었어요. 작자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H-D-⑱)

학습자 H-D-⑱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림을 보고 자기 말로 장면을 재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기 나름의 서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활동을 제대로 구성하면 문학수업에 흥미를 가져다줄 수 있다.

<춘향전>을 각색한 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학습자의 작품 이해와 감상에 큰 도움이 된다. 학습자들은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 한국인의 의식주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감독의 이야기 재구성 방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H대학교에서 실시한 실제 수업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영화 <춘향전>을 시청하게 했는데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화를 보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많이 알게 됐어요. 특히 의식주문화요.”(H-D-㉓)

“영화 춘향전에서 소설 춘향전과 다르게 전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영화 보는 게 재미있었고 작품의 이해에 도움도 됐어요.”(H-D-④)

위의 학습자가 말한 바와 같이 <춘향전> 수업에 영화 <춘향전>

을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수업 절차

대부분 학습자들이 작품 강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베트남어 번역본을 통해 내용을 다 이해했지만 한국어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어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낱선 단어와 문법이 많아서 혼자 읽으면 흥미를 쉽게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강독해주니까 더 쉽게 이해되었고 재미있었어요. 서사구조를 따라 중요한 대목을 강독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T-D-⑧)

학습자T-D-⑧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학 수업은 텍스트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는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한편 실제 수업을 들은 학습자들은 모두 역할극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역할극 제작이 재미있고 자신들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작품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서사단락 재구성 활동 후에 역할극 활동을 하면 재미있고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역할극을 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더 깊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T-D-⑭)

“역할극 활동이 있으면 더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역할극을 하면 작품에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H-D-⑱)

위와 같은 응답을 통해 학습자가 작품 이해를 넘어 예술적 감상 능력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작품의 서사구조를 비교·토의한 후 별도의 활동으로 역할극을 만들어 촬영하고 공유하여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역할극을 만들기 전에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서사 전개를 하는지를 학습자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료 학습자들이 역할극 동영상을 보면서 질문하도록 한 다음에 이를 제작한 학습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는 식으로 토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 잡고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3)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교수·학습 방법에 만족했으나 몇몇 이견이 있었다.

“춘향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중요한 대목을 강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단어와 문법을 설명해주시고 베트남어로 번역도 해주시고요.” (T-B-⑭)

학습자 T-B-⑭에 의하면 수업 전에 <춘향전>의 번역본을 읽어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지만 베트남어로 된 텍스트를 읽으니 <춘향전>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혼자 읽으면 낯선 표현과 문법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흥미도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교사(필자)와 함께 읽으니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설명해주어서 이해가 쉽고 재미있었으며 <춘향전>을

배우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학습자 H-D-㉓은 학습자 T-B-⑭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 학습자는 발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가 문학작품에 더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주장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기에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토론활동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춘향전> 관련 문제를 준비해서 발표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춘향전>에 대한 이해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H-D-㉓)

한편, 불어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한국어를 복수전공하는 학습자 H-D-④는 <춘향전>과 관련된 창작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춘향전>은 서사구조가 복잡하고 재미있는데 그냥 토론보다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부분을 역할극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게 더 재미있을 겁니다.” (H-D-④)

이 학습자는 불어학과에서 문학 수업을 할 때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장면을 역할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하게 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활동이 재미있었고 자신의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을 더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춘향전>의 등장인물과 주제 이해에 중요한 대목들을 발췌해서 강독·번역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중요한 대목들의 강독·번역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의 문학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또한 이야기 재구성 활동과 역할극 활동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문학적 능력 신장을 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영화 시청 및 교사 중심의 종합적 토의 활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화 시청은 한국의 전통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춘향전>을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도 제공해준다. 교사 중심의 종합적 토의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이해하지 못한 점을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는 이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해 가능성을 열어주고 문학적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

(4) 교수·학습 내용의 측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취교전>과의 비교 활동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춘향전>에 친근감을 가지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학습자의 <취교전>에 대한 지식은 <춘향전>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수업은 II장에서 논의한 비교문학 수업의 수준, 다시 말해 유사점과 차이점의 이유를 해명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비교·토의를 위한 교사의 안내 질문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나, 수업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수업은 반드시 본격적인 비교문학 수업의 수준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 학습자들이 <취교전>에 대한 스키마를 활용해서 <춘향전>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한다면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고전문학 수업의 목표로 충분하다고 본다.

작문과제 분석 결과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학습자가 두 작품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이유를 해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기의 생활관, 가치관을 투영해서 등장인물의 성격, 행동, 인생 등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두 작품을 어떻게 연관지어 비교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를 감안하여 작문과제를 다음과 같은 방향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1) 사랑과 혼인에 대한 춘향의 생각에 대하여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취교와 연관지어 논의해 보십시오.

☞ 취교가 여자의 몸임에도 한밤중에 종종걸음으로 아무도 없는 뜰을 건너 김중에게 간 행동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취교의 애정관(사랑에 대한 생각)과 연관지어 춘향의 애정관에 대해서 논의해 보십시오.

- 2) 춘향은 왜 이몽룡에게 몸을 허락하였는데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하였습니까? 취교와 연관지어 논의해 보십시오.

☞ 취교는 마감생으로부터 정조를 유린당했을 때 “몸이 전락(轉落)하는 지경이 될 줄 알았더라면,/도예(桃藥)를 차라리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꺾게 할 걸 것을!(Biết thân đến bước lạc loài/ Nhị đào thà bẻ cho người tình chung)”이라고 말하며 김중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보잘 것 없이 남은 정절(貞節)이기는 해도,/굳게 가지지 않고서 짓밟아 부수어서야 되겠어요?(Chữ trinh còn một chút này/ Chẳng cầm cho vững lại giầy cho tan?)”라고 하며 김중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거절합니다. 춘향도 이몽룡에게는 몸을 허락하였는데 변학도의 수청 요구는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합니다. 취교의 정절관(정절에 대한 생각)과 춘향의 정절관(정절관에 대한 생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취교의 정절관과 연관지어 춘향의 정절관에 대해서 논의해 보십시오.

- 3) 화방작첩으로 인해 앞날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봐 춘향과 이별하려는 이몽룡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생과 연관 지어 논의해보십시오.

☞ 속생은 취교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환저의 집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몽룡도 춘향과 혼인을 약속했지만 화방작첩으로 인해 앞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춘향과 이별하려고 했습니다. 속생의 행동과 이몽룡의 행동의 비슷한 점이 무엇입니까? 속생과 연관지어 이몽룡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논의해 보십시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 II장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해서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을 설계해서 실제 수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춘향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문학의 관점과 스키마의 이론을 도입해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의 목표를 작품의 창작배경 비교를 통한 한·베 전통문화 이해능력 향상, 서사구조 비교를 통한 고전소설의 서사구조의 특성 이해와 서사능력 신장, 인물 비교를 통한 문학적 감수력 신장, 주제 비교를 통한 문학적 비평능력 신장, 이렇게 네 가지의 측면에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에 맞추어서 <춘향전> 수업을 설계해서 실제수업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그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학습자의 <취교전>에 대한 스키마가 <춘향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비교·토의 활동이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춘향전>의 의미 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취교전>과의 비교가 <춘향전>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료학습자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두 작품의 이해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했다. 작문과제의 분석 결과로 학습자가 자신의 생활관, 가치관, 실생활의 경험으로 작중인물과 주제를 읽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교수·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편, 실제수업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 교육제재의 재구성, 시청 자료 활용, 작품 감독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제공, 스키마의 활성화를 통한 작품의 이해, 비교·토의를 통한 문학 능력 신장, 동영상 자료 시청과 교수 중심의 종합적 토의, 작문 과제 수행을 통한 내면화하기의 절차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수업을 설계했다.

V. 결론

본 연구는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해서 고전소설 <춘향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그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 문학의 교육은 여전히 지식 중심, 혹은 교사 중심의 방식이 주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육적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문학의 교육은 과제 중심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과 베트남은 동일한 한문 문화권에 속했던 어문 공동체로, 문화·역사·사회의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학의 교육에 있어서 양국의 비슷한 문학 작품 비교를 통해 동질성과 이질성을 발견하고 그 까닭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한국 문학과 베트남 문학의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교육에서 비교 문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고전소설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제재의 선정이다. 첫째, 한국고전소설 교육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문학 작품은 각각의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정전(canon)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자국 문학 작품은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어 초·중·고등학교의 문학 교육에서 교수·학습되어야 하며, 한국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한국문학사에서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이어야 한다. 둘째, 베트남어로 번역된 작품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번역된 작품 읽기를 통해서 그 작품의 내용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한국문학 작품의 언어적 표현이나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본고에서는 <춘향전>을 한국 고전소설교육의 제재로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II장에서 베트남 학습자 대상의 한국 고전소설 교육의 이론적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또한 비교문학의 관점을 적용한 한국 고전소설 교육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다. 비교문학의 관점이란 서로 다른 나라의 문학 간 비교를 통해 공통성과 특수성을 찾아내고 그 문학 작품들이 창작된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공통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춘향전>과 <취교전>의 창작 배경과 서사구조, 작중 인물, 주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춘향전>의 교육 내용을 제시했다. 먼저 창작 배경의 비교를 위해 근대이행기의 한국과 베트남 사회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조선 시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로 신분에 따른 차별이 극심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 지배계층으로서의 양반은 사회적 특권을 용이하게 누릴 수 있는 반면, 최하급의 피지배계층으로서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예속되어 생활의 자유를 영위할 수 없었다. 천인은 신분이 세습되어 평생 천한 신분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물려주어야만 한다. <춘향전>의 춘향이 재색을 겸비하고도 온갖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비천한 기생 신분에 속하는 까닭이다. 베트남의 경우 18~19세기의 사회 혼란으로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였는데, 특히 최하층의 천민으로 여겨졌던 기생(다오느엉, dào nương, 佻娘) 신분의 여성들이 갖은 고난을 겪은 바 있다. 그들의 불행한 삶은 많은 문학 작품의 제재가 되었는데 <취교전>의 취교가 그러한 기생의 삶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서사구조를 비교하여 <춘향전>과 <취교전>의 서사구조를 만남-이별-수난-재화의 대단위 4개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보면 두 작품이 비슷한 서사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대단위에 내포된 소단위에서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춘향과 취교가 겪은 수난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달리 전개되는 것이다. 춘향의 수난은 변학도와와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취교의 수난은 가난(家難)으로 시작해 계속해서 확장되어 15년간 지속된다.

작중 인물의 면에서 비교하면 여성 주인공, 남성 주인공, 적대적 인물, 조력적 인물이 모두 등장하는 것이 두 작품의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물들의 성격과 인품은 여성 주인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명될 수 있었다. 주제 면에서 비교하면 <춘향전>과 <취교전>은 신의에 기반을 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다는 점, 인간해방을 주장하며 여성의 권리를 짓밟는 봉건사회를 고발한다는 점, 선행선보·악행악보(善行善報惡行惡報)라는 민중의 사상을 표현한 점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IV장에서는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III장에서 도출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수업은 예비 수업과 실제 수업으로 구현되었고, 이때 얻은 수업 관찰 자료, 심층 면담 자료, 소감문, 비평문을 분석하여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효과 검증 후에는 예비 수업과 실제 수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인 <춘향전>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업 관찰 및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교전>에 대한 학습자의 스키마가 <춘향전> 이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교·토의 활동이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춘향전>의 의미 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료 학습자들과의 의견 교환은 두 작품의 이해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소감 및 비평문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활관, 가치관, 실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중인물과 주제를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수·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된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실제 수업 완료 후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교육제재의 재구성, 시청 자료 활용, 작품 강독의 강화 등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취교전>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수업’의 절차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제공’, ‘스키마의 활성화를 통한 작품의 이해’, ‘비교·토의를 통한 문학 능력 신장’, ‘동영상 자료 시청과 교수 중심의 종합적 토의’, ‘작문 과제 수행을 통한 내면화하기’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가 한국 고전소설을 가까이하고 그들의 문학적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문학작품을 능동적으로 이해·해석함으

로써 사고력 및 문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자료>

- 구자균 교주(1976), 『춘향전』, 민중서관.
- 성현경 풀고 읊김(2001), 『옛 그림과 함께 읽는 이고본 춘향전』, 열림원.
- 송성욱 풀어 읊김(2006), 『춘향전』, 민음사.
- Nguyễn Du, 최귀묵 역(2004), 『취교전』, 소명.
- Bae Yang Soo 역(1994), *Truyện Xuân Hương*, Nxb Khoa học Xã hội.
- Nguyễn Thạch Giang 역주(2008), *Truyện Kiều*, Nxb Văn học.
- 2018년 12월 ~ 2019년 2월에 실행한 실제수업에서 수집한 수업관찰 자료, 심층면담 자료, 학습자의 비평문(58편), 소감문(10편)

국내 논저

- 강명관(2009), 『열녀의 탄생』, 돌베개.
- 고시면(2017), 「21세기 노예해방과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바라본 ‘춘향전’(열녀춘향수절가: 완판 84장본)에 나타난 법률문제 등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58, 사법행정학회.
- 공위나(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심청전> 교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정·송지언(2013), 「질문의 생성과 교류를 통한 <춘향전> 수업연구」,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제92차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

- 김동욱(1965), 『춘향전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동욱·김태준·설성경 공저(1983년), 『춘향전비교연구』, 삼영사.
- 김병국, 「춘향전의 문학성에 관한 비평적 접근 시론」, 김병국 외
(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 김석배(2010), 「〈춘향전〉의 형성배경과 남원」,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 김성아, 「EFL 학습자의 문어 담화 이해에 있어 글 내용 스키마와
글 구조 스키마의 사용에 관한 연구」, 『영어교과교
육』 창간호,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 김영희·이대형, 「춘향전 연구사」, 설성경 편(2004), 『춘향전 연구
의 과제와 방향』, 국학자료원.
- 권우행, 「신분상승의 전략적 측면에서 본 춘향」, 설성경 편(2003),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법』, 국학자료원.
- 김종철(1996),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 김종철(1999), 「춘향전 교육의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1, 고
전문학교육학회.
- 김종철(2005), 「정전(正典)으로서의 『춘향전(春香傳)』의 성격」,
『선청어문』 33, 서울대국어교육과.
- 김종철(2005), 「정전(正典)으로서의 춘향전의 성격」, 『선청어
문』 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종철(2017), 「〈춘향전〉과 지리 - 문학교육과 지리교육의 공동
영역의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35, 한국고전문학
교육학회.
- 김종철(2018), 「〈춘향전〉에서의 법과 사랑」, 『고전문학과 교
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1990),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 김학동(1984), 『비교문학론』, 새문사.
- 김혜진(2017),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은정(2015), 「시각자료를 활용한 <춘향전>의 교육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함함(2010), 「춘향전과 서상기의 관계성 연구」, 『인문학연구』 3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박정진·윤준채(2004), 「읽기 수업에서의 질문 들여다보기 - 비판적·창의적 질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2, 한국독서학회.
- 박희병(1986), 「판소리에 나타난 현실의식」,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 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 - 봉건사회 해체기적 특징을 중심으로」, 김병국 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 백상기·김세(1990), 「조선조 암행어사제도 연구(1)」, 『사회과학연구』 10-2,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백상기·김세(1991), 「조선조 암행어사제도 연구(2)」, 『사회과학연구』 11-1,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변지윤(2011),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활성화를 위한 <홍부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보영(2017), 「고전소설 재구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보영(2017), 「영화 <춘향전>의 <춘향전> 수용 양상과 이본으로서의 특징」, 『문학치료연구』 45, 문학치료학회.
- 서은선(2011), 「한중일 문학 작품에 나타난 애정구현의 양상과 의미: <춘향전>, <서상기>, <증근기심중>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훈(1997), 「<춘향전> 주제의식의 역사적 변모양상 - 완판 계열 이본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8, 판소리학회.
- 안성현(2006), 「발문법을 통한 고전소설 교육방안 연구 - <춘향전>의 인물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양민정(2003), 「고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방법」, 『국제지역연구』 7,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양민정(2017), 「춘향전과 군창과 군편의 이야기의 애정담 및 여성 의식 비교 연구」, 『외국문학연구』 6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오수창(2012), 「조선의 통치체제와 춘향전의 역사적 성취」, 『역사비평』 99, 역사비평사.

오수창(2012), 「춘향전에 담긴 일상의 역사현실과 비판의식」, 『진단학보』 114, 진단학회.

왕페이(2013),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방안 연구 - <춘향전>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한용 외(1993), 『소설교육론』, 평민사.

우한용(2009), 「문학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으로서 문학능력의 개념, 교육 방향」, 『문학교육학』 28, 한국문학교육학회.

육청(2005), 「『홍루몽』과의 비교를 통한 『춘향전』 교육 연구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여탁(2009),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 현대문학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6-1, 한국언어문화학회.

윤호병(2005), 『비교문학』, 민음사.

응웬 응옥 궤(2008), 베트남 <쭈엔 끼에우(翹傳)>와 한국 <춘향전>의 여성수난 서사 비교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결(2012), 「<춘향전>과 <서상기> 비교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현(2014), 「외국인의 한국문화 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가치와 학습 방향 -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을 중심으

- 로」, 『문화콘텐츠연구』 17,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이병혁(1974), 「춘향전에 끼친 중국설화의 영향」, 『논문집』 14, 부산공학대학.
- 이삼형(1995), 「스키마 이론과 읽기 지도」, 『한국언어문화』 13, 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상택(1981), 「춘향전 연구」,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 이상택, 「성격을 통해 본 춘향전」, 김병국 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 이원호 외(2014), 「광한루원의 경관변화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2, 한국전통조경학회.
- 이재수(1956), 「한국 소설 발달 단계에 있어서 중국소설의 영향」, 『논문집』 1, 경북대학교.
- 이정원(2013),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방안」, 『한국고전연구』 27, 한국고전연구학회.
- 이지영(2013), 「〈춘향전〉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전문학연구』 44, 한국고전문학회.
- 이현국(2007),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의 신분적 특징과 구조적 기능」,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 이현주(2007),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의 신분적 특징과 구조적 기능」,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 이혜순, 김경미(2002). 『한국의 열녀전』, 월인.
- 장순희(2010),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완판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5, 한국문학학회.
- 정궁식(2016), 「법의 시각에서 춘향전의 독해 시도」,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 정동오(1996),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 춘향의 집 주변 경관과 후원

- 에 관한 고찰」, 『호남문화연구』 2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정래동(1964), 「춘향전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작품들: 서상기, 옥당춘 등」, 『대동문화연구』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정선희(2018),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 정연식(2004), 「춘향전 - 가공의 현실에 투영된 꿈」, 『역사비평』 67, 역사비평사.
- 정출헌(1993), 「춘향전의 인물형상과 작중역할의 현실주의적 성격」, 『판소리 연구』 4, 판소리연구학회.
- 정하영(2003),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 정하영, 「월매의 성격과 기능」, 김병국 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 조광국(2000),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 조광국(2004), 『한국 문화와 기녀』, 월인.
- 조동일, 「춘향전 주제의 새로운 고찰」, 김병국 외(1996),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 주운학(2017), 「혼사장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조선조 애정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증천부(2014),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 <심청전>을 대상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27,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 진은진(2002), 「춘향전의 여성 인물 형상 연구」, 『판소리연구』 14, 판소리학회.
- 전 티 빅 프영(2013), 「베트남 대학 고학년 한국 언어문화 전공 학습자를 위한 <춘향전> 교육 연구 - <춘향전>의 춘향과 <취교전(Truyen Kieu, 翠翹傳)의 취교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6, 한국고전문학교육학

회.

- 최귀묵(2010), 『베트남문학의 이해』, 창비.
- 최지영(2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방안 - <춘향전>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31, 한국중원언어학회.
- 최혜진(2016), 「<춘향전> 인물군의 사회적 성격」, 『한국어와 문화』 20,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축취영(20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연구 : 연암소설과 <유림외사>의 비교·탐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채현(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교육의 한 방법 - 해외 한국 문학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6-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황혜진(2003), 「춘향전과 순정문화를 통해 본 낭만적 사랑의 형성과 변화」, 『국어교육학연구』 17, 국어교육학회.
- 황혜진(2007),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번역서]

- 왕향원(1962), 『比較文學學科新論』, 문대일 역(2011), 『비교문학의 열쇠』, 한국학술정보.
- 최귀묵, 「『취교전상주』를 통해서 본 『취교전』의 면모」, Nguyễn Du, *Truyện Kiều*, 최귀묵 역(2004), 『취교전』, 소명
- Yves Chevreil(1989), *La Littérature comparée*, 박성창 역(2002),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외국어 논저]

- An Chi(2004), Thuyết “intinctivement” của học giả Hoàng Xuân Hãn sẽ làm hồng việc nghiên cứu Truyện Kiều, Nguyễn Quảng Tuân(2004),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 Nxb Văn học.
- Bae Yang Soo(1997), So sánh hệ thống nhân vật trong Truyện Kiều và Xuân Hương truyện, 『외대논총』 16, 부산외국어대학교.
- Bae Yang Soo(2001), So sánh bối cảnh xã hội và văn hóa thời đại Truyện Kiều và Truyện Xuân Hương, 『아시아지역연구』 4,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 Bae Yang Soo(2002), Nguồn gốc đề tài cốt truyện, thể loại và phương thức phản ánh cuộc sống của Truyện Kiều và Truyện Xuân Hương, 『외대논총』 25, 부산외국어대학교.
- Bae Yang Soo(2006), Khuynh hướng dân tộc và khuynh hướng bác học trong ngôn ngữ Truyện Kiều và Truyện Xuân Hương, 『동남아연구』 15-2,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10*, tập 1,2, Nxb Giáo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11*, tập 1,2, Nxb Giáo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12*, tập 1,2, Nxb Giáo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6*, tập 1,2, Nxb Giáo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7*, tập 1,2, Nxb Giáo

-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8*, tập 1,2, Nxb Giáo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Ngữ văn 9*, tập 1,2, Nxb Giáo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Tiếng Việt 1*, tập 1,2, Nxb Giáo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Tiếng Việt 2*, tập 1,2, Nxb Giáo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Tiếng Việt 3*, tập 1,2, Nxb Giáo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Tiếng Việt 4*, tập 1,2, Nxb Giáo dục.
-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2013), *Tiếng Việt 5*, tập 1,2, Nxb Giáo dục.
- Bùi Giáng, Bản ngã cô Kiều,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Bùi Giáng, Kim - Kiều tái hợp,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Bùi Kỳ-Trần Trọng Kim, Nhân vật Truyện Kiều,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Cao Huy Đình, Triết lý đạo Phật trong Truyện Kiều,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Đặng Thai Mai, Đặc sắc của văn học cổ điển Việt Nam qua nội dung Truyện Kiều, Trịnh Bá Đình(2003),

- Nguyễn Du – Tác gia và Tác phẩm*, Nxb Giáo dục.
- Đặng Thanh Lê(1972), *Nguyễn Du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Hà Nội.
- Đặng Thanh Lê(1979), *Truyện Kiều và thể loại truyện nôm*, Nxb Khoa học – Xã hội, Hà Nội.
- Đặng Thanh Lê(1995), *Truyện Kiều và Truyện Xuân Hương từ kiệt tác văn học đến sự kiện văn hóa đời sống của hai dân tộc, Văn học* , Viện Văn học.
- Đặng Văn Kim(2003), *Truyện Kiều và truyền thống văn hóa người Việt trong sự đối sánh với Kim Vân Kiều truyện của Thanh Tâm Tài Nhân*, Luận văn thạc sỹ Đại học Sư phạm tp. Hồ Chí Minh.
- Đào Duy Anh 𠂉(1988), *Thơ chữ Hán Nguyễn Du*, Nxb Văn học.
- Đào Duy Anh(1943), *Khảo luận về Kim Vân Kiều*, Trịnh Bá Đĩnh(2003), *Nguyễn Du – Tác gia và tác phẩm*, Nxb Giáo dục.
- Đào Duy Anh(1974), *Từ điển Truyện Kiều*, Nxb Khoa học Xã hội.
- Đào Nguyên Phổ, Bài tựa Đoạn trường tân thanh,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Đào Thái Tôn(2006), *Nghiên cứu văn bản Truyện Kiều: bản Liễu Văn đường 1871*, Nxb Khoa học Xã hội.
- Đào Thái Tôn, Nhân một bài nhận xét về việc nghiên cứu Truyện Kiều, Đào Thái Tôn(2001), *Văn bản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 Nxb Hội nhà văn.

- Đào Thái Tôn, Thời điểm sáng tác Truyện Kiều và chữ húy trong bản in của Duy Minh Thị 1872,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Đào Thái Tôn, Trả lời bài “Trả lời ...” của Nguyễn Quảng Tuân, Đào Thái Tôn(2001), *Văn bản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 Nxb Hội nhà văn.
- Đỗ Đức Dục(1989), *Về chủ nghĩa hiện thực thời đại Nguyễn Du*, Nxb Văn học.
- Đoàn Thị Anh Đào(2008), Nhân vật ả đào: từ cuộc sống đến thơ văn, Luận văn thạc sỹ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Hoài Thanh, Xã hội phong kiến trong Truyện Kiều,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Hoàng Thị Ngọc Thanh, Người ả đào qua các tư liệu từ thế kỉ XVIII đến giữa thế kỉ XIX, Luận văn thạc sĩ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Nhân văn,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Hoàng Văn Lâu, Cũng là một kiểu "so sánh văn học",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Hoàng Xuân Hãn 𡄇(2016), *Nghiên cứu văn bản Truyện Kiều theo phương pháp Hoàng Xuân Hãn*,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Huỳnh Thúc Kháng, Chánh học cùng tà thuyết có phải là vấn đề quan hệ chung không?,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Kiều Thu Hoạch(2007), *Truyện Nôm Lịch sử phát triển và thi pháp thể loại*, Nxb Giáo dục.
- Kim Yu Ri(2016), Về đẹp người phụ nữ Việt Nam qua nhân vật Thúy Kiều (Truyện Kiều của Nguyễn Du) và về đẹp người phụ nữ Triều Tiên qua nhân vật Sungchunhyang (Truyện Xuân Hương), Luận văn thạc sỹ Viện Hàn lâm Khoa học Việt Nam – Học viện Khoa học Xã hội.
- Lê Đình Kỳ(1970), *Truyện Kiều và chủ nghĩa hiện thực của Nguyễn Du*, Nxb Khoa học Xã hội.
- Lê Thành Lâm(2006), Về thời điểm viết Truyện Kiều, *Hán Nôm*, Viện Hán Nôm.
- Lê Thành Lâm, Lời nói đầu, Hoàng Xuân Hãn 𑂔(2016), *Nghiên cứu văn bản Truyện Kiều theo phương pháp Hoàng Xuân Hãn*,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Lê Trí Viễn(1978), *Lịch sử văn học Việt Nam 3*, Nxb Giáo dục.
- Lê Trí Viễn, Một mối tình đầy ý nghĩa lãng mạn,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Lê Văn Hảo, Vấn đề thời điểm sáng tác Truyện Kiều,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Lưu Trọng Lư, Mấy lời chiêu tuyết cho Vương Thúy Kiều (Góp vào cuộc tranh luận về Truyện Kiều), Trịnh Bá Đĩnh 𑂔(2003), *Nguyễn Du – Tác gia và tác phẩm*, Nxb Giáo dục.
- Lưu Văn Bổng(2001), Văn học so sánh: Lí luận và ứng dụng, Nxb Khoa học Xã hội.

- Ngô văn gia phái, 『皇黎一統志』 Ngô Tất Tố 역(2017), *Hoàng Lê nhất thống chí*, Nxb Văn học.
- Nguyễn Huệ Chi(2013), *Văn học Cổ cận đại Việt Nam – Từ góc nhìn văn hóa đến các mã nghệ thuật*, Nxb Giáo dục.
- Nguyễn Khắc Bảo(2000), Nguyễn Du viết Truyện Kiều khi nào?, *Ngôn ngữ và đời sống* 6, Viện Ngôn ngữ.
- Nguyễn Khắc Phi(2001), Nhân đọc bài “Kim Vân Kiều truyện” của ông Đồng Văn Thành, *Mối quan hệ giữa văn học Việt Nam và văn học Trung Quốc qua cái nhìn so sánh*, Nxb Giáo dục.
- Nguyễn Khắc Viện, Giới thiệu Truyện Kiều, Trịnh Bá Đĩnh(2003), *Nguyễn Du – Tác gia và Tác phẩm*, Nxb Giáo dục.
- Nguyễn Lộc(1994), *Văn học Việt Nam nửa cuối thế kỷ 18 – hết thế kỷ 19*, Nxb Giáo dục.
- Nguyễn Long Châu(1997), *Nhập môn văn học Hàn Quốc*, Nxb Giáo dục.
- Nguyễn Quang Hồng(2008), *Khái luận văn tự học chữ Nôm*, Nxb Giáo dục.
- Nguyễn Quảng Tuân(2005), Những chữ ký húy trong bản Liễu Văn Đường đã giúp tìm ra thời điểm Nguyễn Du viết Truyện Kiều vào năm 1814, *Hồn Việt* 4, Nxb Văn học.
- Nguyễn Quảng Tuân, Kiều Oánh Mậu có phải là kẻ đã làm loạn Truyện Kiều không?, Nguyễn Quảng Tuân(2004),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 Nxb Văn học.
- Nguyễn Quảng Tuân, Một vài nhận xét về việc nghiên cứu

- Truyện Kiều của cố học giả Hoàng Xuân Hãn, Nguyễn Quảng Tuân(2004),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 Nxb Văn học.
- Nguyễn Quảng Tuân, Phương pháp văn bản học thế nào là chân chính (Trả lời ông Vũ Đức Phúc), Nguyễn Quảng Tuân(2004),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 Nxb Văn học.
- Nguyễn Quảng Tuân, Trả lời ông Đào Thái Tôn về bài "Nhân một bài nhận xét về việc nghiên cứu Truyện Kiều", Nguyễn Quảng Tuân(2004),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 Nxb Văn học.
- Nguyễn Tài Cẩn(2002), *Tư liệu Truyện Kiều: Bản Duy Minh Thị 1872*, Nxb Đại học Quốc gia.
- Nguyễn Tài Cẩn(2004), *Tư liệu Truyện Kiều: Từ bản Duy Minh Thị đến bản Kiều Oánh Mậu*, Trung tâm Nghiên cứu Quốc học, Nxb Văn học.
- Nguyễn Tài Cẩn(2005), *Có khả năng Truyện Kiều được sáng tác trước đời Gia Long*, Kiến thức ngày nay 529.
- Nguyễn Thị Sâm, *Người em vườn Thúy*, Trịnh Bá Đình 卬 (2003), *Nguyễn Du – Tác gia và tác phẩm*, Nxb Giáo dục.
- Nguyễn Văn Xung, Mục quản gia, một nhân cách lành mạnh,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à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Phạm Đan Quế(1991), *Truyện Kiều đối chiếu*, Nxb Hà Nội.
- Phạm Đan Quế(2003), *Truyện Kiều trên báo chương thế kỷ 20*, Nxb Thanh niên.
- Phạm Đình Hồ, 『雨中隨筆』, Đông Châu Nguyễn Hữu Tiên 卬 (2012), *Vũ trung tùy bút*, Nxb Trẻ – Nxb Hồng

Bàng.

Phạm Quý Thích, Tổng vịnh Truyện Kiều,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Phạm Quỳnh(1930), Trả lời bài "cảnh cáo các nhà học phiệt"
của Phan Khôi tiên sinh,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Phạm Quỳnh, Bài diễn thuyết bằng quốc văn, Phạm Đan
Quế(2003), Truyện Kiều trên báo chương thế kỉ
XX, Nxb Thanh niên.

Phạm Thế Ngũ, Các nhân vật,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Phạm Thế Ngũ, Trước hay sau khi đi sứ Tàu,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Phạm Tú Châu, Sóng gió bất kỳ từ một bản dịch, *Văn học
Nước ngoài 5*, Viện Văn học.

Phạm Văn Diêu, Tâm lý, tính cách nhân vật Truyện Kiều: Kim
Trọng,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Phạm Văn Hùng(2016), *Tự sự của trình tiết nhân vật liệt nữ
trong văn học Việt Nam trung đại thế kỷ X-XIX*,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Phan Huy Chú, 『歷朝憲章類誌』, Viện Sử học 역(2014), *Lịch
triều hiến chương loại chí*, Nxb Trẻ.

Phan Khôi, Sau khi đọc bài trả lời của Trần Trọng Kim tiên
sinh, cảnh cáo các nhà học phiệt, Lê Xuân

-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Phan Ngọc(1989), *Tìm hiểu phong cách Nguyễn Du trong Truyện Kiều*, Nxb Khoa học Xã hội.
- Phan Thị Thu Hiền 외(2017), *Giáo trình Văn học Hàn Quốc*, Nxb Tổng hợp Tp. HCM.
- Phương Lưu(2002), *Từ văn học so sánh đến thi học so sánh*, Nxb Văn học.
- Quốc Sử quán triều Nguyễn(1886), 『欽定越史通鑑綱目』, Viện Sử học 역(1998), *Khâm định Việt sử thông giám cương mục*, Nxb Giáo dục.
- Rơ-nê Crayxắc, *Truyện Kiều và xã hội Á Đông*,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Thụy Khuê, Học giả Hoàng Xuân Hãn nói về Truyện Kiều, Đào Thái Tôn(2001), *Văn bản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 Nxb Hội nhà văn.
- Tiên Phong Mộng Liên Đường chủ nhân, Bài tựa Truyện Kiều,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Trần Đình Hượu(1995), *Nho giáo và văn học Việt Nam trung đại*, Nxb Văn hóa Thông tin.
- Trần Đình Sử(1999), *Mấy vấn đề về thi pháp văn học trung đại Việt Nam*, Nxb Giáo dục.
- Trần Đình Sử(2007), *Thi pháp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Trần Nho Thìn(2003), *Văn học trung đại Việt Nam dưới góc nhìn văn hóa*, Nxb Giáo dục.
- Trần Thị Bích Phượng(2016), *Phương pháp giảng dạy văn học Hàn Quốc cho sinh viên ngành tiếng Hàn và Hàn*

- Quốc học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của Việt Nam (từ việc dạy thực nghiệm Truyện Xuân Hương), *Nghiên cứu nước ngoài* 32-3,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Trần Thúc Việt(2006), *Văn học Korea (Triều Tiên – Hàn Quốc)*,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 Trương Chính(1963), Nguyễn Du viết Truyện Kiều vào lúc nào?, *Văn học* 6, Viện Văn học.
- Valentin Lý, Ngân Xuyên 역(1992), Truyện Chunhan của Triều Tiên và Truyện Kiều của Nguyễn Du, *Văn học* 2, Viện Văn học.
- Vũ Đức Phúc, Hoàng Xuân Hãn và việc khôi phục nguyên tác Truyện Kiều, Đào Thái Tôn(2001), *Văn bản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 Nxb Hội nhà văn.
- Vũ Đức Phúc, Phương pháp văn bản học chân chính và lỗi làm việc không có phương pháp (Trả lời ông Nguyễn Quảng Tuân), Đào Thái Tôn(2001), *Văn bản Truyện Kiều – Nghiên cứu và thảo luận*, Nxb Hội nhà văn.
- Vũ Hạnh, Đọc lại Truyện Kiều, Trịnh Bá Đình(2003), *Nguyễn Du – Tác gia và tác phẩm*, Nxb Hà Nội.
- Vũ Hạnh, Hai nàng Thúy Kiều,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Vũ Khắc Khoan, Nguyễn Du và tình yêu,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ả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 동문성(1986), 『明清小說論叢』 5-6, Phạm Tú Châu 역, So sánh

Kim Vân Kiều truyện Trung Quốc và Việt Nam,
Lê Xuân Lít(2007), *Hai trăm năm nghiên cứu -
bàn luận Truyện Kiều*, Nxb Giáo dục.

진익원(2001), 『王翠翹古事研究』, Phạm Tú Châu 역(2004), *Nghiên cứu
câu chuyện Vương Thúy Kiều*, Nxb Lao động.

Đặng Thanh Lê, Nguyễn Du với nhân vật Từ Hải,
[http://www.nguyendu.vn/m/vi/nguyen-du-voi-nhan-
-vat-tu-hai-D0841A24970958CD91731CB00F4958
F3.html](http://www.nguyendu.vn/m/vi/nguyen-du-voi-nhan-vat-tu-hai-D0841A24970958CD91731CB00F4958F3.html)(검색 일자: 2019년 5월 1일)

A Study on the Education of <Chunhyangjeon> for Vietnamese Korean Major Learners by Comparing with <Truyen Kieu>

Tran Thi Bich Phu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education methods of <Chunhyangjeon> for Vietnamese Korean major learners by planning the education of a classical novel <Chunhyangjeon> by comparing with <Truyen Kieu>.

Knowledge-centered and teacher-centered teaching method are still the main education aspects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n Vietnamese universities.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problems of this educational reality and to argue that Korean literature education needs to be changed to assignment-centered and learner-centere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Vietnam who belonged to the same circle of Chinese letter culture in terms of cultural·historical·social aspect.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at discovering homogeneity and heterogeneous nature by comparing similar literary works of both countries i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and understanding the reason can improve understanding ability of Korean culture and Vietnamese literature of learners. Based on these premises, this study suggested an education method of <Chunhyangjeon> by comparing with <Truyen Kieu> for Vietnamese learners using comparative literature perspective i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The thing that needs to be considered first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is selecting educational material

appropriate for the level of learners. First, literary work that becomes the comparison target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needs to belong to a representative canon. Meaning, national literature of learners needs to be considered as representative works and be taught·learned in literature education of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and Korean literature needs to be evaluated as the representative works in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s well. Secondly, the literary works need to be translated into Vietnamese. Because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work by reading translated works can help better understanding of linguistic expression or cultural content of Korean literature. According to this standard, this study conducted discussion by selecting <Chunhyangjeon> as the topic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In Chapter II, this study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for Vietnamese learners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lso, this study suggested methods and procedures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that applied a comparative literary point of view. Viewpoint of comparative literature signifies finding commonality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literature of different countries and explaining the commonality and distinct characteristic by investigating politics, economy, history, and culture of the time when the literary works were created.

In Chapter III, this study suggested the story of <Chunhyangje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creation background, narrative structure, characters, and topic of <Chunhyangjeon> and <Truyen Kieu>. First, this study

provided background knowledge for understanding the two works by discuss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Vietnamese society in modern transitional times. The Joseon Dynasty had a rigid caste system that produced many social problems because of severe discrimination by status. Whereas *yangban*(aristocrat) was able to enjoy social privilege as the ruling class, low class could not lead freedom of life because they were under complete control of individual or nation. Also, low class people had to have a humble station in life and pass it to their children as well because their status was hereditary. The reason why Chunhyang in <Chunhyangjeon> had to suffer various hardships even when she was a beautiful and talented woman was because she belonged in a humble status of *gisaeng*(Korean geisha). In Vietnam, people's lives became miserable and painful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because the way of world got disintegrated and compassion and authority got destroyed. Women who lived in this society, Specially women of *gisaeng*(đào nương) status, who were considered as the lowest class of people, had to suffer all kinds of trouble and their lives were not guaranteed at all. In traditional society of Vietnam, Gisaeng was the status who were treated with the biggest contempt among the low classes of people. They were despised by society as people who entertained and provided pleasure to others and were discriminated by law as well. Their unfortunate lives became the topic of many literary works, and the life of đào nương-gisaeng was well reflected through Thuy Kieu in <Truyen Kieu>.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narrative structure of <Chunhyangjeon> and <Truyen Kieu>, this study organized narrative structure of the two literary works into 4

large structures of meeting-parting-suffering-reunion. In this sens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two works have similar narrative structure, bu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erms of small units contained in large structures. The process of ordeal of Chunhyang and Thuy Kieu took place differently because the cause of their ordeal was different. Whereas the ordeal of Chunhyang took place around a confrontation with Byeonhakdo, the ordeal of Thuy Kieu started with her family's disaster and continued on for long 15 years.

Having female main character, male main character, hostile character, and assisting character can be considered as a similarity of the two works. Personality and character of all characters were shown through a relationship with a heroine. If you look in terms of the topic, both <Chunhyangjeon> and <Truyen Kieu> sing the love of men and women based on faith, insist human liberation, express a life philosophy of good deeds and misdeeds followed by appropriate reward and cost, and report a feudal society that tramples on women's right to live.

In Chapter IV, this study set the goal of <Chunhyangjeon> education by comparing with <Truyen Kieu>, and planned a class based on the educational content derived from the preceding chapter. This study intended to realize this through an actual class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Chunhyangjeon> education through a comparison with <Truyen Kieu> by analyzing the data of collected class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data, review, and assignment.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uggested more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of <Chunhyangjeon> by checking and supplementing problems. Lastly, this study designed a <Chunhyangjeon> class by comparing with <Truyen Kieu> of providing education

materials that considered the level of learners, understanding the work through the activation of schema, improving literary ability through comparison and discussion, watching video material, teacher-centered comprehensive discussion, and writing assignment as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suggesting educational content and concrete teaching-learning methods that improve thinking skill and literary ability of Vietnamese learners by becoming familiar with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actively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literary works using their literary background knowledge.

Keywords: literary ability,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Chunhyangjeon>, <Truyen Kieu>, comparative literature, Vietnamese learner, schema, comparison·discussion

Student ID number: 2005-31290